여행을 가서도
편리하고 즐겁게
전화를 걸고 받으려고

나의 해외 여행만
내 휴대폰 내 번호 그대로
SK 텔레콤 국제 자동로밍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자동로밍이란, 국내에서 사용 중인 SK텔레콤 휴대폰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PEED 011 SPEED 010 자동로밍

feminist journal if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2004 여름

할머니의 힘

박영숙 이경호 서울여성노동자회 박영숙 정연희 김애애의

어순자

소어음산행 동행취재

아이기

미드가 만든 남자 값?

고은광순 비례대표 탈락을 분석하다

서영숙 오한숙희 세여자들의 솔직토크

하호가 들려주는 여자이야기

대장금, 페미니즘 드라마의 위대한 탄생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동로밍이란, 국내에서 사용 중인 SK텔레콤 휴대폰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PEED 011 SPEED 010 자동로밍

브라질에서 축구만큼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은

그들의 생활 곳곳에 함께하는 LG전자입니다.
원은 넓어, 비전은 넓어, 축구를 즐기며
그들은 언제나 LG전자와 함께 합니다.
브라질 시장 1위의 DVD플레이어, VCR 에서
PDP, CDMA단말기 등 최신 제품까지.
지금 LG전자 기술로 brasil이 행복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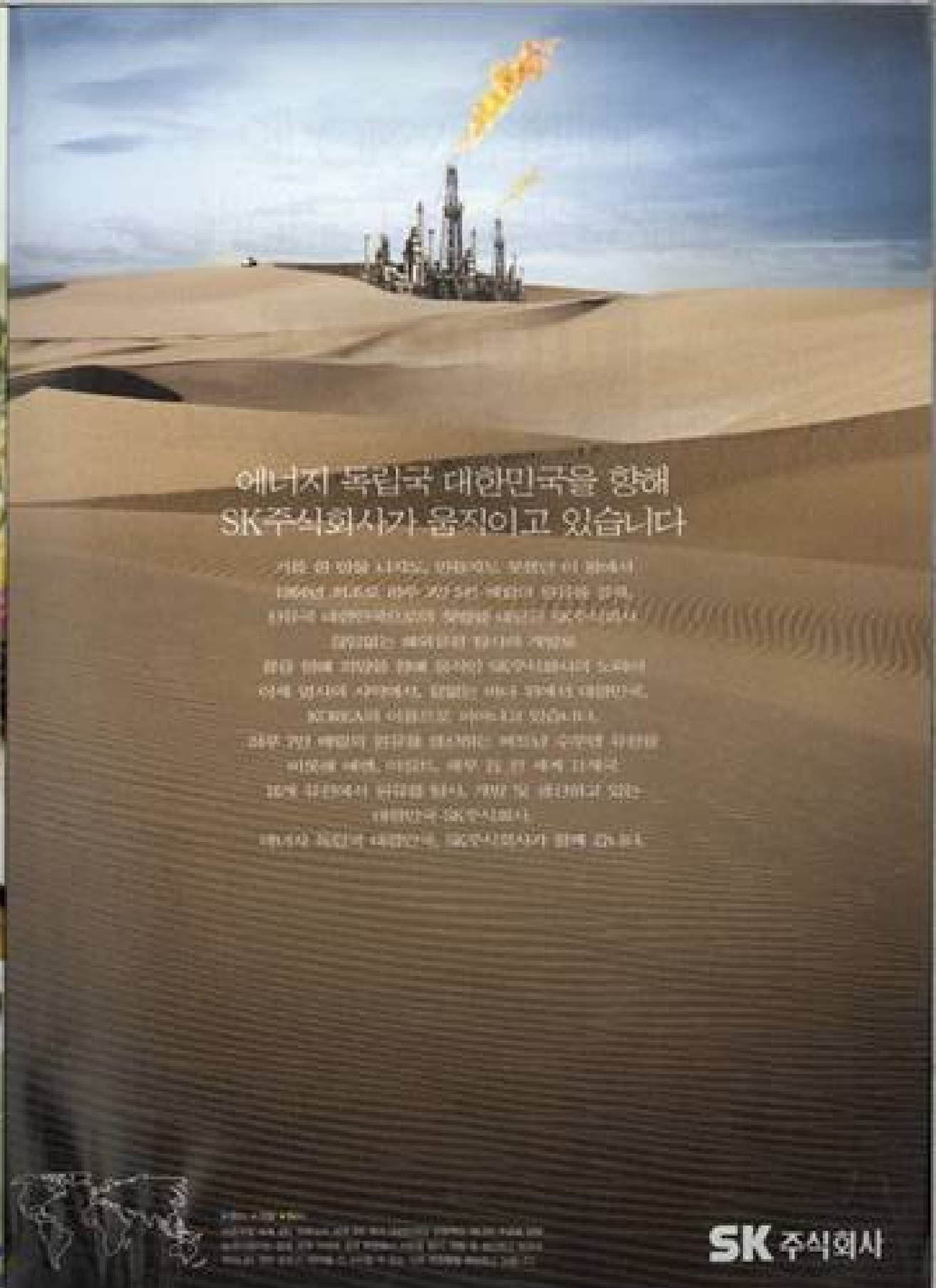
대통령에서 아이까지
그들 모두가 좋아하는 이름 - LG전자

디지털 디스플레이
& 에어컨

LG전자

창업을 축하합니다
삼성의 금융이 힘이 되겠습니다

Family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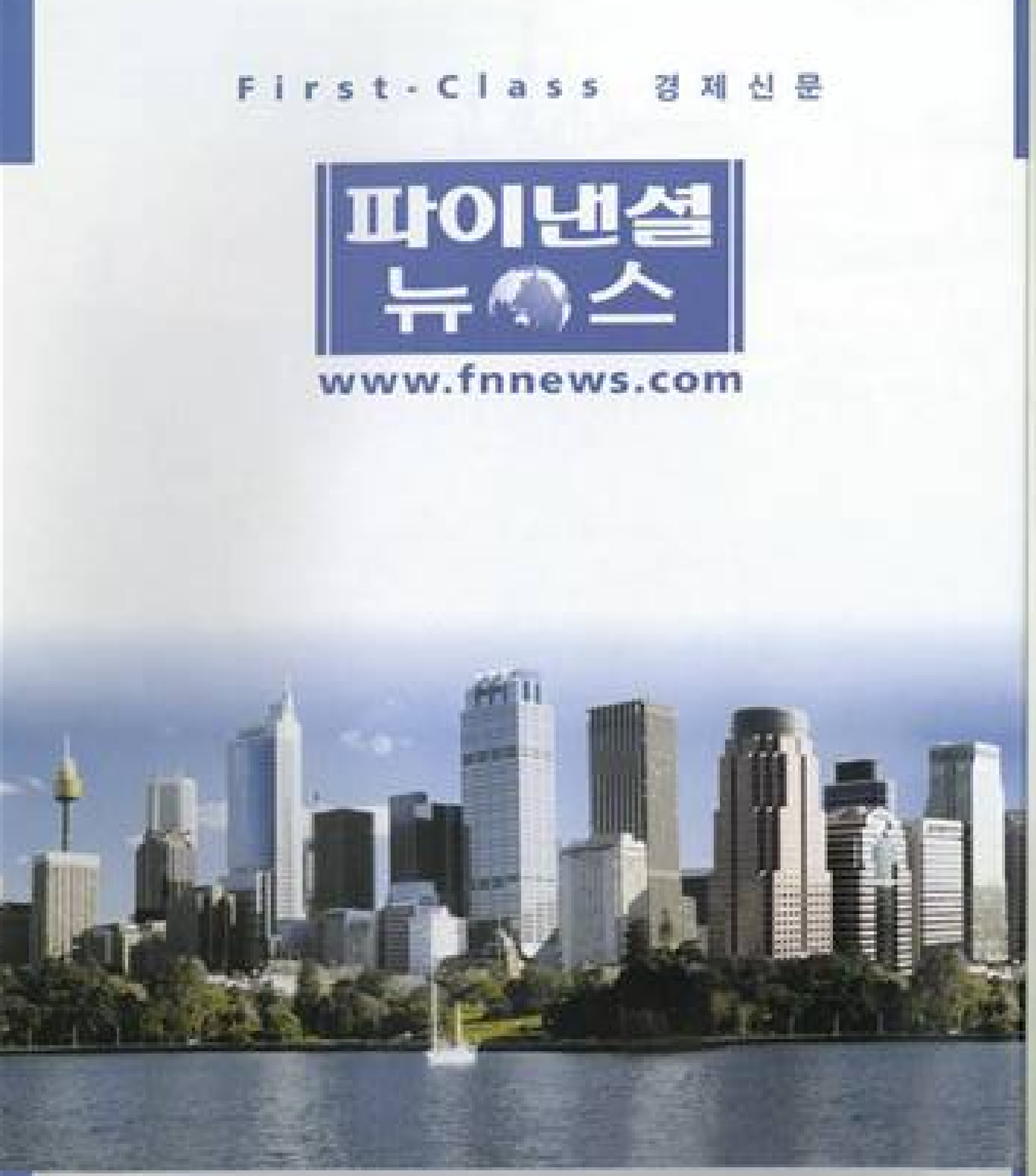
에너지 독립국 대한민국을 향해
SK주식회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주식회사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

www.fnnews.com



●구독신청 02-2002-0112 ●광고문의 02-2003-7444

OK CASHBAG

왜 OK캐쉬백에서 생식을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서랍 누구나 생식을 즐길 수 있도록! OK생식

건강한 세상

OK캐쉬백 건강한 세상 생식 왕대박 대찬치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

!

클릭! 언론과의 진실게임

'언론의 언론', 신문의 신문'
인터넷미디어오늘은 언론계는 물론이고 정치권 국회 등 정관계와 문화계,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홍보업계, 재계단체 등 우리사회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즐겨찾는 사이트의 하나입니다.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교통방송 굿모닝서울 등 주요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조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방송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뉴스, 분석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미디어오늘은 지난 11월 3일 더욱 더 다양한 정보와 기사를 제공 하면서 한국언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미디어오늘 과 함께 차분히 '오늘'을 돌아보십시오.
언론보도에 숨겨진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신문은 매주 수요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구독안내

미디어 전문 사이트 인터넷 '미디어오늘'에는 깊이있고 빨빠른 정보가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구독은 전화 또는 www.mediatoday.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미디어오늘은 매주 수요일 발행되며 구독료는 1년에 52만원 입니다. 1개월에 5000원

■구독문의(미디어오늘 본사영업) : 02)3219-5782
email: park@mediatoday.co.kr

■구독료납부방법
-직접입금 : 예일개발(주)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7501-01-0023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온라인입금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인터넷미디어오늘 배너·광고문의
email: hakim@mediatoday.co.kr

종근당

타우린 1,000mg!
하루의 피로는
박카스로 바로 푸세요!

박카스 한 병에는 타우린 1,000mg, 카르니틴, 비타민 B₁ 등 5종의 비타민이 들어있어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2004 SUMMER

contents

021 이프를 열며

female page
024 여성영화제 통역사 조윤주 인터뷰
026 산골미술관 가꾸는 류준화 프로필
028 제주여성 구술자로 최낸 이산희 탐라여성
030 성인희계발인 서지희 송년회
032 「알나치 섬은 사다리 노래」 여낸 전순옥 소설
034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성 이야기
036 이노리낸 대표 성명숙 송년회
038 인터이스코리아 페스티벌 무대에 선 배인순 후속회
040 「분노의 역루」 여낸 김정란 인터뷰
042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여낸 정대협 연구팀 소개

기획 I 여성정치, 동력을 세워라
044 4 · 15 총선 이후 여성정치인의 전진 인터뷰
048 고은광순 비례대표 탈락을 돌아본 최종진담 송년회

기획 2
064 〈싱글즈 인 서울〉에서 그리는 싱글여성의 삶 리뷰

054 **첫이수 정희** 〈사이리의〉의 저인성 후속회
059 **이프이슈** 여자들을 둘러싼 괴담, 혹은 진실 지역성
068 **초점** 군대 내 성폭력의 현실과 문제구조 성도롱
072 **세계의 페미니스트** 「여머니의 정원을 찾아서」의 엘리스 워커 구성

이프 레이다
076 여성교육진흥사를 아십니까? 작품
300 여성생활사박물관 존폐위기 고발

본 잡지가
좋은 책 선정 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2004 우수학술도서 선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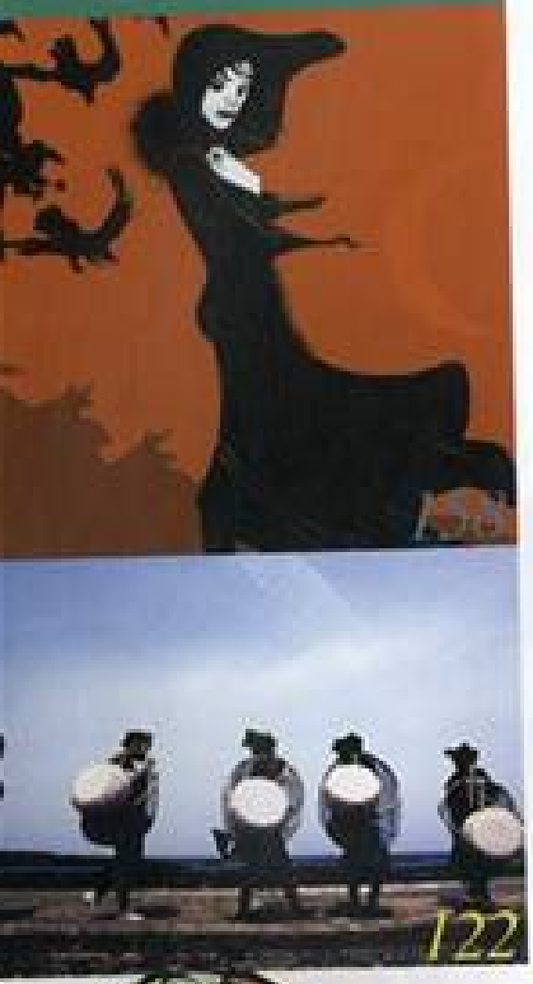
"철이 만드는 즐거운 노래"

철의 노래가 시작 됩니다.
우리들의 즐거움도 커져 갑니다.
철의 노래가 시작 됩니다.
우리들의 기쁨도 커져 갑니다.
아름다운 꿈을 키는 철의 소리.
철은 우리들 곁에 함께하게 됩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if 2004 SUMMER

contents



특집 할머니의 힘

004 시종 할머니의 거이즐을 찾아서

기업 기획 톱매이 인터뷰 "내가 일흔이어서 좋은 이유"
010 서진과 섹스하는 여자 박영숙
014 플로서기의 정수 이정옥
018 일흔 넘은 생리혈이 힘 서옥선
102 종생을 위해 세계에도 여어있다 정덕스님
106 예순아닷에 사랑에 빠진 여자 박영숙
110 단단하고 부드럽고 힘차고 싶싶한 여자 정연희
114 아이디어가 살의 힘 김예에

지혜를 주름잡는 할머니
118 이산의 여신이라 불리는 여자 조미순지
122 바다를 만난다 내 삶이 결정적였다 제주해녀 고이화

할머니 문화탐험
130 "고생이를 맞이 단지지" - 노년의 성과 사랑
136 여자의 한은 담배로 피어오르고
140 독수리 네자매 초여름산행 동행취재
148 환경의 힘, 종이할 때 일회된다

할머니 판타지
152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 한국 설화 속 할머니
158 아무는 보고 철없던 남은 나이, 중국
164 영화 속 할머니 이미지
170 내가 아픈 할머니

2004년
2월 23일부터
소주이동성제도가
실시됩니다!

함께 마시던 친구를 그대로, 드시던 안주 그대로 부드러운 山소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부드러운 山소주 한 병 주세요" 간단하죠?

부드러운 소주 - 신

contents

178 정장업의 트로망 에세이 이정미 주다

182 장애여성 호흐의 책이읽기
"동숙도라이의 주인공이 되어" 김효진

189 패션 인 페이스룸 "행방의 패션 세계로 오세요" 송미

194 입은서 식물인간이 체식술 일절 때 이후

198 인화인터뷰 - 소설가 박정애 장석환을

202 이보기 만난 남자 김C
"여울지 않는 그 고민함에 대하여" 장석환을

210 의료가 들려주는 여자이야기 장도현

216 정희진의 영화읽기
〈송환〉을 여성서로 읽다

222 이름, 세여자들의 출산과의 이혜정

230 자매에는 어떻습니다 등감내기 정희하기 최은혜

236 가상인터뷰 현모양처와 악처의 대화 박정애

농협종신공제와
자유선택공제~
너무 좋아요!
더이상 따질게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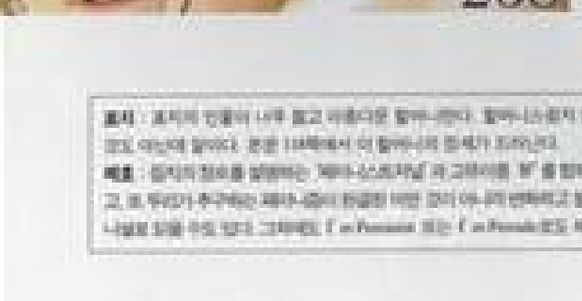
이제, 종신보험과
저축·연금보험은
농협입니다

질높은 다양한 보장! 적정한 공제료! 높은 수익률!
공제료 내는 시기·방법, 공제금 타는 시기·금액까지
자유로 선택하세요!

전국민이 가입합니다
농협생명·농협화재

if 2004 SUMMER

contents



reVIEW

242 game (삼국지) 유승욱

246 advertising (소름 끼침) 이상우

252 tv (심장군의 사실은) 이재

256 music 김동아 차우진

260 music video 이수영의 〈꿈에〉 홍경 이지호기

264 cartoon (할아니의 이야기) 우희

268 김영옥의 이자람식 대장금의 작가 김영현
"시대의 옷을 입은 페미니즘 드라마의 위대한 탄생"

278 현금에서 살아남기
"루저무너, 나도 루엔다" 박초롱

282 해골이의 달나라 통신
"성과 정명 은 최초의 인간, 릴리스" 한혜원

286 수다쟁 시대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294 여자의여행 제 마니 되는지 기억나요 장지연 홍미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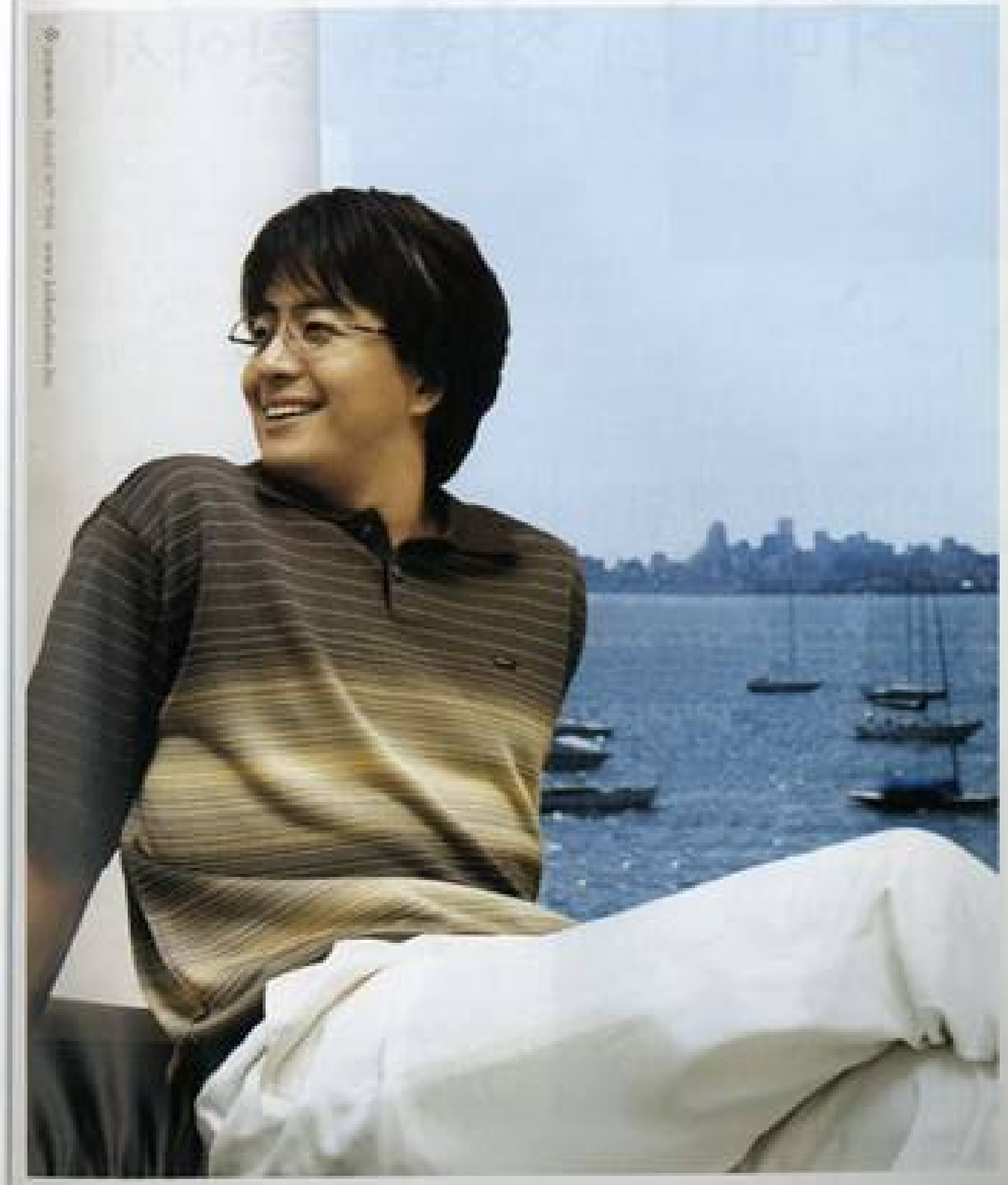
301 이프에게

302 이퍼인드 이프

표지 : 표지의 인물이 너무 젊고 아름다운 할머니인지, 할머니스럽지 않은 할머니라는 말 또한 할머니에 대한 편견 아닌가? 질투의 대상 할머니를 그리면서도 아닌데 싶어서. 혼돈 18학에서 이 할머니의 정체가 드러난다.

제호 : 잡지의 정체를 설명하는 '페미니즘저널'과 고유이름 'if'를 합해서 만들었다. if는 '페미니스트들이 전하는 '라고 가정해본 제목을 이어질 수도 있고, if, 무언가 주구하는 페미니즘이 현실의 이런 모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그리고 함께 상상하지 않는 '페미니즘(affinite feminism)'이라는 이야기에서 나설로 도출 수도 있다. 그리하여, if as Feminist 또는 if as Female로도 해석할 수 있다.

MANSTAR



이프 도서출판 이프
TEL 02-302-6124 FAX 02-302-5155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성자가 아니라 예술가였다.

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 당했던 흑인 여성들, 즉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자신 속에 넘쳐 흐르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표현하고 살았을까. 단지 피부색 때문에 가혹한 조건에 놓였던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힘과 열정과 아름다움을 긍정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앨리스 워커는 사라지거나, 절판되어 느낄 수조차 없었던 우리 어머니들의 예술적 창조성의 원천을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를 통해 온전하게 복원해낸다. 혼잣 꽃들이 다툼 없이 어울려 피어나는 꽃밭처럼 앨리스 워커의 산문들은 애정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음악을 사랑하고, 춤을 사랑하며, 달과 영혼을 사랑함.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투쟁과 갈등을 사랑하며 인습적인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라는 앨리스가 내린 우머니스트의 정의 속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글 모음집이다.

지은이 | 앨리스 워커 옮긴이 | 구준소
값 16,000원 도서출판 이프

어느 할머니의 소리 없는 폭발

몇 년 전 한 영국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2000년 밀레니엄 장노에 전쟁 국제법정 의 증언자로 일할 때, 굳어진 할머니의 증언을 채취한 적이 있다. 일곱 넷의 할머니는 중남의 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영양대해 대평양의 어느 섬에서 폭격을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되었고, 파편이 다리를 관통해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채 50여 년의 세월을 살았던 분이다. 세월의 연상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 분은 세상을 뜨셨다.

몇 날 며칠 배를 타고 도착한 대평양 어느 섬, 군인들을 상대하면서 죽을 음식을 생각해서 차다보았던 분명, 그래도 세끼 먹고 살아내야했던 나날들, 그러나 '일단처럼' 해준 일본 군인의 친절, 그리운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무이나 한 듯 외면하는 이들을 바라 보며 이를 다시 삼켜야으면서 흘렸던 눈물까지, 굳어굳어 사이사 이야기들이 허허로워진 입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러다가 공식 말이 없으시다 싶으면, 할머니는 사무도 할아들이 포함 조상들을 증명거리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과 바늘로 누군가가 떨기고 있을 옷을 깨메고 또 깨맸다. "정신대라는 낙인을 숨긴 채 그가 평생 해왔던 바느질, 자식들 굶기지 않고 공부도 시키고 혼자몸이 지키냈던 숭엄한 모습, 바느질— 이제는 그저 당신 몸 건강하기만 해도 되는데 그는 떨어진 낡아진 옷이 허허다 싶으면 바느질을 해냈다.

세상 사람들은 할머니의 바느질을 일러 자애 중상이라 했다. 그는 늙고 병든 몸과 혼미한 정신을 가진, 세상에서 잊혀진 할머니였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고목 같은 몸으로 누구의 주위도 끌지 않을 작은 몸짓을 하고 있는 그에게서, 자기라는 낱관없이 흘러가버리는 세상을 더 이상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고, 자기의 의지하는 상관없이 흘러가버렸던 시간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소리 없이 폭발하고 있는 어떤 욕구가 느껴져 두려워졌다. 자기에게 닥친 현실이 무엇인지,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하는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공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세상에 대한 과절과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했던 하늘 아래 서서가 갖는 의식들이 총체적 분출.

할머니의 '힘'이라는 특징을 준비하는 내내, 하얀없이 바느질을 하고 있던 그 할머니가 생각났다. 오래에 여자의 할머니는 모든 여자로 살아가야하는 이 기막힌 세상 속에 놓여진 자의 눈물의 힘이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할머니들의 존재감에 감동받고, 만나는 노년의 선배들에게서 세상사는 힘을 받으면서도, 그 끝을, 그 막다른 아래를 눈을 우리가 오래에 가지고는 있는가 묻고 살아온 것이다.

힘들기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만 살지 않을래"라는 말을 되뇌이며, 뿌리가 없는 가지와 같이, 기대글 없이 피눈물 날 수 있는 가지에도 없이 자유로운 에너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돌이켜보면 어머니를 무일해야만 여자가 되었던 우리들의 젊은이 어제 우울하지 않을 수 없었겠는가. 존재감을 상실해버렸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버리는 "여자가—"라는 세상의 말들, 순간의 감정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견디내면서 '다른 여자 가 되고자 했던 우리의 위선들, 여자를 생산병기로 만드는 이 사회에서 소리 없이 폭발하고 있었던 할머니의 세월들, 여자들의 젊은 눈물의 힘이다!

바느질 삶의 사이사이로 흘러내렸을 할머니의 눈물을 다시 만났던 이 여름, 나는 이것만은 알겠다. 할머니가 우리를 낳았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건너왔다는 것을, 나는 이 땅 할머니들의 영원한 딸이라는 것을. ㅁ

김혜리의 편집장

굿바이 미스코리아

Welbe Back

서울여성영화제 홍여시 조용주

여성의 언어로 소통의 길을 안내하다

지난 4월, 올해로 10학 여섯 번째의 한국을 여는 서울여성영화제는, 1997년 남성중심의 척박한 문화 도양에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패기넘치는 기치를 내걸고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 들어 이 영화제는 온전히 여성들의 목소리가 주제로 서는, 행복한 여성문화 한마당으로 거듭 발돋움. 또 그래야만 비로소 여성 진행위원들, 영 계는 세계에서까지 찾아온 여성감독들, 그리고 여성관객들, 이 축제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저면 누구나 스스로의 목소리가 스크린을 통해 어루이지고 보듬어지는 놀라운 소통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NEWS

그 행복한 소동이 한가운데서 중난히 빛을 발했던 분 여성학 입니. 서울여성영화제의 공식 통역사 조용주이 [illegible]. 그는 영화제 내내 진행된 각종 회의와 공식 행사, '점심과의 대화' 시간 등 프로그램의 안과 밖 곳곳을 누비며 가장 바쁘게 뛰어다닌 사람이었다. 여러 보 [illegible] 도주이라도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그가 영화제에 참여했을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커닮은 바로 다섯달이 언어를 하나의 통로로 연결해주는 통역사 특유의 역할과 더불어 그만의 유머한 여성적 표현들이 때문이었다. 그의 유창한 통역이 관객과 감독의 큰 찬든 소통을 이끌었다 해도 그리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십이서 여성 영화제에서의 경험이 소중한 건 통역사로서의 직업적인 역할을 뛰어넘는 진정성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요. 영화제에서의 통역 경험은 [illegible]영화제가 처음이었고 올해 전주영화제에도 참여했지만 '여성영화제는 그 어떤 영화제보다도 관객들과의 소통이 신밀한 영화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통역할 때에 저 역시 단순한 언어 전달 이상의 느낌을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이다 보니 공감의 느낌일까, 그런 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도 있겠죠."

어린 시절부터 12년 동안을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자란 덕에 자연스레 영어를 접할 수 있었다는 그는 자신의 재능에 남다른 행운도 작용했음을 당당하게 말한다. 통역사라는 직업 또한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었고, 다행히도 프리랜서 통역사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보니 성차별적 억압이나 구속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에게서는 긍정적인 사고 작용의 밝은 에너지가 엿보인다.

"처음 여성 영화제에 참여했던 때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영화에 작품 중 레즈비언 섹이에일그룹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 중 감독이 갑간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이렇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영화로 담을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고통과 분노의 힘이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 순간 어린 개인사적 고백에 관객들 모두가 숙연해지고 저 역시 통역을 하면서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나중에 대화 시간을 마치고 한 관객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까지 모두 살린 통역을 해줘서 감사하다구요. 통역사로서의 보람이 느껴지던 순간이었죠. 행복의 기쁘더군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영화제가 다가오는 달이면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화제를 준비한다는 그. 하지만 우리는 매해 여성영화제를 찾아오는 세월이면 어김없이 축제의 궂은 곳을 누비며 관객이나 감독, 혹은 그 모두와의 소통의 길을 안내하느라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김선영

– (유해한 파종)전 개최하는 '임갑'의 류준화

여성들의 따뜻한 숨결, 더 깊은 호흡으로

여기 씨 뿌리는 여성들이 있다. 그들의 주고받은 손길로 부러진 하고 싶은 생명체들은 비스듬하고 너덜한 대지의 자궁에서 안식을 얻고, 자유라 크고 아름다운 꽃이나 알고 단단한 열매, 혹은 푸르고 뿌려 깊은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리더로 어보다 더 아름다는 주제가 또 있을까.

오는 6월 중순, 페이나스도 이미스트 그룹 '임갑'의 풍화의 개은 아름에 들어선 아나리산문예술관에서 개관전으로 선보이는 〈유해한 파종〉전(展)은 바로 그러한 시작과 희망의 여성을 주제는 작업이다. 아름 기획하고

주도하는 '임갑'의 행위이자 문화의 산물이을 주인 유 [illegible] 번째도 첫 번째 문화와 작품을 소개에 전시 [illegible] 이상이 없는 그런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보 았다.

"임갑 아름에 본 아트관이나 생각할 사람도 많으시만 [illegible] 문화에 생활의 일부가 되는 아름관을 만들어고 싶었어요. 서로 아니라는 문화에서도 한점을 일어주어 [illegible] 소통의 작은 아름이지만 그런 순수한 공동체의 [illegible] 있는 곳이고 아름관은 이로이 생무의 녹색능 [illegible]이을도 전정되면서 아름 사업의 일환으로 새워질 고 [illegible]을 주인들에 의해 자식 존재하고 있어요. 이 [illegible] 같은 공간이 있음을 아는 계은님은 그에 아름이는 [illegible] 인물을 만나보고, 그렇다면 이곳을 여성들의 [illegible] 상상력과 필요성이 일어지게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곳'이 생겨도 있는 '임갑'의 힘을 얻어게 된 거죠."

[illegible]에 있어 아니라 아름 주인으로서의 젊은 '임갑' 생 버로서의 삶과 거의 같은 역사을 이는다. 1997년 도시 생활에 회의을 느낀 남편이 몽화로 내려가 농사을 짓겠다 했을 때, 그 역시 작업 활동을 하기에 더 좋은 곳이라는 생각에 조심하셨 했을 테라고 이곳에 자리을 잡았다. 십 계 정착하기 힘들다던 세상과 많이 멀어지는 그곳의 환경들과 가족적 문제기 속에서 갈에 힘에겠고, 남편 또 한 도시에서의 기회 상실을 많은 환을, 아니의 아름이 일 부의 농촌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일을 곳산이 되었다. 이제는 그의 자에

"이주 작업이라는 게 개인적인 상처이 크고 또 제가 바오른 시기에 '임갑' 활동을 시작하면서 서울에 있는 제가 많다 보니 환경의 아름주민과 동화되기는 힘들었어요. 이번 전시 작업이 비오소 내가 아니라아름이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자리잡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는 많아 전 전시 작업의 일환으로 아름의 버스 정류소 작업을 마쳤다. 아니한 시골길의 풍경처럼 정감어린 느낌을 주는 그의 정류소가 완성되자 아름 주민들도 개관 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아름 풍경과 하나가 되는 '임갑'의 작업들은 아름 안내판 제작, 지도 작업, 페이널 제품을 실무작업 등 다양하고 한결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이번 〈유해한 파종〉전은 태중 속으로 들어가는 별 관 아름을 지향해서 시작된 '임갑'의 행보가 더욱 성숙해 져가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전시회을 아름의 신성한 주제도 기획되고 있다는 류준화씨는 앞으로 이 아름관이 하루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부담 없이 들러 갈 수 있는 편안하면 아라일기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고 작작한 세상에 여성들의 따뜻한 온기을 돌아닐 고자 했던 '임갑'의 음생이 이번 전시을 통해 세상과 더 많이 숨쉬는 한층 깊은 호흡으로 부르짖길 바란다. IF

글 · 사진 임선영

– 제주여성 구술자료집 발간 주도한 이선화

제주의 모계를 역사로 잇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여성위원회위원장 1급 공무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될까? 정답은 두 군데. 경상남도와 제주도다. 그중 제주도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여성정책을 실시했고,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제주를 두 마디로, "구술도 안다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동을 외친다. 일제 강점기부

제주여성 구술자료집 발간 주도한 이선화

제주의 모계를 역사로 잇다

제주여성 구술자료집 발간 주도한 이선화

제주여성 구술자료집 발간 주도한 이선화

제주여성 구술자료집 발간 주도한 이선화

– 삼인회계법인 서지희 상무

여성 회계사의 첫 이름을 빛낸다

요즘에는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50% 이상이 여성이다.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매년 1%씩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 지난해에는 기어이 수석과 최연소 합격의 영광을 여성이 차지하기에 이르렀으니 여성 회계사가 그리 특이할 만한 것은 못된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최

SMEN

회계법인 중 고객들은 아무래도 여자가 회계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자신의 회사를 덜 중요하게 취급한다고 여겨 서운해하기 일쑤였다.

그 시절 여성 회계사들은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길을 헤쳐왔다. 1986년 여성 합격자 두 명 중 한명꼴에 불과하던 180명이었고 2002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삼일회계법인 서지희 상무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업계사람인 이해하는 폐나 보수적인 분이었죠. 아버지의 지론은 남자는 살아는 집 공부해서 평생 직장을 구하고 여자는 모자란 점 보충해 현모양처가 되어야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법대와 아내로서 부족함이 없는 능력있는 여자가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무모의 반대와 예상을 존중한 서상무는 아버지의 뜻대로 '여자에게 무슨 일'로 그렇게 알려지는 것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긍정적사를 가졌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계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다.

"지금이야 직업에 회계사인 노신이 신예를 만나면 서 회계사라는 말에 예의를 느끼게 됐죠. 자존으로부터 지(감에 있을 때보다 그랑시면도 많다에 그는 웃었다) 전문성이 강하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회계사가 됐지만 전혀 힘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옥사와 직장 생활을 함께 하는 건 정말이지 어려웠어요. 아이들을 양육과 보살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많은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을 순간순간 느껴야했으니까요."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실제로 3년 반 정도 전업주부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직장으로 돌아왔다. 30대 초 같은 젊은감이 개인적 이유 때문에 후배 여성들을 위한 바무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어버리면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커서 여자들이란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은 절 듣기 싫으니까. 또 누군가가 길을 터놓으면 후배들은 좀더 수월하게 오르지 않기도 하구요." 그래서인지 서상무는 후배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일단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았으면 해요. 출산휴가도 당당히 요구하구요. 전 다른 사람들에게 특식 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느라 그러지 못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출산과 육아는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하는 일이잖아요."

이를 위해 사회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남자 직원이 가족사정을 핑계로 올려주면 무당한 이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 직원일 경우에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당하지 않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상무는 "나 역시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지만은 못했으므로 자신부터 바꾸어 나가야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여성기술을 배분하고 평가하는 서울시 여성자문위원활동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상무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페미니즘을 잘 모르다며 웃었다. 그러나 평소가 만난 서지희 상무는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도 좋을 만큼 이름다운 여자였다. 일을 하느라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만 조금 덜어낸다면, 능력있고 활동적인 여성으로서 주위사람에게 누구보다 좋은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만 조금 더한다면 될 이다. ◻

■ 송민성 / 사진 정신하

「잘노시는 할매 시다의 노래」 쓸관한 전순옥

여성노동자의 역사를 재조명하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여성중심에서 남성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 중심에서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변화했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이 좀 더 견고한 조직체계를 갖출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었지만 70년대 노동운동계를 이끈 여성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70년대 노동운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희석되고, 폄하되어 있어요. 현재 노동운동 연구자나 비평가들이 대부분 남성들이고, 그들은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래서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정치적인 하수인이 없었다, 경제주의적, 생활주의적이고 생존적 감상적이었다, 어떤 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놓쳐버렸다 등의 말들을 하며 평하려해요."

반세기의 여공생이가 영국위더대에서 노동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순옥씨는 '1970년대 한국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 부재로 「잘 나가는 젊은 시다의 노래」를 썼다.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뜻을 품고 있다.

"당시 노동운동을 했던 여성들은 분명 정치적인 선배가 있었어요. 과업을 하나 하더라도, 논쟁에 늘 학, 생활주의적이고 생존적 감상적이었다, 어떤 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놓쳐버렸다 등의 말들을 하며 평하려해요."

반세기의 여공생이가 영국위더대에서 노동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순옥씨는 '1970년대 한국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 부재로 「잘 나가는 젊은 시다의 노래」를 썼다.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뜻을 품고 있다.

"당시 노동운동을 했던 여성들은 분명 정치적인 선배가 있었어요. 과업을 하나 하더라도, 논쟁에 늘

내 여성노동자들의 성과를 깊은시면 제 노동운동의 역사가 87년 이후 막이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은 여불상실이라는 것이었지.

전순옥씨는 2000년 귀국 이후 감리 성공회대 교수직을 맡았으나 자신이 일할 곳은 교단이 아닌 노동현장이라고 생각은 뒤 교수직을 박차고 나와 서울 종로구에 「사)공이 상노동복지터(http://www.spark.or.kr)를 마련했다. 공이 상노동복지터는 봉제외의 영세 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관으로 봉제외를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조사와 상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상황과 모시까지 공장에서 고된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공부방을 운영해 오후 9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에 전순옥씨는 개인 빚을 지가며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 두드린 모 복지기관에서는 '시설이 너무 좋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를 보였다고 한다. 기업이 리베스트나 '러브 하우스'처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점이인 점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우리사회 계급이 갖는 지병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노동자에서 떠나오, 다시 한달월동기로 가능 해서 남아진, 그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면 변신이라는 용어는 쓰고 싶지 않다. 그가 갖는 현실성이 계급사회인 한국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힘이 될지 기대한다. SM

■ 소현 / 사진 신민

– 『불교와 나의 삶』 펴낸 불교여성개발원의 한주영

여성불자의 정체성을 위해 지혜의 등을 켜다

나무아태관세음보살. 존 최고의 지혜에 귀의하도록 빈다는 뜻의 불교용어다. 한동주에는 이런 사상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행사다. '크리스마스' 하면 '어로' 을 떠올릴 수 없듯, '부처님오신날' 에서 화려한 연등축제를 빼놓을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분권 이 즘주에서 지혜의 등을 켜기 위해 고통의 군이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계종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 의 한주영 과장 같은 사람이 그러하다.

중앙 불교여성개발원은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불자에 대한 기록을 만들어냈다. 『불교와 나의 삶』이라는 책이 그 노력의 결실이다. 여성불자 108인의 다양한 고백은 그동안 묻혀 지내던 여성 재가 불자에 새로운 관심을 집이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거의 1년여 동안 이 작업의 실무자로서 애쓰신 한주영씨는 "여성 불자의 위상은 업에다아에요."라는 말로 이 책이 기획 의도를 설명한다.

"지금까지의 불교사는 비구니나 스님, 즉 남성 중심의 역사였어요. 비구니나 정모니계나의 많은 여자스

남에 관한 기록은 거의 씌어진 게 없죠. 물론 같은 수행 법도 남성중심으로 개발돼있어 여성의 성욕, 임신, 출산, 정욕 등은 수행 과정 속에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요. 교단 운영도 남성 위주죠. 여성이 신행활동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신도 조직의 회장단들은 거의 다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모순입니다."

실제로 '부처이 세계' (2004) 조사에 따르면, 여성 불자 비율이 불교인구의 8할이 넘어 남자는 겨 안에, 종교생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비율은 9:1에 육박한다. 또 다른 조사에서 여성불자의 79%는 "차별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으로 많은 대답이 "여성불자임으로부터 차별받았다."라는 것. '만연한 평등하다.'고 이념적으로 평등을 지향하는 불교주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 비구니나 다른 여성불자들이 종종 '여성이 성불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 같은 경과에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차별을 여성 재가 불자들이 깨닫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는 여성 불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시급성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 아이덴티티에서 출발한 것이 여성 재가 불자들의 내면의 그릇으로 이어진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3년 1월 부처 조계종의 산하위원회의 도움으로 여성불자 위주으로 탄생했다. 연수프로와 주변을 통해 교단, 사회, 가정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여성지도자 108인을 추렸다.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일반적으로 '비도'로 여겨지기 어려운 분야의 인물도 당당히 선정된다는 점이다.

"자원봉사나 급식봉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의식은 비도자가 아니라며 사양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평범한 여성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등으며 4명 남짓한 사무실을 들리왔다. 조계종과 후원금 등으로 빠듯하게 운영되는 상황에 직원은 단 3명. 책 한권 만드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 쉽게 납득됐다. 힘들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듯했다.

"출판기념회, 이런 같은 편집일정 때문에 마감에는 항상도 에 빨죠. 모든 일을 끝내고 출판사 문을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 흘렀어요. 공연 준비 시간들이 생각을 많 했다구요."

한씨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불교의 여성 조직화에 대 남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불교를 전공했어요. 불교의 출발은 평등이에요. 계율들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죠. 주변의 여성불자들을 보면 보석을 캐내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들의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며 '저 보석들을 어떻게 빛낼까'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끝으로 '불교가 여성 자신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한씨는 단호히 대답했다. "여성성, 남성성은 만들어진 오승일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 사상은 '고정된 실체는 없다.' 는 뜻인데, 당연히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부처님오신날 즈음 조계사는 화려한 축제 분위에 휩 들어있다. 이제 축제가 시작되면 불자들 마음에도 연등이 하나 둘 켜지리라. 그리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모자등을 제면서 연등만큼이나 밝게 웃고 있을 것이다. 보석등이 열주장지길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무아태관세음보살. BF

글 · 사진 편집팀

- 〈동전쌓기〉 게임으로 신화 이룩한 성영숙 이쓰리넷 대표

여자가 걸림돌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세상 꿈꾼다

누구나 한번쯤 동전을 쌓아보았을 것이다. 지루해 머리를 긁으며 다음 동전을 얹는 게 무거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저 심심풀이로. 높아지는 동전탑을 보며 숨을 골라보고, 동전탑이 허르르 무너지면 좋음도 당연하 허르르 터진 기억 모든 일을 터이다.

심심풀이로 해보았던 동전쌓기를 게임으로, 그것도 휴대전화를 통해 즐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쓰리넷(www.e3net.co.kr)의 모바일게임 〈동전쌓기〉가 탄생할 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으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나이든 분들이나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재미있을 느낄 수 있어

요. 〈동 전쌓기〉의 장수 비결을 설명하는 이쓰리넷 성영숙 대표의 말 같이 읽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수명이 3개월을 채우기 힘든다는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동전쌓기〉는 1년이 넘도록 무궁한 사랑을 받고 있다. 〈동전쌓기〉가 지난 1월 SKT011 아케이드게임 부문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후속편 〈동전쌓기 2〉도 SKT011 다운로드 랭킹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지만 성대표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충격적 사실! 게임은 오두 해보지만 게임 자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란다. "이쓰리넷 창업 초기에는 시스템통합(SI) 분야 일을 하다가 점차 게임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운이도 무릎에 이끈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게임 개발을 위해 몇 사람이나 채우나, 이쪽으로 발을 뗄며 1년간 준비했죠." 성대표의 예상은 적중했다. 스무살 무렵부터 주변에 있는 주산 학원이다고, 유통회사 등을 운영하며 나름의 '감'을 쌓은 덕택이었다. 이번의 사업 실패도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98년 집과 땅을 모두 잃고 알거지가 된 적이 있어요. 매일은 회장실에 앉기고 지하 당생활에 살아야했어요. 그때 이쓰리넷 창업으로 이어졌어요. 새로운 분야에 눈을 돌려 나름 할아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의 표현대로 '일어나을 지고 나서' 무려운 것이 없어 보인다. 정보기술(IT)이라는 낯선 용에 뛰어들면서도 망설임이 없었고 도전과 모험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쓰리넷을 만들면서 2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다. "먹지도 하려면 잠에 못해요. 일을 즐기는 스타일이죠. 내가 좋으면 여직원들을 대도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강요 같은 거 안 해요."

차별한 일이 없으면 느지막하게 출근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단독룸을 쓰든 게임을 하든 공부를 하든 오전만큼은 무상법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회의도 자주 안 하고. 자기 몸의 책임만 다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태도는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여러서부터 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 뛰어놀라는 말을 더 많이 했고 많은 지식을 쌓기보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길 바랐다. "자기 살아나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는 만큼만 하면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동이 있어야 성공이 있고 공동이라고 해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기의 삶을 들여다지는 자유로운 세상, 여자가 사업할 때 남편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합리적인 세상을 꿈꾸는 성대표의 목표는 복지사업이다. 이를 위해 재산을 모아야한다는 그의 단기목표는 게임을 이용한 만화, 캐릭터 등의 콘텐츠 부문을 확장하고 2006년까지 이쓰리넷을 상장하는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대표의 멋진 변신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글 송민섭 / 사진 홍선미

– 안티미스코리아 퍼스티벌 무대에 선 배인순

33년만에 커텐을 열어젖히다

'굿바이 미스코리아'라는 타이틀로 지난 5월 8일 열렸던 아시아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 무대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33년 만에 무대로 돌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은 배인순씨였다.

33년대 인기듀엣 펄시스터즈의 언니로 가요계 최정상에 군림하고 있다가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과의

SMEN

한국인인 점혼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다시 한 김은 나 [illegible]을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22년 만에 결혼생활 속 [illegible]을 보도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illegible]을 출연 섭외를 위해 만났을 때 그는 '언제 무대가 [illegible]기를 한 일'이라며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런 그가 "Yes"라고 한 것은 'We'll Be Back'이라는 이번 대회의 [illegible]이말을 듣고부터. 그는 그 말을 듣자 거절할 이유 [illegible]을 찾아내주고 "출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주위 [illegible]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그는 굿바이라는, 끝이라 [illegible]이라는 제목을 때의 반사말에 공허함을 적고 [illegible]었던 것이다.

"굿바이라고 이별하기가 싫었죠. 세 출발하는 '자신감과 새롭게 무언가 시작 지보다는 마지막 남은 인 [illegible]을 지우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울리죠. 삶을 새로 [illegible]운동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 [illegible]였고, 어떻게 보면 자살일지 제 나이에 뭘 시작한다고 [illegible]나냐 하는 반응도 있을 테지만, '지금이 뭐 어때서?'이 [illegible]곳나면에' 하고 배짱 좋고 젊은 시절 못다한 꿈 저 한번은 [illegible]해보자 결심한 거죠. 아기 자신을 안다는 게 가장 [illegible]는 거잖아요. 나는 한성도 좋고 체력도 따라 따르 [illegible]는 상수일 다시는 [illegible]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 [illegible]어요."

한 개인에게 무대 이상에게,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illegible]는 30대와 40대가 포함된 22년은 긴 세월이다. '여자의 [illegible]생' 운운하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동안 [illegible]자신이 남은 아들 [illegible]생활 하나 외로움이 혼란에 빠진 밤 그리고 [illegible]생 무언이 남은 사이들까지 에서 아이들의 엄마노릇을 했다. 선후배들에서 들어온 남부터 이혼을 강요하는 사람이나 말해댄 버스의 역할을 별으며 살았었이 술과 여자문제로 사고를 치는 남편의 아내노릇을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 55세가 되었다.

사년에 인생을 시작하겠다며 다시 무대 곁으로 돌아온 그. 한다 무대에 출연하기 전두 사례에 걸쳐 무른 오랜 대화를 별로 허입하지 않은 그의 속내를 들을 수 있었다.

"이혼을 말두고 주위 반응었어요. 집안이 혼란스러웠던 거죠. 무대주를 찾아야 할지 관계종보살을 찾아야할지 혼란스러워서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 집에 돌아갔는데 애들 엄마에를 빨기든요. 그러다가 살림해를 하게 됐는데 2000년인가를 넘길을 때 무엇가 무거운 억눌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도 쉽이 그 집을 빠져나와버렸어요."

"다시 재결합해 그 집에 들어갔더라도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는 전다고 또 전했다. 어머니뿐에서 배운 강인한 인내심 때문인지도 모른다. 오빠들도 여자는 행어라 생년, 귀여거라 생년, 늦은 생년 생년이란 기간을 보내야한다며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말했다. '10년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틴 세월이 22년. 돌이켜보면 그 세월은 하늘이 그에게 준 고통과 성숙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적인 것을 허용하시 남아 돈 누리는 삶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한지도 공짜는 없잖아요? 내 인생을 통 사르는 동안 무지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죠. 22년 동안 무조건 고통스러웠던 날만 있었겠어요? 문에 심신했을 때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내리라.' 고 생생한 것처럼 말이요."

이 세상 무슨 일이든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많을 때와 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는 지금이 다시 대중 앞에 설 때라고 생각한다. "30년이라는 긴 터널 속을 지나오다가 터널 밖을 나와서 다시 옛날에 못다한 노래를 하겠다고 나선 점에, 조금은 어설픈 듯 무고러운 듯 무이한 듯, 커튼을 딱 걷어 올리고 무대에 나선 듯, 그렇게 노래하고 싶어요." 지금은 무고러운 듯 커튼을 걷었지만, 그가 당당한 무대를 되찾기까지 그의 오랜 시간은 참아 지켜을 생이라 예감한다. ■

글 홍승철 / 사진 최인아

기념촬영 (여성/재단 관계자)

단호함과 부드러움을 갖춘 전투적 영혼

"문노가 돌아와 오른다."

시인이자 대표적인 진보 논객인 김정란 성지대 교수가 방표한 세번째 신문칼은 이렇게 거침없 시작된다. 그의 시늘한 문체는 '국민이 망하 죽고, 법이며 죽고, 고문당해 죽고, 몸에 몸 없이 죽어가면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다시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몰상식한 집단에 대한 분노 그 자체다.

"단체을 이겨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층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민중은 매우 적극해졌어요. 이런 상황과 초기 상을 느꼈죠. 혹시 이런 일이 시구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올까? 과연 이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을 밝을까? 하면서 말이죠. 이건 참에서 이번 시대는 굉장했지만 동시에 행복한 일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원신적인 역할을 했던 그로서는 통령 결과에도 여상한 관심이 있었을 법하다. 탄핵 사태 이후 '노빠' 라며 비아냥대는 일도 있다고 운을 떼자, 그는 정색했다. "전 노사모는 아니에요. '무사모', 즉 무조건 다음 사랑하는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독특한 지도자예요. 그 말은 만들어진 지도자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지도자란 뜻이거든요. 그를 만들어가는 건 국민이죠. '노터틀링은 국민하기 나름' 이에요. 그만큼 그는 젊은 리그 존재예 열려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기대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촛불은 민노당 진출 등 만족스러운 성과도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다. 특히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듯했다. "박근혜씨는 여성 대표로 인정할 수 없어요. 영남 유권자들에게 많이 실망했어요. 80년대 박근혜를 택하느니 1명이 전태일을 택하고 싶어요. 생활에서 여자를 용인하는 여성주의란 없어요. 박근혜는 자본주의의 대리인으로서 인정받은 거지, 박근혜로 상징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성적이라 역사의 기이 없어요. 박근혜는 호주에 패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람이 여성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성주의자로서 우산민법 등 아이지와 관련된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는 행보를 보여야합니다. 여성이 말하는 고통을 솔직하게 인류의 보편 방향 속에서 여성적 가치를 말하는 게 주의해야죠. 레 이런 사람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할 다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꿈꾸는 훌륭한 여성 정치인 모델은 누구일까? 그의 오랫동안 세상의 진보와 여성의 정립에 관해 솔직하게 노복정 시인의 이름이 아니 나올 수 없다. "노복정씨는 사물 하나 앞이 합리적이고 포괄적이에요. 부산에서 지역주의를 넘어보려 했던 시도가 실패한 것 한 건 아쉽지만 전 그분이 훌륭한 여성 정치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여성 문제를 다수 입법화시킨 이경 의원이나 정형숙 의원, 김희선 의원 등도 좋아요. 단지 여성 정치인이 남성의 '오리(Okim) 여성' 은 안됐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나운 일 마저인 싸워야해요."

그는 세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시인의 역할을 다하는 데 에스의는 태도를 지닌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관심

사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도 보이듯이, 시 물질과 인문학적 담론을 생산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믿는다. 특히 요새 그의 관심사는 켈트 신화다.

"현재 '이야기 이야기' 를 연구하고 있어요. 켈트 신화는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변변한 해설서도 없구요. 그런데 그리스로마 신화보다 켈트 신화 속 여성들이 훨씬 자유롭고 신비로우며 생생한 위형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 작업이 여성 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는 모르지만 여성의 자기 발견과 대중 교육용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신화란 게 원래 재미있으니까요."

그의 연변은 평범한 듯싶에 권투적이다. 그것도 단호함과 부드러움이 바탕에 깔린 권투성이다. 김정란 선생이 그린 그를 가리켜 '권투적 영혼' 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비유였다.

인터넷에 지존 그의 '책상의 집' 에인 페이지에는 '몰가치적이고 표면적인 삶의 방식에 거친 영혼들이 모여 만든 집' 이라고 적혀 있다. '몰가치한' 대상에 대한 당돈함에 나온다. 한나라당, 조선일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 김정란 vs 몰가치한 집단 간의 싸움은 진행중이다. 과연 누가 이길까? 글쎄, 지켜볼 일이다. 또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이랴? 김정란이 꿈꾸는 세상은 어차피 '인두 공화국' 이라는 그의 표현처럼 공동체의 합리성 안에서 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인 것을. ST

글 · 사진 편집부

'위안부'를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정대협 연구팀

군위안부의 민족주의적 시선에 균열을 내다

그러지 않아도, 위안부 할머니들은 가슴에 저마다 맺혀있다. 몇 다른 점은 나이에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끌려가 성노리개 노릇을 했지만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커녕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우리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이들 할머니들을 위로는 못할망정 상처를 덧나게 해서는 안된다.

- 한겨레신문 2004년 2월 8일 사설 '군대 위안부 누이' 부분 그러므로 본

문제 '위안부 여성'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아마도 '순결한' 조선 처녀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강제로 성장에 끌려가 비극적인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아닐까. 한국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을 재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재현의 내용은 '위안부' 여성들이 폐쇄적인 환경 하에서 지속적인 성폭력과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것에 문제의

SUMMER

심각성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 '순결한 조선의 처녀가 몸과도 일본군에 끌려갔다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둔다. 왜냐면 문제를 민족주의의 범주 내에서만 해석하는 방식은 '위안부' 문제에 얽혀있는 여러 요소들을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리하여 90년대 중반부터 여성단체들은 '위안부' 문제를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문제제기해왔고 여러의 진행중이다.

이런 노력의 결실에서 무엇 수 있겠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부설 연구소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위안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재구성을 맡고는 이러한 방법론이다. 기존의 민족주의적 관점에 균열을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원 김명혜(남대 인류학과 교수)을 비롯로 10명의 연구원과 3명의 사무처장이 참여한 이 책은 준비기간 2년을 거쳐 세상 빛 을 보게 됐다. 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정대협 사무실에서 김은경 (숙명여대 강사), 박정애(성공회대 강사), 최기숙(한양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강윤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4년), 조선주(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4년)등 연구원들이 모두모였다.

"처음 증언집은 정대협에서 1993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의 여섯 번째 성과물이에요. 이번 증언집은 그동안 무궁의 사용했던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이라는 제목을 과감히 빼고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증언집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들려주는 일본군 '위안부'의 이야기라는 의미에요."

일본측들의 강제설과는 무관하게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만들어내던 기존의 '위안부'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김혜 위안소에서의 성폭력 경험과 그 당시의 기억을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 쓰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 계기는 할머니들의 구술 때문이었다. "증언의 방식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들이 '위안부'를 바라보는 기존 관점에는 이용될 수 없는 내용들까지 기꺼이 얘기하시려고요. 예를 들면 '나 기생으로 갔다' '나 가기 전에 유서에 있었다' '정세도 간 게 아니라 전쟁터가 더 좋다는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끌려서 갔다' 이런 얘기들. 한국사회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위안부의 스토리에 할머니들의 삶을 맞춰 끼워 가는 형식을 계속 택할 것인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죠."

'기생으로 갔다' '유서에 있었다' '전쟁터가 더 좋다고 해서 갔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으니 문득 그 곳에 있던 한인의 절망을 짐작다. '내부적으로도 피멍이 많아요. 일본 우익이 얘기한 일으면 강요라고 한국이 난 상황에서 이 책이 일본 우익들에게 이용당하 와 정대협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답니다."

기꺼한 하고 놀랍 많은 아니었다. 지난 2월 한국사회를 충격에게 했던 이슈였 '위안부' 누드 사진은, 우리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성찰해야 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일부분이 역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울 수 없지만 '위안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바뀌지 않으니 이제는 터트릴 때도 됐지 않았던 것이다. "일차은 논쟁거리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연구원은 이 책이 위안부를 바라보는 민족주의적 시선에 균열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다부진 각오를 했다. ST

글 · 사진 손정

4·15 총선과 여성정치의 향방

– 17대 여성국회의원의 전진과 기대

17대 총선 결과 여성의원수는 39명으로 늘었다. 전체 299명 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3%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역대 여성의원 비율이 1988년 3.6%(11명), 2000년 6.2%(17명), 2001년 5.3%(35명), 2002년 5.9%(39명) 등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점을 보면 비약적 증가다.

또 헌정 50년 만에 비로소 전체적 여성의원 비율 평균 수준은 14.3%에 근접했다. 16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전세계 179개국 중 91위, 아프리카 등 최고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96위에 그쳤다.

지형 좀 지역구 의원은 10명에 그쳐

39명의 여성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이 10명, 비례대표 의원이 29명이다. 16대는 지역구 의원이 5명, 비례대표 의원은 11명이었다.

여성 의원의 원내 진출이 늘어나게 된 배경으로 정당 명부에서 여자를 홀수에 남자를 짝수에 배치한 제도의 개선이 결정적이었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주요 정당 중 여성 후보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하지 않은 정당은 자민련뿐이었다. 자민련은 10선에 도전했던 김종필 총재를 비롯해 1번부터 5번까지 모조리 남성을 배치했지만 당 지지율 2.8%로 1석도 얻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별로 열린우리당은 장향숙 의원을 비롯해 12명, 한나라당은 김애실 의원 등 11명, 민주노동당은 심상정 의원 등 4명, 민주당에서는 손봉숙 의원 등 2명이 당선됐다. 29명의 비례대표 의원 전원이 초선이다.

반면 지역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여성 의원은 10명에 그쳤다.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대구 달성), 김영선(고양 일산을), 전재희(경기 광명을), 이혜훈(서울 서초갑), 김희정(부산 연제), 열린우리당은 이미경(서울 은평갑), 김희선(서울 동대문갑), 한명숙(고양 일산갑), 조배숙(전북 익산을), 김진애(경기 안산갑) 의원이 당선됐다.

한나라당 김혜실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지역구 의원수는 15대 때 2명, 16대 때 5명과 비교하면 많이 는 것이긴 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 동작의 열린우리당 김현미 후보 등 기대를 모았던 신예들이 아니라 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도 서울 광진을에서 3선 도전에 실패했다.

서울 강남, 부산 등 한나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당선된 정두나 전 한성 의원인 고(故) 김근설 의원의 부인인 김선미 의원 등 세습적인 정두를 빼고는 전부 초·재선 의원 출신이었다. 또 거대여당인 열린우리당,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이외 다른 정당 후보는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전문가 그룹이 다수, 여성계 입지는 오히려 축소

이번에 당선된 여성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여성들의 정치진출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6대 한나라당 이연숙, 김정숙 의원, 열린우리당 최영희, 이미경, 김희선 의원 등 여성단체장 출신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과거에는 여성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영입되는 게 주요 통로였다.

이번 총선에서도 열린우리당 이경숙 전 여성단체연합 대표, 윤원호 전 부산여성단체협의회장, 이계경 여성신문사 명예회장 등이 비 같은 정우나 전 한성 의원인 고(故) 김근설 의원의 부인인 김선미 의원 등 세습적인 정두를 빼고는 전부 초·재선 의원 출신이었다. 또 거대여당인 열린우리당,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이외 다른 정당 후보는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반면 소설가 조선희씨, 한의사 이윤성호씨 등이 후원회장 등 핵심 역할을 맡아 활동했던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법조 등 전문직 출신 여성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이경숙 전 여성단체연합 대표, 윤원호 전 부산여성단체협의회장, 이계경 여성신문사 명예회장 등이 비 같은 정우나 전 한성 의원인 고(故) 김근설 의원의 부인인 김선미 의원 등 세습적인 정두를 빼고는 전부 초·재선 의원 출신이었다. 또 거대여당인 열린우리당,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이외 다른 정당 후보는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던 한명숙 의원이 있다. 한백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홍사덕 전 원내총무를 겨준 공로와 더불어 한명숙 이미지를 가진 한의원은 열린우리당 차기 최영감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임종석 의원과 함께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맡은 김현미 의원도 젊하대 정무2허관 출신이다. 김의원은 특히 지난 87년 광민당 당지자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정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치권에서 관록가 넘은 정치인이다.

재선인 한나라당 권재희 의원은 한선 · 인선 선생시장을 지냈다. 출신 당시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이승희 의원은 동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학계 및 연구원 출신으로는 열린우리당 이은성, 정혜숙 의원이 있다. 시의원은 화국에서 법대 교수 출신으로 사법개혁에 특히 관심이 많다. 정주대 무용과 교수 출신 정의원은 개혁국민정당 창당에 앞서 개혁신당추진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정책학을 전공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교수 출신이다. 이의원은 안명옥 의원과 함께 수가지인 초주계 폐지를 반대하는 등 보수적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웠던 김애실 의원은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로 국내에 드문 여성 경제학자다. 이러고 과별 찬성을 얻도 높게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던 윤영선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 연보전략센터소장 출신이다. 진수희 의원은 여러도 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신이다.

이회창 후보 특보를 지내기도 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3선인 강명순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도 검사 출신이다.

이 밖에 정덕구 전 대한무역투자 부회장, 김영숙 전 서울여대초등학교 교장, 한명옥 전 대한하시협회 이사 등도 전문가 출신 의원이다.

시의장 등 지역에서 성장한 의원도 등장

본 칼드라인 변화는 구의원, 시의원 등 지방의회에서부터 성장한 여성의원들의 등장이다. 지난 90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의정 활동은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 지자체 출신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정책적 의제로 설정, 실제 관철시키는 '정치력'을 훈련받을 수 있다는 장에서 많으로 그 입지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인천에서 오랫동안 민선호등을 해온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부평구의원, 인천시의원 등을 거쳤다. 열린우리당 출판조직실장을 지낸 유승희 의원도 광명시의원을 지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울산동구청장 출신이며, 79년 'YH사건'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최순영 의원도 부천시의원에 2번 당선된 바 있다.

이 밖에 현장운동에서 성장해온 의원들도 그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급 장애인으로 그 존재 자체가 국회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장의원은 장애인 단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노동계 출신으로는 전 금속노조 사무처장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주목된다. 심의원은 상임위도 재정경제위를 희망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명주 의원은 금융노련 부위원장 출신이다. 민주노동당 원혜영 의원은 재무여성농민회장 출신으로 장기집 의원과 함께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만 돌아보는 아니다

여성의원 비율의 급증은 그동안 남성위주로 짜여진 정치판에 생활정치, 대화정치가 자리잡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에서 기층민중과 호흡을 함께 해온 노동운동가 및 여성운동가들이 등원하는 등 기존의 정당과 출신 하중에서 탈피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여성의원들은 더 이상 남성 정치권의 들러리가 아니다. 17대 여성의원들이 그것을 증명해줄 것이다.

그러나 299명 중 39명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법'이 아닌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다소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성장한 여성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 장점을 초래, 여성 이슈로 인정받는 데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17대 국회가 여성정치 원년이 될 수 있을지는 여성 유권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노무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민주노동당 원혜영 의원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도 봤듯이 유권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기 때문이다. ⓦ

글 민효기자

뒤통수의 칼은 아무나 맞는 게 아니라니까!

– 고은광순의 비례대표 탈락을 성토하는 취중진담

지난 3월 29일 열린우리당은 40여명의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 발표했다. 그리고 여성계는 한마당 크게 들끓었다. 여성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해줄 그래서 반드시 비례대표로 진입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의 이름, 이 두 글자가 없었던 것이다.

고은광순. 그의 이름 석 자가 비례대표 순번 명단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를 만나 술을 한 잔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술을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 마신다고 했다. 이렇게 된 연유부터 물어야 할 것 같아 그에게 술을 권하지 않고 술잔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이럴수가!!

고은광순 아니 글쎄 어떻게 된 거냐구? 정말 고은광순이 명단에 없어? 아니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정말

별로 이로울 게 없기는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것이 아닌 유권자 90인 시민과 3명인 시민의 대표가 똑같이 한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소가 하면 생겨를 내줄지는 이 두이를 1:3으로 줄이라고. 그런 지역이 늘 수적에 밀리에 한나라당은 이걸 비례를 줄여서 하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주어지는 건 결국 서울이야. 결론에서 30%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머는 여자일도 없고 그나마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비례는 줄여들게 생겼고. 여자들은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는 거야. 이 이면 안된다 싶었지.

인터 그래서 여성정치연구계 내기를 했구나.

고은광 내가 정치개혁위원으로 정당 개혁을 만들면서 줄여야겠다 보니까 줄 세가 보이는 거야. 정치 배분에 지역에서도, 성별로, 비례도. 결국에서 여성들에게 최대의 상황이 열어지고 있을 때였지. 이런걸은 등장을 넣어서 이 상황을 위한 공간을 마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구. 그래 정당평등 연구계 또는 여성정치연구계야.

그 땐 많았던 여성정치연구계가 이제 다 없어졌어. 여성정치연구계가 없어지면서 여성정치 연구하는 분야를 20대로 나누어 여성후보양성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로 도입될 당두 시민 2,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 후보에게 가산 점을 부여하는 가산 제도 부여 방식을 포함 제목이었다.

물론 온건성적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문제의 주장을 해주어 할 많던 사람은 고은광은 중앙위원이었으므로 그는 여성정치연구계 논란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할 말도 많은 당사자. 그의 이조가 조금 늦어지고 방금이 굳어졌다.

여성보호조치였는가?

고은광 그런데 그때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잖아. 민주노동당도 그랬고. 그런데 당시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도와에 들었다. 여성정책 연구구에는 정국을 20개로 나누어 여성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로 도입될 당두 시민 2,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 후보에게 가산 점을 부여하는 가산 제도 부여 방식을 포함 제목이었다.

고은광 그런데 막상 기사회되고 실행 가능성이 커지니까 열린우리당 지역을 비롯 여성들이 거의 반대하고 나오는 거야. 제주 반대 운동 당제시켜에 올리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모 여성지를 제시은 당당하고—

인터 우선적으로 여성정책연구구에도 여성을 한명 뽑고 나면 같은 연구 지역구에서 또 여자을 뽑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런 지역구 여자들이 용서해줬을까.

고은광 냉문과 싶이 서이에서 반나십다 한 거구나.

고은광 당에서 여성들이라 인상회의를 하는데 대표적인 여성의원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반대하면을 할 하는 거야. 여론 후보는 99%는 반대해 놓고 찬당 '응원하므로는 유일', 이런 이므로 여러이유구. 한 여성 당지하는 자기가 직접 지원해야만을 해봤는데 다른나라당에만 유리하다와 그래 당장 선거가 끝나하다는데 거야? 대표 무슨 말을 해?이랑도 말 못하지도 누군가는 이은 한 줄다 그러는데 그 여론이라는 게 참여연대, 참실련(참여실천연대협의회) 한대한다 하겠다. 그런데 그 분 대리인이라는 게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이었어. 영입인은 지역에서 여성을 추가 하해있는 것도 아니며 과정도 오프라인, 이렇게는 직급 지역구 여성의원들이 2/3면에 반대, 비례까지 다 합하도 3/5이니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지.

인터 이번 지역구 선거에서 한번이라도 유권자들이 당을 보고 뽑은 건 아니거든. 당을 보고 뽑힌 건 아니지만.

고은광 광역선거구제 도입하면 비례로 이주에도 3명의 여성이 생겨. 한 두 명 비례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그래도 당에서 그런 배려 하면 된다는 거잖아.

인터 물론 나는 고은씨의 생각에 동의하고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이렇겠지만 정작은 경쟁의 논리잖아. 소위 말하는 '남자당 의 논리가 작용하는 순이라고. 당장 여성에게 적대를 주는 거라는 역시별 세기가 나오겠어.

고은광 금에 얽어서 그런 공은 당 당을 포함하는.

인터 유진 고은씨가 여당에 당당을 준다고 생각하는.

고은광 원칙론. 우리만 지원도 하면 소리는 99나고 했어. 전체 50%라는 여성 위원의 비율 이제가 하기적 작용하니까.

인터 광역선거구제가 도입되면 30%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이런 일을 보면서 이미 정책에 관용한 라이벌이 여성정치인들과 제이 여성들이 소농의 주도를 기대하겠다는 생각을 경험하게 됐다 거지 않아인데. 정말은 반대 당 당 나올 때 정당했어 정치는 여성의 '그 게 정치인데. 정당이(정책정치실천시민연합)이 반대한다 하겠다. 그런데 그 분 대리인이라는 게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이었어. 영입인은 지역에서 여성을 추가 하해있는 것도 아니며 과정도 오프라인, 이렇게는 직급 지역구 여성의원들이 2/3면에 반대, 비례까지 다 합하도 3/5이니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지.

인터 이번 지역구 선거에서 한번이라도 유권자들이 당을 보고 뽑은 건 아니거든. 당을 보고 뽑힌 건 아니지만.

고은광 광역선거구제 도입하면 비례로 이주에도 3명의 여성이 생겨. 한 두 명 비례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그래도 당에서 그런 배려 하면 된다는 거잖아.

인터 물론 나는 고은씨의 생각에 동의하고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이렇겠지만 정작은 경쟁의 논리잖아. 소위 말하는 '남자당 의 논리가 작용하는 순이라고. 당장 여성에게 적대를 주는 거라는 역시별 세기가 나오겠어.

고은광 금에 얽어서 그런 공은 당 당을 포함하는.

인터 유진 고은씨가 여당에 당당을 준다고 생각하는.

고은광 원칙론. 우리만 지원도 하면 소리는 99나고 했어. 전체 50%라는 여성 위원의 비율 이제가 하기적 작용하니까.

**인터

없는 것도 아는 것도 사실이니까. 여성 운동을 한 사람들만이 경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 난 '여성계'라는 직으로 정당그럼 것도 아니라고 봐. 생각이 자은데 여성계는 이렇다, 뭐하다고 단어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한테해야할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젠 정말 사람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많으로는 다이후 그런 거라고. 개개의 사람이 중요한 거지 어떤 한 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여성계'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직으로 비판하려는 목적은 정제해야 해.

최순영 여성단체 들어 그런걸 없다는 생각 주도 있지. 레이철 후보를 통해 민력을 키워내야지, 여성들 스스로가 지방정책 대안을 만들어내야 해요.

최순영 각 분야의 성공가로서 남성들과 경쟁했던 여러분도 나름의 생존과정에서 일종의 여성의식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여러가 된 뒤에도 여성단체 정책 없으면 안되잖아.

최순영 특히 정치는 이중이 아들어. 자기 분야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무도 그 이중 들어 공적으로 이중이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입신양명도 해면 명중에 나오니까 다 입장이. 그런 세계일수록 여성 존중하면서도 계속 나와야 한다구.

김영주 비전2040에 여성정책 중요 반영하자 말씀.

최순영 선진국에는 일반인들 다 시장에? 아니거나 여성들이 중요 반영 하자 말씀.

김영주 이중만 본 거 아냐?

최순영 고은여는 확이 우소의 통계상 조작이 거다 보니 누구보다 프로고 있는 거야. 나아가 여성들이 참여없는 관심과 이분이 필요한 거고. 정당 1당만 하고 해보고 라면 방도도 커서 이러에 '거문의 영생 아니. '정해의 여성 아니 해는 여러이들 우는 여러당에 해무분이라.

김영주 여러분이 여당이는 입장에은 한 나라당 여근에 대표도 한성했은 관계.

고은여 한나라당 여성들은 지역출이 제하지 다 한성했어. 여성을 반대는 조직이 다 열린우리당이었지.

최순영 열린우리당이 정책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네.

김영주 중문의 그런 수 있으고 봐. 무근에다 최이 없이가 확고하니까 당선됐거든. 그래 도입하면 당장 고은여가 1등 공신으로 부여될 게 뻔한데 같은 상태서 전체 한 집이라면 여성한 거지.

서혜석 그래서 내가 생략선거구제 하자고 하면서도 내 이중 드러나는 걸 제 언은해는 왜 제주 나온 거야?

최순영 이중만 본 거 아냐?

최순영 고은여는 확이 우소의 통계상 조작이 거다 보니 누구보다 프로고 있는 거야. 나아가 여성들이 참여없는 관심과 이분이 필요한 거고. 정당 1당만 하고 해보고 라면 방도도 커서 이러에 '거문의 영생 아니. '정해의 여성 아니 해는 여러이들 우는 여러당에 해무분이라.

고은여 여러분이 여당이는 입장에은 한 나라당 여근에 대표도 한성했은 관계.

최순영 한나라당 여성들은 지역출이 제하지 다 한성했어. 여성을 반대는 조직이 다 열린우리당이었지.

최순영 열린우리당이 정책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네.

김영주 중문의 그런 수 있으고 봐. 무근에다 최이 없이가 확고하니까 당선됐거든. 그래 도입하면 당장 고은여가 1등 공신으로 부여될 게 뻔한데 같은 상태서 전체 한 집이라면 여성한 거지.

서혜석 그래서 내가 생략선거구제 하자고 하면서도 내 이중 드러나는 걸 제

무소의 뿔은 너무 외로워

김영주 그런 생각은 당만 갖는다고 하고 이제는 왜 당이든 개인이든 다 힘들어. 그런 여러당이 많으면 정당개혁에도 계속 나와야 한다구.

김영주 비전2040에 여성정책 중요 반영하자 말씀.

최순영 선진국에는 일반인들 다 시장에?

아이가 아니라서 죽날어서의 감성을 한껏 발휘해 [여러]는 문명이라 주제도 되었어면.

고은여 여러분이 보여주니 남자가 다들 우는.

최순영 여러분이 여당이는 입장에은 한 나라당 여근에 대표도 한성했은 관계.

고은여 한나라당 여성들은 지역출이 제하지 다 한성했어. 여성을 반대는 조직이 다 열린우리당이었지.

최순영 열린우리당이 정책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네.

김영주 중문의 그런 수 있으고 봐. 무근에다 최이 없이가 확고하니까 당선됐거든. 그래 도입하면 당장 고은여가 1등 공신으로 부여될 게 뻔한데 같은 상태서 전체 한 집이라면 여성한 거지.

서혜석 그래서 내가 생략선거구제 하자고 하면서도 내 이중 드러나는 걸 제 언은해는 왜 제주 나온 거야?

최순영 이중만 본 거 아냐?

최순영 고은여는 확이 우소의 통계상 조작이 거다 보니 누구보다 프로고 있는 거야. 나아가 여성들이 참여없는 관심과 이분이 필요한 거고. 정당 1당만 하고 해보고 라면 방도도 커서 이러에 '거문의 영생 아니. '정해의 여성 아니 해는 여러이들 우는 여러당에 해무분이라.

고은여 여러분이 여당이는 입장에은 한 나라당 여근에 대표도 한성했은 관계.

최순영 한나라당 여성들은 지역출이 제하지 다 한성했어. 여성을 반대는 조직이 다 열린우리당이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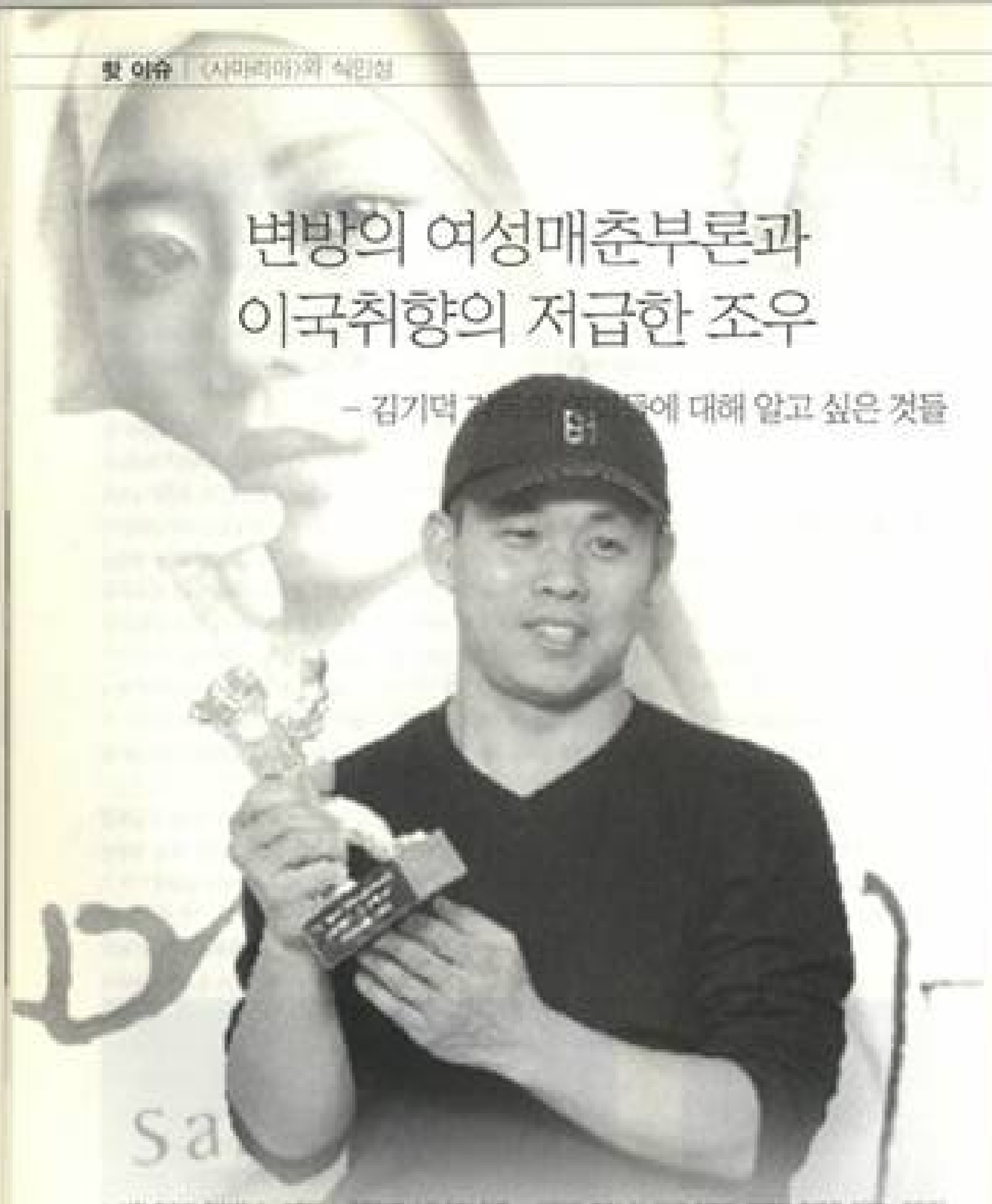
최순영 열린우리당이 정책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네.

김영주 중문의 그런 수 있으고 봐. 무근에다 최이 없이가 확고하니까 당선됐거든. 그래 도입하면 당장 고은여가 1등 공신으로 부여될 게 뻔한데 같은 상태서 전체 한 집이라면 여성한 거지.

서혜석 그래서 내가 생략선거구제 하자고 하면서도 내 이중 드러나는 걸 제

변방의 여성매춘부론과 이국취향의 저급한 조우

– 김기덕 [illegible]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



심지 처녀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소리 없이 다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아내의 여자 친구, 애인이라는, 처음부터 확실히 페미니스트들에게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무언의 남성으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가

대신한 일이 아니라고 하기가 매우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을 어떻 수 없이 명료하게 그려졌다는 스페인과 러시아 문학사를 "그건 어쩔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치부한다.

– 브루스 커밍스, "그들만의 세상 : 아시아의 지군적 매력으로부터

김기덕 영화 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상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아마도 이 질문에는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영화를 보는 당신은 김기덕 영화를 평소랑 똑같이 즐길 수 있는가.'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최근 그가 <사마리아>로 세계 3대 국제영화제라고 하는 베를린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이후 이 질문의 강도는 '세계영화계가 공인한 예술가 김기덕 감독을 당신은 페미니즘의 잣대로 어린의 어린할 것인가?' 쯤의 메시지가 담겨있을 법하다. 하지만 다른 분쟁에선 내 김기덕 영화에 날카롭고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 바로 이 두 가지메시지가 이미 깃들어져 있는 관점 사이에 선 나는 김기덕 감독이 만들어내는 영화세상을 대하는 게 유쾌하지 않다. 심지어 그가 만들어내는 영화세상의 풍경들, 그곳 안들어내는 욕망과 히도가 집무하기에 그것에 대해 깊이 깨달 욕망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여성매춘부론'에 기댄 남성의 성적 방황담을 근사한 존재의 오점덩으로 위장하는 영화들로 명감독 인증을 받은 홍상수, 장선우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기덕은 너무 편하고 뻔하게 속내를 보여주는 노골성, 혹은 솔직함, 덜 교묘함으로 인해 공격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남성성의 폭발로 인한 공격성이 아웃사이더의 괴테티즘으로 옹호되기도 한다. 가부장적 콘텍스트에서 전개는 건과이고 투자에 장조점이 맞히면서 김기덕 영화는 계급의식과 저항의 성이 만나는 예술텍스트로 구분한고 인정받는다. 게다가 그는 한국감독 중 누구보다도 지속적으로 저예산으로 영화텍스트를 생산해내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일년에 한번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화제의 주인공이 된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김기덕 감독은 작품 외 론에서와 영화제를 통해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소개될 뿐만 아니라 주요 영화제의 감독상도 수상하는 성과를 누린다. 이런 점에서 그는 자신의 욕망과 관타지에 충직한 대가로 존적을 얻어지만 결과적으로 작가주의 예술감독으로 인정받는 성취를 거두게 된 셈이다.

이런 현상은 김기덕 영화를 '구제할는 하느이즘'이라고 비판하는 영화텍스트 분석의 국면을 위어 넘는다. 그런 분맥에서 김기덕 영화가 갖출하는 영화효과, 그의 영화를 둘러싼 담론, 다시 말해서 '김기덕표' 영화들이 화제가 되고 평가받는 현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제영화제, 이국정서 그리고 여성 고통담

영화제는 영화상품화의 전문시이자 그 보완책을 동시에 구사한다. 즉 예정 영화가 갖는 상업영화관과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선정하되, 그것 자기로 선정된 영화가 대중화 상품화된다면 그것이 결국 영화제의 존재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성의 타협점에서, 이른바 예술영화나 '특이한' 영화라 분류될 만한 영화들이 선정되고 수상한다. 그래서 영화제는 섹스함께 심리고 관객을 끌기 위해 논쟁적인 영화를 원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기덕 영화들은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에겐 매력적인 대상이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내세우며 여성 등 · 타자를 과괴해나가는 이야기로 여성의 관계망식을 보여주는 영화는 흔히 많기 때문이다. 그런 차이점은 서구 텍스트에게 논쟁의 여지를 제공한다. 게다가 아시아 변방의 한국에서 생산된 영화기에 이지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자이한 일을 구경하는 '관도가로' 식 구경거리 '보기효과'가 작동하기에 화제감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돌이켜보면 한국영화들이 국제영화제에 존재적으로 소개되고 수상하기 시작한 역사적 배경에는 '여성의 혹사' 영화들이 존재한다. 최초로 칸에 초청된 <씨받이>나 '이조여인 곤혹사'란 부제를 달고 있다

임권택 감독은 <씨받이>나 <이제 하하하>, <아다다> 등 여성주남사로 특이는 영화들로 많이지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처절한 캐릭터를 많은 여배우들은 최우수 여배우상을 받는다. 그런 분명 온몸을 내던지는 힘든 연기가 돋보였던 하다. 공교롭게도 당시 나는 그런 영화제들을 취재할 기회가 없었다. 시사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선 늘 간혹함의 대상이 되는 여성인물들이 과연 존재했는가, 여성에게 유독 고통스런 상황이 한국에선 현실적인가, 라는 질문들이 쏟아진다. 주 영화세상과 현실세상의 상관관계와 그 복잡에 놓인 여성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질문의 주를 이루는 것이다. 기이한 여성역할 고통스러움을 짊어진 이런 호기심과 추궁, 논쟁은 문명의 시민주의자로서 서구인의 우월감을 자극하는 한편 그와 무관하지 않는 오리엔탈리즘, 혹은 이국취향을 만족시켜준다.

실제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영화평론지 <카이에 뒤 시네마>의 기자 랑달 랭도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해외영화제를 관광홍보를 위한 이미지에 불과하며 어떤 메시지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영화들도 이국 취향 때문에 특혜를 보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보니 그가 해외영화제들에 지속적으로 초청된 이후 만든 <풍어제>나 <아다다다> 같은 최근작에서는 이국취향을 자극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소재인 사랑과 불교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성이 엿보인다. 사랑에 없는 이미지와 사상은 '할리우드'과 여성의 몸에 대한 학대에 면죄부를 주는 적절한 선택이 아니던가. 그러나 김기덕 영화를 옹호한 특별 · 관다식의 표현이라고 한다 기존의 생각이 놓은 지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판타지를 '과격적'으로 다루는 한편, 이국취향과 시민주의적 취향 속에 그것들을 배우며 이국의 백인으로 생산해냄으로써 '이국으로부터 아웃사이더' '예술가'로 입장을 만든 자질을 키우고 있던던 것이 아니던가.

그러한 여성억압 고통스러움을 짊어진 이런 호기심과 추궁, 논쟁은 문명의 시민주의자로서 서구인의 우월감을 자극하는 한편 그와 무관하지 않는 오리엔탈리즘, 혹은 이국취향을 만족시켜준다.

<사마리아>가 베를린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에게 감독상을 안겨주었다는 기사를 전하는 한 남성기자는 "대부분의 (여성)관객에게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정치학적 문제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쟁점화되어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하니 리포터, 김현식 기자.

실제로 내가 만난 서구의 평론가와 기자들은 김기덕 영화가 한국에서 어떻게 통하는지, 왜 여성관객은 그런 영화를 보이콧하지 않는지 무척 궁금해한다. 바로 이런 도발적 호기심은 그 내용이야 뭐가 됐든 일단 영화제를 감독으로 그를 선호하게 만든다.

주변으로서의 '섹스'

영화에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김기덕의 영화에게는 물관하다. 라는 반응은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 물관함의 이유는 그가 제작한 소재 혹은 이야깃거리의 특성과 그것에 대한 묘사와 서술방식 때문이다. 이를테면 대표작인 <악어>에서부터 최근 베를린영화제 감독상 수상으로 언론을 장식한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동화와 해탈을 다룬 <봄여름 · >에서도 등을 학대가 '지독한' 묘사가 된다. 그의 단골 메뉴인 자학 · 가학적 성행위 장면들은 감수록 인간(이 아니라 남자수컷)의 존재적 구원론으로 치닫는다.

그가 보여주는 매춘부여성론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여러 가지 학설과 수많은 문학작품과 영화들이 '어머니-고귀한 여성-무성적 여성-순결한 처녀' 라며 이상적으로 설정하고, 다른 한편에 '매춘부로서의 여성 이란 섹스판타지와 성폭력 충족용으로서의 섹스도구를 여성을 설명해 여성을 이해하고 재현해냈다. 그것이 가부장적 판타지의 실체인 것은 자나 깰 깨도 알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이런 남성의 성욕 판타지가 굳이 김기덕 감독에게 더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은 그의 영화들이 더 여성의 남성 같은 남성성, 자기성영화가 될 된 것이기 때문이다.

<악어>에서 버려진 여자가 가학적인 살인을 당하고, <파란대문>의 여자는 스스로 성매매 여성이 됨으로써 성질된 여자가 되고, <나쁜 남자>에선 창녀이 사랑으로 변한다. 이제 <사마리아>에선 원물섹스라는 과격적인 묘사로도 타자 · 남성구원과 자기구원에 나선 실제 여성이 등장하고, 성폭에 굴주려 빌 같은 어린 여자애들을 탐하는 남자들을 응징하는 여자가 등장한다.

혹시 <사마리아>가 난해하다면 그건 보이는 그 자체를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무질없는 관객의 과잉된 욕구일지도 모른다. 초기의 <악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 같은 어수선하고 정리 안된 초기작들보다 이 영화는 관객을 덜 불쾌하게 하면서 성폭구물만의 질서을 정교적으로 어울짝 풀립해어리는 방향으로 가있다. 그래서 관객들은 영화를 보다가 만금없는 장면과 대사에 초점을 더브리기도 한다(어떤사람에겐 원물섹스를 당한 남자가 실제에 누워 우리 모두 성적을 주지말고 살아야한다, 는 대사를 구사하는 황당한 이미지 같은 것들-).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줄서

와 구원이란 종교적인 지표를 내걸고, 여성이 자신의 몸 · 성기를 자발적으로 남자에게 대주고 그것으로 존재의 부조리와 공허가 치유된다는 메시지. 이것은 남성 판타지가 조작해 만든 순전 식물해온 구원의 여자에 대한 단순한 판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게는 고뇌와 성을 대신 여성의 몸으로서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오고 있다.

인간은 성적존재의 결과물로 탄생하지만 성욕망과 그것이 만들어 낸 생존욕망, 다양한 욕망들로 자기조정장치를 가동하며 존재한다. 여성이 남성 판타지 속에만 갇혀있는 타자가 아니듯 여자니 · 매춘부가 아닌 하나의 인간 개인 · 주체로 남성과 살려함이 존재한다는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의 몸하지 않는다. 시구에서 벗어나는 영화에는 이러한 남성판타지라성과 공격적 폭력성에 예술성과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다. 시민주의와 이국취향이 가부장적 남성 판타지와 만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관객들은 그들이 즐기고 있는 거짓 · 과학적 몸로스의 순환체도부터 이중의 말주술 감행해야만 한다. 남성욕망은 여자 판타지, 여성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폭력으로부터 벗겨고 유해한 말주술 감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ET

글 유세지나(영화평론가, 동국대학 교수)

이슈 이슈 | 여성 성적 판타지 조작술

여자들을 둘러싼 괴담, 혹은 진실

—여자들이 밤거리를 걸길 때 목숨까지 걸어야되는 이유

가장여가 주축하게 내리는 새벽 빌거리. 얼굴은 드문드문 가로등만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 시간이다. 한 여자가 집을 향해 걷는다. 그 여자의 뒤를 수상한 남자가 쫓아 걸어 뒤쫓고 있다. 여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걷다. 남자는 목적한 피해자임 커녕고 여자의 뒤통수를 후려갈긴다. 비명과 함께 쓰러진 여자를 향해 남자는 몇 번의 몽둥이질을 더한 다음 여자의 지갑을 뺏는다. 그 후 몇 명의 여자들이 같은 남자에 의해 같은 거리에서 비슷한 봉변을 당했다 한다.

그 남자가 사람은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으며 여자는 피해자임이 맞은 게 아니라 갑도 적 피를 흘렸다고도 한다. 또 그 남자가 손과 입에 뭔가 입었다고도 해로 봉변을 당한 여자들이 모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이라는 얘기도 있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해 놓는 이 이야기가 이곳과 흡사하다. 2003년 하반기에서부터 홍대 초

까지 한국 최고의 유흥가, 젊은이들의 문화거리인 홍대 입대를 배능하게 한단 소문이다. 그러나까 소문만하는 이오는 새빠지면 홍대 입대에서 홍대 미술하과 여학생 만 읽어 이유 없이 몽둥이질을 해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까?

이어 범인이 검찰 이 사건의 사실은 이렇다. 한 남자에 의해 직업도 연령도 모두 다른 8명의 여자들이 세빠 방거리에서 일명 퍽치기를 당했고 사건 발생 장소는 주로 신촌, 연세로, 이렇을 부근이었다. 그러나 홍대 미대에 재학중이던 한 여성이 홍대 근처인 동교동에서 피해를 입어 사망했고 그 이후로 이 연쇄퍽치기 사건은 홍대 괴담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해 남자는 동대문에서 재단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생계가 막막해진 전과자. 과거 교도소 수감 당시 어느 수감자에게 배운 퍽치기 수법을 생계수단으로 생각해 낸 이 남자는 범계분석서 3kg이 넘는 서류봉투를 주문제작, 2003년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8명의 여성들에게 90만원의 돈을 강탈했다.

2003년 10월 14일 서대문경찰서와 마포경찰서의 소속 강력반 형사 전원의 연합 공복철이 끝에 연희동 부근에서 현장범으로 검거 이 범인은 2004년 2월 3일 "돈을 강탈할 목적으로 묻기도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피고인이 사업 실패 뒤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생활이어서 벌어지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서부지법 형사합의 1부에 의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연쇄 퍽치기의 추억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이후 한동안 비슷한 괴담들이 근거도 없이 퍼져 여자들의 밤거리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괴담증후군이 계속되었다. 홍대 근처에서 유흥을 즐기는 몇몇의 여성들은 괴담이 퍼질 당시를 이렇게 추억한다.

"그때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빨병을 가지고 다니자. 아무리 늦어도 집에 갈 때 빨병을 쓰고 가면 안심하지 않을까? 그만큼 그때는 여자친구들끼리 이 근처에서 만나는 걸 무서워했고, 만나면 그 얘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홍대 근처에서 살고 있는 나랑 친한 언니는 평소라는 날이 새벽에 만나자 그러면 어떻거리고~." - 이주영(가명, 20대 후반의 직장여성)

"이대 근처가 집이에요. 평소에 집에서 TV를 많이 보는데 홍대 괴담에 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거 본 다음에 우연히 홍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걸어 다니는 거하은 거리였는데 택시를 타고 일찍 집에 들어갔죠." - 김은주(가명, 20대 후반의 직장여성)

"홍대 다니는 여학생들만 골라서 퍽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뉴스고 신문이고 퍽치 홍대에서 일사를 하니까 보도도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기억나는 건 우리 가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굉장히 자세하게 해준 얘기예요. 아줌마가 그러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남자가 쫓아오더래요. 기분이 나쁜 게 이 아줌마 걸음이 빨라지면 그 남자도 걸음이 빨라지고 느리게 걸으면 그 남자도 뒤에서 느리게 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사람 많이 들어가리는 근처 가게로 들어가서 숨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인가? 그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 고현아(가명, 30대 초반, 직장운영)

공교롭게도 홍대 연쇄 퍽치기 사건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이 대박을 터트리고 있는 시점과 맞아 떨어졌다.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도 영화 <살인의 추억>과 <아일드 카드>의 모델로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범인은 그런 영화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어. 그저 범인이 없어 인적이 드문 피로는 범거리, 비교적 범행이 쉬운 여성들을 대상으로 몇 분의 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다. 어느 해적하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돈 몇 십만 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범인은 "십만 원이 나중이 백만 원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다. 범인 하나만 놓고 보자면 이 연쇄퍽치기 사건은 황당할 정도로 단순한 사건이었다.

괴담은 밤거리를 타고

홍대 괴담 이외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강력하게 괴롭히는 남탕스러 괴담은 일상 있어왔다. 어느 40대 남성이 나이트에서 여성을 유혹해

수면제로 정신을 잃게 한 후 바깥에서 그녀의 생각에 상응을 낮았다는 나이트라인이나 서울 구의동 막장에서 영글 없는 피해의 여성들을 살펴하고 대다라는 특성 피당적이~.

이런 피당들이 사실이나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유의 피당이 그 존재만으로도 여성들에게 적절함과 공포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범죄은 자리의 어디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최우 24시간 공원에 해당하는 범의 지속, 범죄이면 유흥, 그리고라 여성 이들에게는 밤 그대로 출제등이 시작되는 그 시간 외 지속을 목숨을 걸고 맥해야한다는 말이 된다.

이런 공간을 피해서 해결될 당신의 문제가 아닌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밤 이란 시간과 '여성 이라는 불대조건 안에서 범죄의 명하은 거의 없다. 그래서 홍대 피당 같은 사건은 사건의 피해당사자들에게나 이 사건을 접조한 혹은 매체를 통해 관심적으로 접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심각한 점은 실제로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를 자연히 보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피해 대부분 여성들이라는 점부은 점은에 도달하기 쉽다는 것이다.

"전 세인 27시간 동안 강도, 3차례 성폭행한 30대 검거" (노사모) 2004년 5월 11일

"가출주부 성폭행 뒤 나체사진 인터넷 유포 협박" (연합뉴스) 2004년 5월 11일

"복구해요 위해 집안자에 이렇진이 해해" (연합뉴스) 2004년 5월 11일

"여대생 집 앞에서 초기에 칼에 숨져" (연합뉴스) 4월 22일

"남성에 스토커는 흉사, 적년 여인 서방 2건분 / 여장 사람에로 주장도"

(경향신문) 2004년 5월 12일

"인질적 마녀구이도 감수록 증가"

(세계일보) 2004년 5월 6일

"집들이하러 술에 다이어 강제했은 뒤 금전 빼앗다"

(세계일보) 2004년 5월 3일

"경산지에 나면서 알 임금체불 무위 신고 / 여장에 강력 인질"

(경향신) 2004년 4월 29일

"연상녀 주의보"

(한국경제) 2004년 5월 11일

여전 언론의 보도만 본다면야 여자들은 이중이 변불대고, 가슴뛴다고, 집이 끌린해도, 어디도 혹은 범죄은 이유도 없이 죽고 협박받고 해당고 살폭행당한다. 정말 그럴까?

조사 결과 실제 범의 피해자의 성비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0%에 머무른 반면 남성들은 범죄 피해자의 80%를 차지했다. 경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중 범의 피해자의 10.8%, 2001년에는 10.2%가 여성이었다. 경찰청의 분석하는 2003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피해자의 21.4%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총 범의 피해자보다 강력범죄에서 그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3대 강력범의에 '강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겠다.

그는 '3대 강력범죄의 발생원인이 여자, 그러나라 실제 범죄 은연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은이 많은 건 아직 남자들이기 때문에 범죄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남성들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안심해도 좋을 일이지만 한국 범죄의 룬 거이 특성을 들여보면 그리 안심할 일이 아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 주제분석(1998)』을 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피해에 따르면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세번째 걸친 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1993년 13.4%, 1996년 10.5%, 1998년 8.7%의 피해경험이 있으나, 여자는 1993년 18.4%, 1996년 13.7%, 1998년 14.2%로 각각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도 이 결과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상폭의 피해경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폭의 3대 강력범 중의 하나이며 그 피해이 가장 많다는 면에서 여성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다.

최근만 여자의 여자로 태어나 유리하게 살아온 적이 별로 없는 이에 이런 피부에 와닿지 않는 통계수치들만으로 설명하기 힘 들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중 어떤 통계는 피부가 아닌 가슴에 와닿는 것이 되나 있었다. 이 피당사건을 위해하기 위해 여기저기 자료를 을 뒤적이던 중 발견한 '정폭하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성의 피해신고율은 8%'라는 통계가 그 하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집계된 이 통계는 피지할 것 없는 여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0%라는 다소 충격적인, 소수점으로 처올하지 않는 여성들의 침신은 여전히 여제이리스로 남은 육상연쇄살인사건이나 판례의 전보를 예정으로 하락하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범죄인 스토커범죄의 증가에 스토커 사건 처리의 무제 같은 정신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실제 한 여자대학교에서는 여성범죄 특강으로 내 남자문구가 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진단할 수 있는 과목을 준비했다고도 한다.

자, 이제 여자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준비만 된다면 방가처의 홍차숙은 아직 여자들 을 이다. ☐

글 조덕선영 / 사진 신문

제이슬 役을 준스타일의 〈싱글즈 인 서울〉

더 발칙할 수는 없는 거야?

일에 시들일 이력서가 공해 처리를 들어왔다. 경영기획도 못생기지도 않은 괜찮은 남자의 사진을 들이대며 "결혼 아들이니까 부담없지, 직장도 좋고, 인물도 이 정도면 괜찮아, 집안도, 알아나 좋은지 중히, 내 살 사이니까 해야죠"라고 소개한다. 부담없이 만날 만나 보라니 나 그 후 결혼은 안나지만 하면 상당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해치한 모양이다. 내가 얼른 이력서라야 될 공정거리로 보였나, 아직 선물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주위사람에 걸려있는 내 모습이 비참하다. 그런데 그 집 이력서가 지난 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꾸도 공해 하나가 없는 집에 아들이 해결감이야." 하던 선생이의 말이 떠올랐으니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이럴 TV에서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나온다. "소중한 건 멀어버리고 기다리는 건 오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일만 다가온다."는 신혜영배우의 내레이션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이대로 내 젊음이 끝나는 것일까. 그럴 순 없어! 그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서 나타나는 이 시대 싱글 여성들의 삶은 끊임없이만 해야 선생은 그 끊임없의 결정체다. 매인에게 버림받고, 다시 만난 부자남은 결혼보다는 사

심의 이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리디 어린 꽃뱀과 놀아나고, 자신을 좋아한다는 남자는 소문난 바람둥이다. 이런 남자문에 마하는 술 푼푼 먹고 알아버릴 수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집에서는 결혼 못한 세 무슨 벌이라도 되는 양 구박을 일삼더니 유지하면 선물부로도 당신을 당하게 하고, 회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야도 항상 주스코키퍼가 되고 일에 대한 열정은 생호지만 능한점을 못 받는다. 그러니 결혼이 해답이다? 산넘어 결혼이 못이루어지면 많은 20, 30대 여성이 이 드라마를 즐겨 본다고 하니 그만큼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리라.

이런 와중에 '싱글 여성들의 당당한 삶 엿보기'라는 최당적인가 기획을 내건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케이블 위성이 여성 라이프스타일 채널 온스타일에서 방송하고 있는 〈싱글즈 인 서울〉이 그것. 이 싱글 여성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볼까?

동시대 싱글의 자화상 (섹스 앤 더 시티)

라일 시즌에서만 시리즈 〈싱글즈 인 서울〉은 비단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HBO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컨셉트를 그대로 가져와 경문적 싱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1998년부터 미국 HBO에서 제작, 방영해 톱에 머지막 시즌을 맞은 〈섹스 앤 더 시티〉는 30대 전문적 여성 뉴요커 네명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결혼남보다, 데이팅 일색의 최우수 시리즈상, 여우주연상을 수차례 받을 정도로 최세의 드라마이며 국내에서도 케이온, OCN 등을 통해 방영되면서 많은 마니아 층을 만들어냈다.

〈섹스 앤 더 시티〉는 하위 20, 30대 여성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네명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일과 사랑에 대한 솔직한 태도가 공감과 동시에 동경과 부러움을 사기 때문. 성 칼럼니스트인 캐리사와 에이전시 대표인 샬럿으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기는 홍보이사 시인다인 캐리입니, 보수적인 성향으로 남편적인 사랑을 꿈꾸는 변호사 샬럿크리스틴 데이비스), 냉소적이고 이성적인 변호사 미란다(신시아 닉슨), 네명의 친구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에 성공함을 보여나간다. "오프라같은 지어낼 수 있지만, 에밀리나 린달같은 지어낼 수 없어."(캐리) '남자한테 '난 너가 싫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섹스를 즐길 수 있지만, '난 널 사랑해.'라고 말하면 이미 넌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거야."(시인다) '사인다에게는 늘속 어떤 계수에 너 그게 숨어야 있나? 여기서 가장 크게 오려졌어, 항상 열려 있고."(샬럿) "우리는 분명 사랑했어요. 고마워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떠나요. 떠나서 행복하게 지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수에 회사가 열망 되고 있어. 하지만 난 그것만으로는 안돼. '우리는 알지 말아. 그러니까 이제 떠나버려.'라고 말하거든."(미란다) 개성 강한 친구들이 거침없이 풀어놓는 본인 성적 능력과 사랑에 대한 고민은 때론 고미한 대로, 때론 공지한 대로 '멋있어야' 할 연발하게 만든다. 또한 최로운 싱글로 살아가는 그들의 고독과 그로인한 시행착오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기도 하기에 예상하면 시선으로 지켜볼 수 없다. 예나일 때문에 최후적해든, 자신보다 젊은 여자들이 풍기는 매력에 열등감을 느끼며 어린 남자와 동침하는 방어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고 이혼한 후 어설픈 성개방론을 펴든, 임신문에 아이를 가지고 싶기든 독신으로 삶을 개조하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시집이나 갈까'를 거부하는 싱글들

〈섹스 앤 더 시티〉에 열광하던 싱글 여성들은 〈싱글즈 인 서울〉에도 기대가 큰 주변에 없다. 〈섹스 앤 더 시티〉를 보면서 '저건 능욕이니까…' 하며 환수 열광하던 〈싱글즈 인 서울〉에서는 우리 사회 싱글 여성들의 자화상을 비춰볼 수 있으니까. 〈싱글즈 인 서울〉에는 네명의 싱글이 등장한다. 패션잡지 기자 제이슬, 에드컨티 에이전, 우리사 홍연실,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담당 유나가 그 주인공.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면된 이들은 매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한때주의자이면서 일과 사랑 모두 열정적인 에세이존 캐리, 활동적이고 개방적

는 등이나온 사람인데, 화려하고 퍼얼거란 다른 보수적이고 따분이 같은 과정들은 싫음. 저속이면서도 얼굴한 흥미있은 이란다. <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처럼 따른 대형의 주인공은 재주와 매력을 발산하며 자신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싱게 생활 속에서 이런을 수행하고 경험에 따주어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솔직하게 풀어낸다.

'결혼적령기'라는 말이 아직도 존재하는 '결혼 권하는' 사회에서 싱글 여성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싱글즈 인 시티>는 의미가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결혼의 둘 싱글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과 경혼, 육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계획과 불안은 이 시대 싱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시집하나 갑면.' 하면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경제적과 자신감을 가져야한다는 말이나 새로운 문화에 도전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 뭔데이지 않는 자유 등은 분명 '싱글로 살아가기'의 증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싱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최초로 공개한다는 <싱글즈 인 시티>의 설정은 약 거기까지. 섹스 스타일 캐릭이 여기에서 멈춘다. 파격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크게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이들은 주인공들의 외모가 예쁘기이기 때문이라고 루스코스로 말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별 모두 너무나 전형적인 예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있고 잘 나가는 당당한 커리어우먼의 이미지는 이미 정말 만큼 퍼졌다. 싱글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같은 선택인별 다양할 수 있단만 이 프로그램은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재생산함으로써 싱글의 삶을 전승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싱글로 살아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경박한을 심어준다. 이것은 프로그램 탓이기 보다는 현재 때문이기도. 하다. <싱글즈 인 시티> 마지막 회에서는 시청자 투표로 내린 좋 최고의 싱글을 선정해 시상해 크루스 여행을 보내준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최고의 싱글'이라 명명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솔직한지, 얼마나 스타일리쉬한지, 얼마나 이런을 잘 수행했는지가 선정의 기준이 돼버리면서 불평등하게 '누가 누가 더 멋났나.'를 겨루는 경쟁구도가 돼버렸다.

싱글로 살아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 주어지는 이런도 싱글들의 실제 삶의 고민을 담아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최고의 스타일로 변신하라.' '허리 24 / 가슴 36을 만들어라.' '연하남을 느껴라.' '개인기를 키워라.'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을까.' '주식 정보, 카더라 정보.' 등의 주제는 사회의 문화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은 일지언정 삶에 밀착한 이야기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한구멍할도 없을기만 한다. 같은 주제라도 불가무기가 주는 스트레스나 몸에 대한 자신감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일 이외에 삶의 활력소가 되는 취미생활, 경제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후 등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다가 원국판 <섹스 앤 더 시티>을 표방했다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섹에 대한 솔직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할 나랏 스탠스' 할 수도 있지. 하여 간혹 섹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보고서 하지 큰 주인공들이 '섹스 라이프'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굳게 다문다. 물론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성생활 얘기가 그래도 노출되는 주인공들이 섹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취향, 주장을 펼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미국과는 다른 분위기의 변변하게, 합리하게, 섹시하게 이야기했으면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사회에서 싱글로 살아가기는 녹록치 않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맞는 하나 둘씩 늘어가고 삶의 중요한 측면인 섹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같지 않은 나이가 부담스러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는 점점 줄어들고 어려는 불안해지기만 하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싱글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그 삶이 매력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섹스 앤 더 시티>에 나온 여성들이 멋있게 보인 건 그들의 화려한 스타일과 자유분방한 삶에 대한 부러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디자이너처럼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네 주인공들 사이의 끈끈한 우정과 연대감이 부러워서였기도 하다. 이런의 문제가 아닌 온전한 싱글로 홀로서기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관계로 삶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면 굳이 '싱글이라 부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글 최소희

남성 성폭력피해자, 그들이 '피해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 군대 내 성폭력의 은폐구조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에 대한 첫 공식 연구인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를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글을 통해 남성 성폭력피해가 은폐되는 메커니즘과 그 해결책을 알아본다. - 편집자주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것

2003년 7월 김일병의 사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곧바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되던 군대 내 가혹행위가 한 사람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그 가혹행위 중에 고참병에 의한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서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충격을 받은 것은 비군인들이었다. 군대에 어머 다녀왔던 남자들은 일어지지는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고백했다. 몇 십년 전에 제대한 사람부터 최근에 전역한 사람까지 군대 내에서 남성들간의 성폭력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는 이런 상황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를 받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 등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는 필자를 포함해 권인숙, 김엘리, 이동옥, 노미선, 이경환, 홍미리 등 7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 총 671명을 설문조사하고 가해자 8명과 피해자 3명을 심층면접했다. 그 외에 보충면접으로 군법무관과 기획관, 군대 내 성교육 담당자 등 총 11명을 만나 법과 제도적 한계 대한 제언을 들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해서 조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연구과정 중에 시골의 집에서 만난 초등생들은 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갑자기 설문에 응했다가는 영창에 갈지도 모른다며 10명 중 7-8명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한 부대는 설문 자체를 모두 폐기하기도 했다. 연구조사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연구에 응하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첫 공식 연구결과는 남성 간 성폭력의 실태에서는 것을 드러냈다.

과 말하는 조직적인 지원을 내세울 리도 없무한데, 설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어떤의 큰 부담이었던 것 같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연구조사 결과 밝혀진 성폭력 실태는 꽤 충격적인 수치로 나왔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15.4%가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던 것이다. 또한 직접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명으로 전체의 7.2%가 답했다. 더 심각한 사실은 피해를 입은 병사가 다시 가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가해자의 8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간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군대 내에서 폭력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발생빈도를 살펴 보면 피해자 103명 중 1회 이하인 경우가 9건(8.7%)이었으며 2~4회가 42건(40.8%), 5~6회가 13건(12.6%), '수시로'가 31건(30.1%)으로 전체 응답자 중 83.5%가 2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의 양상은 포옹 70건(41.2%), 가슴 및 성기 만지기 57건(33.5%), 성기만지기 22건(12.9%), 키스가 16건(9.4%), 성기삽입 시도 또는 성기삽입이 2건(1.2%), 피해행위 강요 1건(0.6%),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가 2건(1.2%)이었다. 폭력는 남자들에의 포옹하고 가슴 만지는 정도를 가지고 별 그렇게 초등감이나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목격자의 경우 총 373건의 피해 유형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기만지기가 84건(22.5%)으로 피해자 응답의 2배에 달했고, 성기삽입 시도 또는 성기삽입은 총 19건(5.1%)으로 피해자 응답의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 점은 피해자가 피해를 축소시켜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해도, 설문조사 과정에서 '강제적 이었는지를 재확인한 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남성 간의 성적 접촉은 단순히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가 아니라 폭력임을, 군인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가해 - 피해는 계급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었는데 피해자의 71.1%는 가해자로 선임병을 지목하였으며, 이 외에도 부사관 7.0%, 장교 3.1%로 총 81.2%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자가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남성 집단피해자는 자기주도적인 성경험이 아니라며 말하기를 더 어려워한다. SBS 대부 두스킨 한 장면.

을 살펴보다. 가해자들이 가해를 하는 이유는 '그냥' '장난으로' '감정과의 표식'이고 본다. 피해자들 역시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왜 그러는 걸까? 아니도, 선입견이 워낙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걸까?

우리 앞은 동성에 접오증의 피해자 되기의 어려움

면접조사 과정 중에 만났던 한 피해자는 자신이 이성애 혐오 때문에 교통사고 당했어 만지고 그런지만 고통이 줄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했다고 한다. 일명의 시간 때면 되니까, 군대생활 말하라면 참는 게 중요하니까, 라면서 넘어갔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한 면접자는 피해경험보다는 가해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편하게 했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 피해보다 더 싫은 것, 이것이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피해자는 곧 여성적인 존재 혹은 이런 존재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모욕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시간이 지나 계급이 올라가 후배를 괴롭힐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점 중 하나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가해자들이 동성애 혐오증이었다. 가해자 중 한 사람은 동성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며, 죽인은 이성애자라는 점 덕 분이고 판독해서 확인했다. 그는 "저급 양성 교도소에서 종이 온다고 해도 동성애나 동성애 대한 성적 취향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입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동성애자 남성들은 군대 내에서 사실상 피해를 입을 수 밖는 가능성이 더 높다. 군대 내 성폭력은 철저하게 남성화되고 위계화된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적 취향이나 여성의 부재 때문이다기보다는 남성적 우위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고자 일어나기 때문이다. 동성애 혐오나 강제성이 무관하지 않았던 가해자들 역시 그냥 귀엽고 친해지려고 한 행동이지 성적 욕망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가 가해자일 거라는 세간의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 피해자 중 동성애자 남성들을 인터뷰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다. "자라리 가해자라고 하면서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동성애자인권운동가 친구는 충고한다. 또한 가해자들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는 없었다. 모든 폭력의 원인은 단지 권력과 혹은 권력을 잡을 수 없을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편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면서 자신의 몸이 그때 반응했던 이유를 끊임의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왜 성폭력은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쉬쉬하고 묻혀버리고 말아버리는 문제일까? 가해자들은 그렇게 간단히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피해자들은 왜 그것을 '피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하는 걸까? 한 남성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당하면서도 멋졌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했다고 하면 더 비참해지니까 차라리 같이 즐겼다고 생각하는 게 낫기도 하다는 것이다.

폭력의 쾌락, 가장 큰 후유증

피해 이후 후유증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부분의 면사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가장 큰 후유증이라고 생각한다. 폭력에 익숙해지는 것 말이다. 피해 직후 증상에 대한 응답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대인관계나 군대생활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특히 남성간 강간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피해자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욱 큰 후유증에 시달린다. 한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면 '비정해지고' 그렇다고 스스로 강간당했다고 합리화를 시키자니 자신이 혹시 변태나 동성애자는 아닌지 고민된다고 했다.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편견과 이러한 남성 강간피해자들이 더욱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

남성 간 강간의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은 여성 피해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 성경험 자체가 비난의 원인이 되는 반면,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기주도적인 성경험이 아니라고 말하기를 더 어려워한다는 점이다. 남성 피해자들은 정체성과 욕망과는 별개로, 피해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스스로가 성폭력 피해자이며 자신이 겪은 것이 피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할 것이다.

남성 강간피해자의 입은 수치심은 항문성교가 남성성(masculinity)을 훼손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남자가 항문에 삽입을 당하면 체면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여성화된 자'로서 시민의 권리가 박탈당했다. 남성강간피해자들은 필요한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성사회에서 여성화된 자, 남성이 아닌 자, 혹은 동성애자로 낙인 찍혀 공감하나 지지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남성 간 성폭력의 강간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을 받고 피해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남성들 스스로의 공감과 지지가 이러한 입은 수치심을 씻을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자신을 지킬 권리도, 폭력도 인식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남을 지키겠다고 전방에 서있는 건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폭력의 피해자가 '넌 권리를 주장하라. 그리한 폭력의 악순에 공감하지 않고, 무엇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

■ 면담완성

우리 모두는 다른 여성의 어머니다

– 「어머니의 정원」 「빛」 등을 통해 세계에 만난 엘리스 워커

여성의 사랑과 힘, 자매애로 세상을 바꾸자.

엘리스 워커를 기억하는 한국 독자들은 우선 영화 <컬러 퍼플>을 떠올린다. 1985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화해 전 세계 관객에게 더욱 널리 알려진 원작 소설 「컬러 퍼플」은 엘리스 워커를 세계적 작가로 부상시킨 작품이다. 워커는 이 소설로 1983년 퓰리처상과 전미도서상을 수상했다. 1960, 70년대의 흑인민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참여했던 워커는 현대 미국흑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일 뿐 아니라 이 시대의 행동하는 지성인이다. "나는 것은 존재하는 것 이며 존재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까지 반핵 운동, 환경보존운동, 아라크 전쟁 반대 운동, 인디언 권익보호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4년 봄 시점에서 엘리스 워커를 만나게 되는 한국 독자에게 특히 여성독자에게 그녀는 왜 새롭게 다가올까? 우선 엘리스 워커가 페미니스트라는 용어 대신 자주 사용하는 우머니스트란 누구인가 다시 생각해보자. 워커는 페미니스트 대신, 특히 흑인 문화에서 사용되는 '여성답다.'는 의미의 "우머니시"(womanish)에서 유래된 '우머니스트'(womanis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머니스트는 젊게, 용기있고 책임감이 있고 행동하는 흑인 페미니스트 또는 유색 인종 페미니스트를 지칭한다. 즉, 우머니스트는 성적으로 또는 성에 관계없이 다른 여성을 사랑하며 남녀 모두의 생존과 총체적 인간성에 관심한다. 남성을 사랑하기도 하는 우머니스트는 분리주의자가 아닌 보편주의자이다. "동성연은 모든 색깔의 꽃이 피어있는 정원과 같은 것"이라는 말에 담긴 메시지처럼 모든 인간의 평등함과 다양함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보편주의자이다. 따라서 우머니스트는 식구의 이분법적 사고가 살생하는 억압적인 허상관계를 뛰어넘는 총체적이며 전인적 인간을 꿈꾸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여성상은 용기 있고 과감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여성일 뿐 아니라 사랑과 포용과 화해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여성이다. 모든 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참여하는 여성들은 바로 워커가 말하는 우머니스트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성장수술은 성기절제관습과 같다

워커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주제는 한 마디로 요약해 변화(transformation)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인간은 더욱 인간적일 수 있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고 그녀는 믿는다. 그녀의 모든 소설에는 억압을 극복하고 주체적 자아를 찾아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있다. 2004년 최신작 「이제 이름을 말 해야 할 때」에서도 이 넘, 인종, 노소 간의 갈등을 초월하고 영적 개달음에 도달하는 여성투사가 주인공이다. 사실 「컬러 퍼플」이 근본갈등, 동성애, 특히 여성에 대한 특히 남성의 폭력과 같은 근폭스런 문제를 다루었고 이것을 흑인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한 흑인 남성 비평가들은 그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것은 실리와 전 남편인 미스터의 인간적 변화, 그리고 실리 동생 네티의 변화를 이러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워커에게 있어서 사회구조의 변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주어의 주체적 변화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시발점은 바로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살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필요조건에 정신적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해

말을 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소외된 몸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심리 상담의 맹 세인이었던 서그는 심리에게 거울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성기를 바주어 보라고 말한다. "너 정말 한번도 거기 본 적 없는 거야? 네 자신을 보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럽단 말이야"라고 말한다. 심리는 난생 처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성기를 보고 놀라지만 곧 "이것은 내 것이야."라고 말한다.

워커는 "컬러 퍼플」이 여성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독자들이 자신에 대해, 특히 자신의 단점에 대해 어떤 것을 두려워했다는 점을 든다. 오랫동안 노예제도 하에서 살아온 흑인들은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못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사랑에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더욱더 감추게 된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믿는 것이 주제적 차원 표현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녀는 말해준다.

사회가 규정지워준 문제를 해체하고 억압적인 신화를 해체하고자 하는 워커는 케냐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영화제작자인 프라데바 파야(Pratibha Parma)와 함께 아프리카 여성의 성기절제 관습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 관습 때문에 위협되는 여성의 고통, 분노와 승화에 관한 소설 「환희의 비밀을 간직하며」를 썼다. 또한 파야와 함께의 연구를 바탕으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전사의 낙인>(Warrior Marks)을 제작했다. 워커는 한 인터뷰에서 여성의 성행수술을 아프리카에서 행해지는 이 여성성기 절제관습과 비교해서 말했다. 여성의 성행수술은 남성인의 쾌락을 위해 행해지는 여성성기 절제관습과 같은 개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성의 몸 전체가 생기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워커의 말을 상기해볼 때 피도식술주의에 빠져 성행수술이 되어버린 한국에서 적절해야 할 수술에 도달한 성행수술 증동증 환상은 더욱 심각해 보인다.

많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매

주필급 「여러니의 정원을 맞아서」 포함 한국 독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녀의 글쓰기 정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책은 흑인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밭일에게 남기준 정신적 유산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최초의 흑인 여성 시인으로서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팔려와 노예가 된 필리스 휘틀리, 남부 흑인들의 아픔다운 언어와 문화를 기록했고 흑인 여성의 이중다운 사람이어기를 멈치던 가난하게 죽어간 조라 닐 허스턴, 하루 종일 백인의 집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50권 이상의 일을 아슬아슬 피어나게 했던 자신의 어머니 등 많은 여성들의 기도문을 읽어주는 것이다. 꽃에 대한 어머니의 기억 때문에 가난의 기억조차도 꽃을 통해 바라보는 워커는 흑인 여성 선조들의 말이래에 정치감을 표한다. 가장 비인간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 꽃을 피우며 살아남은 흑인 어머니들 자신이 바로 꽃이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 대적 감탄하여라는 정신적 유산을 딸들에게 가르쳐주었다.

이 책은 한국의 페미니스트 딸들에게 어머니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우리의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은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 그리고 1960, 70년대 근대화의 암흑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성 주체성도 꽃을 가꾸었던 워커의 어머니와 같은 태도으로 딸들을 키워온 우리의 어머니들이 바로 우리의 뿌리가 아니가?

그 의미에도 이 수필집은 여성간의 연도성의 중요성, 세대간의 의사소통, 글쓰기를 통한 여성 주체 형성, 심리는 여성과 육아, 여성의 정치 운동 참여, 여성 문학전통 찾기 등 현재의 한국여성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개개의 여성은 다른 여성을 해방시킬 힘 수 있다." "세대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친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많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매이다." 등의 많은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에 남고 싶은 말들이다.

최근의 루머니스트는 우리에게 새로운 여성주의와 페미니스트상을 제공한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여성, 영혼과 자연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여성, 인생과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여성,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타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식을 경계하는 자아 성찰 능력을 가진 여성. 여성간의 자매애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여성이 바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주의자이다. 워커의 글은 우리에게 일상생활과 유리된 페미니즘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며 현실에 여성을 둔 한국의 페미니즘을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여성의 힘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꾸어가야할 이 때 한국에 온 앨리스 워커는 우리에게 크나큰 마음의 선물이 될 것이다. ST

글 구명숙

잡초 학생으로 살아가기

– 학생자치권 탄압과 여성지도자 기르기의 상관관계

나는 2020년에 대한민국 리더 10%를 키워낼 것이라 장담해 마지 않는 모 여대에 다닌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특성화된 리더교육의 선두주자다. 예지란 것은 그 특성화시킬 대상에 내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소수를 위한 리더교육은 절실하지 않다는 확루의 말에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한다. 나는 인권 장애라는 최예지를 바라보고 곤혹하고 기막히라고, 굳이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조건 낮춘다느니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인가?

여성리더의 자질을 가로막다고?

여성. 나는 태어나서부터 여자였고, 앞으로도 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 문제이나 저는 학교에 다닌다. 그런데도 나와 친구들은 항상 여성이라는 경계선에 둑방하라고 있다. 예년 교양수업 시간마다 꼭 한번씩은 듣나 보다. "여러분 우리학교 졸업하면 시집 잘 가요. 남편을 잘 만나요." 누가 시집보내 달라고 했는가? 당신들은 우리를 교육시켜서 시집보내려고 장난해 시집는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갇나가는 여성리더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이해하는 여성리더란 여성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성멸등한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다니는 학교 당국과 학생들조차 여성주의라음을 배웅문, 문사의 이야기로만 생각한다. 여성주의 수업이 해본 적장의 수업에 없는 학교 분위기는 자연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사회남성에서 공부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지도자, 정숙과 헌신이 여성 스스로를 위한 대리라 말하는 학교 당국은 결국 사회구조에 세대로 순응하여 '고등의' 삶아갈 여자임만 키워낼 것이다.

전사의 사명을 교육하라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대학보다 홍보물을 붙이려 하면 행정처에서 도장을 받아야한다. 예민으로 쓴 하얀 종이라도 당장 가위질에 잘려 아무도 모르게 버려진다. 학교당국은 최기단속을 이유로 자학생회실을 위시 예민 보파 산나음 기어이 찾아내 빼앗아간다. 동독군 무생을 위한 집회를 제안하는 정책한 홍보물은 감감이 몇개로 다. 총학생회의 '어젠더'에 실렸난 학우들이 과행을 반듭고 서보를 올였을 때는 말을 변하기까지 했다. 하라리 말을 것을 그랬나 보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말로 쓰리지 건단식하도 예민 적들한 반응이는 지지 않음까 실어서 말이다. 연간 600만 원의 기금을 갖다 바치는 학교에서 나는 말을 변하고 속박을 교리를 넘나든다. 아무것도 남아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이라는 기본적인 상식도 모른 채 돌박이다가 말고 조돌히 다시 다닌다. 우리는 배운 자로서 배운 대로 내 권리와 의무를 잘 분하는 방법을 찾을 뿐이다. 동독군 내고 다니는 학교의 주인로 권리도 배울 수 없다면, 사회에 나가 내 권리를 논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것일 테니까.

학교는 존중 여성 리더를 키운다는 선전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등교해보니, 일어라면합회도 사라가 없어지고 교직관점위원회도 없어졌다. 작년 대의원회 회의 때 학생회칙을 개정하면서 결정된 사항이라면다. 85년도 학생회칙을 기반으로 개정했다고 하나, 그 이후에 인정받은 학생회는 없다는 말이다. 그동안의 투쟁하고 총학생회는 학교가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학생회'이기 때문이다. 인정이나 되는 학생들이 무효해서 통는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눈 감을 감고 그렇다 치자. 더 큰 문제는 다음이다.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방무하고 2002년에 학우, 자, 선공학생회장이 모여 학생회칙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학교는 인정하지 않았다. 85년에 학도호국단이 폐지되고 학생회가 생겨났지만, 30여 대에 불동하는 총학생회와 10여 년째 뭄

동하는 동아리연합회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학생들이 투표도 통한 사람이 리더가 되지 못한다면 누가 어떻게 리더가 되는지, 학교가 추진하는 여성리더 교육은 이해하기란 하다.

준비된 리더, 끌어서 키운다

그렇다 학교가 인정하는 리더그룹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학교당국이 맘껏을 보고 구성원을 선발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내가 이곳에 '입학' 하기전인을 설문하고 있다는 행복하기를 지을 본 것은 총장 입에서 고기를 듣고 뱅킨할 때였다. 하늘에 펼쳐스에 파란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총장에게 송별을 다짐하고 있는 그들은 홍보도우미인지, 슈퍼모델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차림으로 '리더' 입을 뽐내고 있었다.

학교가 인정해주 않는 집단에 몸담고 있는 나로서는 본명의 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지만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그들에게 학생대표자로서 인정받지도 못하며,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새로 한장 이름 놓고 줄 수 없다.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장학금이 학교에 충성하는 '리더'들의 해외당별을 위해 쓰인다. 당장 학비가 아까워 어쩔수없 학우들을 제적처리하고, 그 나아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비를 면제받았다는 학우들의 장학금을 챙도당도했는 조에 써버리는 일신들이 참으로 많다.

나는 일신들이 키우는 리더그룹과 비교해보면 한낱 잡초에 불과할지 모른다. 화려하고, 생각 없는 학생이라고 해도 대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따의 고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줄 공부해서 존엄이나 하면 되니까. 정무 앞에 한 일면 다른 학교에 편입해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나는 특성학교가 진정한 여성리더를 키워내는 여성주의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대부고법자라는 불명예를 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의 행동을 고맹하고 또 고맹할 것이다. ET

글 박정희 / 일러스트 소라

여성들이여!
나만의 금융상품으로 투자해 보자!

막상 저축을 하려고 해도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어 마땅한 상품이 없다. 여기 가서 상품의 종류는 많지만 한결같이 최경금리에 저축하는 기쁨을 줄만큼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나마 비과세가 되어 유리한 상품도 정작 들어가는 주제이고 가입대상이나 금액, 투자대상 등에 제한이 있어 별 재미가 없다.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상품은 실적배당 상품이라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물론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험과 단점을 알아야 하겠지만 어리석은 상품의 나쁜 점만 보면서 망설이다가 적당한 가입시기를 놓치거나 저축을 포기하고 그냥 불평스런 곳에 써버리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행이 5월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순(純)저축률은 1998년 23%까지 상승했다가 2001년 6%에서 2002년 1.3%로 저축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축을 하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금리도 한몫해 저축이 줄어든 것도 많은 작용을 하였다.

이제는 금융상품을 긍정적으로 보고 가입하자. 모든 상품에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비과세, 소득공제, 높은 기대수익, 위험 보장 등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리한 상품을 가진 상품들을 모아서 자신의 투자 유형에 맞도록 적절하게 나누어 가입한다면 나만의 이상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매월 들어서 매월 1백만원을 저축한다고 하자. 원금 손실은 용납이 안되고, 불안한 것도 싫고, 복잡한 것은 피곤해서 그냥 정기적금에 가입한다면 만기에 가서 원금에 얼마 안 되는 이자와 함께 목돈을 만드는데 그칠 것이다.

따라만 이렇게 한번 투자해보자. 자신의 저축 목적과 필요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파악한 다음 가장 필요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 순서대로 적절한 금액을 나누어 저축을 하는 것이다.

월 1백만원 저축 포트폴리오

1. 한가지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복리다면 + 高)

상 품 명	금 액	기대수익	투자비중	비 고
은행적립기적금	1,000,000	4%	100%	만기 목 금리

2. 따로따로 분산하여 투자한 경우
(복리다면 + 주택장약 + 비과세 + 소득공제 + 높은 기대 수익 + 위험보장 + 노후대비)

상 품 명	금 액	기대수익	투자비중	비 고
주택청약부금	150만원	3.6%	15%	계약기간 2년 적립금리, 사업기에서 +0.3%가산적립식은 변동금리 2년 경과시 주택청약 25.7평 이하 1순위 가능
장기주택 마련저축	200만원	4.6%	20%	계약기간 7년 이상, 가입 후 3년까지 확정금리 이후 고시금리 변동 5년 이상 소득공제 혜택적용, 7년 이상 비과세 상품
장기주택 마련신탁	150만원	4%	15%	주식편입 비율 30% 이하인 실적배당 상품 5년 이상 소득공제 혜택적용, 7년 이상 비과세 상품
1억만들기 적립식펀드	150만원	8%	15%	목표금액 달성식, 적립식 투자신탁 상품의 대표 상품 기업사에 대한 심층 및 사업 설명서비스,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글로벌고배당 주 투자신탁	150만원	8%	15%	해외투자형 상품, 신규 혜택펀드상 추가적립 단돈5만원 소득으로 전세계 우량기업에 투자, 높은 배당 + 주식투자수익
ING생명 더드림 스마트공모형	200만원	5.3%	20%	적립비율 5.3% 고객별 변동! 5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중도인출 수령가능, 위험보장 + 노후대비
합 계	1백만원	5.9%	100%	복 권 수 익

(국민은행 5월 16일 현재 금리)

먼저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312만원이 되어 목돈도 만들고 청약 1순위(서울 · 부산기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뿐만 아니라 최고 3백만원까지 불입금액의 40%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따라서 청약상품 다음으로 추천 가입해야 한다. 문가상 3백만원 이내에서는 여러 상품에 분산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저축 상품과 함께 일부 주식에도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분산하여 가입하면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공제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라도 단독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다면 연말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는 가능하므로 매력적인 상품이다.

저금리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데 주식형 상품을 빼 놓을 수 없다. 최근 다양한 직접식 상품이 판매되어 적은 돈으로도 국내의 우량한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우량한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판매되어 투자대상을 넓혀 위험을 줄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위한 준비도 빼놓을 수 없다.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여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중의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투자방법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닌 한 예에 불과하다. 여러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이나 투자 금액은 다르게 적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다도 한가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상품에 나누어 가입하여 저축뿐만 아니라 투자를 함께 한다면 보다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김태욱 (국민은행 재테크팀장)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고생을 하는걸까?

퀘스트 QUEST

크리스 보닝턴 지음 | 이정임 • 정미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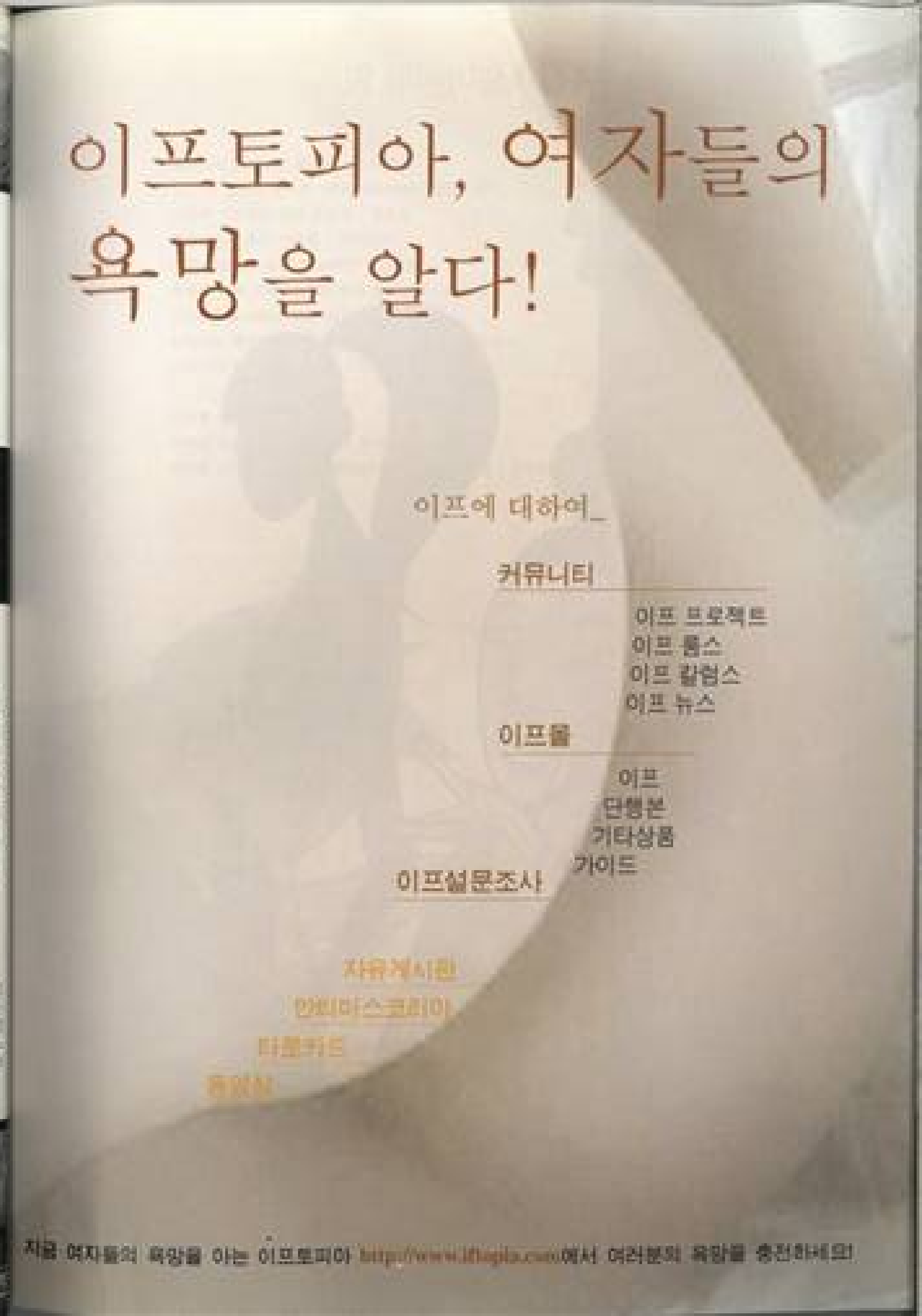
무수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끝없는 모험!
그 지독한 욕망의 뿌리는 무엇인가?
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오르고 뛰어내리고 찾아나서는가!
거대한 성취, 놀라운 체험, 생생한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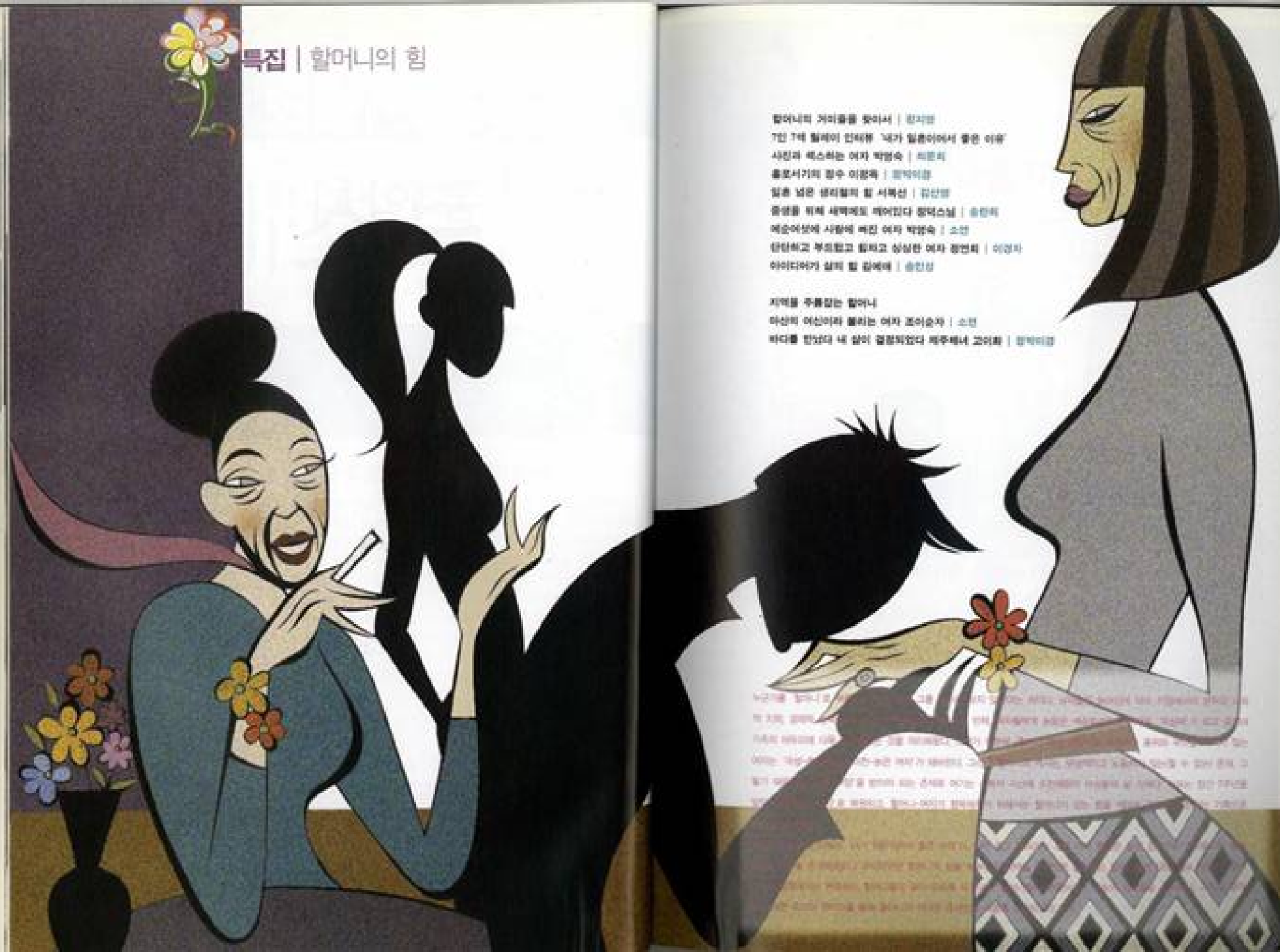
극한의 자연에 도전한 20세기 인간의 모든 역사

라인홀트 메스너와 더불어 20세기 등반사의 중요한 인물인 크리스 보닝턴은 대양이나 사막, 극지를 횡단하거나, 산에 오르거나, 카누를 타고 강을 내려오거나, 기구로 하늘을 날거나, 땅속의 동굴을 탐사하는 등 지구상의 모든 영역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한 사람들을 소개한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흥미진진한 모험이 펼쳐지는 이 책에서 크리스 보닝턴은 모험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멀리까지 여행하여 모험가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하고 그들의 모험에 대한 동기도 살펴본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모험심으로 모험에 도전하고 있는 탐험가와 모험가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

크리스 보닝턴 1934년 런던의 햄스테드에서 태어났으며,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거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서 공부했다. 10대부터 등반을 시작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알프스 등반가들 하나이며 저명한 프리랜서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1960년대 히말라야 원정대에 참여했고, 주위에 원정대를 이끌기도 했다. 특히, 에베레스트도 1차례나 등반했는데, 결국 그의 나이 53세인 1985년 세계 최고령의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 그는 알프스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거봉을 오르내렸다. 그는 '에베레스트 남서벽 초등기록' '안나푸르나 남벽 등반기'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반기' '정복되지 않은 산 중국의 무루즈타그' 등의 탐사대 결성 경험을 '히말라야 산악로 안내' 등을 포함해 14권의 책을 저술했다.

생명의 나무 031-907? www.zoobook.com





할머니의 거미줄을 찢어서 | 한지영
7인 7색 철세미 인터뷰 '내가 일흔이어서 좋은 이유'
사진과 섹스하는 여자 박영숙 | 최은희
홈보서기의 정수 이정옥 | 함혜리
깊은 넘은 생태철의 힘 서복선 | 김진영
중생을 위해 새벽에도 깨어있다 정덕스님 | 송은희
예순이전에 사람에 빠진 여자 박영숙 | 소연
단단하고 부드럽고 힘차고 싱싱한 여자 정연희 | 이경자
아이디어가 살의 힘 김혜래 | 송진성

지역을 주름잡는 할머니
마산의 여신이라 불리는 여자 조이순자 | 소연
바다를 만났다 내 삶이 결정되었다 제주해녀 고이화 | 함혜리

할머니의 거미줄을 찾아서

– 여성 삶과 균열내기의 역사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다. 할머니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할머니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니,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을 떠올려본다. '늙음.' 그리고 생각이 멈춘다. 이런저런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어떤 단어도 할머니를 제대로 그려낼 수 없다. 할머니는 너무도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가졌을 것 같기에, 할머니의 몸에 새겨진 주름처럼 깊고, 풍성하고, 복잡하고, 무language 설명으로 갖지 않는, 무설명의 이미지.

이번에는 할머니와 가장 멀리 있는 말을 찾아본다. '과학.' 할머니는 과학적이지 않다. 할머니는 미신을 믿는다. 할머니가 미신을 믿는 것인지 미신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할머니가 살고 겪고 견디면서 얻은 지식들을 우리가 '미신'이라 부르는 것인지 모르겠다. 깊고, 풍성하고, 복잡하고, 무설명의 힘고, 미신인 할머니. 할머니를 설명하려다 보니 세상 여성의 삶과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할 언어가 없다는 초조함이 엿본에 앞선다.

여자가 늙으면 할머니가 된다?

할머니는 여성이다. "젊은 여성들이 변변가 할머니가 된다." 그런데 여성들이 늙어 할머니가 되는 것이라면, 할머니는 여성의 상대 개념이 되어버린다. 여성과 할머니 사이에 간극이 있다. 할머니는 여성이지만 늙었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기도 하다. 어쩌면, 할머니는 여성이지만, 늙었기 때문에 여성이 받는 억압에서 자유로워진 여성이다. 여성이면서 여성이 아닌 할머니.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많은 개념들이 이미 성차별적이듯, '여성'이라는 말 자체도 오염되어 있다. 우리가 의식하는 하지 않는 '여성'이라고 말할 때 단서를 달지 않는 한 '젊은 혹은 늙지는 않은 여성'을 말하게 된다. 여성이지만 여성이라

등작업, «아버니고 / 할머 이름», 170 × 240cm, 1992

는 계산으로 수렴되지 않는 존재, 할머니.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그냥 단순히 늙은 여성이기도 하면서 존나, 존자를 가진 여성을 가리킨다. 다시 할머니 정의하기로 돌아가보자. "할머니" 라고 할 때 어떤 존재를 떠올리는가? 할머니라는 말은 나이 든 여성이기도 하지만, 존자와 존나를 둔 여성이기도 하다.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또 그 아들과 딸이 또 자식을 낳았을 때 늙은 여성은 가족 안에서 할머니로 호명된다. 가부장제는 모든 여성을 정상적 결혼 속에 몰아넣기 때문에 할머니라는 호명도 그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

할머니의 힘은 힘실우실"

피할머니는 소녀부 같은 이미지 것처럼 보이는 산 바로 밑 자을에 존이 계시는 날이 많았다. 명확 왜 외갓집에 놀이 가면 할머니보다이 빠일 먼저 듣는 말은 "여기까지 뭐 하러 왔어."였다. 할머니는 식들에 올라와 택시를 타면 언제나 택시기사와 싸웠다. 작은 택시가 왜 큰 버스보다 비싸냐는 것이 할머니의 주장이었다. 할머니는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 어느 날 할머니를 인촉 존에 모시고 가려 했다. 할머니는 오지 않으려셔도, "기진 뭘 하러 가, 뭘 하러 가." 하셨다. 정말 할머니는 인촉 존에 가기 싫은 것일까. 자식들이 귀찮아져 어쩔 수 없이 오는 시어머니 내키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인촉 존에 가고 싶은 마음에 오지 않으시려는 자식들에게 아안한 마음에 뒤돌이 가시고 사랑하시는 것일까. 둘 다 아닌가. 도대체 할머니의 마음은 무엇이면 할머니의 생각, 주장은 어떤 것이면 된 이다로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지 않지 말았기, 피하이 가시는 말씀을 하지 마시든가.

변강쇠와 옹녀 이야기는 예로 관다지 영화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영화에서 옹녀는 그저 색을 밝히는 여자로 끄시킬 뿐 그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19세기에 기록된 '변강쇠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변강쇠는 죽으면서 옹녀에게 다른 어떤 남자와도 결혼하지 말라고 다짐한다. 변강쇠는 그저 정력이 강한 남자인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화신으로 변신한다. 혼자서 강쇠의 시체를 치울 수 없는 옹녀는 지나가는 남자를 부른다. 그리고 시체를 지워주면, 같이 살겠다고 말한다. 강쇠의 시체를 지우려고 시도한 남자들은 시체에 올려서 죽는다. 강쇠 옆에 떨어는 시체들을 보며 옹녀는 울면서 말한다. 자나는 남자를 유혹해서 시체만 치우도록 한 뒤에, 강쇠만 생각하며 수절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남자를 다시 유혹한다. 그렇게 말을 변복하기를 수차례 반복한다. 옹녀는 사기꾼인가. 옹녀는 말을 바꾸고, 무엇이 그녀의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가부장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여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빼는지 여성들은 온몸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젊은 남성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문자와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할머니들에게는 삶이 있을 뿐이다. 옹녀에는 옹녀의 말과 마음은 옹녀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배태된 것이다. 할머니의 통성수삼이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고, 하찮아진 시점이 되었다. 여성으로서 나이 들기까지 진실과 슬픔까지 포함해 켜켜이 쌓인 할머니의 역사와 역작을 삭제한다면 우리들은 할머니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

주름처럼 깊고 길게이고 복잡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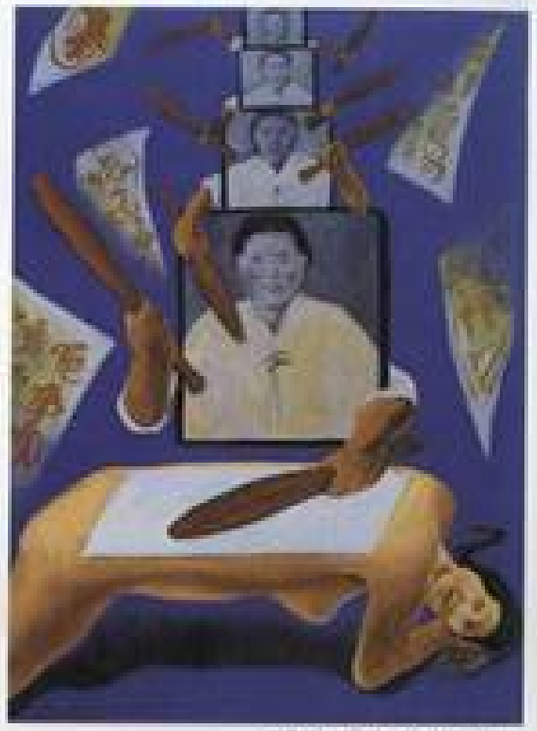
"역사가 없다는 것은 억압적인 사회적 권력가 자연스럽고 올가미란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세월이 가면은 세 혼자 가지, 남의 세월은 왜 가져 가냐"는 어머님의 노랫말을 듣노라면 정말 세월이 혼자 가지 않고 우리 모두의 세월을 데리고 가 할머니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렇게 할머니를 만드는 것은 오직 세월, 시간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과정, 자연의 과정이 결과물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자연적이지 않다.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되었던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결코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 것처럼 여성의 늙음도 단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 속의 시선과 역사적 조건 속에 대답한 방식으로 규정된다.

할머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 구속되며, 오랫동안 축적된 사회적 관행과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할머니 삶의 조건은 그 자체가 역사를 갖는다. 할머니의 역사? 그리고 보니, 할머니의 역사가 있었던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할머니의 생애사, 할머니의 경험, 할머니의 구술사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할머니의 역사라는 말은 낯설다. 역사의 영역에 할머니가 설 자리는 없는 것인가? 하긴 사람은 몰라도, 한국에서 여성의 역사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 십여년 20-30년이다. 여성이라는 단어가 역사라는 단어와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 여성의 역사를 한다고 하면, 여성에게 무슨 따로 역사가 있냐고 묻는다. 하물며 할머니의 역사라니. 그런데, 여기서 다시 여성사와 할머니 역사의 관계를 성찰해보자.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여성사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끈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려 및 조선전기와 후기에 여성의 지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의 상속권, 제혼 금혜 등의 조건에서 나타난 변화를 바탕으로 조선후기에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 시기의 여성들이 오히려 유교사회의 보호를 함께 지었다고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은 얼핏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소위 공상적인 여성, 상속권을 가진이 있고, 제혼을 했을 때 아들의 배슬길이 막히게 되는, 즉 양반의 신분에 아들을 낳은, 다시 말해 지배 체제의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여성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같다.

이러한 관점은 일반이나 편견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정상부인이 아닌 여성의 입장은 전혀 기론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상부인이 아닌 여성들, 첩, 기생, 과부, 제혼녀, 독신녀 등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울까? 이러한 여성은 소수이고 또는 지배집단도



김홍희, «대물림», 65 × 90.5cm, 1991.

김점선, <풍경>, 142×85cm, 1995

사나입기에 소홀히 다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시선이 숨어 있다. 여성을 같은 나이에 속한 집단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여성을 사이에 존재하는 나이에 따른 위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여성은 신분, 집안 문제, 나이, 그 밖에 너무도 다양한 사연과 조건 속에 다양한 삶과 지위를 누리며 살았다.

여성을 내부의 다양성과 복잡함을 보지 않으려는 것은 여성을 모두 동일한 집단으로 묶어두려는 남성적 시선이다. 가부장제는 여성을 구별 짓고 위계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그 지배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부장제의 시선은 여성의 다양한 소리와 삶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역사는 일반 여성사 속에 억압의 포함된다. 어쩌면 할머니가 스스로 역사를 짓고,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잊어지 않고 후대에 전승되는 것, 그런 역사를 갖게 될 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은 아닐는지.

관찰하고 바루지 않고 들어본 말

조선시대에 한 관찰사가 도내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큰 마을 입산에 그의 선조의 효행[이장비]이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매일 수백 명이 모여 이를 기리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관찰사의 세력에 눌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정에 호소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의논이 분분할 때, 주동을 하는 한 노파가 나서서, "내가 먹어 줄 테니 한 사람이 한날씩만 내어 나에게 보상하라."고 제의했다. 모두들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니 노파는 "그때는 나를 죽여도 좋다."고 장담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번 결과를 보자 하면서 각자 돈 한냥씩을 거두어 노파에게 주었다. 노파는 관찰사가 표 이장을 위해 온다는 날을 알아보고,

그날 술과 안주를 준비해 집안에 갖추었다. 관찰사를 만나자 앞에 나가 절하고, "소인은 별난 유별한 지원자입니다. 소인 남편이 살림을 해 올해 일곱 살, 아들 일곱에 젖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에 모를 쓰면 은 자손에 임금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알고 모를 쓰지 말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감께서 올 제도 아시고 이장을 하신다니 무한한 축복을 올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소인 눈앞에 아들 하나 있는 것을 부탁드리오니, 대체 일곱 하시거든 머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술을 부어 정중히 올리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관찰사는 노파의 입을 막으면서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말라 하고, 이장하는 일을 포기하고 곧바로 돌아 내려갔다.

살아남기 위한 공모와 저항

조선후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관찰사는 조선시대에 도를 관장하는 장관으로 지금의 도지사와 비슷한 직책이다. 그런 권력을 가진 관찰사를 직접 대면하고 기지를 발휘하여 마을을 지켜낸 노파의 이야기이다. 조선시대같이 내외법이 엄격하고, 신분제가 엄격한 사회에서 할머니라는 관찰사를 대면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노파, 할머니가 가진 힘은 온근해면서, 속후지 않는 할머니, 용감한 할머니. 여성학이면서 여성에 대해 당하는 사회의 규제를 뚫은 용단이 할 수 있는 마음에서 할머니는 반드시 이긴다.

할머니의 힘을 예찬하느라니, 환권으로 빙빙하다. 그 힘은 때로 며느리를 억압하는 시어머니의 힘을 연상시킨다. 풍갓집 며느리에서 집안의 권력으로 성장한 할머니들은 측을 때까지 아들과 며느리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높은 계급에 속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그 권력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남성들은 말한다. "보라,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가부장의 질서 속에 갇혀 남은 사람들은 경직해져 그 질서를 수동한 경우이거나, 혹은 그 구조의 가치관을 다투 무섭게 만드는 데 일조한 경우이다. 조선후기의 정실부인은 가부장제의 질서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유지시키려 했으며 그러한 선택의 결과는 참혹한 힘으로 굳모였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의 '공모'를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주저된다. 생존이 공모라면 그 시대를 살았던 모두가 공모자이다. 저항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모자라는 이분법은 자포 보는 시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저항의 무한 동력을 파괴할 수 있다. 오히려 여성의 삶과 대응은 단순하지 않다. 조선후기에 강화되어가는 가부장제 체제가 단순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듯이, 대립적인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치를 내면화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이끼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타고 넘으려시면서 새로운 통새를 만들기도 했다.

살아남음,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할머니의 삶이다. 언제부터 만들어진 말인지, '귀여기리 3년, 장남 3년, 맹어리 3년'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정말 3년만 버티면 자립인가? 할머니가 되기까지 여성의 삶은 귀여기리, 장남, 맹어리 되기의 긴 여정 아니었던가. 온전한 저항이 아닌 나머지를 전부 공모라고 말한다면 여성의 삶과 그 삶의 총체인 할머니를 부정하는 것이다. 저항과 공모 사이, 때로는 극단적 저항과 극단적 공모에도 할머니의 삶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게 만드는가, 살아남기 위한 과정에서 할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4자리의 기어줄같이 세밀한 가부장제의 무명 그물망,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기어줄에 한 오라기를 보태기만, 때로는 온몸에 기어줄을 감고 균열을 내기도 한다. 할머니의 역사는 삶과 균열내기의 역사이다. ■

글 윤지영(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사진과 섹스하는 여자

– 페미니스트 사진작가 박영숙

그는 사카스다. 한쪽은 벌어 먹을거리는 이미지의 이성다움에 대립 감응하고 피로움도 공유 다는 내성적인 소녀. 다른 한쪽은 남성적인 이미지로 가득 찬 적대적인 사진 세계에서 패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고함치며 힘 세 없이 힘을 휘두르는 장군이다.

사로 다른 두개의 자아가 한몸에 공존하고 있는 그는 그리하여 63년 동안 한번의 여유도 없이 백척의 대리로 여전히 가야할 길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지칠 수도 쉴 수도 없다. 페미니스트 사진작가라는 공식 타이틀이 붙어진 여자 박영숙에게 그래서 나이, 할머니, 축등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명로도 번 듯 여길이다.

내 인생에서 단 1초도 사진 생각 안 한 적 없다

"평생 단 1초도 사진 생각 안 한 적이 없어. 그런 하나님한테도 투고할지 함께 할 수 있는 당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질라. 근데 박영숙이 그런걸 뭐."열

정에 가득 찬 그를 보면 주사적인 표정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단 1초도 사진 생각 안 한 적이 없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기 구경도 못 해봤을 시절인 50년대 중반, 아버지의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작된 사진에 대한 사랑은 중학생 이후 그의 삶을 온통 사로잡아버렸다. 사진학과가 없어서 숙명여대 사학과에 입학했지만 대학생 때 사진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다. 배울 곳도 없고 책도 없고 스승도 없었다. 무작정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독학으로 사진을 배웠다.

"보통 용기 아니야. 몇시회 갔다가 사진 기초적당하고 달라붙었지. 그런 것 때 기면서 공부할 정도였으니 말 안하지" 한국의 사진 역사에 등장하는 <여명 아무스>라는 사진가 그룹의 정식회에 갔다가 박무가내로 달라붙어 그 그룹에서 사진을 배웠고 숙명여대에 '숙이회'라는 사진 동아리를 만들어 첫 정식회를 치러냈다. 졸업 후에도 오랫동안 숙이회 회원들을 혼자

기로서다시의 하면서 예년 공식회를 주도했고, 카드섹션에 자신이 자신함에 없다 보니 사진에 대한 공부를 계중히 할 수 없었다. 한편의 이해하지 못한 것은 가르치지 못하는 그 '장난' 상계 당에 무시하지하게 공부해야했다. 기리의 원체방을 돌아다니면서 이곳곳에서 흘러나오는 <Popular Photography> 등의 사진 잡지를 사서 반복는 영어실력을 동원해 가며 읽었고 사진과 관련된 책이 없으면 인 미술책이라도 읽어 읽었다.

"남성에 남자에도 들어갈 수 있나?"

졸업 후에는 <여성>이라는 여성 잡지에 사진 기자로 취직을 했으나 권위적인 사진 무장에게 사직건건 대들어 갈등이 극에 달했고 1년 만 인에 입을 그만두었다. 그때 편집장에게 들었던 말이 이거란다. "사진 부장은 가장이고 자네는 어른 여성 아닌가? 됨해서 사지서를 낸 것으로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이후 임간지, 잡지사 등에서 군데 시험을 봤지만 1차에 합격하고도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들어갈보 면접시험을 치를 때 받았던 질문이다. "남성 현장에 가서 사진 찍을 수 있겠나?" "남성에 남자들하고 같이 들어가도 되겠나?" 누구보다 사진에 사진 있었던 그는 여기 번 이력구을 먹으면서 가슴에 무언가 쌓여갔다.

그러다 운상을 열리해놓은 장사가 남에 질었다는 정말 하이란 이유로 27세에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세일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안타해서 전했지. 그리고 남편은 내가 사진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 그는 학업이나 업인이 아니라 "설서 가 한군데 돌한다는 이유에서 결혼을 마음 관리게 했이 결정했다. 이어 '사진 이라는 삶의 목적이 무성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다. 남편의 사업 실패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진세계를 고집스럽게 지켜왔고 43세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진 디자인 공부도 했다.

그렇다면 '왜' 찍는가

이런 세기를 걸으니 사진에 대한 이질 못한 열정으로 사진작가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았으나 어떻게 '헤이니스트' 사진작가가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처음에는 기계 좋아서 카메라 만지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 그렇게 십 년 넘게 열심히 찍어오다가 어느 날 문득 '왜 사진을 찍나 싶었어." 그 때부터 '기기에 대한 해답을 필요하게 구하기 시작했다. 정학력도 찾아보고, 뭐 좀 안다 하는 교수를 찾아가 세기를 나눠보기도 했지만 10년 동안 도무지 속 시원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모든 의문이 아주 넘어 '또 하나의 문제 를 만나면서 오르의 좋은 가이. 모든에서 만난 사람들과 '우리 꽃을 드자' 라는 전시회를 하면서 케이 나름을 알게 되었고 가무로 인문학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 예술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 사진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왜 표현주단이 사진이냐고? 사진이라는 매체이말로 가장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매체거든."

공장에서 목위장하는 아동들의 강제한 삶상에 대해 예리니 의제로고 기사를 써도 끝적 안 하는 대중을 단 한 장의 사진이 바꿀하일 중격일 수 있다.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는 6년째 '미친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치지 않고는 여성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정신을 놓아된 여인들의 강력한 이야기를 사진에 담고 있다. 사진 매체의 가공할 만한 회력을 군게 믿고 있는 그는 "자신이 꿈꾸보자 주절하다."거나 "시시해서 사진하는 사람들은 다 주습다." "희하는 사진에 비할 정도가 안된다."는 말인도 서슴지 않는다.

세밀한 나의 삶

사진작가 박영숙이 세상들에게 살밀없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몸으로 느끼라는 것이다. 카메라를 몸으로 느껴야 그것과 온전하고 온몸을 던져 원하는 이미지를 프레임 안에 담아낼 줄 알아야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세월이 쌓이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살아낼 때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그는 말한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어떤 사진적 해석도 안 나와. 그런 해답은 그게 어느한 이론을 분석하고 있지만, 난 평생 온몸으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생겨."

몸으로 체험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진 세계를 구축한 그는 자신의 사진에 대해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다. 사진과 평생 함께 해온 이러한 삶의 방식은 그가 가진 나이질의 정확에도 그대로 당겨있다. "남자들은 머리를 가지고 살아 하지만 여자들은 몸으로 살지. 몸에 그 경험이 새겨져 있고 혼란이 와어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명해지고 깊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공비가 다 되는 거야."

사진 찍을 때 오르가슴을 느낀다

"섹스가 별거겠니? 서로 주고받는 거야.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야. 대상과 내가 딱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공감이 되는 순간 승이 찍혀 자음라와. 프레임이 가진 신비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촬영한다는 건 옳긴 일이야." 그는 대상과 나와 카메라가 한데 어울어져 최고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정말로 오르가슴이 온다고 말한다. 거의 40년 동안 사진을 찍어온 헤이니스트 사진작가 박영숙은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다. 미친년 프로젝트도 계속해야하고 논문 쓸 거리도 많다. 잘출한 여성주의 사진작가도, 하나 키워내야 한다. 늘 젊고 사는 사진이 고행이나 의무가 아니라 삶의 영정이자 오르가슴을 느끼는 섹스이기에 할머니 박영숙이 80년 정도 삶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바쁘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는 말에 그는 소녀처럼 웃으며 말한다. "아휴, 나도 힘에 겨워 나." 나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린다. "아휴, 나 너무 신나서 견뎌져 나." ET

글 최문희 / 사진 신현

일문일답

-여자가 나이 드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동시 경험 세계가 넓어지면서 현명해지는 것

-가장 최근의 실패담은 언제? 누구와?
남편과 내가 최고 싫을 때인 하기.

-좋아하는 음악
재즈와 클래식.

-좋아하는 배우
메릴스의 안나니 마든스.

-해외고 놀기
보도주 의사의 좋은 음악에 맞추어 춤추어 본다.

-나이들어 서럽다고 느껴질 때
힘 일이 달아서 나이를 느끼지 못한다.

-나이들어 자랑스럽고 힘이 된다고 느껴질 때
내가 제일한 강을 같은 친구들에게 줄 때.

-이상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사진 하며 살고 있겠지.

-하루를 준비하며 남들에 하는 일이 있다면?
작은 후에 무의식적 같은 삶을 살았으니 에너를 들이마고 노력한다.

-후배 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감동을 하면 그냥 하면 날린 하지만 하를 날리하자.

고독해져라, 그리고 자유로워져라.

-홀로서기의 정수 이정옥 작가

"여자들이여,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독해져라." 이정옥(66)을 만나고 오는 길 내내 나는 시몬느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을 외치면서 했던 문장을 생각했다. 고독, 그것도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독을 선택한 여자. 이정옥 작가. 그러나 그는 고독해 보이지 않았다. 고독해 보이는 것과 고독을 즐기는 것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다는 것. 인생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혼자별 되는 나는 그에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해본 되물어봐야 했다.

그의 인생의 키워드는 '홀로서기'다. 서른다섯의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그 순간, 허망함이 압도하고 있었던 인생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는 일들, 자기 세대의 여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평범'의 문이 그에게는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결혼을 했다면 지금 내가 행복하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겠지. 있도 없어지면, 잃어오면서 느낀 생각들. 대학원의 선배라든가 신과 만난다는 느낌들 말야. 현실적으로 아줌마들하면서 살림하다면 살이 주는 아픈 즐거움은 못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이 나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주위 사회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결혼 '대신'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결혼을 대신할 만한 그 무언가를 늘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삶' 일 뿐이다. 이정옥은 이혼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저 홀로서기의 다양한 모습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혼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을 다 바칠 무언가를 찾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목숨을 걸 만한 비장이를 찾는 것도 아니라는 것. 기혼이든 이혼이든 그렇게 삶은 무정형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이정옥이 생각하는 홀로서기는 어떤 것일까. "홀로서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 노년이 될수록 홀로서기가 더 힘든 것은 그렇게 자기를 훈련시켜 오지 않은 시간이 길기 때문이지. 자기감이 세 나름만 들어오나, 친구들이 세 날 만 챙겨주나. 기대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거야. 그렇게 자란데 의존하면서 살았던 친구들은 늙으면서 남편을 잃게 되면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야. 노년의 힘이라는 것은 뱃어던질 때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기대를 뱃어던지는 것이지." 한마디의 질문만 던지도 대답은 술술 풀어나온다. 그가 홀로서기를 고민하고 몸부림친 시간들을 짐작케 한다.

그는 늘 몸부림쳤다. 글쓰는 직업을 마흔 여덟에 그만둔 후 18년 동안 한번도 직업을 다시 가져본 적은 없지만, 싶살하다는 생각을 해볼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무엇인가에 몰두해왔다. 돈도 벌어왔고, 방도 열심히 배웠고, 쓰고 싶은 글도 썼고 시집도 냈다. 그런 일들을 해왔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자기 중의 삶을 살아온 것뿐이다. "희생이나 봉사라는 말은 사전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 내가 누군가의 삶을 무릅거주느라고 내 시간을 내줌 때문에 난 이미 무도덥으로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희생인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희생인가? 자기의 보람이자 즐거움인 거고, 순간순간 행복들이 있는 건데 행복이란 긴 시간 속을 흐르는 하나의 실로 꿰은 것이지, 자기 중의 삶에 충실하다면 그 행로는 언제든지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긴 시간 속에 상처 받아지는 작은 것 필요가 행복이라니, 너무 가혹한 정의가 아닌가. "너는 늘 행복하기만을 바래요."라고 말했는 젊은이 같은 질문을 오른 적 단계 보았다니 그는 하는 복 '대답한다. 늘 행복한 인생이란 불가능하다고. 절부지해 도사의

차이는 단 하나, 그 진심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몸은 그 순간의 흥미을 행복으로 만들 수 없는 내공은 순간순간을 정성껏 몰두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이들의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다.

그리고 보니 이정옥은 도시골이 풍길 법한 냉정함의 기운을 솔솔 풍긴다. 방법들이 관계와 감정의 끄나풀들에 질질 끌려 다녀면서, 자신과 타인을 상처입히는 '인생'을 지치는 것은 무엇이 진실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늘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런 끄나풀들을 단호

하게 대해야한다고 이정옥은 오랜 생활의 경구들을 꺼내놓는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을 안고 있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돌은 사람이 있지. 그러나 영원히 하지고 보면 그 아픔은 내가 인간적으로 욕먹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자기애로부터 나와. 그럴 때는 빨아내야 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지지기를 해야 하거든. 그걸 주저주저 앓고 있으면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어. 단호한 태도를 내려놓는 거지." 그는 인간관계만 단호한 것이 아니다. 자기 삶의 결정사항을 늘 정리하면서 살아간다. 행복과 스트레스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만 혼자만의 고독을 보장해주던 집을 시분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생활만 꾸려 살아가는데 들어간 것도 그 이유다. 세월 나무를 베어버린 이유가 얼다며 시간가증 시작을 했고, 자기가 죽은 후 유품을 정리할 사람의 수고를 덜기 위해 늘 머리에 신어.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는 명구를 새기며 그는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질문을 해도 그는 나름의 해답들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 답들은 오래 묵히고 묵힌 향기가 난다. 그가 혼자만의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또 질문을 수많은 질문과 고민들을 나눌 모험한 많은 여자들 또한 외롭이라고 있을 것이다. "너시 태어나도 여자이고 싶고 이렇게 혼자를 즐기고 살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한번도 이 생활이 외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자기 자체로 충만하면 외롭지 않아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외로움과 고독은 태생적으로 다르다. 외로움이 누군가를 늘 필요로 하는 타인지향이 강성이라면, 고독은 내 안이 충만해지는 에너지다. 인생이란 화살을 향해 가는 영원한 과정이라는 것을 논박 한 이라면 이제 고독을 즐길 용기를 내어볼 때라다. ☑

글 황혜리경 / 사진 신민

이정옥은 몸 가을 노년의 삶에 대한
예찬이집 「미루나무숲의 노래-산촌일기」를
출간할 계획이다.
그 책에 실릴 짤막한 글 한편을 미리 싣는다.

편집자주

차 한잔의 여유

삶은 사람은 사람과 마주앉아 감정, 생각에 대한 갈등과 동질감에서 주로 우정이 생긴다. 이 아니라 생각도 없는 사람하고 가끔 만나 얘기하다 보면 그냥 편안하고 가슴이 스러 같이 있어도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오랜 시간 속에 자기를 맡아 가꾸어 온 사람으로 어떻을 때날 수 있는 사람이다. 갈등의 인간 관계와 사회적인 모든 책임으로부터의 해방, 이 자유는 젊은 날의 노고에 대해 노년에 주어지는 보상이다. 노년은 사계의 식단에 얼른의 맛을 더하는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에 서 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대부분 [illegible] 화살을 시작 위의 공허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공허는 이 공허를 지시해야라고 하여님이 [illegible]

[illegible] 이성자가 이루어 아이고는 "여무의 맛에 인에 있다"고 말했다. 여무를 예구어 맛에도 취향 하기나 비난 등과 보색으로 강우에 된다면 말로주 그분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이 가진 노년의 풍에는 감사 대신 한탄이, 편안한 평화 대신 거친 단식만이 넘칠 것이다.

내 말도 어느덧 하얀 서리도 덮일까. '봄날에 제 가을 낙엽 소식을 알은 멈서는 허물는지? 오후의 짧은 휴일은 정리했는지? 여름내 비바람에 맞부딪힌 거실의 얼은 닦게 되었는지? 낮선 독소리가 들을 무드리에 비치의 세계로 바나의 폭풍별 때 아무 두려움 없이 마지막 한 잔의 차를 마실 여유는 있을지 참은 것인지" 지는 해처럼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기 위해 이 질문들을 나날이 반복하기를 빌어 원으며 합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축복임을 믿으며.

일흔 넘은 생리혈의 힘

– 국선도 의화선사 서복선

고백건대 나는, 그를 알아본 일들을 믿지 못했다. 가냘 어 선 모. "나이도 두 손가락으로 꼽구나무를 선다더군" 혹은 이런. "내로이 수백 개나 박힌 관자 위에 거문히 놓는다던데" 도대체가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일흔 일곱이란 나이의 인물과, 그를 알아본 이의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상 깊은 일화들을 어떻 연으려는 것인지. 그리고 비현실적이기보다 오히려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멜로은 다음의 일화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일흔이 넘어서까지 생리를 합니까?"

그 초인적인 '힘'과 '고령'과 '여성'이라는 좀처럼 어울리기 힘든 세 요소의 조합을 탄생하고 있는, 한 할아니의 몸 그는 국선도(國仙道) 최고의 여성 지도자라 했다. 의화선사(義花禪師) 서복선. 세상이 일컫는 그의 호칭이었다. 그리하여 기묘함과 의심으로 가득한 채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출사 오래전에 잊혀진 긴장을 찾아가는 기분. 하지만 그를 직접 만나고 인터뷰가 이루어진 두 시간 남짓은 그에 대한 나의 지레짐작이 그야말로 편견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결코 지상에서 발을 뗀 채 공중부양을 일삼는 기인이 아니었다. 같힐 공할 사회적인간이라는 시대의 편

실적인 장소에서 만난 그는 7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고른 피부와 맞춤한 몸집으로 감탄을 느끼게 했을지언정 그저 평범하고 건강한 한명의 여성이었던 것이다.

일하던 인물을 찾아가다

같힐 복지관의 3층 단전호흡실에서 하루 3차례 국선도를 지도하고 있는 그는 현재 전 세계에서 단 4명 만이 존재하는 국선도 최고 지도자급인 선사(仙師) 이자 그 중 유일한 여성이다. 혼히 단전호흡으로 알려진 국선도는 상고 시대부터 전해져온 선정의 심신수련법이라면 오증의 행법 때문을 타고 현대에서 명석도 건강한 운동법으로 재인식되어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일흔의 나이에서 생리를 했다는 서선사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여성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다. 내가 방문을 했던 날도 수련생 중 3분의 2가 여성이었다.

짧고 주문 도적 자세의 수련생들 가운데서 지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단정한 흰 도복을 착용한 그는 주변 시간 동안 양손으로 두 손가락만으로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다리를 180도로 벌리고 몸을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움직이며 세의 그 연령대도 같은 일화들을 작고 단단한 몸으로 직접 재현해 보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기이하다기보다는 놀으로 경건하고 영성 적이라는 인상에 훨씬 가까운 것이었다.

이상이 본건의 지도와 시범을 마치고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어준 그의 얼굴에는 큰 땀방울과 붉은 홍조가 건강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내가 국선도를 한 지 벌써 30년이 넘어. 이제 보여도 어지로서는 내가 세계 일인자거든. 지금 시작할 때만 해도 여자가 나밖에 없고 온통 남자들뿐이라 여자 망에서 당당 나 혼자 해보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자들도 많이 배우니 얼마나 좋아." 그가 여성으로서 최초로 보습을 보였던

실은 비단 이 운동에서만이 아니었다. 그는 국선도를 시작하기 전에 검도를 먼저 배웠다. 운전에서도 이미 상당한 경력자였다. 물과 집살이 난 어린만 하더라도 여성의 바깥 활동은 흔한 풍경이 아니었기에 그는 늘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홀로 자기만의 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했다.

그렇게 국선도를 처음 시작하던 무렵의 일화들을 시작으로 그의 입에서 흔하지 나온 삶의 이력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고 복잡한 것이었다. 국선도의 여성 최고 지도자라는 호칭은 그 지난한 삶의 한 단면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난한 몸살을 겪고 비로소 단전에 단전해진

"열아홉에 결혼을 했는데 오년 만에 사랑이 나이 남편하고 생이별을 하게 됐지. 그때 남편이 전무병으로 경찰생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전쟁이 터지니까 바로 동원된 거야. 그게 영영 이별이 될지 몰랐지. 십년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 스물일곱 처인 채 남은 사람인이라도 살자 싶어서 시

을로 올라왔어. 해질은 시무오남한테 알리고 시어머니 문갑 때 목 따러이 오겠다 얼하고는 어른들이 다구 말리는데도 무작정 상경을 했지."

형형단신으로 상경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남대문 시장의 한 구석에서 화관을 접고 앉아 담배를 파는 노점상이었다. 당시 시장에서 조무장을 하고 있던 고향아 랑이 도와줘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익숙지 않았던 그는 처음에는 너무나 창피해서 그냥 한숨만 쉬

고 울기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사일이 몸에 익자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사원동에 작은 방하나 얻게 되자 삶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이 생긴 그는 상점하기 전의 하숙생들 고향에 내려가 땅을 사라고 졸라 댔다고 한다. 처음 장사일이 몸에 익자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사원동에 작은 방하나 얻게 되자 삶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이 생긴 그는 상점하기 전의 하숙생들 고향에 내려가 땅을 사라고 졸라 댔다고 한다.

그러고는 새로 얻은 구멍가게를 시초로 그는 백척스타를 만감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여나가기 시작했다. 시대의 바람이 낳은 비상이라는 상식도 뛰을 수 없었던, 그의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그에게 큰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었고, 그는 그렇게 지켜온 경제력을 바탕으로 80년대 초 동산으로 거주를 옮겨 그때부터 제 2의 인생을 살게 된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니께 주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구. 그래서 하층 작은 일부터 봉사하는 즐거움을 배워가기 시작했지.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정말 어려운 모습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사회로 노인정도 운영하고, 부모님 없이 사는 청소년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노인이나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한없이 그의 지역 봉사는 자연 주변에 알려져 그는 결국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도움을 청하러 올 정도로 용산구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갔다. 국선도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70년대 초, 당시 남영동에는 중국인이 운영하던 유명한 음식구청이 하나 있었다. 이곳 정치 명예들이 자주애던 식당이라 운영에 곤란을 느낀 주인은 아예판 새 주인을 물색하고 있었고, 주변인의 권유인지 그가 그 다방 건물을 인수하게 된다. 바로 그 건물에는 단전호흡 도장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와 국선도와의 기나긴 인연의 계기가 되었다. 그가 나이 이제 막 40대로 접어들 무렵 경제적의 지도력을 가진 여성의 특이한 존재였던 시절 속에서 자못 커지갈 즈음, 운명처럼 만난 국선도는 그에게 삶의 새로운 활기와 신경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다.

강인함과 절망 그리고 여성성

남성 중심의 세계에 뛰어들어 생업의 활동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은 적은 없었는가란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남자들하고 부대끼면서 생활한 지 사오십 년이 돼가는데 한번도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한테 밀 한번 공격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항상 내가 앞서 나고, 내가 힘 앞에 한 번도 남자들의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어. 또 따라오지도 않고. 여자가 그냥 여자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손해를 낮추는 게 현명하지. 남자들은 자신들이 보는 관점이 고정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적인 매력을 강점으로 활용하면 그게 더 큰 무기가 되거든. 그게 결국은 상대방을 먼저 오게 숙이게 만드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그의 뒤로 벽에 걸려있는 몇 명의 화사한 정장이 눈에 들어온다. 그는 여성의 여성적인 매력을 즐기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다.

그러한 그가 무려다 푸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이후의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자식 그렇만 결혼 해키도 싫고 정혼도 별 변 없었지. 그 중 한 사람하고는 평생도 같이하게 안해도 됐어. 그 사람도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서로 위로가 된 거지. 그저만 결혼까지는 안한이 없었고. 나도 그렇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독신이 됐던 것 같아."

그의 입은 아로 그러한 삶에 대한 열정과 강인함 그리고 여성적인 멋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인터뷰를 마치고 자리 정리가 있다며 도복을 챙기는 뒷사람 등으로 갈아입으며 활짝 웃는 그의 미소는 나의 결혼이 꿈에지 않았음을 암시해주는 것 같았다.

글 김선영 / 사진 신민

일문일답

-여자가 나이는 것을 언제쯤 의식하나?

특별히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무준히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가장 최근의 성형했은 언제?

이건 정말 어질문데… 나이 위주은 일본이 남아있었지만 이제와서 이렇게 주변의 속삭임을 많이받을 정도이 하며, 그렇게 주변도 좀 도와 하게 하면 성형도 포함할 수 있지만, 남자 얼이 본적 해 결혼 수 있도는 게 얼마나 좋은 나이인 줄 알아야 살아야고.

-돌아 돌는 결혼

결혼 하면 또 나에, 내가 결혼하였을 준비한 경제이 있어서 돌아온 특성적 일상이. 지금도 집에 가면 생활하나 소중하고 있는 중인이 전혀이 남은다고. 결혼도 좋아하고 결혼한 가족적 없고 잘이 일이.

-좋아하는 배우

난 젊은 배우이 좋아하. 나한테 감정한 배우 안해있고. 좋아하고, 여자는 감성한을 좋아해. 개이 배한은 주로 감정하게 나오는 기 안에 한테은 결혼하을 해해하게 나오면서 이주 좋아하고 그게.

-청소에 임하고 느낀?

목 송하이 기이도 하고, 글로도 좋기고, 책은 나한이 도와이도 하고 그렇기 놀지.

-나이들이 서럽고 느껴질 때

없어.

-나이들이 자랑스럽고 젊이 된다고 느껴질 때

늘 자신이 모습이 예일 좋다고 생각하지.

-이런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이 즉기 전까지는 지금이 모습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죽음을 준비하며 남들에 하는 말이 있다면?

사실 살면일에 작심을 고이 국선도 지도에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사진을 좋아 가지고 싶을 때도 많이, 그래서 이 일을 하기 보면 할 머니들이 나무 고맙다고 할이를 해기 많이면. 정말 많이 했다고 그런 생각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이 일을 평생이 해보였다고 이렇게에 싶지.

-후배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살을 즐겨라. 앞으로는 여성들이 사회가 운영이 된다.

중생을 위해 새벽에도 깨어 있다

-자비의 소리의 전령, 스님

만나기 두려운 사람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입을 여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정토 스님은 자비의 전화 통보, 인터뷰를 주저함 없이 나서 가는 길은 아는 길도 가는데도 자꾸만 돌아나가는 기분이었다. 질문을 피해가며 자비의 전화가 있는 불교재활 건물 계단을 하나씩 오르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계단을 내려가 인사할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29년 사미니계, 82년 비구니계를 받고, 90년 자비의 전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계시니, 스님의 내공은 자비 공력이 가고도 남음이 있었다. 노숙에게서 눈총의 대명을 듣는 것은 내심 기대하는 일이었지만, 선무른 질문을 해댔다가는 내 치부를 다 드러낼 일이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얼굴에 단정하게 승복을 걸쳐 입으신 스님이 작은 회의실로 들어섰다. 동시에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머릿속을 맴돌았던 생각들이 다 증발해 버리는 느낌이다. 대체, 스님하고 기백싸움을 할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럴 때에, 솔직히 가자는 마음으로 스님과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 떨린다고 말해 버렸다. 그랬더니, "떨리요? 나도 떨리는데…"라고 웃으시며 당황하신다. 실례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스님은 고수였다. "나도 떨린다."는 말 한마디로 초면 인터뷰어의 긴장을 싹 사라지게 했으니까 말이다.

노숙 24시

"저는 지금도 2시 전에는 잠을 안 자요." 정토 스님은 2시에 잠자리에 들고, 4시에 일어난다. "4시에 일어나서 예불 모시고 그러면 5시에 끝나거든요. 5시부터서는 그날 할 일과를 하죠. 또 신도들이 많으니까 뭘어 시 집에 무슨 문제가 없나, 고통이 없나, 오늘은 집에 무슨 일이 없나, 그런 거 체크해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또 원을 받고 일기 때문에 새벽 2시에서

정토스님과 '자비의 소리' 가족들

도 상담전화가 와요."

출가 전에 환자(患者)를 보다는 스님은 지금도 '아픈 사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세계 해당하는 방송(放送)' 을 늘 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인지, 고통받는 사람을 이롭게 해주면 그게 보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나. 아니, 그 증거들이 스님의 주변사람을 두 사람도 충분히 만들었다. 남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근심을 함께 안고 간다는 것이 평범한 일을 일일 터인데도 스님은 '덕 생기가 나요. 그게 무척난 기쁘(喜悅) 그 무슨나 보살이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합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밤에도 일을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기 원다고 한다. 보통 집에서 스님은 하루 30-60통의 전화를 받는데, 그날도 여김없이 내담자가 하있는 두어 시간 정한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평균에 하나 변함이 없고, 진정하게 전화를 받은 스님을 보면 내담자가 감사기 일어나더니 스님께 절을 하더란다. 스님이 왜 그러시냐고 묻자, 내담자는 보통 사람 같으면 상담이 날

만원대도 하나같이 전화를 잘 받아주는 스님을 보고 감탄했다고 예기하더라다. 스님의 답변이 명쾌하다. "제 생활이 그런데요. 제가 스님이지 않습니까."

노승의 소통법

보통 사람보다 배우길 두 배로 일찍 시는 것이 스님. 그래서 그런지, 보통 사람들이라면 오래 전에 손놔하고 앉 나이에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스님은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이곳만 앉고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전화 회장 위에도 스님이 관계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 보니,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은 스님.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면, 배우게고 제가 젊어지는 기분이요. 저는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 애들한테 가면 애들이 되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항상 생활해요." 과연, 명답이다. "저같아지 상면이도 저는 화 한번 내본 적이 없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나무래 보지도 않았고. 에쓰고 일한 사람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주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 같고 자식 같고. 우리 직원들도 다 그래요."라고 말하는 스님을 보니, 스님의 넓은 이해가 후배들에겐 엄마나 큰 힘이 될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없거든요? 내 마음에 맞춰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상대를 맞춰 하여 준하고 화합이 되고 이러기든요. 상대가 좀 안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가 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죠. 저는 맹렬이 행동하지, 말을 많이 하지를 않아요." 살대방의 이중으로 소통하기. 이 단순한 진리가 스님과 스님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비결이다.

지혜로운 나의 힘

스님은 열일곱 때 집이기 때가 좋아오는 물질병을 앓

은 적이 있다. 그 병날에 의사가 해가 불리오니, 스님 말대로 '절절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얼두 살이 지나도록 병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숨도 쉬기 어려웠다. "돈성 어머니가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관을 짊고 나를 업고 돌아다녔어요. 못 보겠으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왔잖아요. 오늘 세상에 쓰러졌으면, 그 다음 하루 지나고 일일 만에 제가 깨어났어요." 스님은 그때 기승이 세계를 보았다고 한다. 그곳에는 주어니가 주된 수만 제가 있었었는데, 스님의 주어니가 옴독 차있다고 했다. 옛날 이야기 같지만, 이때 이후로 스님은 저축을 하기 시작했다.

스님이 본 저축이니고 변문함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스님은 하루하루 저축을 하면서 산다. "저 돈을 통장에다 모은다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남의 것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은 없어지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다 저축이지요. 적 일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아픔 에 치료해주고, 고통받을 때 위로해주고, 힘든지 그 시생을 이기도록 해주는 게 저축이거든요." 이것이 스님의 저축론이다. 스님이 계속 저축을 하는 것은, 스님의 삶의 지향과 맞닿아 있다. "나을 위해 산다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갈 때까지, 무엇을 해야되는가. 할 한 마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남을 서울의 시 않는 말. 남한테 일일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스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돌멩스럽게도, "그런, 스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나요?"라고 묻고 싶은 걸 꾹 참아야했다.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자신의 지향점이 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마도, 스님의 젊은 시절 실험지도 모르겠다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생각해본다.

아직도 '나란 사람' 때문에 배신나고 괴로운 일 투성이인 나에게 "저는 그저 산다는 게 좋아요."라는 스님의 목소리가 바나서 삶는다. 그저 나도 언젠가 스님처럼 나이가 들어 일었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길 바랄 뿐이다. ㅁ

글 · 사진 송은희

질문일람

—여자신에 대하니

여자이어야 한 필요, 상관하는 사람이 여자인가에요. 신분 등 사건도 없고 행복한 등 사건도 없어요. 하지만 늘 적은지 최우를 두고 참신을 하죠. 적는 최우를 두고 일하면은 일을 상 가지 정소를 하루니 해요. 이건한 중을 좋아요.

—나이들이 서럽다고 느껴질 때

요즘에 일을 하다 보면 기억력이 없어져요. 같은 적 들고 또 같 등 보 주고도 또 했어. 이주 적실히 잘 한다고 하고도 또 했어 그래서가 많아서 그 확이로 기억력 나은 없다 않다 할 번을 해서 기억이 나요. 그것이 안에 좀 안타깝고 이 나은 안에 일일 우리한테 정신 일을 해 줄 알아버렸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그것 좀 부족스러워요.

"서럽다." 이런 생각은 없어서, '어디고 좋은 일일 시간이 많이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이 들지 서럽고 또 그런 생각은 없어.

—이런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지금도 똑 나이지는 게요. 일고 그러니까, 나이니까 소외가 많지 시간을 내서 책도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싶 한데, 시간이 지금은 너무 없어요.

—죽음을 준비하며 남들에 하는 말이 있다면?

이 세상 살면서 한번도 이 세상이 떨어로 가는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일로도 사건, 제가 시간을 계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도 남아서 어떤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준요. 그러니까 돌아오겠고 후회 없는 생활. 돌아왔고 '정말 잘했구나' 이런 건 정말 감동했어.' 이런 생각 한 나에 한다고 노력하려서, 오고있어요.

—후배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젊은 사람들이 어니 많다고 모든 것을 다 할아놓고 해기를 하고 그래요. 이런은 일이 있으면 '정말 예쁘다, 프로한 할아지 한 시니 좋은 일이 한다' 이런 예기를 해주요. 사람이 크면 사이에 발표, 발발구름이 오잖아요. 그 순간 그 순간만 좋으면 된다 할아지 할아지 하죠.

예순 여섯에 사랑에 빠진 여자

– 여성영화제 옥랑상 수상작 〈엄마…〉의 주인공 박영숙

박영숙 할머니와 그의 막내딸 루이의 감독

벚꽃 대스처에 영지도 꽃지도 함께 곱게 화장한 얼굴. 빨간 꽃, 하얀 꽃, 분홍 꽃이 화려하게 인쇄된 검정 스커트에 짧은 붉은색 바지. 흥얼두얼하는 대중가요로 알 굵게 물기는 아이라는 평범하다. 작달히 여윈 있어 보이면서도 튼튼으로는 허리둘을 이중속 감이 숨겨두었을 것 같은 인상. 그러나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차림은 그가 학으로 분출하지 못해 안에서만 응달고 있는 욕망을 무분지으로 표현해주는 것 같았다. 삼십서 말이 보이는 이 사람, 박영숙 할머니(66)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

기억나지도, 기억하기도 싫은 젊은 시절

당대는 힘든 삶의 정점에서 만난 할머니.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잠시 막내딸 집에 머물고 있던 2001년 12월에 영등에서 홀로 아이들을 다니던 할머니와의 우연들은 기회로 만났다.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한 막내사위가 할머니에게 아나지를 부탁했던 것. 할머니를 마중에 두었던 할머니는 아나지 지도가 끝난 이후에도 "함께 고기를 먹자."며 적극적인 구애무선을 했다. 나중 지도한 다음에도 계속 전화를 한 거요. 그래서 내가 목욕 조았지. 그랬더니 얼에서 막내딸이 '엄마, 그래도 감당스럽게 전화 좀 받아.' 그러더라고. 나는 '본의 아니었어 전화하니까 그러지.' 했지. 그렇게 전화를 받(수)락한 거요. 내가 임팔생 살면서 젊어서도, 늙어서도 그런 적은 처음이었지."

감언교육이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 열살도 모르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동네 청년들과 간단한 대기만 해도 사련다는 소문이 돌아 혼상길에 지장을 주던 시절, 예인은 물론 남자친구도 제대 만날 수 없었다. 소개로 만나 결혼했다지만 상실한 남편을 만났다면 중앙을 것을 남편은 술과 도박을 즐기고 폭력까지 일삼는 안 좋은 살박자를 고루 갖춘 사람이었다. 오죽했으면 루이의 감독 – 할머니의 막내딸 – 이 어머니의 변해 대기를 달랬던 다큐멘터리 <엄마…>에서 아버지가 건강히 돌아가셨을 때 '좋다'는 말을 했을까<엄마…>는 제5회 여성영화제에서 옥란상을 수상했다.

어른 두살에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된 박영숙 할머니. 남편이 하는 사업조차만 빠듯한 살림에다 자식들은 한창 공부시켜야 할 나이였다. 큰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막내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그 사이 딸 넷도 상급학교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던 것이다. 어떻게든 자식을 잘 키워보려는 의지로 84년 서울에 올라왔다. 가방공장원, 청소부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지만 적고의 안한 월급에 공장의 무도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했다.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 사람

자식 여섯을 모두 대학에 진학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다. 기억나지도 않고 기억하기도 싫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막내의 결혼식까지 지켜보았지만, 할머니에게 찾아온 갱년은 여유로움이 아닌 공허함이었다. 루이에 감독은 "막내의 결혼한 다음에 엄마가 공허해했다. 빠요. 술 마시면서 죽고 싶다고, 자긍 막 죽으면 좋다고 그러셨어요."라고 말한다. 젊은 시절 박영숙 할머니의 어릿속을 지배했던 절제심은 한 번도, 한 번자도 아니라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정에 바쳐야 했던 '어머니 가아니었을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기보다 남편과 자식들이 원하는 것에 두손은리를 두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당시 여성들에게는 자국히 '정상 적인 삶이었을 것이다. 그 여성으로서의 '정상 적인 삶은 자식을 독립시킨 늙그막에는 허망감

을 남기고.

막내의 결혼 이후 허탈감에 빠졌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만나면서 다시 여류모임을 피울기 시작했다. 유머에 감동도 많아가 안해하고 독립해 살기 시작하면서 살아 좋아졌다고 말한다. 젊은 시절부터 술과 노래가 할머니의 삶을 위로해주고, 힘을 낼 수 있는 자극이 되어주었기 만 '본에 는 그것하는 또 다른 위안과 즐거움을 제공해 준 것이다. "인생에는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해서도 생각

을 때와, 예술 다 버렸다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나중 또 아오기도 어렵고 그렇잖아. 다 키서 이제 내가 놀 수도 없고, 근데 아까에 만나면 해가도 할 수 있고, 같이 맛집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 그게 활력소로 같이 일 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지만 안에 경험이 전무했던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와의 교제가 좋시만은 않았을 터. 생전 처음 시도해보는 안에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었다. "고민 많이 했지. 밥 하나 맛살이고 그랬는데. 지금엔 사람들이 보기에 편할 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불량하게 생겼어. 그래서 '당신, 내가 보기에는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바람 핀 것 같고 그래서 싫다.' 고 했더는 그랬더니 절대 아니래. 자기처럼 순진한 사람이 없대.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단데요.' 그랬더니, 아니래." 결혼하시지마라는 직업 특성상 남자 친구보다 여자 친구들이 더 많았고, 바람속 할머니의 자식들도 "본지 바람들이 될 것 같다."며 걱정했던 할머니의 곤두에집이 사귀어보라고 힘을 보태줬다.

"배낭여행 시로하면 이름이 존들어."

전화하지 않아에 할머니한테 통들대고, 매해도 보내준 편지도 모로 보내며 한다로 거절했던 할머니. 멀에서 이을 지켜보던 막내말 부부는 보내온 안 그냥 넘으며, 할머니가 외롭은 줄 알아 보이도, 좋아 보인다며 만나보라고 부추겼다. 자식들 모두 결혼시키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던 당시, 할머니의 에너 좋은 구에자 같은 할머니의 마음을 혼들기에 충분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고, 중경공에 내려가 산해도, 했다. 하주 만나며 보니 박행숙 할머니는 시시의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어 갔다.

"자기가 돈벌이 넘는 사람을 원다 이거지. 그런데 나를 지표하기만 해면 마음이 혼들린대. 그 영화—뭐이에 감독의 다큐멘터리 <엄마 > -에도 나오더만. 그 말을 한 것이에. 나보고 배낭여이라고 하기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배낭해만 지표하면은 맘이 혼들린다? 만나 그러더라고." 맘이 정신유무인지라 바람들이임을 한번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멀에서 먹거를 유이해 공적도 "바람들이 같기도 해요. 지금에는 이제에 정체가 불분명했어요. 그 나이 또래남이 많게 자상하고, 여자임을 알아 살해하는 직업이다 보니 에게 친구들도 많고, 우이 많아가 그 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명화를 보면 아저씨가 자기 사진을 찍는 데서 맘이를 소개시키지 않거든요. 그게 만나들에게는 의심이었던 거예요. 아저씨가 맘이랑 놀이 있을 때 좋아하진 하지만, 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것도 같고요." 같이 맘을 먹을 때면 할머니 수시도 생각주고, 할머니 점심에 먹기 좋게 녹주기도 하는 할아버지. 그런만가 생들된, 목포, 완도, 진도 등에 친구 커플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술을 같 때마다 할머니을 동행하면서 다습기. 죽, 탕 같은 맛있는 음식들도 사줬다. 바람일이임을 의심하는 막내말과 나에게 "바람들이고 뭐고 이제 해서 된 소송이잖아. 오고기고 그러는 것이지." 라고 말했다.

배이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시로의 집도 찾아가고, 매일 전화통화 하면서 박행숙 할머니는 노년의 로맨스를 즐기고 있다. 엄마의 변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던 큰아들 에문에 마음 한구석이 독직해진 하지만, 할머니는 변해를 화면서 삶의 여유를, 즐거움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 이제는 꿈이 많은 목색으로 살아가야하는 아리홍도, 그 즐거움과 자유로움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 "자식들이 엄마 건강하라고 전화도 해주고, 이사에에 있는 내에는 엄마만 건강하면 자기는 행복하데. 자식들 중에 속 박이는 놈 하나 없이 잘 커줬잖아." 자식들이 잘 자리잡고 살아가는 것도 큰 위안이겠지만, 지금 할머니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적극적으로 달래주고 있는 것은 할머니의 에정일 것 같다. 마음은 열다섯 살인데 몸은 예순 에섯살이라고 말하는 박행숙. 이제부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할머니의 용속함으로 우에질 일으로의 삶, 사랑 기대된다. ◧

글 소연 / 사진 선민

일문일답

-여자가 나이 드는 것을 한탄하잖

안 좋지. 늙으니까 몸 아프고. 지금 나이 많잖에 몸 에 대이를 보 본 주시라고 있는지 모르겠지. 젊었을 때에다 젊은 시절이 더 자유로워 많았던. 그거 하나 에문에 늙은 게 좋다고는 할 말하지. 이왕은 젊다 보다도, 좋아 간 할머니이 힘들잖아. (웃음)

-가장 최근의 설레었은 언제?

지금 친구랑 좋아니까 만고 해해하지는 하지만 설레었은 안 해. 남편이 4년 이후로 설레들을 못해서 남자는 이제 남기면 정하는 줄 알았어.

-좋가 좋는 점?

아무이나 아무이 일생.

-좋아하는 이상형? / 남자형?

강해이. 자유는 전혀일기에서의 자유이 이정하고 좋아 보이요요.

-해외고 놀아요?

동서 할아-들이랑 했었어요. 가고. 장에서 젊으도 하고 반했도 하고 그러지. (남자 친구랑 나왔도 하고. 한에는 고이도 골라질 같아가 골라질 일에 일이 있는에 하이 많이 지원하다고. 그래서 그러한 소개이 많도 해했지.

-나이들이 서럽다고 느낄 때

(잠은 하얀거림) 그런 것 에기할 수 없고 – 몸이 이플 때도 그렇고. (아내 참석)

-나이들이 자랑스럽다고 느낄 때

오은. 자식을 속에이는 놈 없이 잘 커줘서 그거 에문에 행하요.

-이후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지금 내가 속살이잖아. 오래 산 것 같아. 난 오래 살 생각 없거든? 자식들고 다 키고, 할기 이루시고 살은 후회한 적로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사람이는 걸을 자주 무는에, 그 걸하면 죽는다고 하대. 그래서 영양식단을 하려고 생각에요.

-후배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나는 구에로서 그런지, 자식 낳아 놓고 해하는 여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인생, 자기 행복 찾았다고 자식 버리고 가는 여자들이 행복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도 그것이 행복이겠어? 자식은 내 살해고 목같은 거잖아. 그런 자식들을 버리면서 전혀적 여한 인데?

단단하고 부드럽고 힘차고 싱싱하다

–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정연희

하지만하고 따뜻하고 말없는 일 위로) 예순 아홉 살. 정연희. 세계 3사람이면 지설도 넘어 버린다 들도 트기 전이라면 그는 다하랑에 무언 기도실 로 올라간다. 물게 기도하는 날도 있고 길게 머무는 날도 있다. 누굴 미워할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털으로 자신의 내면으로 머남대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짧은 도무지 생면으로 되지 않고 정지도 않다.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을 '세상 시며 존재가 가뿐해지지 않으면 연결다.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은 스스로 돌변해서 살아란다.

기도실에서 나오면, 그는 아직 어두운 정원으로 나간다. 커다란 정원이다. 하녀까진 온갖 푸성귀를 심어서 여기저기 싸주고 손님 올이 싸주고 반찬으로 먹었다. 올해는 그럴 그만두었다. 안방에서 서울 오르내리며 하루하는 일이 많아서 정원의 돌며 노는 시간이 더 많이 줄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돌며 말을 나누고 돌을 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 하다. 그는 나이 선 즐에 접어들면서 자기 존재도 돌아보는 법 배웠었다.

이제 그는 아침내 자신의 생명이 줄어 될 것을 기쁘고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일요일에도 아직 젊고 할 한 무덕인냥 아생화를 심어놓았다. 그의 넓은 정원은 아생화가 지천으로 피고 진다. 그도 그런 아생화의 하나일지 누가 알랴.

그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고 지낸다. 음은 아주 속을 비우지는 못한다. 하얀과 생이를 조금 먼다. 하지만 그와 오래도록 함께 살고 있는 '남편', 김열도 는 아침지사을 즐기는 편이다. 그가 스스로 아침 준비를 해서 먹고 나면 싸는 아내인 그의 몫이다. 그저 단 두 식구 사는 살림인데 수십 명의 분주한데 손님 치르는 일도 못하서 집에 남편 있어 그렇다. 그 그모습 중에서 아주 이쁘게 보이는 것들을 소꼬꼬것 골라 매일 아침기며 식품 준비하는 것도 예이다.

그 남자하는 그의 나이 서른일곱이던 1973년에 만났다. 그들의 만남을 세상에 많은 것은 세상을 바꿀만큼 세 세서 동성동명성은의 경지기 이슈거지 문제됐던 감동 사랑이었다. 그로으로 법정에도 섰고 구치소경험도 했다. 그보다 훨씬 전에 결혼도 한번 했다. 그러니 이혼도 한번 한 것이 된다. 결혼은 대학 4학년 때 했다. 아이를 두지 않은 채 헤어졌다. 나중에, 자신의 그런 결혼은 '인습과의 이별 이었다는 인식을 깨닫았다. 첫번째 결혼은 그 인생의 첫째 커피진 단추일 것이 하나였다. 첫 결혼기 전에 이미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이나 안락함보다 운명의 힘속성을 믿 모른다. 내 앞에 드는 젊년 남자들이 다가오면 한 사로 도망쳤다. 왜 그랬는지, 지금은 안다. 그는 '열등감' 이라고 표현했다. 열등감은 정연희라는 생명, 그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는 어머니의 세번째 사랑이었다. 첫째는 살림 일찐 딸, 둘째는 물생긴 아들이었다. 아이 어머니는 딸과 아들에 고루 많아서 다시 아들이 생기길 염원하지 않았을 지 모른다. 그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힘겹 알을 보낸 즈음 아버님을 떠고 빠가 아프다고 하던 아들의 갑작기 눈을 감고 영별 드지 않았다. 그리므로 어제 맛속의 사 서은 분드시, 기필코, 아들아이어 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그는 '딸' 이었다. 오빠를 잃어버린 여동생, 아들을 빼앗아간 딸. 그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세상에 나와 맹아리는 것이 확인된 순간 오래도무이 받은 대접은 어떠였 '자기 존재에 대한 정오감' 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비하감으로 피해감으로 세계받았던 건 아닐까.

그런데 그의 입으로 다시 여동생이 태어난다. 이 두 개의 사건이, 혼돈이, 조건이, 그의 생명에 '깊은 상처와 열등감' 을 만들었다. 그것이 그의 뿌리를 제일다.

그가 되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꿈은 '여교은 이었다. 하지만 열다섯 살에 겪은 전쟁과 가난과 열등감 때문에 공부할 수 없었고 그 꿈은 이루지 못했다. 대신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제은 장이와 대결하는 일도 소설을 썼다. 월간의 그것은 꿈을 제워진 듯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아 채우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그는 사람에 관심 많은 사람이다. 어떤 스스로 관심하는 소설가라는 직업과 어울하는 일 많고 그는 두 개의 공직을 더 가지고 있다.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과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 그것이다. 소설가 협회는 3백여 명의 회원을 가진 조직이다. 만해 한용운 제주도에서 서울도 싱고 오는 것보다 소설가 세명을 제주도에서 서울로 데려오기가 더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노년으로 접어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선 줄 나이에 이른 지금, 좋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산다. 시간과 재능과 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협회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의 하나일 것이다. 협회 살림을 전문적 평가로 일일하게 꾸리는 일, 회원들의 기쁨은 크게, 실망함은 작게 하려고 힘을 쓴다는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생겼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문화재단이 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문화재단들도 있다. 그의 꿈은 서울문화재단이 어떤 작게, 특징을 가지고 비오므게 하고 싶은 것이다. 옛날 궁궐정보부 건물 8층에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데 늘 출근하기는 싫다는 그래도 그것과 관련하여 만찬으로 가져야할 회의들이 결코 피지 않고 만나야할 사람들도 많다. 서울 정체 통하지는 날씨의 운전하는 적도 온다. 그 다음 행선지는 거의 지하철로 움직인다. 택시로 움직이야 빠를 때, 도무지 움직일 방이 없을 때만 택시를 탄다.

지하철 에로광구에 서면 자동으로 무임승차권을 뽑아 할 때에 돈을 받는다. 업업이 주민증을 내보이기 일가서 돈을 내고 표를 산다. 그는 이렇게 꼽아 보인다. 화장을 꼽아 보이게 하거나 어리 모양을 그렇게 해서는 아니다. 그는 아지까지 헬스를 해본 적이 없고 수영을 다니본 적이 없다. 그는 대단 멋심히 산다. 조금 밝지 않은 곳에서 입에 멋중한 그의 멜로습을 보면 그는 고독적인 '아픈 사람 같 도 보인다.

제 그림자, 그에게는 자신의 존재, 그 생명을 지우는 어떤 작별한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

그는 생명을 사랑한다. 그의 최것집은 음반에서 농사를 시작다. 어릴 적에 그곳에 가면 늘 흙을 만지며 놀기 좋아했다. 흙의 감촉, 그 살아있는 것의 생명감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 두의 저울질 위에 가면 오빠들이 초가집 주니 같으로 손을 넣어주었다. 손끝에 감촉감이 만져졌다. 60년도 넘었을 그때의 추억이 아직 손끝에 살아서 살일하게 느껴진다. 바로 이 흙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시골생활로 끌어당겼다. 지난 1984년 경기도 신갈에 논밭 평린 터를 사서 농사지으며 살았다. 벌써 그렇게도 손이 많다. 아직 그런 손이다.

"신갈은 여자와 남자가 산다는 건 무엇입까요."

곤욕스러운 질문을 했다. 아주 원시적 남은 사람이다 다운 주변에 없어서이다.

"여자와 남자는 말이 많아. 수많은 일상이 얽어서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어떤 상실에서 같이 가는 것인데 그런 '본질'으로 같이 가는 거야. 남자와 여자는 영혼의 세일이 달라. 다른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지."

선생님의 대답은 명쾌했다.

"정혼과 섹스의 중속이 달라지는 게 개혁이나 학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남성적 기준은 없어져야하는 거니까."

영혼의 다른 세일이 차별받지 않는 것, 남성적 기준으로 여성을 재지 않는 것, 여성은 역사적 필연이기 때문이다.

그가 오래도록 자신의 날개를 나눠주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주부관식 을 없어 책으로 내는 것이다. 다달이 4만 부을 인쇄해서 무가지로 배포한다. 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한 가지, 여성이 자기가 남편에게 해어입다는 것이다. 우리 생활의 존재는 어떤 것에 해어입을 수 없다.

"홈쇼핑가가 먼저는 여성은 자식도 남편도 다물어 누릴 수가 없어. 항상 노예가 되어있어."

그는 그것을 안일으로 '벗겨주는 작업 을 한다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우리의 인생은 스년 정은 것년 노래가 따로 있지 않아. 인생은 뜬 답어리 같은 거야. 동제인 거 그 동제가 늙어가는 건데 스녀 속에 늙을이 있고 늙은 속에 청춘이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시대의 여성은 자기 생을 동체로 인식하고 사고해야해."

그가 말했다. 앞으로 이달 년 더 공직을 맡고 나서 혼에 더 깊이 스메일센서 쓰고 싶은 글을 쓰려고 한다. 예순 아홉 라씨. 그를 따라 늙에 보이지 않는 먼 시간 속을 느끼면 우리는 볼 수 있다. 부드럽고 힘차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여신女神. 그에게 감사한다. ■

글 이경지 / 사진 홍진아

"염라대왕이랑 약속했어, 할 일 다하면 가겠다고"

– 이지밸브 대표 김예애

김예애 이지밸브 대표는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80년간 중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그는 신문사 광고국을 거쳐 자수공장을 세웠다. 중국의 값싼 자수물이 들어와 공장 문을 닫기까지 30여 년간 자수세계에서 '업의 달인'의 경지에 올랐던 그가 발명가로서의 변신을 시도한 것은 1997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정리하는 67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Why not? 안되는 게 어딨어?

김대표가 처음 발명한 것은 밸브 제단을 쌓아 조절하는 제단형 수도꼭지. 설거지를 하는 메느리를 보다 미흡한 제단형 수도꼭지는 근 4년 만에 상품화되어 '이지밸브'라는 이름까지 달았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랄까? 어려운 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 작품과 제단없이, 살아가다니며 생긴이 될 때인지 날때이 함께 세상을 떠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했지. 그러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욕심도 되고 그런 거지 뭐."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을 묻는 물음에 김대표는 초연한 이렇게 답한다.

그의 말대로 어려운 시기는 수도 없었다. 그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작품의 피지였다. 어려서부터 살림속이 남달리 강했던 덕에 주위 어른들로부터 "계집애가 어찌 그리 하는가 사내보고들이 배워"는 핀잔을 듣곤 했던 시골의 그를 만든 것은 바로 그 성취욕이다. "어른들이 쓰레 하는 핀소리라고 여기서 뭘 신경도 안 썼어. 그런 말 하나하나 귀담아들으면 피해 어른들이야 늘상 핀소리하는걸."

이지밸브 역시 김대표의 피지가 아니었다면 상품화에 성공하지 못했을 터였다. "알아주는 사람들이라 인된다고만 하더라구. 방도 어떻게 수도꼭지를 끄나 이거야. 당돌한 소리 한다는 핀송들이었지. 그때 내가 그랬어. 왜 안되냐고? 그리고 결국 해내고야 말았지."

무리하지는 않을라고? 결혼하

김대표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기억으로 꼽는 것도 바로 이지밸브가 완성되었을 때다. 수년간 꿈아 부었던 발명이 그의 눈앞에서 실현된 순간의 기쁨은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생각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아 무던히 속을 끓였고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이지밸브의 완성으로 그들만의 아름고생은 씻은 듯 잊혀졌다. 그러나 정작 힘든 것은 그때부터였다. "만들어놓고 끝이고 하나까 그게 또 어려워. 사업이라는 것이 없었다 싶어서면 다 준비하구."실생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포착해내는 것이 발명이라고 한다면 김대표에게 발명은 그야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산파는 일이었다. 그러나 발명품을 '알아서' 제작하고, 고생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물건을 '알아서' 제작해야하는 일은 어려웠다.

물대관이 알아낼 일이라는 환경운동가들의 경고가 아니어도, 이지밸브가 절수를 겨냥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해도 정부나 국회에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설령 설명을 듣고 난 공무원들은 위동이라면 그럴 듯 끄덕였고, 이지밸브의 같은 절수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제안하면 국회의원들은 무식하거나 돈을 요구했다. 그 와중에도 환경부는 '물을 절약할 시다' 라는 구태의연한 구호만 반복하고 있었다. "절수율 30%라는 건 방송에서 직접 실험해 나온 결과야.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공무원들은 스스로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한 적, 적어도 내 그런가 봐."

인심나다 공룡국에 좋은 것이 하나 없었다지 그의 신념한 비중은 계속 이어졌다. "중소기업지원책이 뭡 보면 안되는 게 없어. 그것만 보면 대한민국 정말 멋진 나라야. 그런데 막상 해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제 만들면서 내가 음식을 준 반이불까 해서 중소기업청에 갔더니 대장 배출이 많아니고 물결관이냐고 내게 '에보시오. 만일 돈이 없어서 못한데 무슨 배출이오. 돈 당당하오.' 그랬더니 무조건 안된다고만 해. '안됩니다'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나라야."

인천수련 다 마치니 무릎이 좋다

그렇게 한평생 입에만 풀칠하느라 나이가 드는 줄도 몰랐다. 힘든 다섯 시간도 화장해 지면도, 가족들 생각에 나이를 실감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나 스스로는 항상 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내 나이를 상관에 해 와. 누가 할머니라고 부르면 나는 나 부른 줄도 모르거든. 돌아보면 나 혼자야. 그러면 이제 이 내가 할머니구나 하는 식이지."

김대표에게 나이들은 경험과 연륜을 쌓고 이해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얻게 되는 일, 젊은이들이 알 못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일 따위를 의미한다. "인생의 완숙기가 오는 거지. 부족한 점이야 아직 많아도 인생의 한절감 같은 걸 느낀다구. 살아서 인생의 맛을 다 본 건 다 본 거니까 이젠 좀 남 위주로 일 하려고 한 거지."

함께 일하는 젊은 친구들과 세대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도 그러한 연륜과 한절감 덕분인 듯하다. "나이는 다르지만 함께 공부하고 동등하게 생활하려고 하니까 세대차이랄 것도 없어. 오히려 사업적 감각은 내가 더 일찍이고들 해를 내주더라구."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실감하는 또 다른 변화다. "세월이 빨리 간다구. 옛날에는 밤홈 하면 '저녁, 감자 뭘는데 오래는 1년도 짧기만 하지 어떤 때는 작년 일이 올해 일만큼 빨리고. 젊은 시절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좀 다른 것 같아." 한절감이 커지고 시간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느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변한다고 그는 덧붙인다. "예전에는 그저 사람 만나고 공부시키는 게 중요했거든. 그래

무르익구. 그래는 설령 그렇게에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된다는 걸 알게 됐 하고 할 때는 자녀 설득도 다 하는 거잖아? 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인간이 품격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

기업인을 꿈꾸는 여성들의 선배

김대표가 아이엔브의 보급에 악착같이 매달리는 또도 그러한 폭넓은 태도이다. 지금의 우리가 품을 이어 브랜다음 세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할겠는가 하는 걱정과 같은 이유로 사산가정도 생각하고 있다. "<어른>을 만들 뿐이라는 것도 그래. 집 남이 많아 안 남았는데 늙은 사람이 하나라도 더 하고 가야지. 내가 도움이 된다면 많이 하. 안 그래도 좋은 일 하려는 이야기가 곧 일 이야기인 김대표의 꿈 역시 함께 관한 것이다. "성크홈, 세면기, 사회기에 이사별로가 설치되도록 하는 게 내 목표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

혼한 세탁기 하나 없을 정도로 평생 힘에만 빠져 사는 김대표는 세상스레 아쉬울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인생에 50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준다. 자신과 자식만을 생각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그의 계획은 누구보다 강렬 수반해. "난 엄마대장이랑 작작했다구. 집 일 다하면 가거든. 근데 아직 멀었어. 이사별로도 많아야 하고, 또 100살 되면 가업인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에 자문 역할도 할 거거든." ef

글 송현정 / 사진 신현

일문일답

-이름의 나이들이란?

인생의 완숙기.

-가장 최근의 성취들은 언제?

몇 십 년 전 남편이 젊은 사람들은 다루기가 어려웠지만 같이 커가는 아이들 덕분에 많이 젊어진 것도 같아 아이고 고맙다고 해야 그리 힘들지 않았다. 좋기도 많은 세기인 아주머. 자신과 나만 생각이 확장된 젊은이 마스케는 생각이 든다.

-행복과 놀이란?

늘 즐이 많다. 그러 일.

-나이들어 서럽다고 느낄 때

아무도 혼자 누워있을 때

-나이들어 외롭다고 느낄 때

인생에 대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걸 느낄 때.

-1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영상의 이미지들을 찾고 있는 할일구.

-죽음을 준비하며 남들에 하는 일이 있다면?

살에 대해 남은 인생 가치있고 한다. 사산가정도 생각 중.

-후배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목적이 무엇인 살을 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 가치있을 가지길.

마산의 여신이라 불리는 여자

– 영송현 조이순자

마산시역의 여성단체장에 앉아는 형사에 못 빠지 시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영송현 조이순(68). 그를 알고 싶은 마음에 홈페이지(http://www.choosoon.org)를 방문해 소개 메뉴를 살펴봤다.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보니 으레 나올 법한 건조한 문체가 아니라 뭔가 리드레터가 등장한다. '저를 그대로 믿고 맡긴 뒤 찾아오신 선생님을 위로해~ 늘 감동과 감격이 이어집니다. 한 알을 한 알을~ 심어갈이 해기며 그 꿈을 바라봅니다.' 자주에 대한 선생의 지극한 사랑과 선생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꽃, 사랑 음악에 대한 세기임이 예정 어린 어조로 서술되어 있는 소개글. 심상치 않다. 본지 '힐계약인가' 생각이 난다. 그러나 나라는 인간의 상급한 기대로 생한 감정의 소비를 하고 싶지 않은 부류인지라, 이내 생성함을 지웠고 홈페이지 여기저기를 둘러본다.

기록실의 사진자료란 평소 전문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찍은 일상적인 사진 외에도 정복을 곱게 차려입고 단아한 기품을 뿜어내는 사진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특히 올해 1월, 모임을 위해 방문했다던 프랑스에서 찍은 옹성어리 사진은 금고 주아래에 가녀린, 동시에 강인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그의 기품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호감은 절절 더해갔고, 그것은 계시관에 올라온 글들을 통해 더욱 배가되기만 했다.

나는 국문학, 그것도 현대소설을 전공한 사람이다. 좋은 소설 한 구절 작가처럼 읽었다. 그런 내가 저 시 몇을 가느리고가 영송현 선생님께 노래를 해주게 되었다. — 나는 선생님의 노래도 노래하는 선생님의 일생을 다 좋아한다. — 언제나 선생님의 살뜰한 감각적인 언어로 그 느낌을 곧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우리의 표현력이 아직 부족하므로 그대로 느낌을 살려내는 문학작품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일 같아다.

기억하십니까? 천국어성노조 강남지부장 시절은 말이다. 늘 카리스마의 원천 공여을 직접 만나겠고 나니 참, 좋은 인연을 맺었다 싶어 기뻤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일을 해주신 일원들 및 간부님의 배상을 바꾸는 높은 여장으로서의 역할 다하였습니다.

마산 여성단체 장자에 빠지지 않는 그 이름

마산 회원에 위치한 마산 MBC에서 그를 만났다. 긴 머리를 곱게 묶고, 짙은 색 한벌에 드레스에 가까운 짧은색 긴 원피스를 입고 취재진을 반기는 그.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을 배우하는 취재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인지 방송국 앞뜰로 나서 '본지 본 때'지에 대한 간단한 양두를 건넨다. 이내 그는 지갑에서 손녀 사진을 꺼내고~, "이제 선에 할머니가 됐어요."라며 얼굴에는 이소가 가득했다. 이제 갓 태어난 손녀의 사랑에 빠진 것 같다며 자신의 '리브스토리'를 한껏 자랑한다. 정해 아들이 3주에 한번꼴로 발이를 해외오는데, 그렇게 가끔씩 손녀와 아주머에 귀중한 시간을 보낸단다. 그런데 손녀를 보는 것은 이상 행복한데 메느리와의 만남은 공지가 아프다며 눈살을 찌푸 빨그린다. 어떤 시유에서일까? 그도 며느리를 못마땅해하는 한국의 시어머니일 뿐이었던 거? 듣고 보니 역시 다른 이유에서다. 한국에서 고부간에 생기는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을 소소한 것에서부터 배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렇단다. 자신은 되도록이면 메느리를 편안하고 말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메느리 입장에서 피곤보면 시어머니는 어떤의 어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메느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내가 혹시 불편하게 했나?' 하며 끊임없이 반추하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며느리로 살아왔던 그이기에 자신이 먼저 며느리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며느리라는 위치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생각보다도 이를 만족했다 싶다.

서울토박이로 자라 마산 남자인 지금 남편과 우연찮게 같이 결혼과 함께 마산으로 주거정 내려왔

다는 조이순자. 그러나 결혼 전에는 대학 다니던 남편의 무작위였어. 결혼 후에는 오히려 그를 외롭고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 누님 잘 키우기 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두 아들만을 여자를 고려할 줄 아는 남자로 키우기 위해 생리대 광무용도 보내고, 운동 혼자 아들이 같이 온 여자친구에게 심부름을 시키자 돌려 보내는 아들에게 엄하단하며 "그런 것 해 여자를 시키냐"며 호통 치기도 했다. 세상의 남자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여성을 만들기 위해 그는 자식 교육, 며느리 대접 등을 통해 가부장 문화에 길들여졌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여자 사람' 이기에서 멈추는가. 한단에 말한. 그는 아산의 여성단체 활동가 일을 때에도 빼질 없이 참여해 후원해주며 여성운동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도 늘 힘써왔다. 일찬 여성은 물론, 여성군의 여성, 장애여성, 가출 청소년 등 소외된 '약자' 들에 관해선 입이라면 두 발 걷어붙이고 함께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한국컬스카우트연맹 최초로 '여성장애인대' 만들다

서울 한국컬스카우트 경남남도연맹 연맹장직을 맡았을 때도 정책된 상태에서 무제된 시스템이 관행적으로 가동되는 내부상황을 뜯어고치는 일부터 시작했다. 대충 넘어가지 않고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바로잡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그는 컬스카우트 경남연맹 연맹장인 그의 위치에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 또 인감해지는 것이 그의 능력이 발휘될 것 같은데—. "여성장애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 몰랐어요. 사실 몰라서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좋은 사람들 덕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알아볼 수 있었으며 제가 사랑 부어 많은 거죠."

우산대 국악인으로서 '행복' 을 말하다

사회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악계에서도 그는 앞장서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유명하다. 아산 MBC 임나혜숙 PD는 "인간문화재 지정하는 데 비리가 많았잖아.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오직 실력으로만 지정된 거야. 인간문화재 지정되려고 심사위원, 공무원분에 잘 보이고, 그들 제자 많아주고 해야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악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한다고. 그래서 선생님 인간문화재 지정이 늦어진 거지. 서울이 아닌 아산에서 활동한 것도 있고."라고 말한다.

2001년 무형문화재로 선정되기 전 선생은 40대 여성 국악인과 함께 후보로 올랐다. 그에게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그는 둘 다 돌아남라고 심사위원에게 말했다. 그는 제자들이나 그의 주변인들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의 유산이 죽을 때까지 계승이 안되는 것을 염려해 얼어붙였고 결국 그 여성과 함께 무형문화재에 선정됐다.

한날 같은 그의 원칙주의는 가슴 종이는 아이 에피소드를 낳았다. 임나혜숙 PD가 그를 처음 만났던 20여년 전은 통일 세기만 해도 빨갱이라고 질색하던 군사독재 시절이다. 그 시절에만 시대에 조이순자는 방송사에서 버젓이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말해 사람들을 놀래켰다. 북한은 가야금 등의 전통 악기들을 최저하게 개량해 만들어 멀게 전통음악을 계승해가는데, 남한은 죽은 악기, 죽은 음악을 보존하는 것을 국악계승이라고 한다는 것. 그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할 줄 모르는 전통음악은 죽은 음악이라며 전통음악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다. 이런 철저함도 따라 많았고, 국악인으로서 돈만 많이 하니었기에 그 누구도 도움 달 수 없었다.

여성, 장애여서 많은

"선생 같은 분이 여성女性이 아니겠는가?" 라며 자기로 소문난 임나혜숙 PD는 조이순자을 우이업이 여신이라 부른다. 원칙을 갖고 그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맹아하는 힘을 배제하려고 노력하

면서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강단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는지. 유쾌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이 정체하거나 고무해지는 것을 경계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끊임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부산 지방사회에서나, 한국 국악계에서나 흔곳고 단아한 기품의 카리스마를 풍기며 그는 그렇게 주변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고 그 표현도 여러 색깔을 보이는 진단 힘에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놓지 말자고 독려하면서 말이다. 그런 그를 바라보고 있자니 '여성 이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이념 가라 생각해본다. 그리고 임나PD의 제안을 들으니, 이름 포함 어떠면 그렇게 여성스러운지 "이름도 조이순joy 순자였다. 기쁨을 주는 순자."

글 소영 / 사진 홍인미

바다를 만났다. 내 삶은 결정되었다.

– 제주해녀 대상군 고이화

하늘을 나는 것이라 했다. 푸르렁게 흐르는 물은 바람이 지었고, 물은 바람의 소리에 따라 춤을 춘다고 했다. 먹고 사는 도리를 달리 찾을 수 없어 물질을 한다 했지만, 먹고 살 만해진 후에도 여다 내음에 마음이 설레고 해녀들의 숨비소리에 몸이 달아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싶었다.

해녀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나는 <이상계절의 나루시마>를 떠올렸다. 나루시마가 비행선을 타고 바람과 더불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며 그 자유와 비상의 감각에 짜릿 흥분했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다. 뱃속까지 자유로운 여자를 선망하던 '젊디 젊은' 내가 만난 백발의 해녀할머니는 나루시마가 저렇게 늙어가지 않을까 싶은 느낌, 바로 그것이었다. 자유롭고 강한 여자들, 그들에게 늙음은 세월이 거저 가져다주는 삶의 훈장이 아니다. 어른의, 그리고 다른 어떤 배보다 삶의 한가운데다.

백발의 해녀할머니를 만나다

해녀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도 제주여자의 강한 생활력과 '억척스러움'이란 그저 흔한이야깃거리로 흔히 듣는 것이다. 한다지만 그 테두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험 없음을 드러내는 모다른 표현 아니겠는가. 내가 아는 제주여자들에게 '억살한' 고집이 있다는 것을 '제주여성'이라는 카테고리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 편견감 있지는 않았다. 할머니의 힘을 드러내는 데 제주해녀만큼 적절한 여자들이 어디 있겠나 싶은 막연함으로 만난 백발의 해녀할머니. 그는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지난 4월 28일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에서 만난 이춘 살의 고이화 할머니. 제주에선 '대상군 고이화'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인사다. 물속 4년 전인 여든 여섯까지 물질을 해 당시 최고령 해녀로 속시 언론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렸고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에서 제정한 해녀상 1호 수상자이기도 하다. 살레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청하는 전화 통화에서 그는 "귀찮게시리 뭐하러 왔노뉴."라며 짤랑스럽기 그지없다. 혹여나 마음이 돌아설까 부랴부랴 찾아간 바닷가 집. 서울에서 온 '손님'들을 그저 내치기 미안했던지 기적 같던 고할머니가 수십주업 일하나 보을 입는다. 전날 인근 밭 김매기를 하루종일 하고 나니 몸이 설적 탈나며 진작 봄아 입는 주리들에게 말을 건네신다. 목에 걸려 있는 비단주머니를 진한히 살펴보니 보청기가 달려있다. 묻으는 듯을 알아 제 몸질을 해서 아기자기한 주머니들을 만드는 게 요즘 고할머니의 소일거리라며 자랑한다.

물질만 잘 해줄 알았주

우도에서 태어나 아홉 살부터 바다에 들어가기 시

작은 고립어나는 평생 할 줄 아는 것은 물질하여 없었다 한다. 듣고 보니 예간한 사람이 아니다. "나난 열오 살에 시집이라고 가놨었는데, 시어머님한 프로 물질만 할 줄 알았주— 우리 시아방이 물질이나 잘하주 밭 살도 지일 잘 모른다고, 시아방한테 매도 많았어. 오좌 하하. 원망도 스물하나에 오난. 당최 이방에는 정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난 그저 물질만…." 열아 살에 남편마저 잃어버리는 바다 멍들과 제주도 인근 바다는 물론 백령도와 인천도, 제아도까지 원정을 나섰다. 나등보다 숨어 깊어 무사해질 시작하면 언제 물 위로 떠오를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고, 20여미의 깊은 장수물에 대해낮 말아내는 기본의 제주고도 남조나 해나 좋 스럽 해주다.

바다와 더불어 사는 것 말고는 다른 삶을 생각지 않았던 그에게 두렵에 남편이 바다 위에가 숨다에 갓 돌 배에 나온 그에게 짱수를 뿌리에고 물질을 못하게 했단다. '건난 남에 씨 집으라 할 안다다. 푸른 바다처럼 거칠 것이 없었던 고이화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억만 물질 못하게 하면 나 안 살지. 짱수 뿌리지 말라 냉에가 떨어나 난다고 당신 나산다나한테 짱수 뿌렸지? 그자 돌아니프리주제(말아나라해)였어. 그러랑 안 살기로 하고 소멸주도으로 달아나뻐 그리 좋을 수가 없어. 바닷가에 가서 숨주고 바위에 앉아서의 소리하고, 남들 보은 굿한다 그랬것지. 그렇게 좋고 시원할 수가 없었주." 나중에 남편이 집이 알하고 떨어 왔을 때 "나 하는 대로 안 하은 안 살무해안살겠습니다."라며 타협을 받아주었다. 사랑보다 바다가 중요고 바다만 있으면 세월으로 가난의 먹고사는해주 시시불문 모든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해니 멋들이 없었으니, 그가 사랑 말을 등을 이유가 무에 있었겠는가?

사랑을 돌을 이유가 무에 있을까?

그러나 제주의 역사는 장난무이지 해니 고이화가 물질만 하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굴곡진 역사를 살아내야하는 제주여성의 고난이 고이화의 삶 속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대학가지 나온 몸난 몇 남편은 4·3당시 모멸대의 제거 대상이었고 집안 모두가 죽도로 몰린 고립어나는 이제 죽으나 저제 죽으나 마찬가지라 생각해 출산진통을 참으며 목숨을 건 피난 배에 오른다. "전국놈들 다 죽이레 오람시녹을 거니까 도망가라 해구, 배 타고 소섬으로 도망가는데 배에 몰은 스무고 나난 노꾼 빗대기— 배기가 쉬멀 나노냐나을 것 같아 피 멈질 나멀, 한추성 가다가 배기보 물하나거불고버리과 죽으나 사나 요주, 하이고, 이 세상에 나같이 고생된 사람 읍다." 10년 고생해 일구어 놓은 모든 재산이 항구해 멀거지가 되고 남편마저 그해 행방으로 세상을 뜨니 고립어나는 억고 싶기 위해, 자식들 키워내기 위해 물질에 더욱 열심히 주력해 갔었다.

죽지보가 바다에서 살았던 시간이 많았던 그에게 바다는 많은 존재을 남겨놓았다. 나이든 대부분의 해니들처럼 고립어니 또한 75년간의 물질 해온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 신세를 지어왔다. 바닷물상과 오래을 해서 소라와 주둥기시리을 채취하느라 손가락은 물살 귀가 터졌고, 바람에 무덤하고 물살에 빠진 혼적은 무릎과 발가락 모양을 그대로 녹두어 놓았다. 만약가 존재한다면 그 모습은 정녀로 동화에서처럼 어쁘지 않을 것이다. 알알한 삶귀은과 물적물적 싸워나온 빠바디는 "보시기에 좋았네."가 아니라 "살아남기에 좋았네."가 어울릴 해니며, 생각해보라. 몇 몬에의 상어리가 모누는 것 같은 바닷속 20여미의 수압과 물속으로 투사되는 광선의 빛 내 없는 혼돈을 속에서, 자기 체중보다 다한을 넘고 넘어 캐아낸 모래 주을 채집고 전복을 캐는 그 작업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겠는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제주해녀들에 집적부터 관심을 보이온 미주의 한 연구에 의르면, 그 당도의 작업혼경이면 해니들은 3~4년 만에 시력과 청각, 폐까지 그 기능을 영주는 것이 일반하다는 '과학적' 설명을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이 80-90살까지 물수하는 이유를 바다 속의 불부한 이내를 먹은이라는 나름대로의 설명도 해보지만 과학적 분석이란 때로는 얼어나 빈곤하기 짝이 없는지. 해녀들의 건강함은 그 노동이 해녀들 자신에게 갖는 의미, 그리고 해녀문화의 독특한 면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

바닷에 취하니고 만에 홀린 삶

고이화 할머니에 따라붙는 대상군이라는 칭호는 초경으로 하녀 해녀를 이른다. 해녀들은 그 기량에 따라 하군, 중군, 상군으로 사열화되는데 기량이 출중한 상군 중에서도 해녀공동체를 이끄는 서너 명의 해녀들이 바로 대상군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물질에 대한 고찰이니의 슬회가 늘 같이 작업했던 동료 해녀들과의 추억으로 이어지는 것만 보아도 해녀 맷들은 노동의 고단함과 노동 후의 안온함을 함께 한 강력한 공동체였다.

고이화가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이면 동료 해녀들도 물에 나지 않았다 한다. 상주 들어간 그가 낚아올 상무물어에지는 시늉을 하며 물위로 올라올 때면 언근 바닷가가 운동어다가 되었고 보무이를 실로 곧아 묶어 동료들과 해어이 돌아다니며 챙긴 목목목목 기하늘이는 노동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렇다. 물질하는 해녀들에게 바다만이 공무가 아니다. 그곳엔 늘 맷이 있다. '바닷에 취하니고 맷에 홀려 목적상적했던' 것이 바로 해녀들의 삶인 것이다.

해녀공동체가 이성도 중기은 유희로만 유지되는 많았을 뿐, 강력한 노동의 규칙은 그 공동체의 존속이 중요 잘 보여준다. 바닷에에 신다고 해서 모두가 해녀로 입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물질 모든 마을 내일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물질은 물질로 자기해진 몸을 입히는 몸 퍼는 공간이자 일터로, 특별실이었다. 더욱 중요하게는 공동작업을 위해 규칙을 위반한 해녀들을 관리하고 초보 해녀들을 교육하는 소통의 장이자, 해녀들 각자의 고민과 해론을 공유하는 수다의 공간이었다.

이런 해녀공동체의 힘이 있었기에 고할머니는 일제시대 적하에 맞서 들고 일어설 용기가 났을까. "구남 지 해가 크니, 일제 세주고나, 다른 상무님은 내 위에 사그라시나— 살릴 만큼인 줄은 모른다 한별, 그 일본놈이 우리 주이래 오나— 그것들은 상백명— 시나리일은 다 일어나고 씨자일인 남일제. 주도 시람을 요성이 잡혀간 세 명고 고문도 해리골. 일본남들이 맛좋을 쓰난, 가족 허리에 끊고 일하하서 작 소리나게 우다난 이 아구덕이 갈라짐갔다면도." 1930년대 제주들이 80-90프로를 차지해가는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해녀들과 어부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는 제주도 최초의 항일운동으로 기록된다. 스무 살의 고할머니는 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갖은 고문을 당해야했다. 항일운동으로 명명되어 상도 받고 보상금도 받았지만, 목숨 건 물질로 가득 채운 명사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해녀들의 생존이어는 순간 나타난 정책 모를 불한당들의 손아귀로 넘어간 것에 대한 분노의 목발이었던 것이다.

모계로부터 이어온 삶의 지혜

자기 노동을 긍정하고, 그 노동을 공동체의 대의와도 어울의 생각할 줄 알았던 해녀들의 자율스러움과 강한 삶은 생존을 함께하는 커뮤니티 속에서 독구를 통찰하고 조정하고 합의해 가는 오랜 과정을 통해 훈련된 건강함과 사회성 덕분일 테다. 가족의 테두리에 머물지 않고 생계를 위해 내 몸 단의 돈 벌어온 자신감과, 공동체 속에서 무대끼에 갈등을 풀어 풀던 경험에,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지지해준 뭇들의 존재는 여자를 충분히 강하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제주해녀들의 강인함은 가부장제가 전달하는 억하다 내동댕이치는 '희생 과 '봉사' 로 점철된 여성의

정정모 <울할> | × 130 × 190cm, 1994

이제 고향이를 떠나 인지자 | 정정모

여자의 한은 삶에 한기로 하소연다 | 서정숙

독수리 네가에 소아용산별 동생하세 | 조인

공비에서 찾는 판결기 퍽스 | 임희덕

삶이 아니다. 어쩜을 적부터 '소도 태어날 줄지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제주여자들. 밭일과 바다일, 자식 키우는 일까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의 고단함을 한탄할 새도 없이 그들은 그렇게 삶을 꾸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서 한스럽다.'는 말은 '인어는 이쁘다.'는 말처럼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수식에 같으리라. 남자가 기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만 여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주해녀들은 억하나 몸짓을 통해 깨닫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다시 딸로 이어지며 강인함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바람시랑 보낭 바당에 강도, 물질을 하지 않는 날이면 몸이 아프고 긴장감없던 고향마을로 이제 발을 힘구고 사신다. 멀찌어서 해녀들이 배에어 올에 올라가는 것을 보거나 해녀들의 숨비소리(해녀들이 물위로 숨구멍 을 통해 내쉬는 휘파람 소리)을 들을 때면 아무도 가슴이 설렌다 한다. 밭일보다 물질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다고 늙어가는 몸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몸이 허락했던 동안은 세상 모든 바다가 자기 것이었고 대장군의 명예까지 얻으면서 누구보다 풍부한 감성을 배웠기 때문에 주로의 아쉬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억울하다.'는 그 흔한 레퍼토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짧은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오고 나서 음상이 남다. 해녀할머니의 물질의 손이 바람에서 얻을 질로 서울의 서늘한 바람을 맞을 때면 해녀들이 물질하던 바다도 태평이 질리는 듯했다. 이영자나 이어도사나, 이영자나 이어도 사나 / 우리 해는 질도 간다 / — / 어서가자 어서가자 목적지에 들어나가자(날도록 나가자) / 우리 인생 한번 죽어지면 다시 전생(환생) 못하나니라 / 워원(남의 아들 된자랑 마라 인의 아들 신자랑 마라 / 한 배개에 한잠을 자난 부도 선도 자은데 (부러운게 없다 /서방 잘수 난 아니노래(만들어 불렀느라).

해녀할머니를 만나 자유와 질병에 대해 한달만 우연 된 질이 여린의 관하지 속을 열은 것이었다 해도, 나는 최소한 이런 것은 할 것 같다. 이어도가 바닷일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그리움의 섬이 아니라, 바다를 품에 안은 해녀들이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길 그리워하는 이상향의 섬이라는 것을 알아다. 그들은 남편과 아이와 가족이 어쩌해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그리움과 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다.

여자들이 공무어 왔던 자유의 본능을 품어 하고 온 기분. 여태로 사는 것이 힘겨워질 때마다 난 이제 질에서나마 깊게 숨비소리를 내고 있을 해녀할머니를 생각하게 될 것 같다. ㎡

글 정혜경 / 사진 정선아

이제 고쟁이를 벗어 던지자

– 할머니들의 성과 사랑

할머니는 이렇답니다

김해여성복지회관은 22년 전에 김해여성들이 제 집 모아 지은 여성 놀이터이자 교육장이다. 그때부터 중심되던 여성들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노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성노인회관이라 되어버렸다. 이분들의 연령대는 6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까지 다양하고 학력 또한 그렇다. 이 할머니들은 아주 열정적이어서 배움에 목무도 하는 날이 없다. 80세가 가까워도 꽃다울 몸과주스와 벤츠이 무용복을 입고 세시하게 자세하를 추는 할머니나 소녀처럼 웃으며 실버여성대학을 오가는 이분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생생하다. 이분들은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다니기도 한다. 어처럼 젊은이 문들을 그게 여으신으로 박해하는 우리 사회의 희선이 나는 참 아인스럽고 부끄럽다.

이런 할머니들의 온갖 재능을 모아 우리회관 주관으로 <황혹실버문화축제>를 연다. 이 축제의 역사적 배경은 자신의 아들에게 자기의 실을 물려준 할머니성 희통적(가부장 집주로됨에)이다. 이통후 역시 자문화를 거역으로 정착해 들어와고 가부장교를 세운 여성으로서 할머니로 들어가셨다. 이 여성의 문화인 역사를 발굴하고 상대적으로 차별된 여성노인의 문화적 역량을 높여 구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축제. 할머니들의 가족갈등을 해결해 새로생활에 힘어버린 여성역사를 복원하는 축제가 황혹실버문화축제이다.

<할머니는 아름답다>란 플래카드가 온 거리에 내걸린 9월 말절부터 지난 10월 3~5일까지의 '황혹실버여성문화축제'는 그야말로 수많은 시민 참여와 더불어, 우리의 주인공들을 행복해하는 할머니들로 시민들에게 '젊은 인상을 준 놀라운 축제' '할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꼼 설명 자면 이런 주제의 고쟁이 벗기 퍼포먼스는 할머니들이 억압된 몸을 풀어버린다는 의미로서 '생리에 고쟁이 벗어 던지기'로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함께 함께 손잡고 온 이들의 할머니 - 할머니' 퍼펄 프로그램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할머니께 버림 우아 틀린 것은 할아버지와 외간 할아버지를 별로 반기지 않는 정숙하고 박절하(?) 할머니들로 인해 할머니 에너지를 증오하려는 우리의 의도가 잘 먹혀들지 않아서이다. 손을 잡으라고 해도 안 잡고 외면만 하니 무슨 재밌이 되겠는가? 할아버지들은 적극적이었지만 할머니들은 '아이고 영감 낯 내난다."라며 할아버지와 노는 것이 싫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아무른 겉으로도 그렇게 보인다.

영감 살려가 싫다?

성은 타인과의 일체감을 추구하며 자기가 살아 있음을 확증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성은 상호작용이며 인간의 교류이며 사회적 관계이다. 그런데 이성은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영입는 이성을 보면 여전히 좋고 흥분된다는 할아버지가 84%인데 비해 할머니들은 14.3%란다. 이성에 대한 '끌' 을 억압하는 일문화로 사회화된 할머니들에겐 할아버지들보다 욕망의 표현에 대한 질제가 많게 되란다.

할머니들은 스스로를 여성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축제장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어울리는 40대 남성사회은 "할머니들이 정말 아름답다."

고 한다. 여자가 보기에도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하고 사진의 모델이 된 할머니들은 젊으로 예식하고 멋있다. 너무하고 아름답고 당당하다. 누가 이분들을 늙고 예에 없다고 말하는가? 내 눈에는 젊음이란 무기 하나로 사는 예술이들보다 훨씬 예쁘이 풍부한 분들이다.

노년의 모델 그런 장욱 (예술도 좋아)

그러나 늙은 여자에 대한 편견는 "젊어서도 심술을 피면 오던 통점도 아니 온다."는 속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다. 늙으면 예쁘아나 지팡이 늙어진 피부 등으로 대수 검난과 지병 가능한 특질을 갖고 있고 이 지병들은 다수집단에 의한 차별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수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온갖 이론을 만든다. 사나 소설에서도 늙은 여자는 여자 아니면 추악한 노추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직업에 사는 사람이 퇴직 후 명퇴도 "남녀평등이라며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무거운 짐을 적적 들고 고달픈 기계도 빨리 고치내야 하는 사회임에도 여자는 '예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늙은 여자는 집 가던 제도 안 적다를 정도로 구석으로 몰아두는 경향이다."라고 한탄한다.

여성노인을 그리 대하면서도 도덕적 요구는 많다. 좀 늙는 옷만 입어도 "늙은이가 나이 값이나 하라."고 하고 정적인 태도를 약간만 드러내도 "주책없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노인도 욕망이 있고 사랑의 욕구가 있는 존재다.

할아니나 섹스하는 할아니들

여성노인의 성은 남성노인에 비해 억압된 상이고 그것도 14 : 84 정도로 억압된 상이다. 우리 최관의 성 여이성대학 수업에서 <죽어도 좋아> 영화를 해설하시 닷물이며 성적 쾌락을 피하시 말라는 교육도 하였건만 "아이고 추잡스러워라, 무슨 영화가 저렇노? 저 영감 할매는 자식도 없나? 내사 이런 곳엔 무드립하 더 이상 몬 오겠다."라며 화관에 안 나오는 분이 몇 분 계신다. 젊은 할머니들이 그분들처럼 극단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민망스러운 얼굴을 했음은 당연하다. 나중에 간사 말을 들으니 상관계 얼굴이 화이하게 커피자에 잘 안 보이니 기계를 잘 다루어 뒷의 잘 보이게 해달라고 상화를 하셨다고 한다. 이런 모습에도 할머니들의 이중적인 성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성은 젊음의 것만 것, 다른 것이라면서도 욕망하는 무엇인 것이다.

그런 경험 때문에 그 다음 실린학교에는 조동과 함 시간엔 <죽어도 좋아> 대신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을 보여드렸다. 구성진 우리가락 속에 펼쳐 젊은이의 예쁜 사랑 모습이 마음에 드셨던지 좋아라 하셨다. 할머니들 대부분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가슴속에 묻부 숨겨두고 산다. 이분들에게 젊은 그저 동을 감아주고 함께에 무릎을 베고 눕는 정절하다도 나눈어서는 안 될 것. 내색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니 노추가 쓸쓸하고 무세력일 수밖에 없다. 어쩌다 아주 어렵사리 속내를 털어도 그것은 망신의 일부이다. 존재인 젊은 바 중을 알 수가 없다.

오래 전에 종로 파어 서너를 다 키워 계일 큰 손자도 있는 할머니 분은이 백일 전 공에 남편과 영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예고 나서도 그 비운이 남고 좀 오래 살을 만 했더라면 싶더라는 것이다. 생식적인 느껴지는 그 동작과 생식을 할 관한하고 좋다관다. 그러자 67세의 한 할머니도 그런 꿈을 가질 같다는 것이다. 자기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몸이 어프다고 한다.

할머니들은 '아이고 늙은이가 무슨 생자의 생각이 나겠느냐'고 펌펙 뛰다가도 새로운 상대를 만나 결혼생활을 하고 노후를 즐겁게 지낸다는 할머니의 이야기엔 진한 부러움도 표시한다. "저런 사람은 보통은 아니 사람이다."라면서도 "나도 그럴 수 있다면 좋로지."라고 말을 흐린다. "자식도 몰라했다." 라는 말에 묻어있는 허모움과 소외감을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해주지 않는다.

할머니들의 기억을 새롭게 조명하는 황옥십버문화축제

할머니들은 성적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해결할 출구가 없는 것이다. 어쩌다 자꾸 제안을 해도 그녀의 자녀의 정에 피지하고 이혼과 함께하는 삶을 질들게 두렵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술도 모든 세 몸부 감추고 산다. 그래서 아픈 조도 많다.

할머니들은 결코 죽어있는 몸이 아니며 성나도 식내도 아니다. 식장주 시에 나오는 이생원에 아누라 오줌줄기가 멈칫보듯이 전성이랑도 주변에 3-3명의 할머님을 거느랐고 당해콩의 아내 추천무루는 남동이란 제도까지 만들었다. 할머니 시대루도 8명의 할머님을 늘 주변에 두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자에겐 상과 권력도 주었다. 90세의 할머니가 20대 초반의 청년과 결혼한 해외토픽에서도 보이듯이 노년이라도 돈과 권력을 가진 여성은 상을 즐긴다.

35세에 미팅만나 다섯 자녀를 키우고도 아무도 찾지 않는 날 생활에서 혼자 사는 65세의 이모 할머니는 손톱은을 아들에게 다 빼주고 남아니 외모시장에 나가거나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산다. 영문 보기엔 70세가 되어 보일 정도로 늙었다. 하는 날아니 비 오는

남 혼자 누워있으며 몸도 아프고 슬퍼진다. 그럴 때면 생각이라도 안했으면 싶다. 일이 많아져도 좋으니 누워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니 쉽게 하루이틀 안된다. 내무 피로하셔 어떠다 공원 앞에서 출발하는 '꽃의 마 관광' 버스를 타면 파리나로 정해준 오르는 할배가 손짓을 주무르며 든다. 더 이해서 과하는데 술을 먹고 주점을 떠는 모습이 주하게 느껴져 몰래하기만 하다.

어떤 할머니들은 '꽃의 마 관광' 지에서 다른 남자들과 접을 자기도 한다. 이 할머니 자신도 그런 여자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약간은 부담기도 하다. 파리나와 같이 방을 찾아 나가는 할머니들 피엔 모두 한쌍에 모여 한다. 그런 이별이나며 이 할머니께른 같의 할머소가 된다.

62세의 노래 잘 부르는 명랑 활달한 김할머니는 몸집이 작고 야당해 아직 30대 중반처럼 보인다. 일마 전까지 공장에 다녔으나 퇴직하고 아들과 함께 사는데 나이 젊어 노인 상대하는 관광보조일을 하달수가 종 때마다 따라가 놀다 온다. 누가 그저 집 잘집에 해주겠냐? 엄당하고 노래하고 먹을 것 주니 얼마나. 어떤 할머니는 그들의 분장에 놀라 1000만 원어치의 돌을 줄 살다고 한다. 피로종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그러나 상처이 명랑해 어디나 노는 자리에 끼어들어 술추고 노래하며 시간을 보낸다. 아직 젊다고 느끼지만 자식 이목 때문에 재혼이나 이성교제는 생각도 안 한다. 밤에 가끔 잠이나 무는 게 고작이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늘 걱정하다 그저 등 긁어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싶다.

아버니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

젊은 사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니 노인도 즐기도록 도와야 한다. 기왕일에 돈을 영금을 내긴 낙천적인 신하사람들은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 너그러웠다. 변호사 그 일부가 방금된 신라 경주 문천(蚊川)에 걸렸던 길이 55m의 대형 식교 호롱호교(虹霓橋)는 어머니가 정부를 만나고자 밤마다 몰입 건너며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일곱 아들들이 놓아드린 다리라 한다. 신하사람은 그런한 방식는 자식들이 동조하의 만큼 자연스러웠다고 한다.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이란 책의 공동필자였던 조은 교수는 부인의 죽산전 억제가 어머니의 지위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결혼 문화 정착적 입어 여성에게 없을 때는 너욱 성스런 어머니 역할을 강요받던 것이다. 우리의 최생적이고 '전아람당스러운' 모성 신화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성적 욕구조차 눌러두기를 강제당한 '힘없는 여성'의 투영일 뿐이다. 노인의 성생활 인식이 낡니 건에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은 여성이 절제적 종속에 더불어 성의 종속 상태에서 성적 자율권을 상실한 채 수동적인 태도를 당상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사회화된 이유에에는 없다.

에노기와 의사 설동철은 65세 이상 남자노인의 89.4%, 여자노인 중 30.9%가 성기능을 유지하며, 66세부터 70세 노년층의 62.2%가량이 월간 1~3회의 성관계를 가지며 노인의 성당수가 성을 통해 삶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말한다.

여성노인도 성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그것을 심리적으로 만족시킬 만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중에도 여성노인들은 존경스러운 어머니 - 할머니 - 어르신을 강제하는 사회에서 일체부터 성적 욕망을 거세당한 채 살아왔기에 가끔 잠에서나 섹스를 할 뿐이다. 그들은 강한 사회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만큼 욕망에 자유로울 수 없다.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 사회심리는 성적억압을 제도적으로 허락는 마음을 방해한다. 이렇게 우리가 짓누르고 억압한 할머니들의 외로운 성은 노인으로서 당연하고 어른스러운 것인가?

할머니들도 행복해지고 싶다.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 할머니들의 연구 <황혼연가>에서 아들 며느리가 세상 때문에 재혼을 방해하자 많은 할머니 관객들이 분노했다. 나는 그 모습에서 그들의 존심을 본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순전히 이기심 때문이다.

할머니들을 자유롭게 하라. 만나고 사랑하고 싶해하고 시작할 모든 자유를 주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외로운 할머니들에게 사랑의 기회를 드리자. 만남의 자유, 동거의 자유, 자위의 자유, 이혼의 자유, 재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한다. 한 인간이 노년에도 인간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성은 그가 해왔던 가장 자연스런 일이 아닌가? 우리도 곧 늙는다. 아무리 의학의 기술이 발달해서 오래 살아도 사랑도 못하는 삶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성적 자율권이 없어 자식 눈치나 보는 우리 어머니들의 홀날 우리 모습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은 항상 인간으로 대우받아야한다. ■

글 양현임 / 칼럼니스트 낸나

여자의 한은 담배 연기로 타오르고

골초 외할머니

내 외할머니는 어른마 골초—어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초골'—였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배우 이중적이었다. 어린아이 한눈도 프로라집 할머 할십까지 할머 올린 복은 머리에, 눈부시게 하얀 동일이 담긴 한복 차림을 고수했던 그였다. 시장통에서 가게를 하느라 늘 도매이가 되어나올 듯한 —외할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집에 들어설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던 그였다.

그런 그에게 비누 냄새가 풍풍 풍기다 세끼이란면, 대신 몸뚱한 담배 냄새가 풍풍 풍겼다. 방에서에 방에 진 머리카락 한올도 손가락으로 톡톡 집어내는 그이건만, 그의 재떨이는 지저분한 꽁초로 가득 찼다. 어린 내게 그는 이해하기 힘든 대상이었다.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아예 '넘번교석' 였다. 그가 어

릴 적에 평생 한 번쯤다고 결심한 일이 세 가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술과 담배, 그리고 계가였다. 한결같이 할머니가 지독히도 좋아하거나 아이 '지저분' 일이었다. 골초에 해주가인 외할머니는 재떨 정혼 집에 가기 싫어 다른 자의 뜻을 무릅썼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가장 싫어한 것이 흡연이었다. 외할머니의 니코틴 중독은 상당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던 모양이다. 주중에 담배가 떨어지거나 상냥이 안 보이면 죄물인식, 인사불성 상태에 빠지는 건 기본. 담배가 잘 공하면 '정 대신 담'이라고 훈동했초를 제주도 꽁냄까에 노랗게 피는 꽃대를 꺾어 말아서라도 피웠다니 말이다.

내 어머니는 그런 친할머니를 무르러워한 나머지 평생 담배를 멀리했다. 심지어 남편이 담배 피우는 것조차도 싫어했을 만큼. 훗날 내가 담배를 피운다는 걸 눈치 챈 어머니는 "어이고, 고생할주리 외할머니 이 꼴이다 온다말 아니말까 회." 하면서 낙심천만해했다.

시집살이 문화심이 만드는의 배운 심심초

하나, 담배 연기에 피지배 삶의 굴이을 넘은 어가 어디 내 외할머니뿐이었으랴. 우리 또래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친한에 할머니가 논의 재떨이에 담뱃대를 탕탕 두들기거나 재아 속 속고랑이를 피게 담배 쌀이를 꺼내는 풍경을 간직하고 있으리라. 상화의 주인공이 친할머니건 외할머니건 한 집의 할머니건 동네 촉망이 할머니건 간에.

'담배 피우는 넌은 숙집 어머니 닮삼보.'라는 등식이 통용되던 시절이었다. 여염집 여자 카운데 공개적인 흡연이 허용된 존재는 오로지 나이든 여자, 할머니뿐이었다. 임세 와 흡연여성 상태를 조사한 고한나에 따르면 그 기준은 놀라우나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여

존 살, 요즈음이라면 환갑 나이지만, 조혼이 일반적이던 그 시절에 아혼은 손주를 볼 나이였다. 결국 여자는 집안 살림과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난 시점에서야 담배를 피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비로소 성인 남자와 같은 반열에 올랐던 것이다. 할머니들을 더 이상 여자로 여기지 않았기에 담배를 피우는 것을 내버려두었다는 일반대의 해석도 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른 같이 되어서야 담배를 피웠느냐고? 그런 아니다. 시집살이 스트레스 담배를 해결다는 이유이 컸다. 그것도 주리의 통념하는 일의 시에 어른들의 권유나 묵인 아래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당시 시댁 사람들이 요즈음 사람보다 더 전보적이거나 너그러웠느냐고? 글쎄다. '고부갈등'은 오늘보다 더 해운 시집살이를 견디어내라고, '농사신말 건인 뽕'을 입 밖에 보내는 동일의 심술을 담배 연기에 실어보내라고, 큰한 것이 심심초였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숨막히는 가부장제 하의 시집살이에 승부을 피해줄으로써 더 심각한 일탈을 방지하는, 일종의 제세 음식 수단이었던 셈이다.

내 후배 박하리의 외할머니가 그 전형적인 경우였다. 유년의 감성이 풍성한 그의 남편, 즉 박하리의 외할머니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먼 일가붙이가 사는 일본 요코하마로 건너갔다지만. 돈돈을 벌어 호강시켜주겠노라, 커서 자식 잘는 대로 하세를 부으겠노라면서. 돈난 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끊어진, 예이가 떠난 뒤에야 아이가 생겼음을 알게 된 그는 동을 꼴 때까지 버나서 포함다였다. 아이를 낳으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이가 걸음마나 뱃 뒤에 가라고 말리더란다. 그러는 사이에 사업에 크게 성공한 남편이 그곳에서 일본 여자랑 새롭을 챙다는 풍문이 들리왔다다.

밤하늘 숨죽여 우는 여느라에게 공포 시어머니가 넌지시 권했다던다. "제 아, 이제 남편만큼은 못해도 정 못 견딜 때는 아름불이가 되니라." 그래서 고부간이 공방대을 돌고 맞당 해성을 하게 되었다던다(실제로 이 당시에는 당뇨대에 발달해을 제외 치우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방살이의 피로을 을 두 차부는 원초로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맞당해결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혼자 사는 말을 안드심게 여긴 친정에서 강제로 걸고 가 재가을 시키는 바람에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끝로 끊어프라진.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당뇨한글은 평생 동 잘했다. 새 남편이 시절까지 지질 봐다 주는 바람에 당뇨 피을 운을 따도 아랜하느라 부족하나 해을 먹으면서도 많아다.

시댁에 눈물로 떼어놓고 온 말이 자라 시집가서 낳은 말이 바로 내 후배 박수라다. 아라는 최할머니을 피기 갈 막아다 시중에서 가장 비싼 당뇨 뜬 보무을 빛지 않고 생기 같다던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니, 유일한 말이 당뇨인 걸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런데 그는 은아말이 키고 나면 동네 가게에 가서 선물받은 당뇨을 가장 싼 당뇨로 바꾸어 피했던다. 같은 곧에 더 많이, 더 오래 지을 수 있다면서. 아라는 그런 할머니에게 세일 공상 중 멀지 마시라고 화을 내면서도, 속으로는 울컥난다. 몇 년 뜬 최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젠 당뇨을 사다 드릴 수도 없어 더 슬프단다.

'마법하다, 여느라여'

연초 을 소개한 민도자는 주로 시어머니였지만, 때로는 시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실장 김말숙을이 그런 경우였다.

실장은 '조선의 아기막 선비'라 불릴 만큼 대쪽 같은 목신으로 급에서 배운 바을 실천해 올렸던 조선조 말의 대유학자. 3·1 만세운동 직후 상해로 건너가 유일 대로도 임시정부에 참여한 그는 일제의 모진 고문에 두 다리가 상하는 바람에 평생 동구로 살았다. 자신만이 아니라 두 아들마저 빼앗긴 나라을 되찾는 일에 바쳤으니, 그 집 안아들은 안주에서 무장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찍이 세상을 버났다.

국내에 들어와 비밀 군자금을 모으고 조직을 규합하던 무렵, 실장은 홀로 남아 종갓집 며느리로서 소임을 다하는 맏며느라에게 당뇨을 가르쳤다고 한다. 실장 그 자신도 소문난 애연가였으니, 당뇨가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에 던지는 한 줄기 위안과 명화을 모르지 않았을 터. 환고하고 가부장적인 유림의 대표 주자 실장도 며느라을 인쁘림게 여긴 나머지 당뇨하는 위한 거라을 소개한 것이다. 홍오 된 대아버었던 실장의 며느님도 어느덧 젊은을 넘긴 과부 할머니가 되었건만, 호랑이 같은 시어버지에게 배운 당뇨을 지금도 잘해 두고 있다.

하나하나 새도 그 시절 어라들이 홀연의 길도 들어선 주된 계기는 입덧이었다. 지금은 당뇨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널리 알려져었지만, 당뇨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광해군 무렵에만 해도 당뇨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다. 홍정중이나 홋증, 토해같이, 가슴앓이에 효험이 있다는 입소문이 민간에 퍼졌다. 특히 맥박이 소용없다는 입신부의 입덧을 멈쪽같이 가라앉힌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당뇨 연기에 피식해 입덧의 고비을 넘긴 사람도 많았다.

내 후배 미란의 어머니가 입덧 때문에 당뇨을 피우게 된 경우였다. 첫애을 가진 뒤 메식메식, 음일거리는 속을 다스리려고 문지방의 흙먼지까지 먹어보았던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흘러나온 구수한 연기에 순식간에 속이 가라앉는 게 아닌가! 다름 아닌 남편의 당뇨 연기였다. 남편의 월지고라에서 흘러난 당뇨 두 개로 시작한 그의 흡연은 시련과 역해로 길었다. 그 사이에 아이을 셋 낳았고, 당뇨을 홀릭 피운다고 남편에게 구박받고 아이들 앞에서 추궁당하다가, 끝내는 흡연 해문에 이혼까지 당했다.

할머니가 되고난 뒤에야 그는 비로소 온전하게 흡연의 자유을 누리게 되었다. 한일금의 그는 과자 공장에서 사탕 봉지을 싸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만의 당뇨을 사서 피운다. 남편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피우던 그가 지금은 만방에서 다리을 꼭 뻗고 당뇨을 피운다. 이런은 그런 어머니을 보면서 아름다으로 말한다. '참아, 고정 이 정도 자유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걸 그렇게 많았어?'

뒤켜진 그의 몸내음이 그립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당뇨는 경험과 무제, 그리움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흡연은 전달 수 없음을 전디는과정에서 기기에 적합하는 몸짓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내뿜는 연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염혼의 기도였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이름을 전수받아 무작정 최할머니을 따라한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을 먹을수록, 최할머니 나이에 조금씩 다가갈수록, 나는 이루적게 그녀가 보고 싶다. 뒤켜진 그의 몸내음이 그립다.

그리고 그의 피로움을, 그의 한을, 그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정말 미안하다. 좀더 오래 살아계셨다면, 내가 좀더 일찍 알아 들었다면, 그와 당뇨 한 대 정말 맛있게 나눠 피울 수 있었을 텐데, 싶다. 당뇨을 평생 '천부'로 여기고 산 어머니와 몸은 최할 최경지만. ET

글 서영숙(여성흡연전독사, 저자) / 일러스트 난나

도봉산 자락에서 마음을 비우고 우정을 채우다

포슬린 네자매 초여름 산행 동행취재

해주 최씨들은 최근의 할머니들이 인생하며 가는 낯 두꺼운 개념과 의도 등을 들은 60~70대 할머니들이 산악회를 이룰 일주일에 한번씩 산행을 감행한다 하니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구태도 거뒤 달라.' 조은 <어르> 취재진. 기별제 할머니들의 하산 을 맡아냈다. 그러나 본지 출발부터 보인다. 등한 생활 감각을 타고난 두명의 최재진은 그날도 어김없이 지 인들과 문살을 맞춰며 공간에서 분들을 해맸던 것. 이 분에 약속장소인 방림시장에는 약속시간 40분을 훌쩍 넘긴 10시 20분이 돼서야 도착했다. 죄송한 마음에 낯 둘기가 무리라였으나 할머니들, 'good'하며 취재진을 용서한 뒤 방림산장으로 떠났다.

최근의 산행의 서광의 꿈 '방림산장'

방림산장. 방림시 부근에 있는 산장 이름이냐고? 노 우~! 최근의 맹어 중 도봉산 근처에 살고 있는 팬츠를 할머니 집을 가칭하는 말이다. 도봉산으로 산행을 마 치 전 함께 준비물을 점검하고 처음 마주에 약간의 주다를 하는 곳이기에 최근의 맹어집은 이곳을 '방림 산장'이라고 부른다.

한달 이면적인 준비물로 무장했던 방림산장. 예전과 이 할머오자 여주인 황소림 할머니는 처던 일을 뒤로 한 채 반갑게 맞으며 하와 찌, 과수 등을 내놓았다. 산 장주인 이곳 한번 기억하다. 맹에서 유명수 할머니 황 소림 할머니의 이름 보고 '기별이 되다 만 이름'이라 고 놀란다.

산장의 넓은 마루에 앉아 서랍한 대접을 맛으며 차 를 마시니 좀 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 졌다. 11시경, 할머니들은 산에 올라갈 준비를 갖추지 고 숨을 돌릴 겨 잠든 마루에 앉았다. 그 틈을 놓칠세 라 할머니들 소개를 부탁하니 최근희의 리더 유명수 할머니가 각자에 대한 소개를 해준다. 80년 동안 적의 공무을 하고 있는 유명수 할머니(73), 대형등에 관한 한 전문가인 최종해 할머니(70), 방림산장 여주인 황소 림 할머니(68), 포천 농사꾼 구인희 할머니(63), 이중

최종해 할머니는 새벽등산 관련해주어 눈스에도 소 개된 적이 있었다. 여무든, 갈 집이 먼저라 유명수 할머니는 "여기는 산에 가서 하자"며 제촉했다. 11시 25분, 최근희 맹어집은 마에 집을을 제촉하며 방림산 장을 나섰다.

"먼날 비가 와서 그런지 참이 제문해요. 먼지도 안 나고, 좋 좋다" 구인희 할머니가 입을 연다. 도봉산 입구를 지나 산에 오르면서 흙은 선두를 지키던 구인 희 할머니는 예정해정 등산길이 역간 오르하지 않은 가 보다. "여가 안 팬츠면 먼지도 나고, 맹에 제직도 들어 맹겁을 거라고." 거제고 권인 할지만 제직 여위 를 다고 등굽기가 예법 시문하게 올라내려왔다. 산산 한 마음, 등산길 맹에 우거져있는 나무들은 팔루르지 는 않지만 연둣빛보다는 예쁠 진한 초등을 드러내며 싱그러움을 더했다. 거기에 바람결에 날라던 참족꽃잎 들까지. 폭풍한 마음속을 정화하기에 좋은 장소임 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진 고민들, 머던 작업과 아주하면 된 잘 풀어낼 수 있을지 하는 마음에, 앞서 구인희 할머니에게 슬짝 물어봤다. "할머니는 산에 오 를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나름 슬짝 한번 저다보 던 할머니. "생각은 무슨 오르려 머리를 비우게 되지. 마음과 머리를 비우러 오는 거야."

도봉산 자락, 그들만의 휴게실

한두 번 오른 산도 아닐 텐데 뭐가 그리 좋은지, 산 을 오르는 할머니들의 표정에 생기가 돈다. 도봉산의 이모저모를 설명하는 목소리와 표정 속에서도, 맹맡이 묵묵하게 하늘, 흙, 돌, 나무의 어우러짐을 바라보는 모 습 속에서도 건강한 힘이 느껴졌다. 87년 북한산 IT가 맹맹에서 만나 20년 가까이 함께 산에 올랐다 하는데 맹말 대단한 맹포, 대단한 산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맞이 표현하면 서로한 자기애일까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서기 자신을 맹으려는 적극적인 욕구와 자기가 원하는 맹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면 녹록지 않은 산행을 맹기간 동안 할 수 없었을 테

니 말이다.

원원의 자신들의 등이 박자에 맞춰 신명을 즐기던 할아니들은 어느 지점에 도착하자 "여기가 우리 지정 흥계질이야." 하며 박수 위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최종해 할아니는 자신의 빨간 배낭을 풀며 "외국으로 여행 갔을 때 외국 사람들이 내 가방 보고 냉장고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면서 빨간 보자기를 꺼내 펼쳤다. 각종 과일들과 간식거리 음료수들, 그 많은 음식들이 저 가방 속에 다 들어있었다니! 간식거리들도 과자 부스러기들이 아니라 과일 말린 것, 인삼 말린 것 등의 건강식품이었고 음료도 건강보을 지킬 수 있었다.

우리를 맞고 다시 안에 들었다. 구성의 할아니들 중 두목 격인 홍명숙 할아니가 맨 마지막에 자리했다. "내가 왜 맨 뒤에 서는 줄 알아? 만 그러면 이이들이 길을 잃어서 다른 일행들과 떨어지는 호실은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야." 홍명숙 할아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종해 할아니가 "내가 앞이 복잡해서 다른 일행들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라고 남겼다. 팀의 맏언니답게 동생들을 이끌고 챙겨 주는 홍명숙 할아니. 알에서 부스럼 할아니가 한마디 거든다. "형님 안 나오면 산에 못 나오지. 보따리 무려 가지고 나오게 되지 않아요. 지팡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가 있어야 돼. 다들 좋 아하느니고 했답다고. 아니야가 되면 혼자도 다니는데 우리가 같이 다니는 게 길들여져서 안돼."

할아 여자들 너무 욕하는 건 없단

산에 오르면서 홍명숙 할아니는 "우리들은 고스톱 같은 도박 안 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해소해."라고 세 차 강조했다. 저녁 예정에도 좋고, 젊은 할아니들이 두 도박이 아니더라도 심심풀이로 자주 치는 고스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혹시 이 할아니들 너무 고루하고 보수적인 분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어떠 말 먹을 때도 건전하고 도덕적인 얘기들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 할아니들이 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던데…. 앞전 과정에 속해서 이존할 이 조은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두 번째 지질휴게소에서 '바다그라 시리즈'를 접은 뒤 말끔히 해소될 수 있었다.

최초질 : 바다그라 한말 가지고 남자 셋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들어는 기본자고 하니가 술자이다. 셋이 똑같이 상등분하자 그랬는데 보세니까 두 동강이 나고 부스러기가 남았어. 그래서 기본자는 우리가 더 많으라고 해면서 들어 먹고, 부스러기는 비린기 아까우니까 술기이 먹었대. 가루를 먹었는데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왔대. 어떻게 봤을까?

최길해 : 정말로?

최초질 : 질렸으면 다행이게. 질만 다 섰대더라 호호.

유영숙 : 실제로 영국에서 하이그라 먹은 남자가 밤에 하도 난폭하게 굴어서 여자가 이혼소송을 냈다네. 이혼 주라 판결이 나왔다고 신문에 나왔어.

최길해 : 이혼 조건이 되지.

유영숙 : 밤에 여자를 너무 힘들어도 이혼조건이 된대.

최길해 : 감간에 들어가잖아요.

유영숙 : 충기는 거래고, 질병적으로 하는 건 다르잖아.

'바다그라 시리즈'에 충격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긍정적으로 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감간 이라고 의심하는 것을 보면이 할아니의 실제 성(性)생활은 어떤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영화 <주어도 좋아>의 할아니처럼 성생활에 적극적일까, 아님 놀라운 감정 본 심제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까.

한국 할아버지들은 자기 속도만 중요해

최초질 : 할아니가 되면 힘들어. 우리 친척에서도 어제서 또한테 물어 나서 못하겠다고 문의들이 나와이지.

최길해 :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최초질 : 근데 한국의 할아버지들은 그저 본인만 중요하잖아.

유영숙 : 우리나라 남자들은 멋대거리가 없거든? 애정표현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만족만 채우고 여자 생각을 안해. 그런 식으로 가면 여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지.

최초질 : 남자들은 정중설이 없어서 자기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만족시킬 시간이 없어. 자기는 뱀의 봤으니까. 같이 살다보면 속도조절을 자기가 해야되는데.

유영숙 :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안족 세우고 그것도 끝내줄아. 근데 표현은 안한지 모르지.

최초질 :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되지. 오늘 신문 보니까 (여자들 중) 80%가 불감증 환자래요.

신진 : 환자가 아니라 못 느끼게 해주는 거죠.

희조일 : 근데 본인도 치과의사이시네.

성생활에 적극적인 할머니들은 아니었으나 실존적시의 여남불평등 문제로 최근가 동의적주 여권이 많이지 많았다. 그러다 아이기는 '치도 로 이어졌다. '난 우리 남편이 많아든지 다른 여자랑 육체관계 해도 된다 이거야. 근데 관계를 갖기 전에 다일한 얘기 주고받는 건 기본 나쁘잖아요." 성관계를 갖기 본 나누는 다일한 대화를 남편이 자기 이외의 다른 여자와 나누는 것이 상상하기도 싫다던 희중해 할머니. '난 준이 가는 게 너 하오를 것 같아. 그 까짓 것 주고받기나 말거나." 육영수 할머니가 말을 잇는다. '나는 젊어서 입수를 조금 넣

기는 (남편하고의 정사이에서) 내일은 어느 집 가고, 어느 집 가고 그거 계산하다 보니까 다 끝났어. 이거 실제 상황이야. 돈이 먼저라니까, 성적이." 돈 버는 것만큼 성생활도 중요했다면 할머니 좋았을까.

이상주의자 남편 할머니에게 내 속은 시커멓다고

선선한 바람,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이 최고의 할머니들의 몸과 마음을 비워주는 것이 아니다. 산에 오르면서 혹은 등산을 하려면서 시원하게 쏟아내는 수다 한판 또한 그들의 속을 시원하게 비워주는 역할을 한다. 오후 1시 30분에 도착한 할머니들의 점심이 '점심대 지남' 에서도 상당히 에기도 시작한 수다는 소개 마음 한 참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는데 이 다음에 이어진 소개는 바로 '남편'. 특히 희중해 할머니는 목한산에 30년을 다니며 속해주는 남편에 대한 상도대화를 해줬다는데….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서 상도대화를 해." 주변의 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희중해 할머니,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듯 한마디 던진다.

"내가 남편의 지적이고 낭만적인 모습에 확가다 넘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월급도 잘 안 갖다주지, 한한부정도 심하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풍부한 문학적 감성과 신사적인 매너를 갖춘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희중해 할머니의 남편, 그러나 할머니의 어린 새도 때문에 할머니는 몇 십년 동안 속앓이를 하셨다는데.

"명남 문산일 시절에 도둑이 남편 양복을 훔쳐갔어요. 여름에 양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리로 이렇게 훔쳐간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밖에서 안 보이는 창문 바로 앞에 걸어두라고 해도, 자기가 보기에 그게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밖에 보이는 데 걸어놓고. 6개월 동안 양복도 한 같난 요서였는데 어떡하겠어. 월급쟁이가 너만이런 한 옷 입고 다닐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속상해하고 있었더니 '에이, 그게 소득 재분배라고 생각해." 라는 거야."

할머니 에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에를 얻으리 갔을 때 돈이 모자라 '당신이 월급만 꼬박꼬박 갖다 주면 될 텐데"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여보(당상그를 정정주어는 나보다 더 모자라." 했단다. 할머니 기가 막히고,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들어 근처 숲을 보며 "저 숲은 한 일억쯤 되겠다. 아, 우리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아보나." 하며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에 할머니가 또 "그래봤자 우리 집하고 9분인된 차이야." 도대체 에기가 안 통한다 느낀 할머니는 "당신은 정신에 기서 증이 되지 못 나와고 정존했냐"며 소리쳤단다. 명과 인단 할머니는 건 상상을 못하고, 월급 보너스는 숨길 비상금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할머니. 어떤가? 희중해 할머니가 세월을의 여왕이 될 만하지 않은가?

시간에 역시공전을 먼지

신원주에이 받을 몸을 이을 때 시동집을 얼리하고 경기도 포천을 내려갔던 구선희 할머니. 막상 내려가니 곧바로 IMF가 터졌다. 집을 팔지도, 준농업지라 여분 세금 때문에 농위지도 못하던 상황에 할머니는 조그만 밥벌부터 가꾸기 시작했다. 배추도 심고, 콩도 심고, 농사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시작해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지금은 희중해 할머니들에게 지점 재배한 채소등과 지점 한 음기종을 나눠 줄 정도로 숙달된 솜씨를 자랑한다. 농사꾼' 지꿈까지 과 꿈라며 요새는 농사꾼는 세 이에 쪽 빠지입지만, 구선희 할머니는 여자 택시운전기사가 최귀하던 시절 당당히 택시를 몰며 서울 시내를 누빈 경력이 있었다.

구선희 : 명남에 62년도에 내가 택시를 몰았어요(62년이면 할머니가 23살 때). 그때 원명대에 있던 여자들이 한명 제대하고 나와서 면허 따가지고 택시를 했는데 그 들어하고 나하고 해서 셋이 택시운전기사를 했지.

유영숙 : 그걸 계속 했어야 해.

구선희 : 큰 애 낳고도 했어. 한 한 원인이 있어요. 형님, 내가 일을 하니까 남편이 일을 안 해.

희조일 : 에자기 존을 버니까.

구선희 : 교대로 일을 해야되잖아. 내가 쉬기 일어오면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야 내가 피로를 풀 수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목표로 한다 치면 우리 아는데 주 3만원 벌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3만원 벌면 그날 술 마시기 거는 거야. 택시를 한 3-4년 했는데 내가 나가서 벌면, 더 벌어야되잖아. 내가 버는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열심히 벌어야되는데, 그렇게 일할 생각을 안 하니 같이 벌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일을 안 해 버렸어.

심은 일대로, 상림살이는 상림살이대로 혼자 따라야

어쨌으니 할머니 고생이 서린서린 아니었을 것 같다. 할머니께서는 하루에 5만 원 정도만 벌면 가장이 정도 이 정도면 거하고 생각했던 게다. 술 마실 시간에 일한다 이러도 하고, 내 생활이라도 편한 더 돌봤다하면.

요즘시대 행복한 이야 없잖아

동산대 사회에서 점심식사 후 두 시간 동안 산나에 수다를 떨 때 대부분도 할 것 없이 물어보았다. 어떤 유행을 할머니는 동산이든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만들어서도 그런 일 하고를 만들어보라고 말하고 싶어." 은근한 힘하고를 사랑하는 회장과 할머니들은 누군가가 "~하자"하고 제안을 하면 누구 하나 반대 하는 사람 없이 "그래~"하고 주저하지 않아준다고 힘하고를 계속 할으려는 욕심 때문에 무리를 감행하는 일이 아니다. 그만큼 맞이 잘 맞다는 소리다. 그렇지 않았다면 30년 가까이 이렇게 모임이 잘 유지될까. 할머니 할머니들 특유의 할머니 남편이 "돈산 일 해제하지 말고 무언 꼭 해라고 다니당라."며 응원을 할머니한테 유언할 정도였으니까 할머니 서로의 삶에 주게 해주에서 존재할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소통에서 잘 된다니 그들의 노년이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을 정도로 든든해 보였다. 이런 나의 속마음을 헤아려 보았다는 듯 화음해 할머니, 한 말씀 한다. "난 요새 행복해요.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어. 하루 행복의 정점이에요. 건강이 변해까지 허락하지 오시겠지만" 그들의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

글 소연 / 사진 선민

색녀열전

"나는 밝힌다! 고로 존재한다"

이보다 더 용감한 여자들은 없다. 밝히는 여자들의 색시하고 통쾌한 이야기 .

색녀열전
글&그림 정여립
퍼낸 곳 도서출판 다른
값 9,000원

완경의 힘, 준비할 때 발휘된다

완경,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

완경기는 여성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임신한 나이가 되면 멈춰야만 하는 손님이다. 완경기는 여자의 삶에 신체적, 감정적, 성적, 정신적으로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왕자의 찾아올지 못한다. 임신과 월경에 대한 연기로움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상실되고, 무력해지며, 쓸모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낀다. 감정의 기복은 두려움에서 한도 감정이 매우 다양한 폭을 보인다.

여성 생리가 완전히 멈추는 완경기는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대략 40세에서 60세 정도, 평균나이는 51세다. 흡연을 하는 여성은 비흡연자보다 일찍 완경할 수도 있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배란이 멈추며, 수정 능력이 없어짐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초래한다.

간혹 완경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는 예도 있

지만 전조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장기간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월경불순과 기분변화, 안면홍상, 피로감, 불면증, 우울증, 두통, 건망증, 현기증, 불안감, 유방통증과 확대증상, 체중증가, 성적 충동의 변화, 생식조절능력 감퇴, 여성호르몬 감소와 질건조증 등이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이다.

이 증상들을 완화시키려면 우선 전문의와 상담해 야하며,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보조의약품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는 완경기 여성들이 일시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완경기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식이요법을 살펴보면 콩류와 곡채품, 현삼채종, 난백콜레푸롭, 땅어, 청어리 등이 생선, 과일, 야채, 허브 등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술, 커피, 설탕, 매운 식품, 과도한 육채품과 육류를 등은 증상을 악화시킨다.

운동요법으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나 복식호흡 등이 좋으며 규칙적인 일상운동은 자기의 건강상태에 따라 실행해야하는 필요조건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여곡절 일상생활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이다.

성생활의 만족을 포기할 필요 없다.

예전에는 완경기 이후에 성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가 만연되어 있었다. 노년기 여성들이 성적 욕구와 흥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기가 어려웠고, 심지어는 부적절하거나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지만 근래 들어 완경기 자체가 성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성과 성생활이 삶의 전부는 아니며 삶의 궁극적 목적도 아니다. 만인들의 사이에서 성생활을 하지 않거나, 가정의 성생활에도 좋은 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성생활이 주는 긍정적이고 신체적인 친밀감을 즐기고자 한다면 완경기가 그 방해요인이 될 이유는 없다.

완경기의 증상들이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리적, 신체적 불편감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적흥분이 감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신체적 접촉의 요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완경기 이후에 성생활을 더욱 즐긴다는 여성들의 사례에 대해 보고는 연구도 있다.

서너가 성장해 분가해고 나면, 노인여성들은 더 여유로워지며, 배우자와도 돈독해질 수 있다. 임신과 월경의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도 성생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면서 생기를 돋우어줄 수 있다.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에서 눈길끄는 '할머니' 배 나옴근은 지금에 할머니 더 이상 키튼의 꿈고 예쁜 맵을 좋아다니지만 결국에는 나이 많은 다이안 키튼을 사랑하게 된다. 이 영화에서는 완경기 여성의 매력은 성적 표시와 풍부한 노년기의 성생활이며, 바이그라 사진 등을 통해 또 다른 모습의 노년기 사랑을 보여준다. 이처럼 완경기 이후에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과 친밀한 대화가 성생활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부드러운 신체적, 정신적 접촉은 서로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보여주므로 사랑을 재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수록 좋다.

여성이 완경기에 이를 즈음이면 가족과 공동체에서 어른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 또한 자신들이 살아

은 삶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견지에서 내놓 삶은 관점으로 주위를 설득할 수 있게 된다.

준비하며 맞이하는 완경기

필자는 30여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사랑한 많이 완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삶을 때부터 전문지식을 나누어 갖고 상대의 변화를 공유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여성행복사이클의 단계, 피크대학 부속병원 등에서는 크고 작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완경기에 이른 여성들은 자존감을 더욱 높이고 자연스러운 생의 한 과정으로서 이 시기를 맞이할 기회를 갖는다. 젊은 딸이 아랑들이 폴어머니의 민감한 심리계를 위해 준비사를 받과 질건조증 등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서양문화에서 딸의 효심은 그렇게 발휘된다. 또한 내가 참가했던 한 강의에서는 근육을 단련의 강화하는 케겔운동(Kegel Exercises)을 통해 효심감 증상을 치유하고 성적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

감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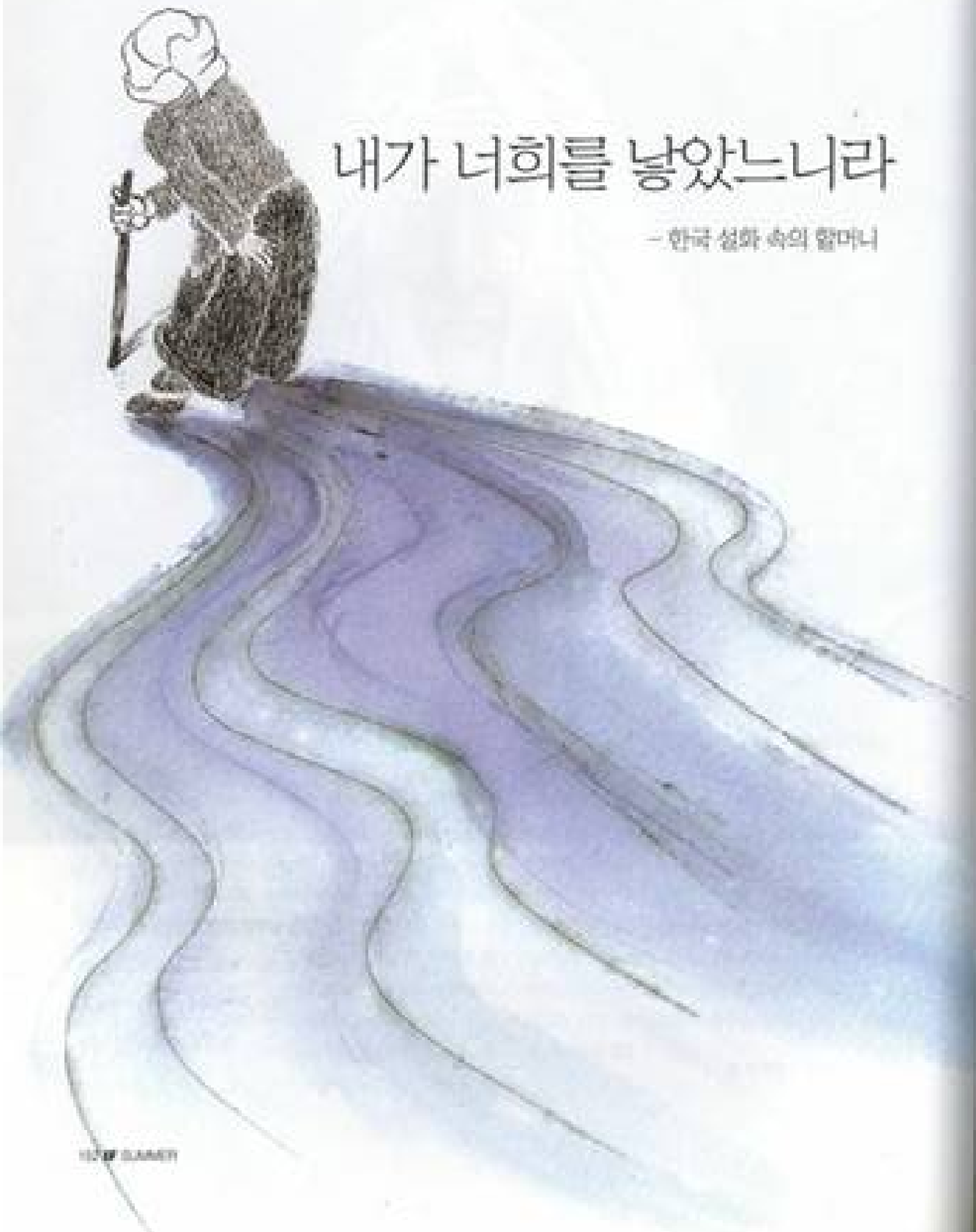
- 하루에 몇 번씩 다음과 같은 운동을 반복한다.
- 조이면서 다섯을 센다.
- 풀어 조이면서 또 다섯을 센다.
- 아주 강하게 조이면서 다섯을 센다.
- 방법에로 이 동작을 리듬에 다섯을 세어 각 동작을 반복한다.

여자들은 어머니에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자기 방식에서 새로운 힘을 키우게 됨을 느낀다. 마치 암탉이 공속에 병아리들을 품어주면서 따뜻하게 보살펴주듯이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문제들을 품어줄 수 있는 지혜의 힘을 갖게 된다고 난 믿는다. 그러므로 완경기는 여성으로서의 생명이 끝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의 완성을 향한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글 정희자 / 칼럼스트 임소정

김정희 아크릴에on 42.5 × 72.5㎝ 1987

한국 설화를 통해 본 할머니 | 이수자
'하지' 는 없고 '할멈' 만 남았다 | 김선자
연화 속 할머니 이야기 | 최문휘
내가 만든 할머니 | 사계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 한국 설화 속의 할머니

모두를 보듬는 할머니

모두를 할머니 예기는 원래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늘날은 노래로 불리기도 한다. "모두랑 할머니가 모두랑 막대기를 짚고, 모두랑 집도 가다가 돌이 누고 살어, 모두랑 돌나무가 심어 모두랑 똥을 누니, 모두랑 강아지가 주워 먹어, 모두랑 막대기를 가지고 모두랑 강아지를 탈 땐 때리니, 모두랑 엉엉 모두랑엉엉 하면서 달아나더라"는 이 노래 가사는 늘 곁은 할머니의 모습을 지팡이, 집, 똥, 소나무, 강아지 등의 곁은 모습과 동일화시키면서 독특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희화화(戲畵化)되어있어 재미를 유발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들은 이 예기를 해주면 울산 아이라도 금방 까르르 웃는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노래는 평생에 걸쳐 손아나 발일을 많이 하여 등이 아주 심하게 굽은 할머니의 외양을 문제삼고 있는 노래라 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비극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생각해보면 무장공자나 일편성 시대부터의 일하지 않는 할머니가 어디선 등 굽은 모습으로 그려진 적이 있는가를.

오늘날은 노인들의 굽은 등이 곱다운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으로 올라간게 시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등을 구부리고 살 수밖에 없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평생에 걸쳐 뼈 빠지게 일했다는 증거이라 할 수 있다. 모두랑 할머니 같은 이야기는 통쾌하고도 재미있, 그러고 늙어버린 할머니의 외양을 문제삼고, 이를 그 속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할머를 전설도 같은 맥락이다. 이 설화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정서적 늙어 굽었다는 피상적인 이나라 예전 같이 시집보낸 세 딸에게 찾아나 갈 곳이 없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그 존재가 늙고 병들어 갈 곳조차 없는 초라한 늙은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고려장 설화 역시 늙고 병든 부모를 버

모두랑 할머니가 모두랑 막대기를 짚고, 모두랑 집도 가다가 돌이 누고 살어, 모두랑 돌나무가 심어 모두랑 똥을 누니, 모두랑 강아지가 주워 먹어, 모두랑 막대기를 가지고 모두랑 강아지를 탈 땐 때리니, 모두랑 엉엉 모두랑엉엉 하면서 달아나더라

불어하면서 무장해지를 거부하는 인간 심리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설화에서 할머니라는 존재는 이처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거나 가족 내에서 짐도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에서도 자식들에게 버려지는 할머니들이 간혹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설화들은 우리사회에서 할머니들이 경제적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가 되어가는 세태와 연결지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의 설화에 나타나는 할머니에 대한 인식을 이처럼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이것은 일면만을 보는 것이다. 우리 설화에는 할머니에 대해 무궁한 외경감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산신으로 되어 있는 설화들이나 삼신신앙, 마고할미 설화, 설문대할망 설화, 영등할미 이야기, 뿡할머니 전설 등은 바로 이런 설화들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생명창조의 신 삼신할머니와 마고할미

아기를 뱃속부터 우리 민족은 아기를 낳게 하고 키워주시는 신으로 '삼신'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런데 삼신할머, 혹은 삼신할머니 신앙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한국에 널리 퍼져있다. 우리들은 삼신할머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나 어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성장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 삼신할머가 '나오너라 빨리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명령하를 빼라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양에게는 무모무모한 점이 생기게 되었다고도 한다. 몽고반점은 이렇게 하여 생긴 것이다. 이 신은 우리가 열다섯 살이 될 때까지만 보살핀다. 삼신할머니는 전설로 위대한 신이라 할 수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왔던 수많은 민간들의 생명을 탄소해내는 신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탄소해내는 신이 삼신할머라 한다면, 사람들

김만중 <새로운 시작> 2011 캔버스 위에 아크릴

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여기에 속해 있는 자연들을 만들어낸 신들은 바로 마고할미라 할 수 있다. 마고할미는 마귀할멈, 마구할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역, 특히 제주가를 비롯하여 높은 산에는 마고할미와 이들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광무하게 전승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설화에 전해 내려오는 마귀할멈 이야기를 예로 들면 이렇다. 공 닷 섬지가 여러가 서서 설을 지니 조선에 있는 모래성의 오연자도폭포에 있는 금강여가 금국 폭을 보고 모래를 지기 때문이었다. 금강여을 잡아 죽이면 병이 낫는다 하여 천하가 사람을 보내 오연지을 찾으니, 강화도에 있었다. 오연지에 돗물을 끌어 부어 금강여을 죽이고, 그래도 화가 안 풀어 V자 형의 지맹막을 해서 영속 끝까지 갈아 버고, 그래도 분이 안 풀어 마귀할멈 같은 힘센 장수를 보내 산들로 산맥이다 이겼다. 마귀할멈은 멀어나 힘이 장사인가 하면, 동네 아낙네 부근이의 지지대에 있는 것과 같은 큰 돌맹이를 하나는 머리에 이고, 등은 장손에 다 끼고, 하나는 사타구니에 끼고 뛰었는데, 머리 및 겨

드랑이, 사타구니에 낀 돌이 떨어지자 이것을 시작으로 있는 곳에 앉아 놓아 본래 그 돌들이 여기에 있게 되었다. 마귀할멈이 어마을 들어와도 돌이 없을에도 안 죽는데, 강화도 외로이의 힘으로 오니 성장이까지 죽 들어가, "아이쿠, 여기가 살을여구먼." 하여 이곳이 힘으로 되었다. 강화도의 삼산면 상주 삼하마을 근처에는 마귀할멈이 먼행서 오다가 허리가 아파 손을 짚고 쉬었을 때 생겼다는 손자국이 남아있는 바위가 있다.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제주도에는 육지 못에 전해지는 마고할미와 그 닮아 비나 기능은 비슷하지만, 이름은 전혀 다른 설문대할망이란 여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 할망은 제주도를 만든 후 자아목에 흙을 담아 날라 공당에 한라산을 만들었다. 이때 자아가 탈아 구멍이 생겼는데, 이 구멍 등으로 떨어진 흙들이 제주도의 오름이 되었다. 제주시 오라동을 관할하는 관내의 고지대라는 곳에는 오백 오랑으로 해선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설문대할망이 빨던 모자라 전해오고, 성산 일출봉에 있는 광라여성 놀러 있는 바은 이를 개의 봉우 바위 중 하나는 옛날 설문대할망이 김밥을 할 때 등잔불의 받침대로 사용했던 것이라 전한다. 바위는 지금에는 원래 하나뿐이었는데, 할머니가 머느질을 하다 보니 등잔불이 너무 낮았다. 그래서 높이 솟은 바위 위에 다시 큰바위를 하나 더 얹어 놓아 등잔불을 높였다. 그래서 이 바위를 지금도 등경돌이라 부른다. 설문대할망은 키가 얼마나 컸는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한쪽 다리가 제주시 일 아래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또 한라산을 방패막이로 삼고 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그리고 한쪽 다리는 대정을 향 바다의 아래도에 걸치고 구좌을 우도섬을 빨랫돌 삼아 빨래를 하기도 했다.

설문대할망은 항주 혼감으로 속옷을 하나 만들어 입는 것이 소원이었다. 할망이 워낙 크고 거대하여 속옷조차 변변히 만들어 입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 사람들이 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여 할망은 아에 속옷감이 다리를 놓아주기로 하였다. 속옷을 만들려면 명주 오십이 무려 백필은 필요한데, 제주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 모아도 명주 오십은 99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속옷을 완성할 만큼 수 없게 되자 다리도 중간까지만 만들어지게 되었다. 조천리의 신촌리 일 마다에 바위들이가 바로 이 다리의 흔적이다.

설문대할망은 키가 큰 것이 자랑이어서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이 자기의 키보다 깊은가를 시험해보는 것을 좋아했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소가 깊다는 말을 듣고 가기에 들어가보니 물이 겨우 발등에 닿았다. 서귀포 서홍리의 물허벌이 깊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보니 무릎에 닿았다. 마지막으로 한라산에 있는 물장올오름이 물이 깊다는 소리를 듣고 그 곳에 들어가보다가 머리에서 빠져 죽었다. 이로서 물은 바다 일까지 들어 있어 일장 더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도 신화 - 신화」, 제주문화 간행 참고.

서럽을 달래주고 버선을 가른다

우리나라 곳곳 여러에는 영등신앙이 있다. 이것은 영등할망, 혹은 영등할머니라는 바람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2월초에 이 신을 맞이하여 제의를 베풀면서 한해의 농사 및 어업이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신앙이다. 영등할망은 2월 초하루에 내려왔다가 2월의 초사흘날, 혹은 보름, 또는 20일에 올라간다고 믿기도 하는데, 지역에 따라 올라간다고 믿는 날짜는 약간 다르다. 영등할머니가 두 말을 데리고 세상에 오면 일기가 온화하지만, 메느리를 데리고 오면 일기도 좋은데도 입새풍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는 메느리의 지위를 바람으로 방지하게 하기 위해 영등할망이 심술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부는데, 딸이 분홍치마가 바람에 나부끼 보기 좋으라고 그런다 한다. 일설에는 메느리와 같이 오면 풍년이 들고 딸과 함께 오면 흉년이 든다 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영등할망이 2월 1일 입도하여 15일에 나간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에 각 지역에서 영등굿을 하는데, 영등신은 설 무렵 바다

의 소라, 돈복, 어업 등 해녀 제례물을 중심으로 하루에 여로 일반을 보호해준다고 믿는다.

한날 진도군에서 해마다 열리는 영등축제는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 사이의 약 2.8km가 되는 바닷길이 드러나는 음력 3월 중순(2004년 5월 5~7일)에 맞춰 열린다. 이 축제의 프레는 뽕할머니 전설을 재현하는 영등굿 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할머니가 바로 오세와 같이 기적의 바닷길을 열게 한 주인공이다. 회동마을은 옛날에 호랑이의 피해가 아주 커 호질마을이라 불리기도 했다. 호랑이 때문에 살기 어렵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배를 타고 의신면 모도로 피난을 갔는데, 뽕할머니만 홀로 남게 되게 되었다. 할머니는 베어진 가족이 그리워 매일 울상에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용왕이 나타나 내일 무지개를 내릴 터이니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였다. 매에 맞춰 할머니가 바닷가에 이르자 양쪽 물지 사이로 바닷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길로 마을 사람들이 뽕할머니를 찾기 위해 달려왔다. 할머니는 "내 기도로 바닷길이 열려 너희들을 만났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소망으로 바닷길이 열린 것을 알고 이를 영등할머니라 하고, 사당을 만들어 해난 할머니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서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영등제를 지낸다.

바고할머니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주인공 할머니들은 체구나 키가 아주 장대한 거녀巨女이며, 힘은 아주 장사이고, 능력은 심을 들어 옮기기도 하고, 손으로 땅에 줄만 그어도 산과 골이 생기며, 크나큰 바위들을 척 주물들 하고 있다. 이들의 변 또한 매우 커서 그 흔적은 현재 큰 바위나 섬 모양으로 남아있다. 또한 그들의 앞이 바닷이 온 갑산이 되는들할 정도로 강하다. 이러한 사실 모두는 이들의 잠재 능력이 아주 크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같은 이야기들이 전국 각지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 각 지역에 있는 자연물들이 거의 거신할 여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거기 인류가 이러한 여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기층문화로 광범위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설화에는 본지 자연물을 창조하고 산과 바위를 움직이며 갑산을 혼들 정도의 큰 영력이었을 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할머니와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존재들은 왜 남신이 아니고, 여신인가? 아시에나 할머니도 아니며, 어머니나 아줌마들도 아닌 할머니, 곧 할미, 할멈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왜 할머니인가?

할머니란 말은 어원적으로 '본 과 '어머니'라는 말이 합치된 것이라 한다. 본은 크다는 뜻인데, 한할과 대전(大田)이 같은 곳을 나타내는 지명이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할머니의 의미는 원래 '큰 어머니'란 뜻이다. 이때 크다는 의미에는 키나 몸이 크다는 모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흔들하고도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란 의미도 있다. 그렇다. 전통사회, 특히 바고할머니 설문대할망 같은 설화가 형성될 당시인 고대사회에서, 우리민족은 할머니란 존재를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이들은 큰 바위를 움직이고, 바바람을 불게 하며, 바닷물을 갈라 바닷길이 열리게 하기도 하고, 보통 높은 산 위에 수많은 장군(將軍)들을 뽑는 여신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할머니들은 이제 완경기를 맞이 여성성을 상실한, 그리고 생체적으로도 무능한 절대 고령의 피폐한 여성들이 아니다. 이들은 자연을 움직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고, 여기에 바바람을 불고 오게, 오줌을 누어 물이 흐르게 하는 생명의 창조신들이다. 세계와 맞설 수 있는 자아를 가진 열린 존재가 할머니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민족은 왜 할머니에 대해 이처럼 위력한 판타지를 가졌던 것일까?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 여성이 가진 출산력, 생산력, 번식력은 항상 신비와 존경, 그리고 외경심의 대상이어 인류의 종족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특히 신화시대에는 남성성보다 여성성(女性性)이 항시 중시되고 추앙되었다. 농경을 시작하면서 인류는 대지(大地)가 씨앗을 품어 자라게 하는 것을 여성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양육시키는 것과 동일시했다. 그래서 대지를 위대한 어머니, 즉 대지모신(The Great Mother)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많은 민족의 신화나 시사에서 대지를 위대한 어머니, 곧 대지모신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여신의 힘을 갖고 있다

<세경본풀이>라는 우리의 농경기원신화를 보면 여기에는 농경신=여성신=곡모신=지모신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을 종시하면 우리민족도 역시 출산력을 가진 여성이나 대지는 위대한 어머니, 곧 큰 어머니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원을 보면 바로 큰 어머니, 곧 위대한 어머니란 바로 할머니란 말에 해당한다. 그러기에 할머니가 대지와 같이 위대한 생산력, 창조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무의식의 원형이 신화나 설화에 반영되어 바고할머니 설문대할망 같은 여신적 존재를 탄생하게도 했던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아기를 탄생시키는 산을 삼신할미, 혹은 삼신할머니라 하고 있지만, 기원적으로 보면 이 산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원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랜 세월에 걸쳐 삼신산에 전승되어 오면서 이 산은 어느 틈에 할미, 혹은 할머니로 변했다. 삼신산에 기원을 설명해줄 수 있는 <생불할망본풀이>라는 신화를 보면 아기를 낳게 하는 산육신이 미혼의 처녀신으로 설정된 것은 혼전의 여성이 가진 순수성, 또는 신성성(神聖性)에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의도는 사라지게 되고 이 산은 할머니로 변화게 된 것이다.

설화가 전승집단의 집단무의식의 원형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 민족이 할머니의 존재를 인식할 때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 여성으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할머니들도 수용해야할 모습이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창조성, 여성성을 살려 이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성큼 세상 속으로 들어서야하는 것이다. 제 머고할머니랑, 그리고 설문대할망처럼….

글 이수자(문화재전문위원) / 일러스트 정철엽

마귀는 없고 할멈만 남았다

-중국 신화를 통해 본 마녀 이미지

소문들

소문 1

서왕모는 여신이 아니라며, 신흥으로 인간을 벌했다고 하던데, 아무런 형태도 없는 혼을 가지고 도깨비 방도에 혼을 빌어 생명이 없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것도 혼자만의 힘으로. 남성의 도움도 없이 여신 혼자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야.

소문 2

희화라는 여신이 있다더라. 그 여신이 열개의 태양을 낳았다고 하던데, 빛과 생명을 주는 태양은 남성들의 상징물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여성이 태양을,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열개씩이나 낳았단 말이야? 게다가 남편도 없어. 그리고 그 여신은 수레에 태양을 태우고 하늘을 가로질러 달린다더군? 태양마차를 모는 신은 남신이어야하잖아. 어떻게 여신이, 남도 아닌 태양을 태우고 태양마차를 몰 수 있다는 말이야?

소문 3

서왕모라는 여신이 있더라며. 아름한 세계, 하늘을 떠올 듯 높이 솟아있으며 에워싸 있는 물로으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산, 곤륜산에 살고 있다지? 그런데 그 여신의 생김새가 보통이 아니라더라? 표범 꼬리에 호랑이 이빨을 하고 있고, 게다가 동물소리를 내면 온전히 동물들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며? 하늘나라의 형벌을 담당하고 있고, 인간의 수명을 다스릴 수 있는 물사의 영향력도 갖고 있다지? 어떻게 여신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길 수가 있으며,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물사까지 갖고 있다는 걸까?

소문 4

형아라는 여신이 있다더라. 하늘나라에서 활을 세 정 쏘는 예라는 궁신이 아내라고 하던데, 예를 따라서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다지. 하늘에 나타난 열개의 태양 때문에 사람들이 뜨거워서 고통을 받으니까 천신이 예를 내려 보내 아홉 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리게 했는데, 그런 때문에 예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며. 예가 고생 끝에 곤륜산에 가서 서왕모가 갖고 있는 불사약을 얻어 왔는데, 항아가 그 약을 혼자 먹어버우고 달로 도망갔다며?

소문 5

중국 사나폭. 과아는 곳에 능군이라는 멋진 남자가 살았다고 해 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였다고 하지? 부족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만한 비옥한 땅을 찾아 떠난 능군을 유혹한 여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염수라는 강물의 여신이었대. 능군도 그 여신을 좋아하긴 했던 모양이더라. 부족의 미래를 위해 넓은 땅을 찾아 나선 형을 능군의 힘을 가로막은 여신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거 사실일까?

해결책

두려운 소문들이었다. 남에 당한 여신 과에가 전해주는 소문들은 하나같이 두려웠다. 소문의 힘은 과히 막이다. 무책임한 군중은 과에의 속성상에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은 공모했다. 은밀히. 그러나 강력하게. 마침내 그것은 강력한 실단적 힘이 되고, 그들은 그 소문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냈다.

남신과 여신의 주기

여신이 혼자의 힘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웹 포털의 모티콘 또는 있는 목화와 여자. 우측상에서 출토된 여신그림 무라사키 몰상박물관 소장

없는 일이야. 암, 있을 수 없는 일이고말고. 여신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남자신이 있어야만 해. 특히 이루어 생식과정을 통해 아이를 만들어야하지. 여자에게 씨앗인 남신을 바쳐야주기로 해서 누구로 할까? 그래, 목화라는 신이 있잖아. 결혼을 만들어내고 물을 발견했으며 그들을 써서 짜고기 같은 옷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멋진 문화영웅! 여자의 짝으로는 아주 걸맞아. 내친김에 목화와 여자를 아예 인류의 시조로 만들자. 목화와 여자는 원래 쌍의 존재이을 하고 있지? 그들의 모습을 시로 모게 만들자. 그게 좋아. 옳 그거 같아. 옳 그거를

남신의 부속물 만들기

여신이 태양이라을 몸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어. 문제 하는은 남성의 양력이야. 저 높고 푸른 하늘이 어떻 여인의 양력이 될 수 있겠어? 여신은 그저 저 낮은 땅에 있어야만 해.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간단해. 목화에게도 남편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누구로. 할까? 세주이라는 신이 있잖아. 물론 세주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부인이 있지만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야! 여자의 여신들이란 남신의 부속물이기 마련인데, 부인 하나 더 갖게 된다고 문제될 게 뭐 있겠어? 좋아, 희화를 세주의 부인으로 만들어버리자. 부인이란 남편에게 복종해야하는 법.

—그래서 희화는 결 번째인지는 모르겠만 세주의 부인이 되었다.

강한 남편 만들어 주기

서왕모라는 여신, 가장 무려운 여신이야. 곤륜산 꼭대기에 올라서고 앉아 여러 선들의 시중을 받는 여신. 태양 속에 들어있다는 세 발 까마귀와 달 속에 들어있다는 두꺼비와 토끼, 심지어 고대에 상서로움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구미호까지, 모두가 서왕모를 중심에 하기 위해 그 옆에서 춤을 추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여자보다 더 끔찍한 신이야. 사람들이 그 여신을 그렇게도 숭배한다지? 왜 안 그렇겠어? 사람의 목숨을 늘려주는 불사약을 갖고 있다는데. 서왕모야말로 여신의 양면성을 모두 갖고 있잖아.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는 서왕모를 그냥 무섭다거는 인도의 칼리 여신처럼 말이도 돌아. 그래도 놀 수는 없어. 배경처은 단 하나, 강한 남편을 만들어주는 거야. 동왕공이라는 남신을 하나 만들어서 서왕모의 짝으로 삼고, 서왕모의 자리에 동왕공을 대신 앉히자. 암! 서왕모는 너무 거정게 생겼어. 여신의 얼굴이 그렇게 무서우면서야 되겠어? 예쁜 신녀의 모습을 갖게 하자. 그리고 인간세상의 세월인 목왕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주자고. 어때?

—그래서 서왕모는 동왕공의 부인이 되어 곤륜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그녀는 동왕공과 목왕 사이를 오가며 서왕모를 대신해 주기에 목왕 또한 서왕모를 대신해 주기에 목왕 또한 서왕모를 대신해 주기에 목왕 또한

하프의 힘투의 시원시인 힌두교의 칼리 여신.

어나 모시의 악질분이었다. 위대한 어머니 여신들이 된 데 갖고 있던 아들과 폭력적이며 무질서한 측면, 강하고 역동적인 힘 같은 것은 아예 드러낼 기회조차 없었다. 된 초자연 생명력을 상실하는 유독적인 여성의 모습 역시 중국에서는 그 존재을 낮기지 못한다. 그들은 꼬리가 사 통 게 달린 여우가 되거나 혹은 된 뱀으로 형상화되어 '요녀'로는 꼬리표를 달고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 리하여 중국의 신화에서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을 지닌 무 시무시한 여신은 사라졌다. 칼리도 예외이어도 알리발에 스크라도 중국신화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한 무서운 힘의 제공자인 것으로 보이는 '할머니발'의 존재 역시 찾아볼 수가 없다. '누군' 혹은 '나군'는 사라지고 '할 멸' 만 남은 것이다. '할머니발'의 존재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고대 중국의 주류 사회, 바로의 정치적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달랐다. 중국의 고대문화를 깊이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흐름을 찾아낼 수 있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소위 '정치계층을 위주로 한 정대적인 주류문화와 일반 민중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중적인 비주류문화가 그것이다. 전자를 '농체'라고 한다면 후자는 '속체'이다. '이 문화와 '속' 문화는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문화의 양대 골기를 이루어 오고 있다. 주류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할머니발'라는 이에 존재할 수 없었다. 고대의 여신들이 모두 일었던 위대한 힘은 철저하게 말살되었으니까. 그 힘의 이 두운 방면으로 보이는 '할머니발' 따위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비주류문화의 각도에서 보면 '할머니발'이라는 용어는 예로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비주류문화의 생산적 바탕은 도로 민간신앙이다. 주류문화의 생산적 기반이 되는 유가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채택된 것은 지금부터 2천여 년 전인 한나라 무제 때이다. 강력한 제국을 운무없던 무제는 일이 일는 나라을 안

늙고 추한 여성의 두려움 무엇인가?

위대한 여신들의 강한 힘은 그렇게 억압되어졌다. 남은 것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아주는 '어머니 다움'과 다소곳이 복종하는 '아내다움'만 두려운 소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표면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 그들은 유가적 이념으로 무장하게 무장된 고대 중국의 통치계층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고대의 여신들이 갖고 있던 강하고 두렵고 무서운 힘을 통제하게 해제시키려 했다. 오직 하나 허용된 것은 자애롭고 희생적인 '어

심기 위해 유가사상을 통치이데올로기로 채택했지만, 무제 때에도 귀족계층의 여성들은 도가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특히 노자의 사상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당시의 귀부인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에 「노자」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다. 노자의 사상에서는 여성 원리가 무척이나 중시된다.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무이신 인간의 모습에서 여신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명을 주는 존재로서의 여성, 여성적인 원리로 가득한 인간도래에서 여신은 결코 '누군 가 될 수 없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간도래의 여신들 중에 '어머'을 강조하는 '할머니 판고'를 '어머'의 여신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머'을 보내주는' 여신들이 많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류계층에서 만들어낸 문헌자료에 '할머니발'의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여성을 '어머니'라는 틀 안에 가두어두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민간에 전승되는 이야기을 속에서 '할머니발'의 존재을 찾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또 하나의 사상적 흐름, 즉 민간도교의 여성원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긋해지길 빈 늙고 추한 여성

여성은 늙고 추한 여성이 젊고의 대상이라 소외계층이었던 서구라는 무척이나 다른 풍경이다. 서구에서 여성, 특히 여성의 몸이 정복의 대상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지만 중세 말기인 15세기 이후 여성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했던 것 같다.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이 가장 폭넓게 자행된 시기가 바로 그때였으니까. 고대의 여신들이 갖고 있던 두 가지 속성 중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 현명이 자애롭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성모마리아로 형상화되어 숭배의 대상이 된 반면, 여신의 또 다른 속성,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강한 힘은 마녀 혹은 마귀할멈으로 형상화되어 박해해야할 악으로 낙인찍혔다. 생산

의 능력과 운명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늙고 추한 여자, 아이를 잃어다가 아멸의 원고를 만들고 남성을 유혹하여 섹스를 행하는 마귀할멈은 결국 여성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던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술한 '마귀할멈' 같은 사회적 약자가 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희생양'의 형태를 오스란히 답아에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늙고 추한' 여성이 마녀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던 서구와 달리 중국에서는 '늙고 추한' 여성이 '젊고 유혹적인' 여성들에 의해 사람들을 안심시켜주었다. '늙고 추한' 여성들은 남성들을 이혹시켜 만들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추하게 생긴 외모를 가진 여인이 그 추한 외모 속에 오히려 지혜로움을 담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귀할멈 은 없다

중국신화에 등장하는 여신들 중에 세의 남매를 가진 고래조가 있다. 그 세는 땅에 날아다니면서 집 안에 갇혀 있는 아이들 옷에 벼랑들을 떠어주었다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 땅에 활동하며, 남녀가 달랐다는 특정은 수메르의 일리루와 비슷하지만 그 성격은 완혀 다르다. 젊어지기 위해 아이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키우기 위해 데려간다. 일리루가 원조 마귀할멈이라면, 고래조는 아이를 잡고 살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여신이다. 아이를 잡아가는 여신조차 '기르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갖는 나라. 고대 여신의 강하고 두려운 측면이 철저하게 배제되었으면서도 여성원리를 숭배하는, 두 가지 상반된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 중국에서 '누군 가 사라지고 '할멈' 만 남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글 김선자

할머니에게 연애를 허하라

영화 <아 그리고 Ms.의 두 주인공

"나 요즘 생전 처음 오르가즘이라는 걸 느껴." "섹스 오르가즘이 아이 좋아. 그거 좋다." "맛을 알다 죄로, 세월." "난 섹스가 너무 좋아." "나 사랑에 빠졌다. 근데 알레가 좀 어려."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화끈한 언로의 언니들이 하는 얘기냐고? 천만에. 그럼 문화기가 사뭇 다른 다음 말을 한번 들어보자.

"나 몸 중에서 해바라기로 변하고 싶어. 해바라기는 밝고 소박하고 키가 커서 좋아. 넌 무슨 꽃이 되고 싶어?" "나는 오줌에와 만져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난 아름다움을 보고

영화 <아 그리고 Ms.의 두 주인공

들어. 낙오자든가 결혼기를 보고." 어린왕자나 감성 과잉의 청춘들이 하는 얘기라고? 역시 관련의 말씀. 모두 적게는 오십대 말, 많게는 팔십 먹은 영화와 연극 속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다.

그동안 연령주의와 오성신화라는 2개의 무거운 장에 한쪽에 갇혀 있던 '할머니'는 이기심과 배려에는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살아왔던 조선스러움과 욕망보다는 원칙과 희생이 훌륭한 할머니의 미덕으로 자리 잡았고, 본인들의 속내와는 상관없이 심심하고 재미없이 늙은 삶을 살도록 등 떠밀린 할머니들은 오랫동안 영화나 연극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전통적인 할머니나 집안의 큰 웃님에서 벗어난 다양하고 개성적인 할머니들이 영화와 연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집으로>의 희생적인 외할머니부터 20살 어린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할까는 여자를 좋아해>의 할머니까지, 영화와 연극 속 할머니의 여러 모습을 살펴봤다.

희생의 아이콘 외할머니

말하지 않아도 하나 없고 주인공은 하더도 퍼주 또 퍼주는 할머니와 어린 아이다. 개다가 감독은 어디서

이쯤 되면 영화도 예쁘도 말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영화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 영화 <집으로>는 총 관람하면 본 관인을 눈물 바람으로 몰아넣으며 관객 400만을 훌쩍 넘겼다. 여기 등장하는 할머니는 하도 말 다니지 않는 산골 마을의 초가집에서 산다. 글을 읽을 줄 모르고 말도 잘 못하며 걸을 땐 허리도 안 펴진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서 하나가 할머니의 식솔으로 온다. 형편이 어려워진 딸이 정서 맡기고 간 외손자다. 이 영악하고 이기적인 외손자의 등장은 지극히 소박한 할머니를 희생과 사랑의 화신으로 자리매김시킨다. 잘 먹지도, 못하는 늙은 할머니를 상투를 보내면서 걱정이 떨어지는 아이. 욕심만 할머니는 이런 아이를 사랑해서 보부상 허리를 하고 장터로 나가 산삼을 구어달이 들어 그 아이가 먹고 싶다는 닭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할머니는 20대 중반 이후 한국인의 머릿속에 공통코드로 자리잡고 있는 '외할머니'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다. 친할머니는 다소 근엄하고 어렵지만 외할머니는 좀 철부하기나 약 해해도 무방이 없다. 그는 상투하고 돌아온

영화 <아들의 기억>.

영화 <집으로 가는 길>.

너 좀 먹어주고 챙겨주고 보듬어줬다. 그렇지만 그놈의 모성이 그렇듯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늙어가면 말수고, 아니면 말없이 보내준다. 이 말하나 내던진 사람인가? 모든 일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 제한된 도시 생활의 공식에 찌든 사람들에게 무언가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커다란 사랑을 베풀어주는 시골의 피붙이나라는 존재는 무서님과 예수님도 울고 갈 감동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현실 속에서 그런 존재는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타샤> 무시논에 등장하는 할머니 '오진' 역시 같은 맥락에 서있다. 오진은 70세가 된 노인을 안 새도 산에 버리는 풍습이 있는 산장 마을에 산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치 않은 그 마을에서 나이 든 사람은 신 사람들의 짐이 돼서는 안된다. 죽으러 갈 때가 되었지만 건강하기만 한 그는 마을에 관한 마음으로 자기를 내다버릴 수 없게 돌보구에 멀쩡한 생이별을 피우상이가 되도록 세게 부딪힌다. 마을의 등에 업혀 눈이 펑펑 내리는 산에 죽으러 가는 오진은 알고 살다며 떨어놓지 않고 화살에 내리는 눈에 덮여 당당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한다.

섹스하는 할머니

할머니는 무성無性의 존재였다. 여자나 지식보다는 주로 성성한 육체로 평가받아온 여자에게 그 성성함이 사라졌으니 그 어떤 남자가 눈길이나 줄까? 여기에 모성이라는 족쇄까지 더해진 할머니에게 '섹스'란 무한 상상 밖의 존재에 가깝다. 그리하여 노인, 그 중에서도 특히 할머니의 섹스는 그들만 사회적으로도 매우 커다란 것으로 금기시된다. 그런데 영화가 입을 열었다.

영화 <죽어도 좋아>의 할머니는 주변의 만나 젊어 꽃핀 할머니와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곧바 상기로 한다. 꽃 한 번 피우고 바우에서 오건다 해직을 지은 그 짧은 해직을 같아시아이의 사랑을 나눈다. 늘 다 젊은 이 남은 나이지만 상대방이 너무 좋아 매일 가리지 않는다. 밤은 물론이거니와 밤색 고무통 안에서 서로의 등을 씨름하며 목욕을 하다 그만 해로막해서 낮에도 섹스를 즐긴다. 할머니는 섹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한다. "아지아비, 아시." "그거 좋다. 아이 좋아. 너무 좋다." 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이거 좋아?"

이 영화에서 연인들의 사랑 외의 다른 초점은 완전히 제거되어 있다. 자식이 있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로지 사랑해서 섹스하고 가급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알몸덩굴 살아가는 70세 넘은 연인들의 이야기만 등장한다. 알몸의 섹스 장면이 계속 나오며, 성기가 노출되고 오럴 섹스를 하는 7분짜리 동태이고 섹스신이 있는 이 영화의 주인공을 노인이 아닌 젊은 사람으로 바꿔치기 한다면 포르노라 불려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 영화가 전복적이고 아이 있는 가난한 할머니와 할머니가 나누는 노년만 특색의 섹스를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줌으로써 노인들의 성생활이라는 금기된 영역과 우리가 할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을 정직하게 깨트리기 때문이다.

살아만 생각나 여자도 생겼다

<아름난 가족>의 예순 먹은 시어머니도 있다. 18년간 섹스하지 않았던 남편과 뱃으로 주사하자 이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한다. 나 남자 있고 섹스도 한다고. 게다가 임기가 끝지만 이 나이에 오르가슴도 느낀다고. 여자 인생이 생생한 가슴으로 말하가 무그러진 가슴으로 간다지만 자기는 그런 자신이 아주 루도하다고 말한다. 남자 생겼다는 건 그렇다고 쳐도 시어머니란 위치에서 함을 뚫을 들어지도 않고 남편 장례식 날 나타나서, 그것도 폭탄선언이 그렇듯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고 이불 펴고 누운 자리에서 하나하나씩 얘기하는 그녀도 말해버리는 이 할머니 또한 대단하다. 시어머니의 권위와 체면 따윈 던져버리고 자신의 즐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다. 그는 섹스를 하기 전 며느리에게 말한다. "내 미안하고 창피해하고 피하지 느끼고 그럴 필요 없잖아. 나잇살 먹어 가지고. 한평생 그런 거 아니겠냐? 그렇지만 그냥 내 몸 원하는 대로 내 몸 위해 주면서 사는 게 맞지?" 사실은 자신을 향해 주문을 걸고 있어는 말이다.

30세의 잘생긴 남자는 60대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당신은 너무 섹시해요."라고 말한다.
할머니도 지성과 이모의 재력 모두를 갖추실 수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섹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할머니에게 남자란 생기는 건 아니다. 스페인 영화 <할머니 여자를 좋아해>에서 유명한 과아니스모이자 말 빨 센 이혼녀인 할머니는 자기보다 20살 어린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보수적인 남편과 사는 큰 딸은 할머니가 레즈비언이란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둘에 얽힌 자신도 레즈비언이 아닐까 하는 공포감에 시달린다. 음악 하는 막내딸은 가족들이 혼 공연

영화 <할머니와 처칠아니의 존재

에서 "할머니 여자를 좋아해."라는 노래를 신명나게 부른다. 아무리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서구사회라고 하지만 말 빨 센 할머니가 어린 여자를 사귀는 사건이 불러오는 파장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더욱 파격적인 것은 자신의 섹 재판을 개인의 문학글으로 담아내었다는 것이다. 그는 혼을 빼앗아가는 듯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도, 할머니가 아닐까 하는 공포감에 시달리는 가족들도 모두 객관화하여 바라본다. 또한 자신의 성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 할머니가 사회적 관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당당한 모습, 바나란 애인과 다시 만나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은 무척 놀라다.

젊은 남자 사로잡는 할머니

그런가 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입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젊은 남자를 매료시킨 할머니들이 있다. 연극 <3막 그리고 80>의 80살 먹은 할머니 '보드'와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의 지명된 극작가 에리카가 그들이다. 박정자가 연기한 할머니 '보드'는 행실과 치장을 모두 접지 내가 만난 여자 중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존재였다. 그가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80세의 할머니가 19세 청년의 프로포즈를 받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싶지만, 배우의 원숙한 극문의 힘인지는 몰라도 연극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진다. 생명을 사랑하고 넘치는 호기심과 적도 가득 찬 '보드'의 매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나무에 올라가 바

감우회의 문턴 영화<고구의 주인공 할머니

람하는 노동을 보고 감동을 먹어 눈물을 흘리고 비좁고 더러운 주차장에 간힌 바다표범이 불쌍해서 물에 바다에 풀어놓는 모험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루하루가 호기심과 사랑으로 충만한 <3막 그리고 80>의 할머니는 남자건 여자건 누구라도 반할 만하다.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의 에리카는 훌륭한 집에 남편과 함께 소유한 작명한 극작가다. 모든 걸 가진 그지만 오래동안 섹스를 하지 못했다. 나이가 많아서는 아니다! 그런 그의 매력을 알아본 남자가 일찍으니 다양다감하고 유명한 36세의 하이디에누 리브스 본다. 그는 전심으로 에리카에게 "당신은 너무 섹시해요."라고 말한다. 할머니도 지성과 이모와 재력 모두를 갖추실 수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섹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그가 젊고 잘생긴 의사를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은 명성 명예만 좇아다니다가 이제야 진실한 사랑을 꿈꾼다고 말하는 60대 남성을 매료시키는 영화의 결론이 몰 판스럽긴 하지만 이것으로부 할머니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보니 내가 가진 나이에 대한 편견임지 모르다는 생각이 퍼뜩 든다.

즐겁고 신나는 삶을 할머니들에게 바라며

돌이보면 영화와 연극 속에 등장하는 멋진 할머니들

이 될 일다. 주눅대에 신부 손 자리 입고 죽기 전에 내 소원 다 풀었다고 흐드러진 굿판을 벌리는 <오구>의 귀여운 할머니, 모계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토니아스 라인>의 위풍당당 할머니, 커밍단 무기로 무장한 굳건하니 지명한 대학교수, 비합중국 대통령도 막을 수 없었던 머리 큰 화장인들의 힘궁을 오래된 LP판의 음악을 들어서 막아낸 <화성침공>의 할머니, 젊은 시절 운구의 차별한 애정을 젊은 애기를 통해 공난 여성에게 삶의 힘을 인계주는 <루이즈 그란 모어도>의 할머니까지, 조금 신경 써서 보면 꽤 많은 할머니들이 영화 속에 등장한다. 이것은 그만큼 할머니들의 삶이 변화했고 다양해졌으며, 동시에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끝에서 죽지면 젊으면 사람은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신나는 삶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힘이 클수록, 다양성이 보장될수록 달성하기 어려운다. 예스도 하고 목숨 같은 사랑의 감정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편견주의와 보상이란 주제를 꽉 끌어야 한다. **KF**

글 최문희

나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글남

지금 내의 할머니는 큰 2년째 자리에 누워계십니다. 그 유아기에만 해도 할머니는 시도의 스케줄을 맞추면서 교제도 할머니의 대소변을 처주고 식사를 만다. 30년 이상을 함께 산 할머니에게 2년 정도쯤은 그 시간이 가려 대부분은 할머니 혼자도 집안일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쉽~ 변화로운 일이 아니다. 흠~ 그리고 보니 그런 노릇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남동생에게 다시금 일이 된다고.

지금 할머니의 자리보다기동을 도와고 자리에 누워계도라는 2002년 5월 어느 날으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도로 – 날아다던 할머니도 예로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상업이 없은 세계에 살아난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의 곁에서 무너없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 할머니는 30여의 심장질이라는 도저 같은 수술을 치러냈고, 그 날 이후로 거동도 못하고 정신상태도 많이 아니어, 2002년 5월 어느 날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할머니가 세한 그렇게만은 절지 않기를 바랐던 그 삶을 시고, 할머니는 할머니로 계시다.

지금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프로브를 기억하고 있는 반면, 나를 당신의 손주들이라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아들 딸을 낳은 혹은 당신이 누워 계시는 동안인 아주머니로, 며느리들을 당신 딸 같아주는 사람이로, 손주들을 알아에 세 들어 사는 총각들로 기억하시면서, 나는 주어와 '우리 손주들'이라고 강조한다. 지금의 할머니가 그렇게도 도와주게 기억하는 손주들인 나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아니, 어떤 나무 없고 혹은 나무 일상적으로 나 같이 자라고 같아서 어떤 것을 하여 고집어내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다.

할머니는 나에게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다. 하나는 '내가 입을 때 살해라, 나 주어 후회하지 말고…' 라는 말씀 아닌 행동으로 알아지는 할머니는 할머니를 좋은 사람들이었던 그 이유들이나 어느새, 살아야 손주들에게도 좋아 없거나 혹은 그 생을 표현하는 데 어려운 일인일수다.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입에 올주시고 주위들에게 그 생을 구원기하였다. '내가 없는 건 이렇이다. 언제 니가 어떻게 나에게 어떤 수가 있느냐 내가 돌봐하지도 않다' 라면서 나의 일상에 주위한 개입하려던 할머니가 서운기도 하고 속상나기도 했다. 할머니가 내 생활에 관심을 갖고 보지도서 돌아보는 것이 지겨웠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당신의 아들, 딸, 손주들에게 의지하고 정 주고 싶은해하고 사는 할머니의 모습이 더 서러웠는지도 모르겠다.

반면 할머니는 어린이 남을 배려서 당신의 방법으는 들은, 뱀에, 자식을 당신 손으로 해결하였다. 당신의 말 중 반하지 만 노후 서금이라고 하는 말장 관리도 혼자 하고도, 주위 몇 남지 않은 친구분들의 반부도 손수 돌으시고, 뱀뱀 바람한 곳에서 신문을 보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으셨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에서 양해가 넓다고 당신 돌이 더러워지기 전에 항상 목욕해하셨고, 당신 돌아는 당신 돌린다은 생날 먹고 또 먹고 하셨다. 언제나 생활한 시간에 할머니 생활한 시간에 정하하게 드시고 화투 입과을 하지 무는 계획표나 책은 프게일 어느 날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사신 할머니. 이런 할머니의 모습은 주술에도 나서 이해의 그림이 되었다. 당일하게 당신 일 당신이 할머니 생기고 하면서 혼자서도 거뜬히 사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나의 노후 역할 모델이 된 것이다.

그런 할머니주 이상은 어느 누구의 사중 없이는 예문한 등을 주지할 수도 없고, 대소변도, 식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날 중 사람이다. 그리고 2002년 5월 어느 날부터는, 이전에 그렇게도 원하시던 자식들의 관심을 온통에 받으도 그렇게도 원하던 자식들의 등을을 다 받고 계시다. 아니 바라시라고 그에 프라이를까?

이런 할머니을 보보면서 그 마음, 명들은 입원에도 강히 내리는 것하이면, 이제는 돌아가실 때도 됐다에 라는 생각을 한다. – 노랗게도 그런 말을 입원에 날 수 있는 사람은 고모분이라 나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건 병에 효자 없다'는 생말을 알다 할 필요도 없다. 할머니 가면이서 당신의 어떻게 돌아가시기을 원하시는가을 과에 돌이 바라도록 들은 나도 서는 할머니가 원하지 않는 삶을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것이 동내 가슴 아프다 —. 내 가슴이 프장한 것은, 할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셔도 서는에라고 생각하는 한 편에는, 할머니의 자리보존이 오래됨으로 내가 오랫도 살아왔던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더 흐려질 것 같은, 그런 서가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할머니는 항상 나에게 지지을 존재였기만 분 편으로는 내가 잘고 싶은 노후을 사는는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 중심적인 생각 같아다. ⓜ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름, 할머니

고경아

우산시로 도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시골 외갓집에 해본 경험이을 통도 시골에 거주하고 있던 난 도시 외갓집에 대한 환타시을 가지고 있었다. 고래서 일화일과 어린이 TV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피가 식구들의 상가동을 기대하며 시골 외갓집은 가면 그 하도함이 생활에 서있는 외할머니가 주신 맛있는 것들과 재미있는 동거리들을 체험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릴 적 내가 기억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외할머니에 대한 내 판타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다. 키만 외삼촌과 적
네 이모가 다투고, 외할머니의 속을 유일 알투기 같았을 올려지도 했지만 서울에 온 것만으로도 신이 났던 난 그런 것들
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늘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외삼촌과 이모는 어떤 맛있는 것을 사줄까 하는 생각들이 종일
내 머릿속을 채우곤 했으니까. 그래서였다.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일 때문에 한달간 서울에서 기주해야했을 때 집에 머무
르게 되고 싶어고 어머니한테 말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외할머니랑 같주일도 같이 지내기 힘들 텐데"라며 기
정불안한 날 염려하며, 외할머니랑 잘 지내지 오히려 멀어질 외할머니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마련하는 다정하기 짝
- 날식 외할머니와 어머니 사이는 상상의 좋지 않았다.

서울 외삼촌에 올라온 첫날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런데 이집에 따주 외할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방 두
른 중 한 곳을 내 놓고 있던 터라 외할머니와 나는 한방에서, 외삼촌은 거실에서 자야했는데 외할머니의 신세한탄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자녀두이 멈다니. 세번째까지 계속 되는 거였다. 외삼촌이 조금만 참았으면 외할머니를 대해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버스도 몇 정거장 되는 거리를 걸을 소주리 바라에 시고 새벽부터 방노계하여 집에 다니면서 물
시해야 했어."로 시작해 외할머니에게 구박받았던 세기, 외삼촌 아침을 해 주 못했던 세기, 우리 어머니처럼 돈 가져
세기 등등 본제와 벗어나 있는 세기하는 전혀 알은 없는 세기들에서 기일까지라며 장장 다섯 시간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들음과 빠주어 있던 세기들을 하여 겨기 가슴을 치다가 외삼촌이 당해한 거주 방해 멘트들을 보다가 다시
서운한 게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신세한탄을 몇 시간 동안 늘어놓기 일쑤였다.

또론 어느 날은 평소 별 관심기 없던 것을 두 눈기 번쩍하니 바로 앞아한테 전화해 "별 내서, 이 년아, 내 말년이 왕을
으심해 집이 박에서 쫓아 죽날 것 같으냐며, 내 말 박을 거 서울로 보내 만 그러면 나 혀 둥 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전
화를 확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어째다 능게 살아오기는 함께 화장실 가다가 할머니가 쓰러 져는 일이 발생하면 외할머니
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 소리를 지르며 '나 혀 둥 하고 있겠다 당장 데려가'라고
말했다. 재미있는 번역되는 심세한한, 외할머니의 전화 때문에 화가 난 어머니의 전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용변이
나가겠다고 하는 나를 붙잡고 외삼촌은 외할머니께 이해하라고 말했지만, 난 그런 외할머니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
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다른 동생을 가장 돕보는 조건으로 이모댁에서 지냈다.

솔직 지금 돌아온 나, 외할머니에 대한 당감이 크게 바뀌 생겼다거나 그런 이중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나는 서로였다.
또한 할머니뿐이 전혀 다른 외할머니의 이런 모거도 어쩌므지 그냥 이니해가 어려운 것이었다.

예쁜 외모를 사랑하던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 무엇보다 등지한 배구를 사랑하던 외할머니가 구에를 받고 걸인일이
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던, 당시 여자들이 사귀던 남자들과 조해 젊은하도 그렇게 외할머니와 로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주위가 많던 외할머니는 젊은 이후 술만 마시면 외할머니를 학대했고, 성장하면서도 많은 생을 맨어야 날아 시
가의 학대까지 맡아야했다. 형들을 주시 여기던 외할머니가 집안은 온자를 봐야한다는 욕심에 예한이를 집에 뒀, 아들을
낳았고, 그러는 동안 외할머니는 남편과 시에이 주는 멀시를 속으로 삼키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했다. 후에 외할머니도
아들을 낳았지만 외갓집의 가세가 점점 기울어지고 집안 하나 맹하은 때문을 만을 수 없었다.

젊으셔는 부상을 이유로 재한 외할머니도, 가세가 기울어져도 집안을 살리기 위해 악착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유
지 했었다. 젊은 육아와 경제생활의 짐은 고스란히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던 남

시에 외할머니 존재 자체으로 내방의 자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성장하면으로 외할머니에게는 큰 돌아서셨고, 그 속
앞에서 나의 어머니는 주신이었을 고아원에서 보내버렸다. 다른 이모들에 비해은 또한 외할머니 앞에서 자유자만 큰 ' 고
등학교를 에제도 이일 수 없었다.

외할머니는 TV에서 등장하는 인고의 아일이 아니었다. 어리고, 겁도 많고, 만내심은 적지도 많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어머였다. 그런기에 자신의 처일에 대한 속구를 채워줄 수 없었다. 힘들면 힘들다고 빠주내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사서
교우에서 손을 놓았다. 그래서 이모는, 어머니, 외삼촌은 외할머니에 대한 당감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어머니으로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는 의미.

하지오서 외할머니의 삶은 안타깝다. 그러나 난 외할머니을 좋아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감정이에 내 가슴을 아프할 뿐
이다 - 외의 에러스도 아니도. 외할머니 존재자는 수도 없다. 외할머니가 나에게 있어 어떤 존재이기에 나는 일찍 그를 이
해해서는 안되는지 나의 어머니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외삼촌은 내게 말했다. 나이 어린 네가 참아야 한다고, 존사인 내가
외할머니을 이해하고 따라야한다고. 그렇지만 외삼촌에게 난 말했다. 그렇게 하기는 내 아홉은 감기감기 뱉어게 해라고
할 거라고, 난 나을 해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것은 그 누구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일본인은 그런 외할머
니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서른 둘과 일흔 둘,
멀고도 가까운 차이

욕오정희

등 맞는 횟수로 일곱 두 번째 몸을 맞아하였다. 할머니
라고 부르기에 선뜻 손색이 없는 나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
모지어 어린의 낯설기만 하는 등 할머니의 손길은 많이 우
등한 배도 중 해당적 한다.

등 맞은 내가 대어난 해부터 이미 할머니셨다. 할머니
존 한참나 돼서야 나을 바람해당에 안겨놓았다. 바기 바우
생기도 귀찮은 소설시로, 보모 집에서 우선을 맡고 가버리는
몸은 할머님 가운데, 등맞아의 모습을 나는 단 한번도 기억
해본 주가 없다. 해본 이해 문어 들어온 나을 바깥지심 주신
으로 맞아주셨어면, 주신 서로 사우 맡도 하지 못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도, 학교로 마중나오지 못하는 할머님 등

이 편집된 기 할머니의 이날이면, 아직도 여전히, 여러이고은 그리, 감흥은 기 할머니의 이나이며, 이에 영원에 대고 '내가 니 소중들이지?'에 질문하는, 아직도 자신을 찾고픈 사람이다. 할머는 스무 살이었구, 그때는 아픈 상이었구, 이금은 그저 힘든 두살일 뿐이다.

조카가 할머니의 기억은 남은 손들의 질문을 조합할 만이에, 묻는다. '할머니, 왜 이렇이 더 빠졌어?' 나는 스스로 답했다. 그런 아니도 아기 중이라 생각하는 할머니의 희생을 여전히 감구하고 기대하고 욕망하는 나의 할머이지와 나의 할머 이모들 때문이었다. 할머니란 그런 거였다—, 아직은 난 너무 이질 이래, 난 이날에 고런 할머니가 될 테니까.

나의 입은 참이 당신의 할머니 다를 수 있을지, 참하는 아픈으로 또 불안하고 조르한 아픔으로, 나의 최신 후을 감한 참여였다. 끝

한가닥 정신은 왜 놓지 못하시나?

최은영

"할머, 이렇 한 거니?" 이난 추억, 이질도 내려기기 위해 이크게고 손에하시던 아버니의 문구함을 손 하나 아니에지 않고 보고만 있던 나른 할머이던 내가 아버니의 건강을 걸해이라도 하려는 듯이 내뱉은 말이었다. 문함하니의 욕심은 건 식기이었던 이날, 그것의 입년하지는 반환기부터 도이에 사는 생에 에너지인 아버니가 병원 예이다 생각이 할 주요 증상 이었다. '아! 이날은 꼭 할아고!' '꼭 찾으고고!' 라는 말을 급방이라도 내뱉을 듯한 아버니의 그에 표정을 나는 이금도 있을 수이 없다. 봐에의 건강 예일을 이날인 할머니의 '존재성'을 이중으로 느꼈던 것이, 이이 그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이 않은 이 3년이나 이년 그 순간이 지금이었다니, 이 할머니 아이이니문지.

생각에 보면 그림이 같은 분이었다. 늘 가기 있으나 입이 많은—.

중앙중앙—별 에 없이 소이 없는 일보일을 만들어가면서 할머님을 위해 이도로이 이다도, 아래의 이름 (소에에 나오는 그 노인이날 이무것도 아니에지 도였다. 아니, '세일인이 아닌 난 으로 이번 최에 난을 알고 계셨던 그 분이 생활이 지금 당일이 아니에일 사람이 없었을이도 모른다. 어쩌다 생인이 나였는에 아무도 문이도 아무도 알려지도 않았지만, 이 세번 그일 일요으이 없었던 곤이도 모른다. 늘일 할아에 나을 무에 가이 일도 알고 있는 비일일을 세가이에 넘이 혼자 손으로 무을등을 드시고 계시다가 누구는 눈에 하면 금그에니 앞에 다이가 한 송골 밥을 쥔 손을 꼭 내일에 "꼭이, 무어."고 이날다. 가이을 할아보면 동에도 자이이 손 건 아니지, 아버지가 내려올을 때는 "이호, 밥 많이 하라, 이호, 밥 하라, 아이 아이!" 하는 말일을 하루에 일보 번도 더 하셨다.

생활고가 컸다. 1991년 스무일이 일도 중생, 일에 당분기의 정일에 결혼하여 세이 다섯을 낳고 한국전쟁을 겨고, 박정희 세이을 운동이 최일이었고, 아버지이 18살 이던 그에, 할머니는 박고 싶기이 나무 고통스러워이 그런 생각을 할아버지 주 싶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래도 손에 이은 일인이 그 힘든 능나일도, 하루 두번 이건일에 먹이을 챙기는 일도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남편, 자이 생각으로 세일 이게 박일인 순간이지도,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니에 대해 일고 있는 생은 이 정도이 고이인 으였다.

"난 너 생활고 때문이라고 한다면 가장으로서 무심했던 할머니 시기 다분한 이 해하였을 텐데, 왜 할머니만 그렇게 생존하?" 이 시점 나의 질문에 이어지는 대답 "그런 할머니도 싸우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하셨다. 이어지는 할머니를 이해하기 포함된 것인줄 내 이른의 이유도 알지 못했다. 슬하에에 모인 분적 이은 일은 할머니에 한분이 일어이면, '어떻 이라고도 했다. 라인이 커 인 거리고도 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는 할머니.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어 할 것 없는 그 분의 한살은. 무엇 을, 어떠한 경험, 감정들을 적적 참아 못해 스스로 생활을 통인해 버릴줄에. 투시 생산해에 관한 통틀한 소식을 듣고 사람이 아들에도 없는 관심이을 정확이 눈이당 조해하도. 동생들에. 이렇 생산을 놓았으면 어리에 모습 당고 어산을 누에는 생산하하당 사용품에 남하나 곳 많이지, 남편, 자식 위해 눈이었도. 없한없도 버드레일도 없, 한 가다 생산한은 내 같에서 놓지 못했는지 입에 생활가, 원국전쟁, 인일화, 한국 근대사을 존중으로 살아낸 우리나에 '할머니 들어라면 그 분의 식중을 이해할 수 있을한가. ET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하니쌤

할머니가 간장 먼고을 받으셨던 것이 아닌 이스승이었다. 평소 우주 명문중앙에도 등구하고 그당 노환이라고 생각하여 내수들이 많게 여겼던 내 무관심을 경험이라도 하시듯 어느 날 서울 큰 딸이에서 폰스신 후 병원중당 살에 살아 가셨고, 이어 병상에요도 불가능한 방기 손상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두달 후 돌중 세끝에 가이 생을 둔 이루시던 할머니 생을 힘겹게 지키시던 어머니 앞에서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지시장 눈을 감으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되지 않아 온 집안의 모든 타 분이 부었던 라면니의 사업실에도 할머니의 죽음을 의문속에 순비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1년이 지나 갔다.

이제는 할머니가 눈앞 앞고에 그득하게 쌓여두었던 뽕아나 호시가 할머니이 급하게 사라 가버릴 때니, 할머니이은 조카에게 줄 고고 다니라 주일을 하며 프로고 프스리하는 나을 생존할 때 할머니의 무세을 느끼곤 했다. 사실 의지 지만에 문화없는 어린 시장을 세워하고도 봐어난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에서 생존전인 할머니에 대한 내 기억은 이렇게 이기하이고 단편적인 것 같다. 그래서 할머니가 과연 어떤 사람이였는지 기억해본다는 것이 새삼스럽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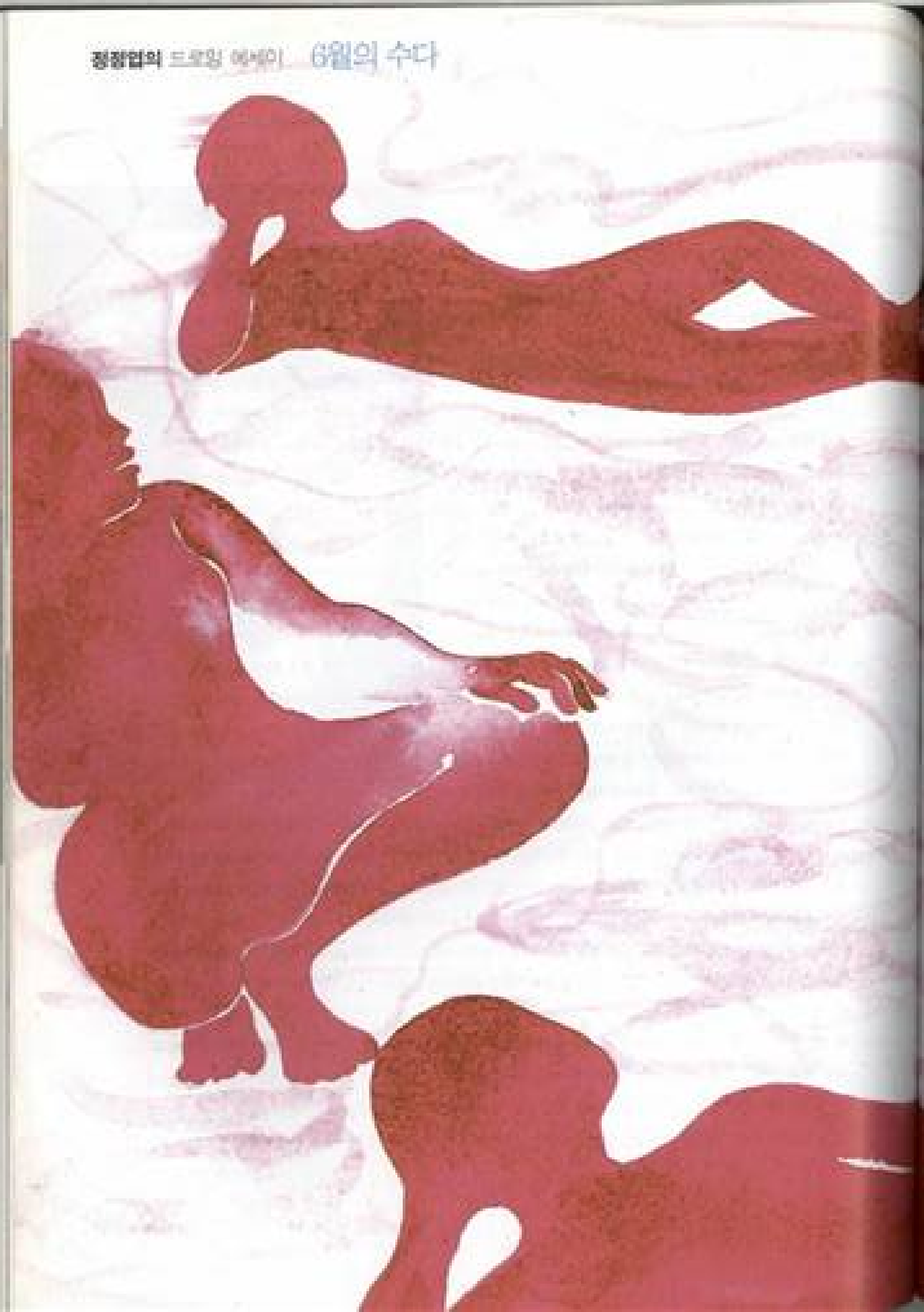
우리 할머니 세대의 여성을 중에서 주인되게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할머니는 소위 출사가 된 여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 남편, 아들 등 '가장' 이라는 제목이 내세 존재할 수 있는 남자들하고는 인연이 많지 않다 보니 남편이 떵어놓아는 존스도 집에서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나 농어서 수입 버스의 재정을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은 바라지도 바랄 수도 없었던 평범했던 것이다. 좀게 말하자면 의도하는 의도하지지 않는 간에 남자에게 바운하지 않는 자립할 인간이었고, 특한 말도 말하자면 농어서 기하이 다하실 때까지 자기 방법대로 스스로 해내려는 일종이 타성 인생이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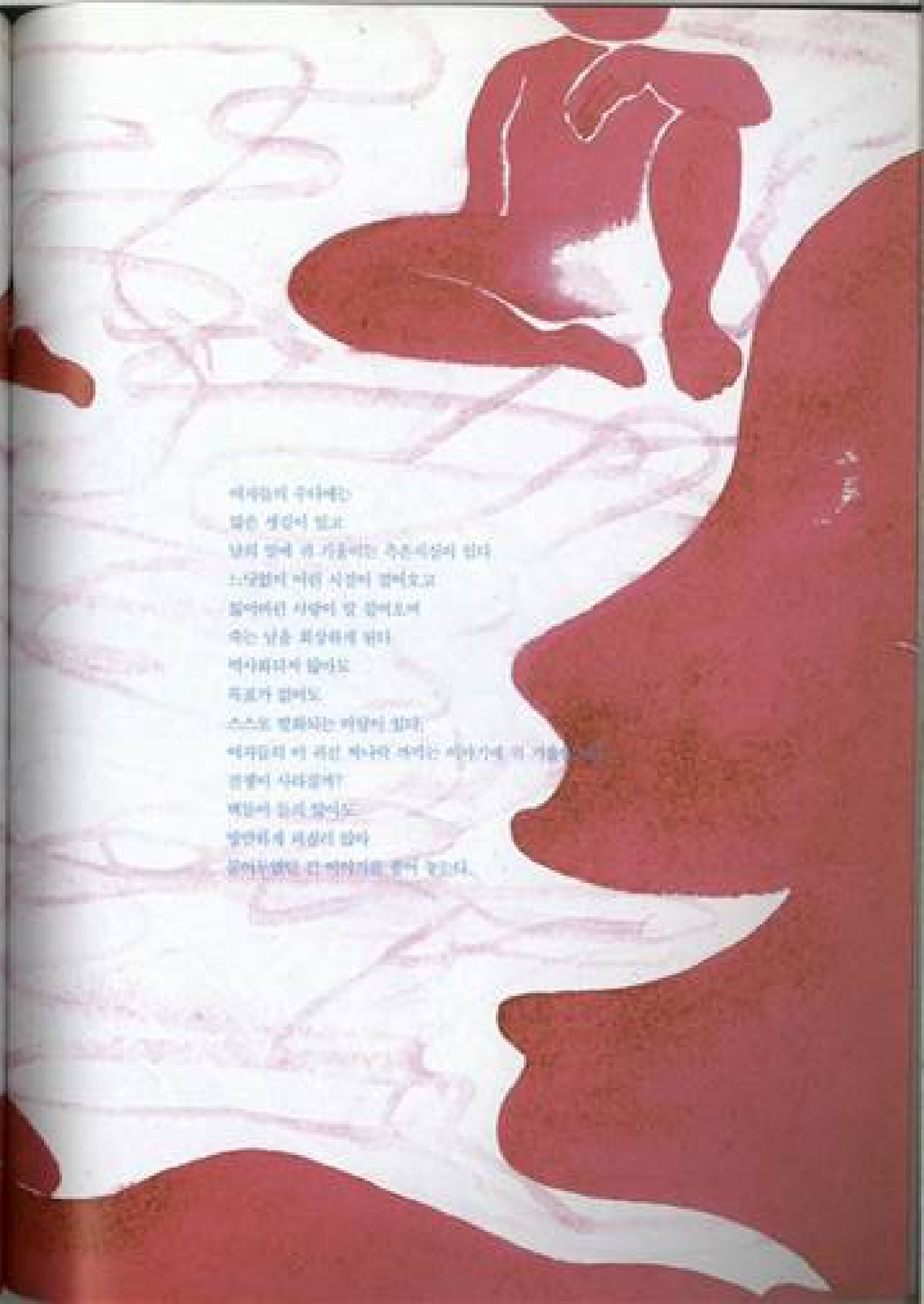
고단한 삶의 조건이 할머니를 강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원래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아주 도전적이었고레로는 초년적일 만큼 스스로를 해방하려는 태도가 아니어 할 억척인 '내 것과 니 것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신 분이셨다. 흔히 준이는 예절이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아주아니 존중하당 예의이면 할머니는 그렇지 않으셨다. 하나하에 없는 말이 이혼을 하고 헤입에 홀로서기을 하고 입장을 해도 동네을 고려하여 참으셨고, 논에 넣어도 이르지 않아는 관리나가 사람을 한다고 돈을 일러달라고 했을 때도 존중이므로나 농은 이자을 받지을 원하셨다. 또한 조강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강과 숫자을 배우신 학적은 아무존이었던 나에게 일주 – 세계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거래하는 일종이 소규모 사회, 법은 존의 이자을 많은 금액을 입장한 기간 동안 남아나 갔는데 – 등 제 영주 일이을 알기보을 만큼 당신이 가진 인재가치관을 배양하에 적극 활용하시는 분이셨다. 덕분에 난 일찍부터 여성들이 바깥 사적인 경제활동과 그들이 존중 받아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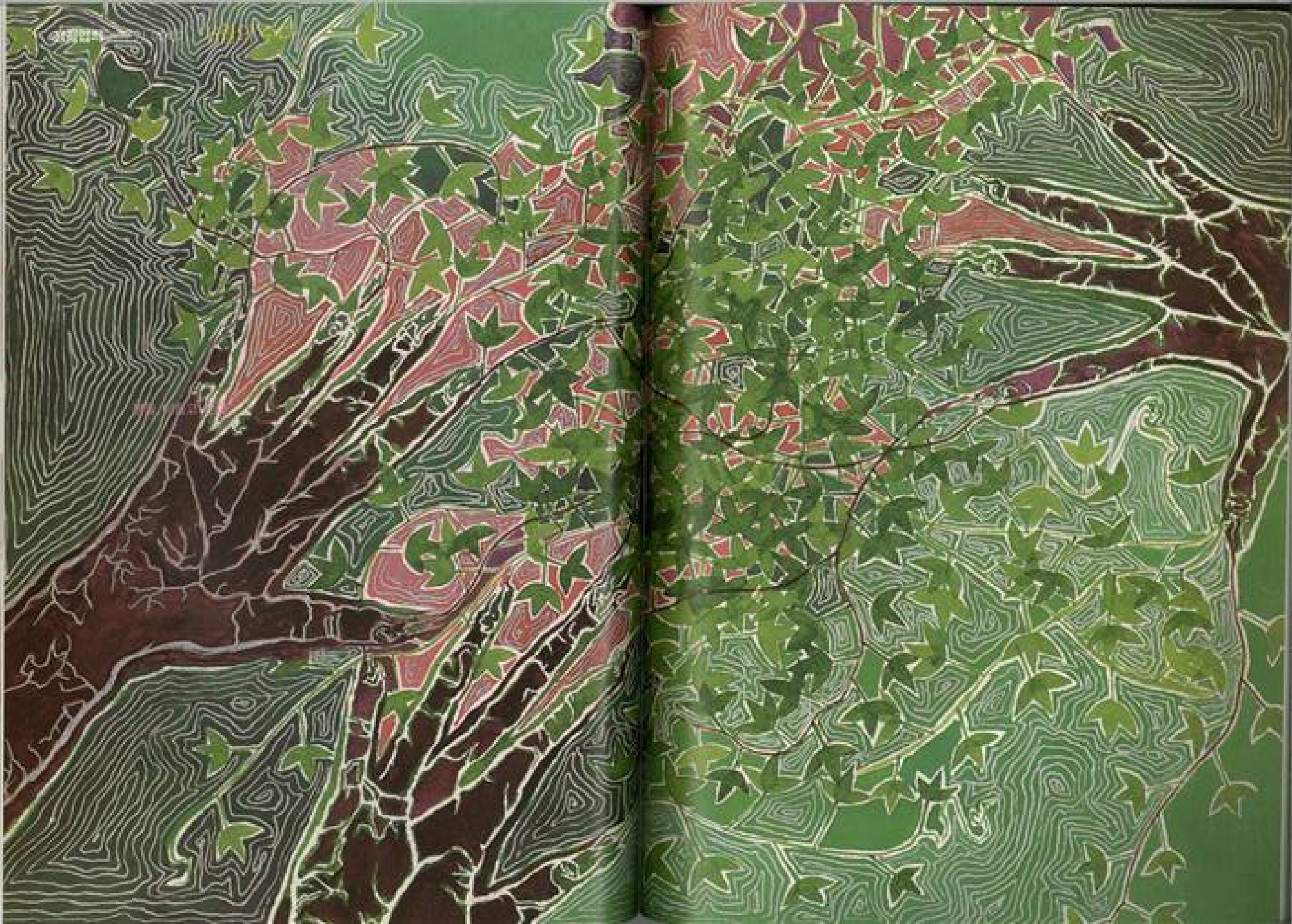
시간 할머니의 삶의 방식을 단편적에 보여주는 많은 '나 집에서 나가!' 였다. 사실 나에 만나, 조카가 살고 있는 집은 할머니 집이다.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가 집을 상속받으셨지만 그래도 생생 동안 오도시 할머니의 힘으로 이룬하신 생산부분 '할머니의 집' 이다. 그래서인지 내가 할머니에게 대답 해나 조카가 명령을 과을 때는 내가 '내 집 에서 쫙 이런 말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내 집 에서 나가버려라고 소리 지르시곤 했다. 저을 할머니께 살기 시작했을 때는 세상에 그런 일 가지고 생계을 내는 할머니가 어디 있는가 싶기도 했고, 내가 사위에서가 아니라 할머니을 위해서 같이 살아주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할머니 말이 뭐살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건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였다. 세계가 많은 존을 받다는 것이 할머니 힘든 일인지, 이후 손하이만 해서라도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진다는 것이 할머니 내년한 일인지를 설설하게 체험했고나 할까. 자기 집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히 부세을 부리실 만했고, 난 눈에이 할머니 '할머니 집' 에 업혀 살고 있는 셈이었다.

돌이켜보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중에 많은 부분이 '돈' 과 연관되어 있다. 주변에서 '돈만 아는 노인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억척스러우셨던 할머니였지만, 그런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은 남들에게서 받아보 그리나 편도한 집에서 살 수 있었고, 힘겨운 서울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가끔 사는 일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서조하게 느껴질 때는 평생 동안 그 많은 남루함과 맞대면하셨던 할머니가 생각난다. 내게도 할머니의 강인함이 어머니로부터 물려진 것일지 모르겠다. 그것이 할머니가 내게 남기신 유산이다. ET

일러스트 소라







통속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다

3월 29일 토요일. 세상 밖으로

수술은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수술을 앞두고 준비할 것이 많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고 마음만 바빴다. 무엇보다 남편의 스케줄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 12월 초쯤에 끊임 먹고 시작했는데 채울 넘기고도 다 쓰지 못해서 어긴 정말한 것이 아니었다. 일단과 뒤죽은 빨래 완성을 해놓고 말복 생도 없추 비닐기 때문에 아무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프개질실에 가서 지도를 받아야해서 업무가 너지 않았다. 계속 입에 에달라하기도 했지만, 다리가 아파 걷기가 힘든데다 날씨가 춥거나 갑이 미끄러워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친정이 오기 전 일일 내내 프개질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많아 입기가 많이 힘들었지만 몸이 되기 전에 내 손으로 한 스케줄 남편에게 꼭 입혀 보고 싶었다.

친정이 오기 전날 저녁에도 반더란이 좋지 않아 최솔을 맞았다. 하루만 무사하면 완성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프개질실으로 향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까지 거의 아무리를 저었는데, 폭 부푼 생각만큼 깔끔하게 정리가 되질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폭 부푼 채 놓아서 다음날 다시 아무리하기로 하올먹었다. 그런데 끝내 완성을 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을 줄이야!

고된 탓인지 갑자기가 불편했지만 설마 진통이 시작된 줄은 몰랐다. 20일 새벽녘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런데 배가 주기적으로 뒤틀리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시간을 재보니 15분 간격이었다. 아뿔싸! 삼일 내내 무리를 한 것이 문제였나 보다. 배가 점점 심해져 아파왔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친한 히 병원 갈 준비를 했다. 8시 반쯤 병원으로 향해서 수속을 밟고 수술대에 올랐다. 어차피 수술을 할 바에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병원으로 갔어야했는데 미련하게도 참고말을 한 셈이다.

아직을 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 깨어났다. 간호사에게 내가 아기를 낳은 거냐고 물었다. 11시 46분에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 큰 병실도 옮겨졌다. 어디에선가 남편이 다가와 환한 얼굴, 그러나 다소 걱정스런 표정으로 수고했다고 말해주었다. 아기는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다 좋단다. 2.74kg의 작은 아기란다. 근데 이 병원에서는 산모에게 아기를 데려다 보여주질 않는다고 한다. 한 하루가 지나 내 발로 걸어서 아기를 보러 가야한다는 것이다.

얼빠 잠이 들었나 보다. 병실이 눈부시고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직 2월인데 초여름 날씨 같았다. 눈을 떠서 창을 보니 창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남편이 열었다고 했다. 산모는 바람 쐬면 안된다는 말이 생각나 얼른 닫으라고 했다.

"그러는 거야?" 하루맛도 모르는 이 날씨. 그런데 창을 사이으로 나갔다 온 그가 꽃바구니를 사다 주었다. 병소 꽃을 사는 데 돈 쓰는 것은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이기에 더욱 반가웠다. 꽃다발에는 "아기와 사랑해. 우리 아기의 순산을 축하해."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귀여운 남자.

밤에 한숨도 못 갔다. 다음날 새벽에 소변주머니를 빼고 기다시피 해서 화장실에 다녀왔다. 아침식사로 멀건 미음과 함께 나온 미역국은 물맛이었다. 맹물 비오듯 흘러면서 미역국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웠다. 미역국을 무척 좋아하지만 산모가 되어 미역국을 먹는 날이 오다니!

10시 30분. 면회시간이 되어 아기를 만나러 갔다. 창문 너머로 간호사의 품에 안겨 있는 우리 아이. 정말 내가 낳은 아기인가 싶어 보고 또 보았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초구질다. 주름 하나 없는 가름한 얼굴, 너무도 또렷한 눈, 코, 입… 조카 같은 이 아이가 정말 내 뱃속에서 나와 함께 열 달을 견딘 그 아이란 말인가? 도저히 내가 이루어낸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나는 너무 늦게가 엄마가 되었다. 그

나나 나는 장애여성의 속도로 가고 있을 뿐이며, 정상이나 아니나, 빠르나 느리나, 잘하나 못하나는 기준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를 내 방식대로 천천히 온 정성을 다해 이루어내고자 할 뿐이다.

아직도 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순간 순간마다 뱃속의 진이를 의식하고 마음속으로 '진이야' 불러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뱃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곤 한다. 아이도 나 아닌 다른 존재와 이토록 완벽하게 일체가 될 수 있는 경험은 두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내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허전한 느낌마저 든다. 내심부터 울음을 울려도 좋다고 하니 이런 허전한 느낌이 사라지려나.

3월 27일 금요일. 부모에게 돌아와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오시고 일어해서 남편이 집으로 오게 됐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니 그간 시댁에서는 우리 진이의 죽어 문제를 두고 꽤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한다. 평소 지갑을 잘 안가지고 팔 벗고 나서는 자상한 큰고모부가 진이를 대신 키워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꺼낼 것이 뻔단이 되었다고 한다. 장애가 있는 부모들만의 힘으로 어떻 아이를 키울까 싶은 노파심과 아이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다. 이제 진이 큰아빠는 아이를 키울 당사자는 부모이니까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선불리 그런 제안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고 그로 인해 서로 언짢은 말이 오고 갔다는 후문이다.

결국 진이를 누가 키우느냐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관서의 부모인 우리 부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제외되어버렸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떤 힘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은 곤혹스럽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므로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와 관련된 중요한 일인데 오히려 복잡 수도 없는 어정쩡함이라니…

고모부의 고마운 뜻은 잘 알아들었고 싶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논의의 당사자는 분명 우리 부부이다. 우리 삶의 중요한 계획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물었다면 망문간은 지켜봐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할 땐 그때 요청하겠노라고.

3월 1일. 장애여성의 억척모델이 되다

후배 Y가 다녀갔다. 그는 청각의 지체장애인이다. 그는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알았 적이 있다. "어쩐 정말 언니가 우리 장을 버나는군요."

내 결혼과 임신 소식으로 인해 그는 내가 자신들하는 영영 다른 길을 가는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나를 버나보내는 것만 같은 허전한 감정을 느꼈나 보다. 사실 그동안 우리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독신생활을 희면서 느끼는 끈끈한 동류의식이 있었다. 그렇게 내 인생에서의 중요한 선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던 그가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환경부에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내 일처럼 기뻤다. 그도 이제 자신을 꾼아두을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라면 장애와 꽤 관련이 있을 곳였다.

사실 영어에도 능통하고 다른 업무 면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갖춘 그가 서른 하고도 중반에 접어든 지금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제야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기뻐한다는 우리 모습 자체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따지만 어쩌랴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개인에게만 장애를 극복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임을…

나는 말해 주었다. "너도 빨리 좋은 짝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은 이런 것이며 결혼에도

자체가 없어져야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21세기에 이 무슨 60년대식 대사인가? 결혼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들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라 사회적 강요였기 때문에 결혼이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너처럼 예쁘고 착한 여자가 엄마가 되지 않으면 누가 엄마가 되겠니?"

제대로 난 입에서 뱉어지 못하는 소리이지만 우리 장애여성들은 대부분 아내가 되고 싶고 엄마로서 살고 싶어한다. 그런 후배들에게 나는 어느덧 새로운 역할모델이 되어가고 있다. 모두가 우리 아기가 태어난 덕분이다. 막상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 배우 봉양하고도 혼자스럽기만 한 실정이긴 내게 우리 아기가 이런 방식으로 또 선물을 안겨주고 있다.

3월 7일 수요일. 고무감동이 시작되다

말로만 듣던 고무감동이 이런 거였다. 예쁘게 된장영

더욱힘 괜찮 것이라고 기대하였 할일지만 시어머니와 일주일을 함께 지내면서 산후조리 자체가 힘들어 되어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게 된 것은 아기 손대는 문제 때문이었다. 어쨋밤에 아이를 안아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다. 장애 있는 아들, 며느리 입장을 이해해주실 줄 안 내가 경솔이었다. 그보다는 아기가 예쁘고 안아주고 싶은 할머니 마음이 더 컸던 것이다. 어머니는 "안아주지 않고 애를 키운다는 말은 듣고 보도 못했다."며 화를 내셨다. 아이는 안아주고 업어주면서 뽀락뽀락 키워야 하는 거라며, 위기의식을 느낀 나는 "그러시려면 저 애 버리고 가서 키워오세요." 해버렸다. 이 말까지는 하지 말아야했기에 실토했다고 사과를 드렸지만 어머니는 쉽게 화를 풀지 않으셨다.

그러고 하는 수 없이 포기를 하면서도 아이에게 살짐짓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면서 내게 일어을 가해했다. "내 한기고 살아하는 것 좀 봐." "일어나고

질어서 그러지? 느리누룩만 있으니까 싫지? 근데 내 엄마가 못 안아주게 하니 어떡니?" "아가, 그렇게 안기고 싶어? 근데 내 엄마가 누워만 있으셔다."

내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닌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기가 낮잠이 바뀌어서 밤잠을 제대로 못자는데하루 멘탈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느라 낮에도 통 눈을 부칠 수 없어 신경이 날카로워진 나로서는 어머니의 입박을 참기가 힘들다. 더욱 고역인 건 어머 관련해서 이래라저래라 지나치게 강요를 하는 것이다. 가령 아이가 신생아 때 응얼응얼 놀라는 건 당연한 현상인데도 어머가 왜 이러나며 기승환을 하루 세번 먹이라고 종용을 하는 식이다. 기승환은 입술의 신경안정제이므로 함부로 먹이는 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어머니 아이 키울 때는 그렇게 했다면서 내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만 고까워하신다. 내가 왜 어머니를 모시품을까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나는 지쳐가고 있다.

내가 겪는 지금의 갈등은 보통의 고부갈등과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 주위 어머니의 경우 그리 경우가 없는 분이 아닌데도 불필요하게 사소한 부분까지 육아에 관여하려 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다. 결혼이 없는 며느리가 과연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자신이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육아를 주도하려 하시는 것이다. 정확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남편은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별 도움이 안된다. 아기는 밤에 잠을 안 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 아기,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서 나는 지독하게 외롭다. 나는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시집을 간 것이며, 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남편 집안의 아들을 낳아 준 것인가?

3월 19일 금요일 통속드라마

지금까지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시어머니에게 듣는 언어폭력은 이제까지 겪은 폭력에 견주기 힘들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꾸 안아주려 하시는데다 내게 계속 밥반을 가져오시는 것 참다 못해 말대답을 한 것이 화근이었는데, 어머니는 당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내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부었다.

어머니는 남편도 같이 듣는 앞인데도 완전히 다른 말로 바꾸어 나를 나쁜 년으로 몰아붙이면서 내가 시에미를 미워해서 온갖 협박을 했다고 떠들 였다. 통속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억지스런 시어머니가 현실에 정말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 고스란히 폭력을 당해야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니어서 나는 어머니께 사과하지 않았다. 할 수도 사과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흘 내내 언어폭력에 시달리면서 마음방식에 갇혀있는 것처럼 옴짝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사과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머니 쪽에서 먼저 화해를 청하셨다. 서슬이 시퍼렇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다 풀리셨단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에겐 어린 일 있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당신 체신 떨어진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2~3년 동안 아이를 키워주고 살아는 희주를 계속 미추셨는데도 내가 같네 그렇게 배반라고 하지 않자 좀모없는 노인 취급을 받은 것 같아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신 것 같다. 출산 전부터 거듭 그런 뜻을 표현하셨지만 나로서는 연로하신 어머니께 도움 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이었기에 어떻게든 내 힘으로 키워보겠다고 했다. 나보다 더 중요한 배설도 아이를 셋이나 낳아 잘 키운다는 사례까지 들면서. 게다가 이런 경험을 통해 장애 있는 며느리 역할이 많아나 힘든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

어머니는 오늘 아침부터 큰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전화를 하셨다. 나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갑하게 대답하였다. 어머도 이제 같은 아니지 않다. 한이의 육아 문제를 두고 앞으로도 갈등이 생길 것 같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장애를 일종의 약점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고마워하며 당신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를 줄 아셨던 게다. 내게 도움이 되긴커녕 역할이 되었는데~, 이는 비단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애여성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이다. 자기들 식으로 넘겨짚어 우리들의 삶을 파지주기와의 일면에 도움을 주었으니 고마운 줄 알라는 식의~.

아기를 낳고 나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어떠하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어제의 남이야 할 산이라면 피하지 말고 부딪쳐 나갈 일이다.

3월 20일 목요일 한이의 초상화

한이의 첫 초상화가 완성되었다. 엊그제 부터 초상이가 초등학교에 갈 입학한 지수를 데리고 놀러왔는데, 지수가 한이를 그려주었다. 지수 그림 속에서 우리 아기는 아직 조각에에라도 한 것처럼 평화롭게 장보에 싸여 있다. 지수는 말 못하는 한이와 그림으로 소통을 한 셈이다.

세 엄마를 닮아 그림을 잘 그리는 지수가 대견하다. 장애 있는 동으로 부지런 그림도구들을 어떠 들고 다니며 느끼에 반대하는 형에 미대 진학을 포기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 삶에서 중요한 계획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지원해 주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며 아이가 충분히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어야 하기에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지수와 한이의 만

남을 정해 세상스럽게 우위점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조급이나마 힘을 얻었다.

3월 27일 호요일 예방접종

준이는 어제 BCG 예방접종을 했다. 복지관에서 보내주는 도우미가 준이를 안고 병원에 데려다주었다. 준이는 주사 맞을 때도 "앵" 하고 울다가 금방 그치더니 밥에 잘 자꾸었다. BCG 맞은 아기들은 열이 보편다고 해서 무척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반가운 일이 또 하나 있다. 어제 병원에서 느낌없이 젖이 돌더니 가슴이 돌건의 맛을 만큼 흡입다. 이제까지 젖이 잘 나오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친정엄마는 허리도 무심한 내가 나오지도 않는 젖을 먹이느라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그만 먹이라고 충고하신다. 나도 한달 정도 먹여 보고 도저히 젖이 돌지 않으면 모유수유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무도 열심히 젖을 빠는 준이를 바라보고 있자면 도저히 젖먹이기를 중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젖은 엄마가 할 포유는 아기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에라고 하지 않던가. 다구나 우리 준이는 젖만 물려면 잠을 잘 정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젖이 모를 일이 생겨도 젖어나서 안아주거나 업어 줄 수 없는 우리 부부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이목 적은 양이라도 준이에게는 엄마 젖이 나른 아이들보다 특별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월 14일 수요일 불행한 장애인가족?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침대방에 누워 놀던 준이가 벨벨거린다. 아이를 옮기기가 번거로워 그냥 두려고 했는데 날준이 거실로 데려왔다.

우리 부부가 아이를 안고 옮기는 방법은 가상전희하다. 나는 서서 안고 걸을 수 없으니까 앉은 채로 안아서 방당이를 업면서 움직이는 방법을 택했다. 아이를 다룬 본 적이 없는 남편은 처음에 도개의 방두를 못다니니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는 곧 자기도 따라했다. 이제는 그가 아이 옮기는 책임을 도맡아서 한다. 적시 안 하이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었나 보다. 그나저 장애엄과 거실이 거리가 멀어 지지 않아 다행이다.

남편이 준이를 돌볼 때 나는 빠개와 이불 등 아이용품 몇가지에다 남편의 옥쌀 하나를 얹은에 등고 역시 같은 자세로 방당이를 업면서 그의 뒤를 따른다. 영락없이 붕쌍한 장애인가족이다. '나 가브은 외인 사람이신—'이라는 문송가만 부르면 완벽한 쌍둥이가족인 것이다. 나는 가끔 장난기가 발동해서 '나 가브은 외인 사람이신—'이라며 구성지게 한송가를 부른다. 남편은 공격을 하며 달난 그만하란다.

준이는 거실로 오니니 거실장처럼 조용해졌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엉어, 아빠가 일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준이가 혼자 있기 걸었나 봐." 내가 말하자 남편이 말했다. "그러엄, 남편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준이만 해이놓으면 안되지." 가족이라—. 이제 우리 가족은 셋이 되었다. 그리고 우린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하거나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게 있다면 강아지 한 마리. 남편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우린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강아지를 기를 수가 없어 항상 아쉬워한다. 언젠가는 아담 넓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세 식구가 도란도란 사는 날이 오겠지— ◻

글 김효진 / 일러스트 육은숙

웰빙의 패션 세계로 오세요

– 트레이닝복과 웰빙 바람

〈연재를 시작하며〉

나는 패션인이다. 두 번째는 회사의 **MD(Merchandising Director)**를 하기도 했으며 패션 전문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동시에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페미니스트이자 패션인으로서, 나는 남편의 '패션 인 페미니즘(**Fashion in feminism**)'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패션과 페미니즘의 연결고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급구적으로 보는 '억압주의의 패션'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패션과 여성주의 사이에는 너무 많은 오해의 진실이 숨어있다.

여성주의자인 이 글을 쓰기 전에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친한 선배에게 자문을 구했다. "페미니스트 잡지에 프리랜서 패션 글 다음이 힘겨?"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의 조언스러운 대답은 "근데 난 잘 모르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의식이는 의보인데 옷은 보수인 사람을 싫어해"였다.

여성주의자들이 그런 편견을 갖는 것이 나는 싫다. 꼭 명품을 가지고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갖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족'도 '우리'에 대한 강한 집착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패션을 즐길 수 있게 될 때, 진정 '다양'한 패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패션은 정문분야도, 사치의 용어도 아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찾는 모든 글 자기 몸에 대한 탐구다. 나는 '성별중립'인 패션인으로서 여성학 성정체성의 연구결과 패션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내려 한다. 패션 인 페미니즘의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의 도움으로 같을 생각이다. 연재 첫호인 이번에는 웰빙 바람과 패션의 관계를 트레이닝복을 통해 들여다본다.

집안일이 친구들과 함께 할일을!

"이런 젠장! 분명 7시에 맞췄는데…" 8시30분이 돼서야 잠이 깬 나는 오늘부터 운동을 하기로 한 굳은 결심을 생각해내곤 절망적인 기분에 빠졌다. 곧 다가올 여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궁 3별과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기로 결심했는데 첫날부터 늦잠을 잔 것이다. 부리나케 전화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모두들 늦게 일어나서 결국 10시에 만나기로 합의를 봤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에 평소 즐겨 입던 트레이닝복을 챙겨 집을 나섰다. 몇 년 전에 휘트니스에서 구입한 트레이닝복인데, 소재도 좋고 기능적이라 이것만큼 편하고 좋은 것이 없다. 오랜 유행하는 타이트한 스타일을 기피하는도 생각했지만, 편이 우선스러웠다.

이러 운동을 시작한 '홍'이 구체적 무른도 있고 해서, 나와 '선', '민'은 일단 홍이 다니던 피트니스 센터를 다녀보기로 했다. 홍을 감아입으러 탈의실에 간 나는 먼저 와 있던 민과 선을 비롯한 젊은 여자들에 둘러싸여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의 다양한 트레이닝복 스타일에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치 전쟁터라도 나가는 듯 비장에 몰하는 표정들이 '적표 감량 5kg', '탄력 있는 몸매'를 외치는 듯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었기 때문이다. '즐거운 기분으로 시작해도 오래 못 버티는 운동을 어린 기분으로 시작하면 안되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과감히 옷을 갈아입었다. 비난이 쏟아지리라 예상했던 그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선은 "뭘야? 편하게 잘 만들지. 근데 너 뭘 하러 왔어라면서 편잔이냐?" 라고 한마디. 민은 무관심하게 쳐다보더니 "그렇게 그면 오히려 몸매랄 땐데…" 정도였다. 몸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타이트한 몸매 트레이닝복에 브라점을 갖아입은 우리. 요즘 트렌드인 요가 레깅센 저지 트레이닝 팬츠와 같은 민소매점을 입은 것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간다. 날 쳐다보는 날선 이의 시선이 느껴져 재빨리 고개를 들어보니 시선을 돌릴 생각도 하지 않는 한 여인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준비' 라는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다. 어딜 가나 이런 재수 없는 사람이 꼭 있지. 같은 눈빛으로 당당하게 그를 쏘아붙이면 그러기에 그는 너무나 스타일리시(stylish)하다. 몸은 트레이닝복의 트렌디한 코드를 완벽하게 구현하다 보니 개성은 사라졌지만 고민하고 애쓴 흔적이 역력해 성의 없는 내 조차림을 비난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서 든다.

'헬창' 은 일단, 계산 안에 존재하는 세상

장만의 신경전을 뒤로하고 먼저 와 있던 홍을 만나기 위해 3층으로 향했다. 이미 준비운동을 마치고 본 운동에 돌입한 홍은 나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홍 : 어,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운동한다고 전화 '츄리닝' 을 입고 오면 어떡해. 추레하다고 츄리닝이 아니다 너.

무릎까지 오는 무릎 소재의 블랙 롱 반바지에 짧무와 화이트가 선인 루아 민소매티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던 홍은 대놓고 날 나무란다.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그이기에 이해는 하지만 재수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가 덧붙인다.

홍 : 언니별다. 넌 3층으로 피플이놀이실 전용인 5층은 주로 홍을 처러 일상적인은 여성들이 이용한다는.

여성전용이 좋아서 애초 5층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뀐다. '이 츄리닝을 입고 반드시 피트니스 센터의 메인 스타일인 3층을 이용하리라.' 그리고 한다다.

'내가 오늘 스타일이 별로라는 건 인정하지만, 패션이란 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는 거야. 난 오늘 운동을 하러 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한 게 '편안함'이었어. 그런 의미에서 오래 입어 익숙한 이 트레이닝복은 최고의 선택이라구." 그리고 한다다 다. "예전을 만들어낸다는 자가 그렇게 정의된 시고를 가지고 있어서야 어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겠냐" 강하한 어조이 한다다도 완전의 패기를 막아야겠다 싶어 한다다 이후에는 내 눈치 빠른 판이 내 말을 기로했다.

홍 : 아, 경직된 사고방식 운운하는 건 좀 그렇고, 홍은 패션인으로서 너무 한 트랜드적이라는 걸 지적한 걸 자야. 그렇지?

이미 얼굴이 빨개져 있는 홍은 판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여린 그로서는 나의 비난이 내내 신경 쓰일 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목적은 '헬창 송 회한 운동이었으니, 일단 준비운동으로 러닝머신에 올라섰다. 몸은 연예인등을 포함, 몸매와 체한에 자신 있는 사람들만의 공간인 3층에서.

다음, 집고 싶은 '몸 다이어트 를 위해 10개가 넘는 러닝머신 위에서 조금을 조절하며 뛰거나 걷고 있었다. 이곳은 백만이 모두 큰 창으로 둘러싸여 있어 답답함은 좀 덜했지만, 창 밖 풍경보다는 앞에서 '뛰진 듯이' 뛰고 있는 다른 여자들이 더 신경 쓰였다. 아직 정상을 하듯이, 숨찬 호흡을 고르며 뛰고 있는 그들은 '예뻐하면 된다.'는 일념 하에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속에 위어있는 나 역시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었다.

안에서만 입는 츄리닝이 패션으로?

여기 피트니스 센터의 3층은 올해 트레이닝 패션의 총 집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물한 아디다스 삼색 라인에 형광등 브라점을 입은 스타일, 눈에 띄는 원색에 각 나라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속구쪽 스타일, 최근 국기를

로고로 상징화한 디자인서부터 옷이지와 하늘거리는 동아시 등 소재와 디자인도 각양각색이었다. 물론, 트렌드에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 다양각색이지만 말이다. 한참을 들어보고 있는데 갑이 옷조라도 부탁한단다.

윤 : 난 5분으로 갑에. 여기 올려봐. 여자랑 남자랑 섞어서 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자꾸 쳐다보고 있나. 게다가 트레이너가 옆에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서 귀찮아.

나 : 어, 그래도 기구로 운동하는 거 체계적으로 해주려고 준 거잖아. 그리고 누가 본다고 그래?

윤 : 다음 내 몸 잘 빠진 거 좀 올려주시오— 하는 거 같아서 싫단다구. 운동보다 몸매나 체면에 더 신경 쓰잖아. 남자들은 근육 만드느라 정신 없구, 여자들은 저 근육 보세요들한테 잘 보이려고 안달이구.

'잘 보이려 한달 이용기보다 어이 많은 여자들이 그런 시선에 움찔달싹 포화도록 집들어지곤 하지. 사실 이 놈의 피트니스 센터는 한 시간만 넘게 있어도 왕래하게 오가는 시선들에 보여 괴부가 될일 지경이다. 이곳에서 체중감량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운동을 통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게다.

멜빵의 세련에로 오세요.

건과 5층으로 올라갈까 하다가 혼스럽게 입은 지로서의 오기로 뭇꾼이 3층을 지키기로 하고, 시원한 파일루스 생각에 따라 입었는데 한쪽에 따로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요가를 하던 곳이 다가왔다. 피날이진에, 근육강화 기구들에 곳이로 요가까지. 하드 트레이닝을 한 그는 배두 지친 듯 조금 쉬자는 얼굴로 내 옆에 주저앉는다.

윤 : 역시 헬스는 어려워. 자라의 줄기면서 하는 체스나 할까 봐.

나 : (그렇게 한꺼번에 욕심껏 하니 힘들지.) 체스는 남닝할 것 같냐? 너처럼 허다한 일주일도 못 버티겠다. 일레스, 일레스— 모르냐? 헬멜란다며?

윤 : 그래도 이렇 운동해— 몸을 좋아지지. 이, 나 거기 '생다운' 좀 바꿔줘.

나 : 엑, 생다운? 그 맛도 없는 걸 왜 먹어. 파일주스 마셔. 맛있구만.

윤 : 그래도 운동했는데 체지방 분해하는 음료를 마셔야지.

냉장고에는 체지방 생수와 생다운으로 가득했다. 이미 한 이상 없어진 생다운을 빨아지기가 무섭게 직원이 채워놓고 있었다.

윤 : 근데 저거3층의 체성중점 보고 있으려니 어인 생각도 든다. 트레이닝복 진짜 짜증나고 지겨운데, 확실히 트렌드가 되면서 많이 바뀐 것 같긴 해. 옛날 집에서만 입다가 밖에서도 입게 되니까 스타일이 좋아졌잖아.

나 : 그건 그렇지. 특히 장장한 입던 사람들이 체주임을 많이 입게 된 것도 원인으로 생각하면, 트레이닝복이 트렌드가 된 것의 영향이기도 한 것 같애.

시간해주의 등생했던 트레이닝복은 이제 다양한 스타일로 응용되고 있다. 일례로 트레이닝복의 스포티한 무분을 날여 기능적인 관인함을 살려내는 방법으로 변화도 있는 추세다. 동시에 '스포츠는 기능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만 집착하던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예쁜 트레이닝복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스타일의 트레이닝복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여성전용 트레이닝복은 남성전용에서 사이즈만 줄인 스타일로 한정됐던 이제는 활동성과 기능성을 강화했으며, 디자인적으로도 안추스러운 스타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브라톱과 롱바지, 통이 넓은 스타일의 치지 소재, 입체 재단된 트레이닝팬츠 등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브라'가 다양해져서 디자인도 고를 수 있고 사이즈도 맞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좋아한 하이어가 들어간 데다가 무선까지 없는 '쫄브라' 때문에 가슴에 무를 생긴 여자들 많다.

체신에 옷을 맡추는 건 아닐까?

시간이 왜 흘렀는지 예가 고래서, 우리는 아시막을 거닐어진 10분 으로 장식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 나란히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들 제각각이었다. 커다란 장은 우리들에게 시장일이 오기는 하절 중장 대신,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비유주었다. 체어니컬한 관과 편안하지만 세련된 차림을 한 윤, 그리고 나. 최이하게 비치는 우리들의 모습은 주가 작거나 크고, 둥글거나 날씩하고, 뚱거나 길거나 했다. 그렇게 비슷한 체중을 한 우리들이어서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체형 산업에 얼달려 가고 있으나 거기서 거기란 하나의 형계 식으로 다른 옷을 가졌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윤 : 이렇게 보니, 사람들이 체형에 옷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하네.

나 : 맞아. 옷 형태가 대분에 사이즈는 일률적이고 그 나마 뭔두 가지한에 한 나온다는 건 똑조아.

윤 : 과격하다. 요즘은 맞춤도 많은데 뭘. 좀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날씬한 게 예쁘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 본 남자들은 좋잖아. 그런 무상 없어서.

윤 : 그런 말 마라. 나도 요즘 살이 좀빠서 이지겠다. 여자란 그런 줄 아냐. 남자들도 살찌면 피면당한다구.

나 : 그래도 여자들이 더 심하게 달라잖아. 남자 주제에 무심대지 마.

윤 : 나는 멜빵 체모하면 트레이닝복을 떠올리는데, 그것도 좋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트레이닝복은 스포티즌이 트렌드로 오면서 감싸기 좋아진 형성된 유행이고, 또 많은 여준녀가 운동할 때 이더다스 입고 뛰는 모습은 좋은 게 많아지면서 재진 거 같아도. 맛있구나 하고 입혀서 간 것뿐이잖아.

윤 : 맞아. 아는녀가 입은 트레이닝복 스타일 알아나 시크해? 희아한 그녀가 입으면 아한 옷도 맛있어 보인다구.

나 : 뭘빵 체면? 자기에게 관하고 어울리게 입으면서 스스로 만족해야하고, 타인의 시선에도 불편해하지 않는 게 진짜 뭘빵 체성 아닌가? 이왕이면 자연 친화적인 원면소재면 좋고.

윤 : 어, 원면소재가 많아나 다루기 힘든데, 게다가 비싸구. 실용적이지도 않고.

윤 : 아무튼 자기 몸이나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체형. 활동하기도 자유롭고. 시선에 얽매여서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가 되면 되지 않을까?

윤 : 하지만 체형이라는 게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건데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게 맞는 걸까?

나 : 욕망에 솔직하면서 그것에 당당해질 수 있는 체형을 만드는 게 당신들 중 아니우? 난 다이틀 일뿐다. '멜빵의 체면 세계로 오세요. 당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어때?

리날이진의 속도조절기처럼 우리의 체형과 몸도 자라가 맞아서 전체할 수 있다면 멜빵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느리게 걷기 뛰어 걷기 본문의 뛰기 뛰어 뛰기를 각각 누르고 호흡을 조절하는 우리들에게, 여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글 정지 / 일러스트 임소정

부엌에는 늘 엄마가 있었다

하루키가 내 부엌으로 들어왔다. 라는 표현을 본다. 하이힐 같은 작가.

이 멋쟁이라면 재료들의 이름은 아마 그가 좋아하는 그리스 남부 섬에서나 생리라이 백화점 지하에서나 볼 수 있을 듯. 남자들이 쓴 요리책은 예중을 불러일으킨다. 이현우나 하루키의 요리책, 구질구질하지 않다. 요리책에서 콜로스로스향이 난다. 그 책들은 서점의 '여성 코너' 중 한 부분인 요리섹션에 있어야 한다. 라이온 맛을 아는 사람들의 요리책은 구질구질하다. 20대의 젊은 엄니에게 그들의 책은 구구절절한 감성을 맹근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보이요. 남편의 생일날 만드는 특별한 요리. 그녀들의 요리책에선 부엌 냄새가 난다. 엄마의 밥 부엌냄새. <포보다 아름다운>

에 나오는 고두심 엄마의 냄새가 난다. 엄마처럼 살지 않아야지, 라는 말은 평생을 부엌데기로 살아는 말을 거라는 다짐이었는데, 보브웨스의 멀처럼 거울과 상교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세계에 일어나 도시락 여섯 개를 싸는 엄마를 보며 편식은 가증스러운 것임을 알았다. 엄마가 되면 나도 부엌데기가 된단다. 예컨, 산뜻한 앞굴로 앞아있는 하루키가 내 부엌으로 들어왔다를 싫어 한다. 기왕 온으는 여에라 보보스 룸나리도 내보고 싶었다.

유희로서의 음식, 노동으로서의 음식. 요리를 노동으로 여기는 여자와 엄마라 생각해를 사는 여자 중 누가 더 많을까. 그 노동은 남성을 위한 것이라 페미니즘을 한 이들놈이은지, 밥구라에 리브랜딩이 필히는 남편이은지.

굶어 난 정 몰이에요

여성은 먹을 것을 탐내서는 안된다. 가지지 못한 것은 늘 사람을 비참에 한다. 실직장에 전단을 받은 사람들의 90%가 여성이다. 무심에 써먹거나,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해 죽어가기. 넓은 어깨, 멋있한 허리, 좋은 엉덩이, 남자란 이상에—.

우리는 남성의 선천적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먹을 것을 조절해야만 한다(남성 이해에서의 만든). 남성의 몸을 만들어야한다는 의무와 먹을 것에 대한 욕구사성 사이에서 우리는 내면의 여성성을 말아내고 음식을 무력무력 해준다. 그러고선 자신을 잊어간다. 거두 먹을 것 하나 몰에 못하는 멀멀해 같은 내 자신의 몸을 능욕하기 위해서 여성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무정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식당들에게 먹는 일은 단순한 몸이적 행당 섭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람만이 못했을 때, 돈이 없으지 할 때 음식은 그 대용품이 된다.

허보춘 것 같아, 그래서 전화기를 드는 대신 치즈케이크를 먹어갑니인의 마니콤과에서 무만 도움됐다. 난 도둑년.

먹는 것이란 그런 것이다. 먹는 것 이상의 먹는 것. 관계를 이어가는 수단으로서의 음식은 감정노동을 비

채식주의자로소이다

나도 이런 도덕적인 글은 쓰고 싶지 않다구. 누군가에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소리를 해야하는 건 귀찮다. 입바른 소리라는 것이 대부분 '7억 8십 500원' 이다오. 처럼 한줄짜 스타일이지. 의의 희망은 '1억 2일 빠른 한남을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섹스를 하지 않을 자유처럼 육식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무성애자를 성적취향의 하나로 인정하라는 것은 당신의 성적취향을 건드리지 않는다. 하루키 소설에 나오는 나카다상처럼 고양이상과 함께가 가능하다면 수긴도 상관없다. 하지만 육식과 '정치적 채식'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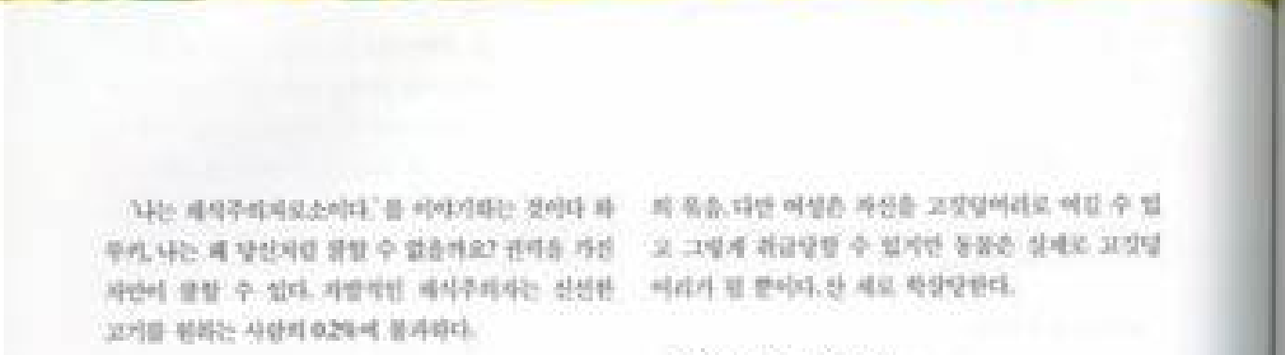
나는 B사감처럼 당신들을 당당해야 한다. 채식을 인생하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육식 취향의 자유'가 나쁜 것인지를 공격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를 싫어한다. 고깃집에 와도 생까고 애꿎은 된장국만 먹는 그들이 싸가니고, 멀베갈스한 프랑스 사람처럼 동물권을 인정하라는 말도 생당하다. 공욕주의자, 매력 없어 보인다. 게다가 먹을 것만을 요구하인 것도 없다. 이해하는 것이 예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나는 채식주의자요소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루 나는 왜 잘난지랄 몸할 수 없을까요? 권리를 가진 자만이 몸할 수 있다. 자발적인 채식주의자는 신선한 고기를 원하는 사람의 0.2%에 불과하다.

여성은 식물인간이 되었다

고깃덩어리

'사물기'는 식욕장으로 불린다. 갈보집(maisons of abattage)은 지역하면 도살장이 된다. '사물기'의 몰뚫은 식욕장의 조명이다. 갈건당한 여성들은 "저는 제 자신이 고깃덩어리 같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한다. 동물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기구가 명대 살생위에 사용된다. 남성들은 동물, 다리, 젖, 엉덩이 부위가 성적 흥분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 능히 페니스가 날 넘어오르게 해, 라고 말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그 남자 를 섭해하는 말을 하기는 해도, 한 순아라에 성적적 말을 정도의 동물, 명랑한 엉덩이, 매끈한 다리, 여성의 '조각난 몸'이 떠 이해한다. 물건이 존재하는 여성은 고깃덩어리가 된다. 최초의 온동는 동물이었으니, 동물의 이름과 진화는 도살당한 고기의 이름 속에 무해한다(체스, 프랑 레즈비언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 매한동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날 저녁을 생갈같로 먹는 사람에게 그렇다. '고기'라는 것은 폭력적으로 보는 것을 막달당한 것을 의미한다. 그녀들은 얼굴과 몸과 다리가 절라나면 '보스소'의 존재이다. 여성이 아니라 고깃덩어리



의 목숨. 다만 여성은 자신을 고깃덩어리로 여길 수 있고 그렇게 취급당할 수 있지만 동물은 실제로 고깃덩어리가 될 뿐이다. 산 채로 학살당한다.

남성만의 사회질서가 형성되기 전에 여남은 성역할 없이 함께 사냥했다. 함께 식량을 채집하기도 했다. 남성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먹을거리를 조달해 오는 일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점차 사냥하는 일이 남성의 일이 되면서 여성과 아이들은 점점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그들은 집에 남아 양육을 하고 식물을 채집하고 사냥 나간 남편을 기다렸다. 성역할은 분화되었다. 사냥을 하는 남성과 육식, 채집을 하는 여성과 식물. 민족학자 제기 생각하는 동물 중심 경제는 남성지배적인 정책 반에 식물 중심 경제는 훨씬 더 여성을 축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고기의 붉은 피는 관찰적으로 남성을 상징한다. 남부 스페인에서는 아직도 투우가 끝나면 여성들이 지역 정육점을 찾아간다. 고기는 남성다움과 생명의 원기를 주고 있다. 반면에 식물은 정열적인

인어이다. 수동적이고 단조로운, 같은 존재. 남성과 육류, 여성과 식물을 동등하게 놓음으로써 사회가 정하는 음식과 성별의 계층조직을 서로 강화한다.

여성은 이제 '식물인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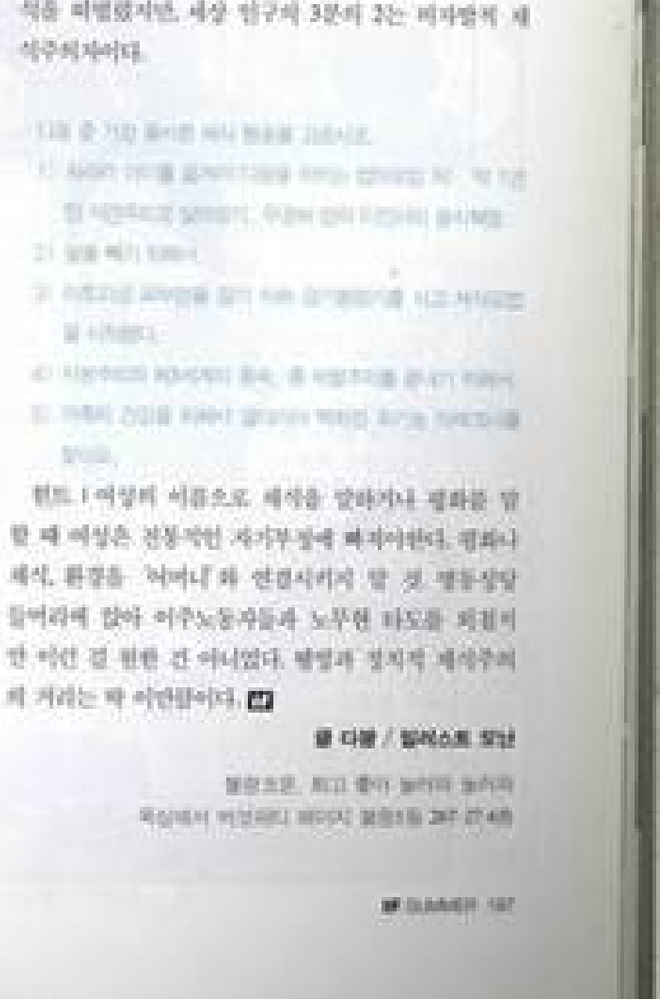
어머니는 뚝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모든 지역에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4분의 1을 더 먹지만, 육류의 경우 이 차이는 심해진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60%나 더 많은 육류를 섭취하며 육류제품과 소시지의 경우 100% 정도를 더 소비한다. 식물성 식품의 경우 이는 정반대의 양상을 띤다.

'어머니는 뚝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뚝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물음말은 고리짝 이 높이는 여태껏 변목된다. 고기는 비싼 것이나 귀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남성 가장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분배받는다. 고기가 귀한 곳에서 여성과 아이는 '뚝장면 능이 된 때'가 된다. 집 다른 집 먹어서 배가 불러요. 드시죠요. 물론, 고기와 상징적 힘과의 관계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제3세계와 제1세계, 가정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육식의 문제만큼 명확하는 것은 없다. 유럽에서는 매일 10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도살된다. 그런 동물과 먹이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3배에 늘리는 소식로를 가동을 생산한다. 드란다의 기아

소식에 입해서 아들이가 출동했을 때에도 그로의 들판은 사료용 작물을 수확이 생산했다. 브라질에서는 아주 큰 유역을 갈아엎고 사료용 작물을 심는다. 자발적 채식을 피했었지만, 세상 인구의 3분의 2는 비자발적 채식주의자이다.



원도 1여성의 식품으로, 세상을 알아가나 평화를 알 할 때 여성은 전통적인 자기부정에 빠져야한다. 평화나 세식, 환경을 '먹어나'와 연결시키지 말 것. 평등상당 일어라에 많아 이주노동자들과 노무원 타도를 외칠이란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다. 평생과 정치적 세상주의의 거리는 막 이런됐어다. ◘

윤 다영 / 일러스트 모난

만화 인터뷰

글 | 그림 정지현

소설가 박정애님을 만납니다.

나만 가만히 있어야 해!
나만 직장에 다니는 것 같아
내게 고독을 돌려주세요
의상

"일은 어때? 할만해?"
나요? 난 나의 비에 고민을 돌려줘요
비버? 주인은 할 수 없게 걸
처녀가 될 수 있을까.

머물지 않는 그 고단함에 대하여

작중이 날 변했다. 인터뷰어다 특유이 존복시는 그 비키도리가 지기워지기 시작해서. 음악하려고 '이 짓거리'(방송출연과 기타 연예활동)한다, 누군가는 남중들이 를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방송에서 나를 그만 좀 불렀으면 좋겠다, '돈만 먹고 사는' 공영어 같은 순한 눈을 하고서, 어떤 누구에게도 불만스러워하고 투덜거릴 것 같은 힙합이 그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한 계기였다지만, 그 투덜거림은 그렇게 존복하여서는 안될 때의 모리였다. 습습 "그렇게 불만스러우면 방송활동 왜 하냐"는 비아냥이 터어나왔다. 이프 또한 gC가 모고 있던 빠짝함의 모드가 새해쑥이었기 때문에 반남을 일별 지면, 다른 인터뷰자일 빠중과 괴곤함이 위인 말일을 목목 내뱉는 문워거라면 그와의 만남이 저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 그를 만나는 일이 갑자기 적절하고 빠중도 날 변한 것이다.

그러다가 gC의 음악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 '트지은 감우' 2집 'NEW TURN'을 샀다. 그가 내뱉는 말이 아니라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사이키델릭 로프적의 깔끔한 멜로디 속에서, 정확적인 가사가 귀에 꽂힌다. 음, 좋군. <아이러니>라는 그나어 적숙한 노래도 나온다. 그러다가 <Miss me>라는 노래에 귀하게 된다. "주변 속에 뭔가 있다 내 것인 게 들렸었다 / 절대로 난 절대로 놓치지 않아 / 그 물건이 진정 내게 필요한가 할 수 없지 / 힘줄이 뛰어나올 정도인가 / 도대체 무언지도 모르면서 / 욕심일까 아닐 거야 / 자신에겐 관대하다 / 불쌍한 사주 불행한 사람아 / 르그만 사주 고 그만 사람아."

아니, 이 사람, 평만을 철학적인 게 아니잖아? 음악을 듣다 갑자기 그의 모든 무덤거림이 이해가 돼버린다.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집근하는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거구나, 자기가 만들어놓은 세계를 보려하지 않는 그들이 괴곤하고 지겨운 것이구나. 보여주고 싶은 것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의 균열 속에서 일세하다 설세한 투덜이 철학자는 지독하고 섭섭한 장일까?

그렇게 투덜대면서 힙합은 왜 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해버리고서는 gC를 만났다. 한동안 잘만의 화제였던, 몸 개런 배도 군선의 살 이남은 MBC 라디오 <gC의 음악살롱>을 끝마치고 오는 길이라 했다. 생각보다 훨씬 어른 같애이고 포정도 심세하다. <어프>를 건동주우어가 한다는 소리가 떨해 부터 투덜이다. "이 끝이는 그래도 내용이 있네요. 힘을 거의 없이 광고등로만 채워진 끝지만 컨지나 전 끝어에 별 관심을 안 가네요."

어쨌거나 힘을 거리는 없는 끝지라 인정을 해준 그에게 우리뿐에는 바중내지 말하는 부작 푸른 별악 생지고 물어보았다.

인터뷰어 : 그렇게 투덜대면서까지 방송은 왜 하는 거예요?

gC : 나두 젊은 때어 인터뷰하고 해서 했는데, 변하잖아요. "왜 집에요?" 그런 질문이 듣기 싫은 거예요. 돈 크루즈란데 가서 "왜 돈 크루즈예요?" 그렇게 묻을 거예요?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인터뷰를 하다니. 됐다, 그만하자 이런 거죠. 그렇다 해도 내가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구요. 그 사람들과 일하고 에너지얻으하는 관계들 사이에 내가 놓여있는 거기 때문에. 하라는 하지, 그러다 보면 하는 거고.

인터뷰어 : 그래도 나름의 영역이 있고 프라이프가 있는데 그런 태도가 변목되는 거 좋지 않은 도환데. 실제로 '이 것'이 음악활동에 도움은 되던가요?

gC : 전에는 단독공연은 할 수도 없었고 여러 팀 한 번을 합쳐야 관객하고 비슷한 숫자만에 없었는데, 지금은 프거은 갑자 단독공연해도 올 수 사람고 이런 거 보면 변절지, 공연장에 투어 보지 않은 새 이야기한다는 것은 알도 안해요. 공연장에서 내가 얼마나 즐겁고 자중프하하는지 봐야한다는 거지. 앞고 gC를 보고 싶다는 분, TV에 나온 모습을 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계기죠. 이런 음악을 하는 애였어? 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이야기해

주변 나도 함께 되고 사람들도 스스로 함께 되죠.

정재일 : 혁명한 광고는 마음에 드나요?

DC : 글쎄요. 광고 찍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캐스팅했는지 모르겠는데 광고 찍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더러 웃어주세요, 앉아서 먹어주세요. 그런 거 없었어요. 광고 관계자를 만났는데 CF계에서는 가장 혁명적인 거래요. 음료수 같은 먹는 광고에 내가 출현한 것도 이미지가 잘 어울려서 같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먹는 거를 하으면서 그렇게 맛있는 표정을 지으면 안되는 것이 금기사항이었던 거죠. 할리우드에서 특히나니가 성관계를 가지면 절대 안되는 것처럼. 광고에 내 목소리는 안 나왔는데 먹으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멜로거든요? (웃음) 그거를 목소리만 빼고 나간 거예요.

생방송 중에 화장실 갔다 온 이야기에, 국민 프로인 <프레인 시리즈>에서 우리나라에 음악프로만 없다고 한 말인데 최자님이 사람들은 그의 빠작함과 능숙함을 이용한 방송의 프로일 줄만 알았지 DC 평상시의 행동으로는 전혀 능숙적이 것이 아니다에 엄청했다. 인기인으로 무상화면서 급기야 그 유명한 말과 CF에서 퍽게 되었다. 그가 싫어하는 단어를 써서 미안하긴 하지만 DC는 확실히 'B' 것이다.

정재일 : 행복하지 않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만 다르라고 해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

DC : 한대급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이 아들 영어고 아닌 사람이 한영어이 버죠. 그런 내가 뭐가 특별하겠어요.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TV에서 하나는 거예요. 당신 말 거잖아아. 그렇게 이야기 한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TV에서 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들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 아네요.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늘 하던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여기 왜 나가야 돼, 돌만해 가수 자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만에 없지.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프로그램 아닌 데를 왜 나가서 한 들이 좋은 건지, 그럼 뭐해 음반도 안 팔리는데. 그러니 같은 말에 대답하고 묻기 같은 답변 대답하지 말자, 그래도 질어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거죠. 지금도 변함없어요.

정재일 : 단지 된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생각과 지향을 좋아할 수 있죠. 내한을 포생해서 몸 관리하도 음악하는 데 도움되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조금 마음을 다독이면서 줄일 수 있지 않나?

DC : 내가 봤을 때 아직 멀었어요. 단연코이만 대한민국 방송계는 메어있는 집단이고 폐쇄도니적인 게 강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음악시장에 22개가 있어요. 음악방송은 방송사마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건 두개밖에 없죠. 주요채널무대라고 음도위의 리브레터. 그 프로에 출대 앞에서 팬드라인 사람들이 출연한다 하면, 매니저들은 너 여기서 들어면 죽는다, 여기서 들리면 자라의 기호계를 떠나다, 관국적으로 방송되는 게 그것만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준다구요. 과연 음악 때문에 방송사가 있는지, 방송사 때문에 음악이 있는지 뭐가 뭔지 몰라요. 당신들은 그런 실상들을 모르고 그냥 TV만 보고 그러는 거지. 나는 그런 걸 다 보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좀 같은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인기를 좀 끌길 수 없나는 질문을 던진 순간 <어느> 일병은 TV에 집들어진 사람들로 분위에 동어졌다.

"본질은 음악프로그램 하나 없는, 방송을 위한 음악만 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메이저급' 방송계의 힘을 빌려서 많고는 가수가 되기 힘든 세상, 그래, 백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음악활동을 위해 그 자신도 거부할 수 없는 메커니즘을 본질하고 그 메커니즘의 공격을 찾아보는 것이 그가 조금 덜 비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이었다.

사인이 필요가?

방송계의 '메이저리즘' 공식에 대해 본질 얘길 돌리다가, 음악 이야기를 꺼내니 갑자기 그의 눈이 브라게 찾아듭기 시작한다.

정재일 : 가사가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던 단에 누가 먼저 김치국물을 위진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붙든 무상할지."라거나.

DC : 단식간 내에 메지는 가사도 있고 몇 달을 붙잡는 가사도 있는데, 내 몸 안에서 나는 늘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시인이 별권한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자격증도 아닌가지죠. 누구나 하지가 될 수 있고 어디다 하지가입는지도 몰라요. 마음에서 머나는 혼자을 쓸는지 안 쓸는지에 따라서 작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거죠. 시문이 너무 좋아서 출입가한다든지, 술 먹고 음악을 잘하거나가 출입가라는데 그게 세상에 없는 멜로디라면 그게 작이죠. 가사도 그런 거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늘 이야기를 하고 싶죠. 늘 질문합니. 그런 혼란이 되면 어떤 사물을 보고 말하고 싶은 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아무 공감을 끌어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혹은 공감하지 않길 바라면서 쓰는 것도 있고. 이건 내 설명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알아차릴 수 없을 거야.

정재일 : 오랜 세월 자신을 건딜 수 있게 했던 힘은 무엇인가요? 음악하기 힘든 세상, 7년의 이렇게 지탱해 하는 걸 가능하게 했던 어떤 것.

DC : 모르겠어요. 음, 할 수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라기보다 자부심이라 해야되나? 우리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으니까. 허풍 치는 건 아니고. 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냐, 그런 반응이었으면 고민할을 했네. 주변에 장난해봐, 친구들, 매시 보두 음악을 좋아했거든. 안해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젊은 음악하고 멤버도 몇 십 만장 팔아본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벌어본 사람이고, 음악홍도 했고 월드컵 이후에 난리 났고, 우리는 8, 감탄하는 멋진 사람들이 곁에 음악 좋다, 대장이 바보 같아서 너희를 돌아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단 하나 아쉬운 건 수입이 없다는 것 그것 말고는 음부랑과 좋았어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게 있었으니까, 그게 에너지원이었어요.

정재일 : 그럼 포기하지 않다면 건 세월을 방황이라면 방황을 한 거잖아요? 고집하고 아구선수 따다가 불러주는 데 없어서 낭인생활 했던 것도.

DC : 위, 맞아요 같은 거였죠. 집도 없고.

정재일 : 집이 왜 없어요? 집을 나왔나요?

DC : 집이 없었어요. 춘천 살았는데 가족들 다 올라와서 그 가수시생활 하고 있었고, 제가 막내로 자라서 그래요. 너도 다 컸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한 길을 간다. 아버지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장원도 고성 바닷가 앞에서 생선을 드시면서 사시죠. 그래두이 혼자 다녀오죠. 말 그대로 거지죠. 돈도 없고 집도 없으니, 맨날 교회에서 자고 밥아나면 집이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데가 가장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얹물고, 잘 그러면 작노동 며칠 해서 번 돈 가지고 한동 버틸고 가방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고 공동화장실에서 샛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문지가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요.

[인터뷰] : 그래도 희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JC] : 알았죠. 악악했죠.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하에 컸었지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나,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스무 살 넘어서부터 곡도 만들고 악기도 연주하고 녹음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노래도 하고 가사도 쓰고 앨범 재킷 만드는 디자인도 공부하고, 다하잖아. 해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뚜렷한 가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것 같기는요. 꿈조차 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인터뷰] : 강산에가 음악하는 마음을 가르쳐줬다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가요?

[JC] : 되게 조급한 시절이 있었어요. 앨범은 없고 4년간 연습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수가 되고 싶은 거죠. 난 이미 가수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산에할이 어느 날 와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가수 하나, 그냥 하문 되잖아. 그때 산에할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또한 새끼들이 옆에 있었다면 멀리 본에인이 되고 싶어서 난리를 칠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리더한테 잘 보이고 인사 잘하고 그런 것만 했다라면 세수 없는 인간이 되었을 텐데. 주변의 반응을 보면 최소한 세수 있는 인간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다행인 거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 역시

세수 있는 인간. 그렇다. 세상에 빠져라며 구는 걸보면 참 철이 어지들 등골 빼먹는 세수 없는 인간들에 비해 그가 얼마나 세수가 있는지를 <강JC의 응석상담> 몇 번만 들어봐도 알 수 있다. 그의 이야기와 입이 피상할 수 없는 '남자이야기' 그리고서 속을 좋은 남자다움을 알고 배울어주는 그 때문에 출근길이 즐거우기까지 한다. 제다가 그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란다면 정말 끝 없는 판랭이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역시 아니인가.

[인터뷰] : 작이를 가장 존경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존경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JC] : 나 같으면 아마 못했을 테니까요. 남녀가 되어서부터 반대적인 입장에 내가 섰다라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전혀 개념이 안나가지고 멀쩍 들어있으면서 결혼까지 하고 떠어살았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인터뷰] : 아내는 강JC의 무엇이 그리 좋대요?

[JC] : 인터뷰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서 나도 집에 가서 물어본고. 한글자예요. 다… 기다린 대고 하하 그래.

[인터뷰] : 돌이 사라는 게 아니고 장인이 내쫓아서 지금의 아내가 집을 떠나지고는 혼자 사는 집으로 알았어요.

[JC] : 두려웠어요. 지체. 되게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오고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자유로움이 있었는데 뭔가 같이 살아야되는 또 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고. 죄이란 감정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이 택시가 땀 차려놓고 가든 늦은 오후에 집에 와서 밥 먹어주고 상 치워 치워놓고 (설거지는요?) 그런 거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시키면 되게 잘했어요. 망설이는 없고, 게다가 갔다 뇌 그러면 진짜 갔다 놓기만 해, 잘 어지르지도 않고 할 만한지를 잘소니까. 택시는 괜찮은 여자인 것 같아요.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작은 거에 고마워할 줄 알고.

[인터뷰] : 겉은 모르지만 여러 군데 이야기를 보면 희의 강고 독의 저항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그런 당신이 가족을 무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JC] : 힘든 문제요. 우리한테 아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택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기였고 나는 택시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우리(JC의 아들 이름이다.), 대단한 에너지 덩어리예요. 만약 아기를 안 갖는 사람이 있으면 권해주고 싶어요. 피곤하긴 해요. 여

#1 가지로. 내 삶에 변해주었은 아이를 포함해서 여러 몇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고, 때문에 내 삶이 무의미하다거나 어떤 건 원하지 않아. 그 이외의 것은 아이 때문에 생각도 없이 하게 해요. 이 아기가 생겼다는 느낌보다는, 정확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친구 하나가 생겼다는 느낌이요(그러니까 세 사람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도 DC한테는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아이도 그렇고 제시도 그렇고 어쨌든 나랑 사는 일은 참지가 않을 거예요. 나무 독립적인 삶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삶을 사이되지 않나, 분명은 만나야하지 않나, 이런 건 없어요. 그 쪽으로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내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안에서 좀 리얼리즘도 나갈 있고 뜻할 있고 그런 점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 것만 이야기해줄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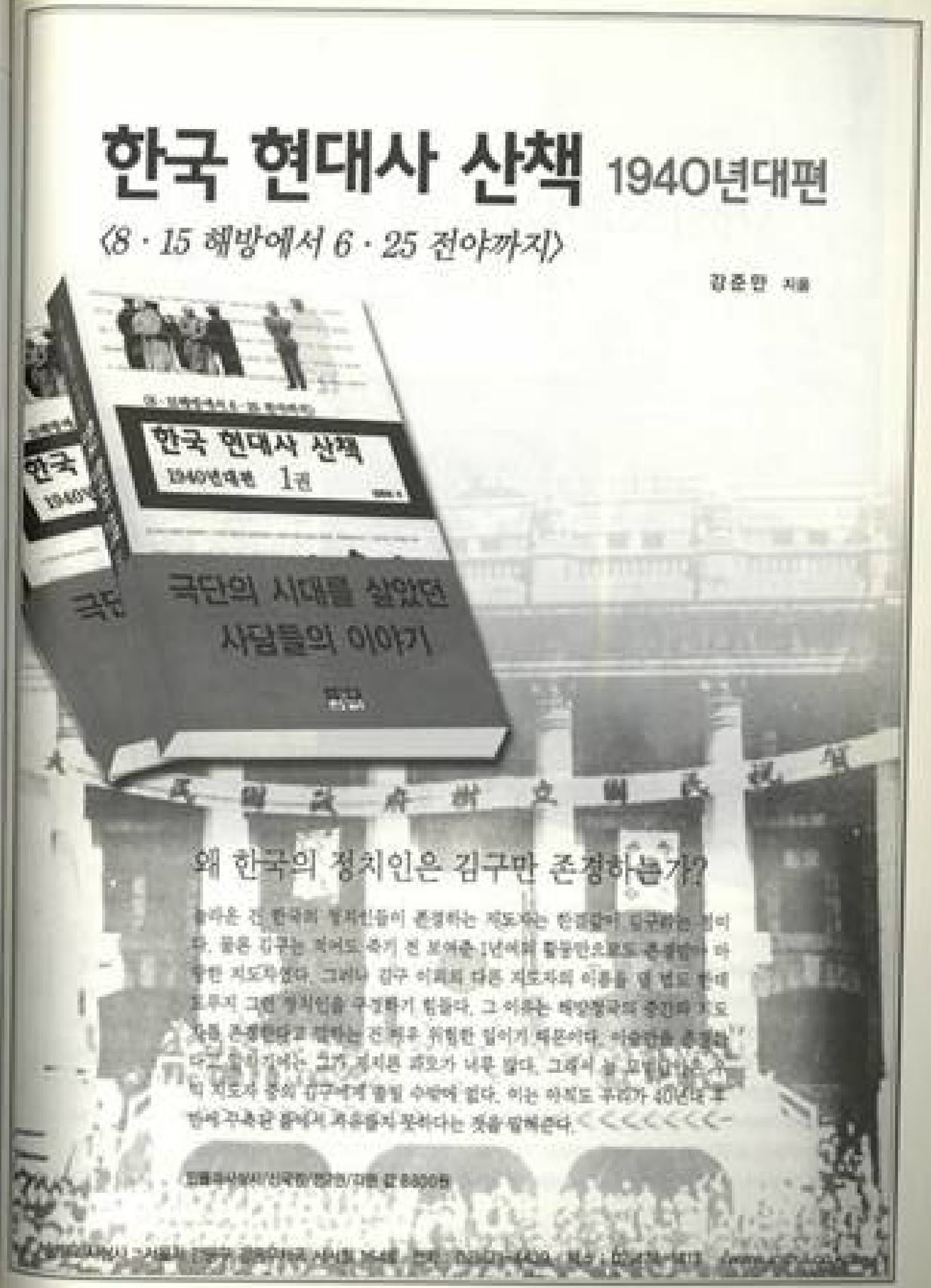
듣고 보니 그와 사는 건 쉽지 않겠다. 물론 그의 무언의 동의겠지만. 그의 아내가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현실하는 여자의 삶이 버으로는 건 또 아니었다. 하물며, 저렇게 예쁜 사람이 사람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먹여살려준 고마움이랄까. 쉽지 않았을 생활을 질척거리게 만들지는 않을 여자라는 느낌이다.

새우 잡게 변화하는 중

그는 요즘 정체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주 한단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다면 세우일게 변하느냐 세우 없게 변하느냐가 남아있을 뿐. 지금은 그 변화의 어디쯤일 것 같냐는 질문에 그는 "그런 일면 신이나 저 우주에 가 있겠죠." 라고만 한다. 신문지의 바탕을 알아버린 그는 어떻게 변화하든 능히 있는 것이 내 생각에, 내 정이라면 이것은 독립적인 것으로 보 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할 사람이을 믿겠다.

오는 바주류가 그랬듯이 DC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드러움을 한가슴에 지니고 있었다. 그를 만나 느꼈던 따듯의 음성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의 베이스의 근원이 흘러넘는 사랑이라는 것.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폴란스밥하는가 말이다. 그를 만나기 전, 앨범을 들으면서 이미 이해해버렸던 그것. 두말이 필하여 DC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열심히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

글 정혁이경 / 사진 정선하



이시스의 심장에 꽂혀있는 세개의 검

이야기를 시작하며

어머니가 아플 때 전화를 걸어올 정도로 본문 무당인니가 있다. 어머니는 갑작에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언니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온다. "오늘 아주동 가는데 뭐 궁금한 거 없니?" 라고 어머니가 물어본 때이다 나는 문득을 고민하다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좀 알려달라고 해줘요."라고 하는데 그때에다 그 언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잘 살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준다. 하지만 내 고민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데 있다. 물론 그건 스스로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가끔은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편지놓고 싶을 것은 때문이 아닐까라고 싶다. 3년 전부터 시작한 타로카드 명상은 이럴게 마음이 복잡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타로카드를 보는 시간은 점술을 시간이기보다는 해석자이자 안내자이다. 국내의 공인된 유명한 타로

마스터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내담자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리고 78장의 카드에서 뽑힌 카드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타로카드는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술이라기보다는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에 가깝다. 나는 주로 프리스 웨이트 언니 노들이 제작한 마더피스 타로(Motherpeace Tarot)를 사용한다. 아직 남을 볼 정도는 아니고 혼자 훈련하고 있는 카드로는 레올 프레이스가 만든 메디슨우먼 타로(Medicinewoman Tarot)와 명철타로의 기반으로 알려진 마르세이유 카드를 공부하고 있다. 타로를 어떻게 공부하나고들을 많이 묻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많이 얘기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욱이 공부하고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수비학이나 색깔에 나타나는 상징, 신화와 별자리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거듭해 얘기하지만 점성학에는 심리점성학과 정통점성학이 있는데 심리점성학은 자유와 상상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고, 정통점성학은 예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는 혼령주의인 예언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기와 '명하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은 많은 얘깃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데, 타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단순화시켜 해명하고 명상화해 보여준다. 이 때문에 타로가 여성 내면의 이야기를 캐내는 도구로 적합한 것이다.

물이 내가 주로 사용하는 마더Mother에 대해 설명하자면, 메인 타로는 여신의 상징과 신화를 기반으로 과거의 습관을 위로하고 함께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어 미래를 제시해준다. 마더피스 타로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갈 길이 멀다고 느낄 때 혹은 방향을 잡지 못해 괴로울 때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메디슨우먼 타로는 고통과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로이다. 특히Ace-

3년간 타로카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그 문제를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을 던진 타로카드는 상대에게 그 일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결과가 어떤지, 왜해롭은 무엇이고 절말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마음이 움직는 것도 하 말으로의 충고들을 던져준다. 대화는 질문자와 타로리드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타로카드가 하는 말을 전해주는 전달자이다. 나는 질문자와 타로카드 사이의 매개자가 되어서 이 카드가 나타나는 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질문자와 같이 카드가 나타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본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타로카드에 매료되는 것은 미래를 잘 알려기 때문이 아니보다는 타로카드와 해석자가 질문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여신 타로와 마더피스 타로, 메디슨우먼 타로는 여성들의 감정과 정절에 대한 해석력이 뛰어난 카드들이기 때문에 자신

매스카르의 메이저 11번 카드인 오야 여신.

매개체 3 카드.

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내면의 다른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 타로들을 만나고 오소면 질문하고 싶은 것과 간단한 사연을 적어서 메일을 보내주시라 (takeory@mschal.com). 그 중 몇분을 추첨해서 다음 인터뷰어를 정하려고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라고, 말을 꺼하는 여성카드의 프린스 컵 카드가 덕스짓고 있다.

사수자의 든든한 수호여신으로 오야 여신을 점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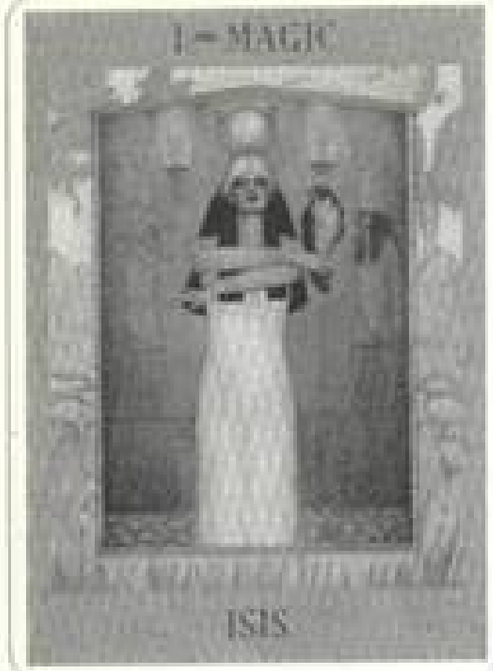
처음 만나는 대상을 누구로 정하 하고 <어프>한 김무와 의논하던 중에 독자에게 인술하고 내면이 궁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어프>이 전 편집장이었던 곤혁준이다. 꽤 오론 시간 동안 알았지만 매번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곤 했다. 말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숨기는 것도 아닌데 왜 돌아서면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걸까. 그녀가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만발하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집중한다.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 타월하고 사람 사귀는 능력이 뛰어난 천생적인 사수자리입에도. 불구하고 비껴내린 시선으로 안경 너머의 얼굴을 궁금하게 만드는 독특사람에 나타난 곤혁준의 표정은 가끔 내가 이 사람의 감정노동을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미정스럽게 하곤 했다. 인터뷰 마속을 앞둔 과정에서 곤혁준은 몇 번이고 되물었다. "변질문이? 독자들이 나를 궁금해할까?" "곤인이 궁금한 거를 묻는 인터뷰에요. 본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손색없는 사람이 없다고 히전 될 지 몰이요. 저정 알아요."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오간 끝에, 대학로의 한 낡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집기중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네." "우선 요즘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카드를 뽑아요." "그럽시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궁금하네…."

우선 수호 카드를 한장 뽑았다. 뽑고 보니 그 카드의 메이저 11번 카드인 오야 여신이 나왔다. 힘을 상징하는 오야 여신이 나왔다. 오야 여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여성적 리더십을 상징한다. 오야 여신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일을하는 사수자리의 영향을 받는다. 사수자리는 변화와 성장의 욕구가 강한 자리이다. 쉽게 권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변화는 복잡해서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한신적인 사람이 많다. 낙천적이고 독립적이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지만 자신을 방어하지 못해 종종 상처투성이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오야 여신은 이 사수자리의 입장을 가장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신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좋았어 좋다.

이시스의 심장에 울려퍼지는 세계의 검

여신카드를 뒤고 10장을 펼어 켈틱 크로스 스프레스를 펼쳤다. 이 스프레드는 타로카드 배열법 중 내 나면에 몇 번째가 넘는 배열법 중에 특히 자신이 묻고 있는 내면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결방법에 타월한 해석력을 발휘하여 타로 리더들에게 선호받는 배열법이다.

"최근에 큰 결단을 내린 일에한게 그 판단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지만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는데요. 외로 일은데 계속 힘든 일이오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과거에 지고 있던 외로운 책임감이라는 것



이시스 카드

물을 좋아주곤 한다. 실제 80년간의 연애를 겪으로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의 카드를 보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 30년간이나 연애를 했지만 습관이란 하는 사람을 하던 사람이었다. 카드 설명을 듣던 그의 눈에 점차 눈물이 번져나는 것도 같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을 꺼내었다.

"사람들이 물으면 추해. 너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냐고—너 얼굴만 봐도 많이 많냐고. 나는 너무 슬픈데 사실 그렇게 슬픈 얼굴 이유는 없어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잘 모르겠어. 그냥 사는 게 너무 슬퍼." 그리고 보니 그 전에 그가 "나는 사는 게 그냥 좋아."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사실 슬프고 기쁜 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고 싶은 감정일 뿐인데—모든 존재는 너무나 슬프지 않은가.

나의 가장 큰 적자는 너

"그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요."

타로카드 카드를 카세팅했다. 타로카드 타로는 사기만의 카드 배열법이 있다. 다른 카드처는 달리 등급제 생겨서 카드마다의 방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열하는 데 보통 카드보다 2-3배의 집중이 필요하다. 총 14장의 카드를 배열하는데 작은 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임이고 큰 원은 자기의 이해의 자아상들의 변화를 나타낸다. 원의 왼쪽 아래에 배열하는 세 장의 카드는 앞으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카드들이다.

"역동적이보다는 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아요.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편이지만, 그것에 대해 늘 불만족하고 괴로워하고, 주변에서 당신을 인정받지만 자신 평가하거나 혹은 정말 원하는 식으로 끼워맞고 정한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많을 그 많은 건 어떤 가치도 좋은 성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을 때날 시기, 변화를 줄 시기예요. 모든 게 어렵 시예요. 앞기체된인지 아니면 단기체된인지만 다음 뿐이죠. 안정보다는 변화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나 안정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런도 것에 대해서 많은 선택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 이후 은, 손톱, 안에 등의 점을 몇 개 더 보았다. 긴장되면 손톱이 없는데 아마 주변에서 사고를 치고 달아프는 식이 많고 온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혼해보는 타입이었다. 관계와 연애등을 보면서 인생에게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니 <이프> 팀간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박아라와의 오랜 우정, 입문에 감독과의 교감, 그리고 엄마의 특별한 관계. 사랑하는 후배 양박서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얼굴은 늘 슬픈 것을, 그는 알고 있을까? 남을 증심게 해주고 필요한 사람이

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마지막으로 당에 대한 몇 가지 질을 보면서 나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계와 감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걸 우선시하는 사람일 거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 있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나왔다. 그러고 보니, 그의 수호카드가 오아 여신이었다는 걸 문득 떠고 있었다. 보통 타로를 보는 사람들은 해석하기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라고 하는 관점에 그러는 말인이고 "이제 그만하고 술 먹자. 내 예기 해야잖아"라고 말하곤 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소외감과 외 외경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것 사이, 나와 타자와의 관계보다 내 안의 다차원의 거리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크다.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건 당신이 중요 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과 사랑에 많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질을 모르는 불안과와 슬픔은 사실 기존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성적 희망을 그가 품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원하는 극적의 행복, 지속이 없는 폐하은 지금까지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해체하면서 다시 재구성하는 끊임없는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이상의 그 무언가'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지속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독립적인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딜레마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더 이야기해보세요." 라는 말을 필요 무엇인지나와 같은 말을 해주어야 한다. 원하는 대로 다 될일 테니 걱정 말아요, 라고. IF

글 한길현명 / 사진 정민하

〈송환〉을 통해 여성사로 읽다

<송환> 비평의 윤리학과 정치학

당대의 위대한 텍스트 <송환>을 비판할 장기수와 감독에 대한 존경과 감동, 분노와 질투의 이중 감정 없이 생산적으로 읽을 수 없는 페미니스트는 드물 것이다. 이러한 감동은 '한국여성'의 포지션에서만 가능하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남성의 역사에서, 역사의 국외자이며, 지배 남성과 피지배 남성 모두에게 억압당한 피해자이며, 동시에 그들과 같은 한국인이고 싶은 여성의 관점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다른 방식으로 읽으려는 시도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갈등과 논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마도 가능하지 않겠지만 좌우 균형, 성별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 영화을 인간의 고통에 대한 예찬으로 끝나는 것이다. 고문의 고통 때문에 제도 당시 반이 죽은 동지가 부러웠다는 고백, 북한으로의 송환 직전 40여 년 전의 제도 현장을 찾아보며 동지가 피흘린 땅의 흙을 파내는 장면, 45년 만에 종소리에 어머니가 간절히 보고 싶은 김선명에게 입술 지진이 아니길 빌 만나게 하고 무덤으로 닫혀 주지 않는 가족들, 감옥살이에 익숙해져 종소가 두려운 어느 장기수의 "세월 나를 내보내지 마세요."라는 대사,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의 역사적인 악수가 "끝으로 산 것."이라

는 보수 세력의 비방에 대해 "그렇더라도 우리 사는 곤 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라는 감독의 내레이션에, 나름 보람하며 영영 옳지 않은 관계은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송환>의 주인공들은 북한에 그런 말못을 할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남북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정통적인 한국의 반공 때문이 아니라 체제 문화의 산물이므로 화성반체제인사인의 명한이 비군이라 확신한다. 30~40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여성의식이 없다고 해서, 봉한 사회주의를 아직도 옹신한다고 해서, 여자에 계몽적이고 설교조라고 해서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윤리적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없다. 현실적으로 그들과의 소통은 그들의 고통을 최대한 역사로 인정한 후에만 가능해진다. 나는 한국사회가 그들과 대화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감독은 이 영화가 장기수를 특별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데 일조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몸에 새겨진 이성과 감성의 극단 적 나누에 존재하는 독특하게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는 너무나 '낯아이'해서, 그들은 존재 자체로 주목을 집적시킨다. 그러므로 이 영화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읽으려는 나의 시도는 무모하다. 여성주의적 독해가 장기수의 고통, 감독의 노고와 맞서는 게임, 적절한 사대정신, 놀란 만한 윤리성을 놀이 평가하고 질이 존중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영화를 '이건 없는 점후 이야기보다 '논생적인 점'으로 읽고 싶고, 이러한 방식의 독해가 감독과 주인공들을 더 존경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송환>에 대한 나의 비평은 텍스트 자체라기보다는 영화의 콘텍스트주, 이 세계의 남성성에 관한 것이다.

남성 멜로드라마, <송환>

<송환>의 첫 장면은, '다큐멘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믿었던 나도 어느새 두 사이의 이해지가 되어 '생활의 유혹'(따옴표는 나의 강조)을 느꼈던 부끄러웠다."는 감독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12년간 촬영된 독립영화, <송환>에 세우 촬영이 어이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감독이 '생활의 유혹'을 느끼지 않고 돈이 되지 않는 초월적이고 창조적인 영화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아내가 생계와 육아, 가사

을 모두 해일로 빼앗은 아니었을까. 남성이 '나라면서 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의 신념을 포기한 '후에도' 느끼는 '생활생존의 유혹' 은, 대부분의 여성 들에게는 유혹이 아니라 일상적 노동이요, 존재의 조건이다. 커서 모든 장기수들에게 어머니는 특별하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고향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을 염원한다. 그런데 영화의 또 하나 의 주제는 "이 영화를 (아내와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한국 민주화운동 아줌마에게 바친다"고 적고 있다.

사실, 비전향 장기수의 위대함 그리고에 백스의 <송환>의 위대함의 전제는, 남성중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별적인 역사와 일상은 대립하며, 정치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은 구별된다는 이원론이다. 물론 이러한 이원론은 성별화된 방식으로 비계획하여야만 질문 가능하며, 이제 고갈된 가치는 일상과 '개인적인 것 을 무시하고 초월적 가치에 헌신하는 삶형에서만 얻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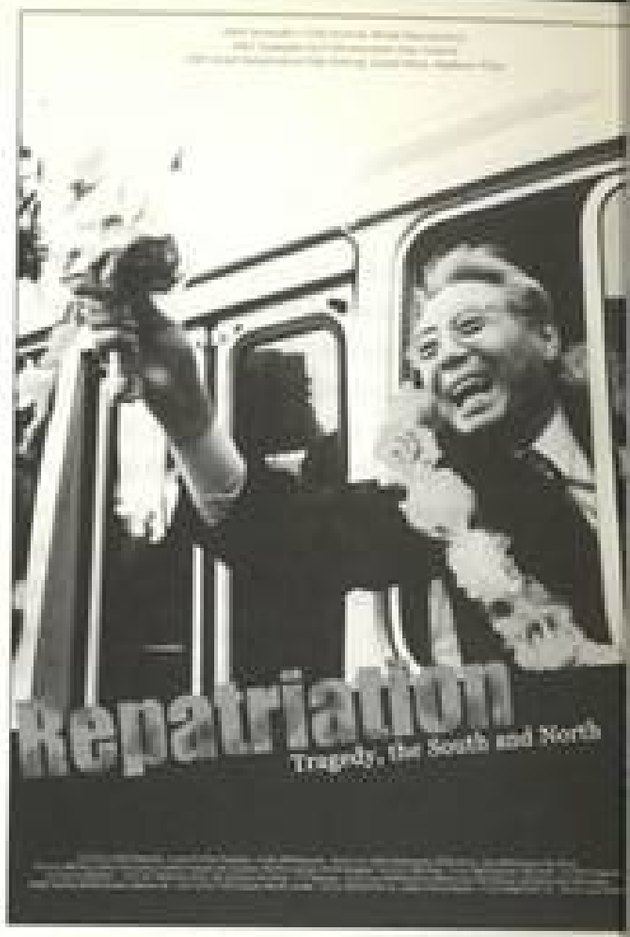
장기수 '선생님'과 위인부 '할아니'

영화에서 비전향과 비전향은 다르다. 당연히 고문 후에도 전향하지 않았다는 것만 비전향은 장기수 본인의 관점이고, 전향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전제에서 이 차 하지 않았다는 서어의 비전향은 남한 매스미디 정권의 시각이다. 전향 후 출소한 장기수들은 고문으로 인한 몸의 고통을 초월하지 못했다는 수치심에 괴로워하는 반면, 비전향 장기수 중 일부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 전향과 비전향이 같이 한 하나는 아니다"며 승리 수 없는 자부심을 드러낸다. 44년간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한 학생은, 남한 인권운동 진영이 관념적 자세로 수감 연수에 따라 장기수의 등급을 매기고 상품화한다며 '잘다면 사건' 을 경계해 비판한다. 영화의 출소 환영식 장면에서

45년간 수감되었던 김선명은 가장 최저한 옷차림을 하 에 걸고 있고, 44년, 38년 장기수 사람들은 수감 연수에 따라 옷차림이 점차 풍성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남한 인권운동 진영의 일면과 여성적인 고문을 가했던 남한 당국, 송환 이후 세계 인권에 공헌하는 북한이 세 차한 사진을 제작 <우리는 굴복하게 않았습니다>(송환 장기수의 북한 생활을 담았다)에서 나는 남성 편더임의 공통적인 여성 비극을 느꼈다.

유해없는 장례와 제물으로 영화된 한국 현대사에서 인생과 국가 폭력의 희생자는 극단적으로 성별화된 주체입어기도 하다. 역사의 주체 · 행위자로 간주되는 남성은 장기수 '선생님' 이고, 남성 역사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생산대 여성은 비정치적인 존재으로서 '할머니' 다. 화투하를 박은하고 남성 입문에서 입문군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은 민족의 수치이며, 국가간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비참하고 '나라은' 피해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장기수 남성은 일부 국가 민족주의에나 제국주의자들은 '하이 없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피해자' 로 보존되면, 대부분의 관객들에게 장기수는 정치적 신념과 이기의 화신으로서 인간 의지의 가장 영화된 형태를 보여주는 주체 중의 주체이다. '불멸이' 로 부르는 것으로 그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동변한다. 아직도 레드 콤플렉스와 연좌제의 공포에 떨고 있는 가족을 수십 년 만에 만난 어느 장기수가 말하였다. "내가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에 해일 어있는 너희 의식을 해방시키겠다"고 말하는 장면은 이들의 '계성 주체성' 의 정점이다.

여전 히어에서 비전향 장기수는 남성 사회가 지향하는 공포한 가부인 원칙 초월성, 합리와 이기의 고정성을 체현한 가장 아름다운 남성이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짓고, 한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며, 생상 타인을 걱정해야하는 여성들은 도달할 수 없는 거리이다. 물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남성은 남성들 중에서도 성인, 비장애, 중산층, 이성애, 지식인 남성에 국한된다. 영화에서도 지식인 출신의 장기수 김선명과 소박한 노동자 출신인 조창순은 대비되는 인물이다. 김선명은 학식이 풍부하지만 배우자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반면, 조창순은 뱃일, 집짓기 등 운동 '하얄은' 노동을 도맡아 하며 동네 아주머니들과 그녀들의 '남편보다 나은' 일 능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전자는 남성 센스, 후자는 여성 센스의 성 편견은 말할 것도 없다.



동자 출신인 조창순은 대비되는 인물이다. 김선명은 학식이 풍부하지만 배우자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반면, 조창순은 뱃일, 집짓기 등 운동 '하얄은' 노동을 도맡아 하며 동네 아주머니들과 그녀들의 '남편보다 나은' 일 능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전자는 남성 센스, 후자는 여성 센스의 성 편견은 말할 것도 없다.

체 게바라와 비전향 장기수의 센터

한기부와 타협에 의해 출준이 가능했다고 알려진 '남과 간첩' 출신 장기수 김전계의 생애 구술사인 「조국 ·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 김중교 보고 문학사회론계 · 김중교 공저, 한성문학사, 1989에는 '체이임' 내용이 나온다. 북한에서 대남 파견 활동가 훈련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는 교육을 마친 주인공에게, "김이다하도 지

삼하지 말라, 고문당하면 고통받지 않고 전향해서 사회로 나가라, 현실에서 패배하는 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끝까지 살아남아라."고 말투한다.

백 계야와 라스트로를 비교한 정치학적 관찰은 일견의 인식과는 달리 백 계야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스무 번의 혁명(revolution)보다 한 번의 발전(development)이 더 필요다."고 고백한 라스트로에게서 훨씬 더 처절한 혁명가 정신을 발견한다. 모든 '악'과의 전면 단절을 제시한 백 계야와의 입장은 매우 투명하고 단순 명확하다는 점에서, 간결하고 그만큼 비현실적이다. 세의 높은 수준의 의식, 합격한 도덕성, 이타주의적 성품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에 용납되지 않는 극소수 남성 혁명가만이 실행할 수 있는 가치이다. 만일 백 계야마가 살아서 계속 쿠바 혹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이끌었다면 어땠을까? 백의 노선은 나무나 원칙적, 급속주의적이어서 더 역압적이고 고립적인 체제의 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슬픈>의 주인공들은 환경같이 자신의 비관할 무생존 이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해도 여러을 돕

리라는' 신념 공유의 폭력성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말한다. 감독 역시 자신은 자유주의자로서 "장기수 선생님들을 완전한 존재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그리는 것에 가장 주력했다."고 강조하지만,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미 비관할 장기수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들은 30~40년 동안 수감 투쟁을 수행해온 간난없는 혁명가로 묘사된다.

감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순박한 사람으로 소개하(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장기수 김영식은 모든 고문을 당할 때,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아들을 낳으려면 제발 나 이상개일 같은 남자를 낳아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 사회에서 여성 멸도의 대표적인 담론으로, 이에 분단과 군사 독재 폭력의 원인 제공자는 여어니가 된다. 한때 열혈 시라스니의 분구였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부끄스러워하는 어는, 장기수의 최고, 존선일보 선임니스트와 동창생다 동생임을 강조하고, 학군단 출신 감독이 군사 지역 활명을 막는 장교에게 "저네 몇 기인가? 난 16기야."는 한 마디로 환생에 성공하는 장면 등은 <슬픈>이 이념이 아니라 기본적으

로 뿐더 드라마틱을 보여준다. 한국 남성들은 최후 · 우리이기 이전에 남성이다. 계급이나 생식의 태도보다 남성 정체성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다.

<남은 목소리>와 <슬픈>의 차이

<슬픈>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전투> <레드 헌트> <살길이 없는 남도>, 부당<양심수> 기지촌 여성 <아내와 부부> 등 사회의 타자를 그린 정치 다큐멘터리에서 흔히 제기되는 논쟁점 제한 대상에 대한 타자화, 표상화, 대상화, 지배 사실의 재생이라는 문제를 극복한 새우하나는 작품이다. 즉, 정치적으로 감기된 소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의 제작 과정이 물변적 갈등인 감독의 윤리적, 정치적인 딜레마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선전, 대변해야 한다는 저기 억압이 이 영화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째일째, 이는 호평 제작 기간 동안 감독의 정치한 장비 관찰, 분들기로서 감독의 정체성, 박힘한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감독의 재능과 성실성 탓이 크지만, 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변영주 감독의 <남은 목소리> 시리즈는 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대상화, 탈실에화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쟁 거리를 제공한다. <남은 목소리>가 정신대 피해 여성을 타자화, 타자화했다는 뜻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감독이라 할지라도 감독과 정신대 피해여성 사이에는 동일시가 불가능한 거리가 여초부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종, 계급, 나이 등 여성 집단의 '차이'와 보는 문제하는 별도로, 기본적으로 남성 시스템에서 여성들은 적절로 같은 여성이 피지 않는다. 여성은 female, woman, feminine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는 남성사회의 정치적 억압과 실천의 결과이다.

페미니스트 감독 역시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이가 시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성사회의 여성 시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군다나 남성의 시각이 더 깊게 질문된 것이 성폭력 이슈를 역설의 사각에서 다루고자 할 때는, 기존의 자기를 버리는 뼈를 깎는 혼란과 새로운 감수성이 요구된다. 이는 그 자체로 자신과 세상에 대한 투쟁이 된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의 제한 주체인 감독과 피해 여성이자 제한 대상인 '할머니'가 구분될 수밖에 없다. <남은 목소리>의 '할머니'들은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대인 '낯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감독이 자신의 고통 경험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도 않고, 감독과 자신을 여성 범주로 동일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슬픈>에서는 감독과 장기수 사이에 이런 거리가 없다. 감독이 반공주의자가 아닌 이상(혹은 반공주의자라 할지라도), 감독과 장기수는 "모두 남성이기 때문이다". 남성이 남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남성 내부의 타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감독은 정신대 '할머니'를 타자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적어도 장기수에 대한 남성감독의 태도처럼 존경하거나 거룩한 존재로 우러러보기는 힘들다. 반면 정치의식이 확철한 남성감독에게 장기수는 존경의 신에이자 동시에 내 감독 자신과 현실분상에 있는 같은 인격을 남성 구성원이다. 이것이 바로 거다 리너Gerda Lerner가 지적한, 남성과 여성의 역사 출발선이 다른 점이다. 남성은 새로 시작할 필요 없이, '어머니'의 어게 위에 앉아 여성이 배제된 인류의 지적 전통을 자연스레 전수받으며 세계를 조망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 언어가 될 지한다. 그들은 언어 획득으로 인해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감독의 장기수에 대한 시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과 동질적이다. 감독 · 장기수인에는 주체 · 대상 관계가 피피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결출함은 수천 년간 진행되고 있는 남성 사회의 인식론에 상당 부분 '균열' 한 것이고, 그 균적 토대는 타자화된 여성 집단의 희로애, 노동, 고통이다. 그래서 나는 <슬픈>을 여성사로 읽는다. ㎾

문혜진 여성학 강사 mail7@chol.com

꽃피는 자궁에서,
수다를 마구 떨며,
담배를 끊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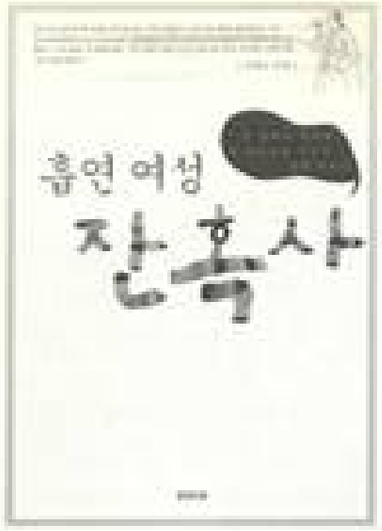
하하. 명호, 명숙, 숙희. 우리는 이름도 이렇게 어여쁜 자매가? 친가에서? 같았었기에 같은 유전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야 옳은 거 아니야? 그래. 누가 감히 어머니라고 했어? 감자들이 그렇다는 게지. 이름에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자존심이나 모욕에서라도 같은 것을 찾아서 서먹서먹을 뛰어넘지도 몰라. 하하하. 오십이 넘은 언니와 오십을 바라보는 건 시시껄렁 관심 국장이 나누는 얘기다. 다소 유치하다 얘기다.

이름의 조합. 3월 16일. 이른 점심을 이룸. 8시. 명기 어머니 뜻에 고운 여자. 얼마 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이라는 아름다운 책을 낸 이유명효와 여의도역에서 만났다. 다음 목적지는 방화동. '풍만여성은복 사'라는 제목의 책을 낸 서명숙을 새루니 위해서였다. 얼마 전 서예지상을 당해 아직 눈이 부은 그가 차에 올랐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생로병사의 법칙을 피할 수 없는 법. 심심한 위로의 말을 나눈 후, 장면에 난 만한 오월의 둥 생명들의 푸름을 분위하며 상쾌로 향했다. 가기, 고요하고 푸른 빛들은 안의 작은 심장상에 또 한명의 여자, 오한숙희가 「수다의 치유학」이라는 책을 낳기 위해 머무며 산통중이기 때문이다. 지도상으로 보자면 여의도에서 일직선으로 주욱 이어지는 곳에 그렇게 세 여자가 살고 있다. 세 여자의 아름다운 악연들이 빨 들어 십을 뻘 하니 달려왔다. 그 길의 끝에 이유명효의 강화인박, 이유하여 다산초등학교가 숨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생물학들의 날은 아침, 초록빛 벽 사이에서 마지막 전통으로 수척해진 오한숙희가 두 번나를 맞으며 달려 나왔다.

너의 탐욕의, 몸속의 잠긴장시를 풀어라

아름다운 오월에 같은 송관사에서 살아가니 되어가니 책을 내게 된 것만도 신기한 판에 그들이 낳다른 자매애를 나누고 있다는 것, 최년 책들이 모두 여성의 몸과 생물과 같에 대한 긍기의 책을 해부주는 것들이라는

것도. 예사롭지 않았다. 자궁과 모유에서라도 같은 점 찾는다는 세 명의 공감대는 같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살림등한 같은 아닌 같고 같은 삶의 현장에서 오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온 것, 한명만 빼고서명은 이혼녀인 것, 세명 모두 혼정없이와 함께 살면서 형실살부한 모계사회를 구현하며 살고 있다는 것,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도움을 받고 싸우며 세종과 연민이 뒤섞인 남달을 지나 이제 건전적인 삶에 대한 이해의 시행을 날릴다는 것까지. 세 여자는 심심하면 그냥 만나 술잔을 나누고 땅에어아기도 수다도 떨고 고단한 삭제를 서로 무드레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그렇게 살에 오르고 싸움 했다. 이혜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친실한 마음은 나누기 힘는 부여한 인간관계의 등식에서 아름다



시로서 '겨울지기'가 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따스한 봄날 아래서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이 집에 인연이 많아, 책을 한권씩 쓸 때마다 여기서 시작하거나 끝냈었거든. 이번에도 그랬어. 서로 기획하고 세듯 격정해주고 읽어봐주고 힘들해 일을 할 때 함께 동사해주면서 그렇게 책들을 썼어. 그래서 서울이 다산해. 나는 이제 두 명스 언니만 만나도 배다른 완복가 필요 없을 정도야."(오한숙희)

"오숙희 언닌 저는 옥년 봄에 서영숙은 우리와 만난 지 일년이 좀 넘었지. 나는 이이로에 선생님께 고마움을 느껴. 고은광순이나 숙희 같은 제자를 키워서 나를 만나게 해준 것, 나를 구원해주었어. 보약 같고, 등놓으면서 존아나 말고 그냥 잘 나를 생각하게 해주었으니까."(이송명호)

"(시사저널)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 두 여자의 사회 활동이나 이름, 특질이야 알고 있었지. 어떠서 만나본 것뿐지만 잡지에 오한숙희 시론 정력하면서, 몸이 안 좋아서 병로 언니에 집 맞으러 다니면서 두 여자를 알게 됐지. (시사저널) 그만두고 생이서 다니는 여행이 너무 즐거워. 아직 덜 세상이 열린 것 같아."(서영숙)

이송명호가 53년생, 서영숙이 57년생, 오한숙희는 59년생이다. 따른 오한숙희가 서일 연배로 이미 세대랑 같이고, 이송명호는 두 번째, 결정 장지를 만든 서영숙에 선 번째 책이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의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출판에 '복지된' 오한숙희의 공이 크다.

서영숙은 누가 마음에 들어도, 책이 좋아도, 만나고 싶어도 마음속에 접어두고 생각만으로 끝나기 일쑤인 안일 섯은 좀 다르다. 맨 먼저 오한숙희의 책을 읽은 이송명호가 그에게 메스를 넣었다. "밥으나만 한의원으로 어머니 모시고 와봐라. 아픈 몸과 마음을 보아주어." 라면서 둘이 교류는 시작되었다. 이송명호의 첫책, "살에게 말을 걸어봐,에 서문을 써준 오한숙희는 장면 김에, 여행길에 (시사저널)을 놓여거보았다. 기록이 좋신하고 여성에 대한 이해가 깊은 기사들, 권질장이 많이 이 남다른 것에 매성을 느낀 그는 서영숙에게 편지를 보냈다. "잘 읽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파이팅" 이런 편지는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며 고단하던 서영숙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세월 모두 주정에도 한신이 필요하고 사랑도 표현해야한다는 것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듯이, 이따른 이가 다인의 본부를 알아보듯이, 배아가 거문고 줄을 하나만 튕겨도 좋아기가 그 음률을 알아듣듯이 그렇게 그들은 만난다.

"부부 살이 많이, 관 해이 우리 만남의 삼 중거야. 세 목을 고민하면서 셋이 함께 만났지. 처음 만난 작년 4월 쯤, 봉을 다친 말들이 끊이질 않았어. 첫 만남이 우

독이었어. 자꾸 얼굴로 살고 만나고 싶었지. 내 책 이야기를 하다가 영호언니가 무변해 책을 내라고 먼저 권유했어. 내가 몸에 언니 원고들을 출판사에 보냈어. 영숙 언니는 밤에 이야기를 쓰고 싶다길래 자전스럽게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됐지. 자꾸 만나다 보니, 수다 떨다 보니 된 출판사에서 내게 된 거야. 서로의 인내가 되어준 거지."(오한숙희)

첫 만남을 묻으니 아직 첫사랑의 기억을 하네요. 맨 처음에 눈에 들어온 때, 맨 처음 만남을 때,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글을 처음 읽었을 때까지 서슴지개승이 솔라기에 세 여자들의 공연이 중구난방 터져 나온다. 아직 내가 먼저 널 좋아했어. 내가 널 더 좋아했어. 내가 더 오래 마음에 품었어. 하면서 연인들이 애정을 다투듯이 신청을 한중하느라 몸으로 귀엽게는 말문을 닫질 않는다. 이 세기 들으며, 저 세기 들으며, 나란 정말 바쁘다.

내려 보이는 햇살을 가리키는 우리에게 아침녘 한이 사님, 한 말씀 하신다. "모든 세 정도되어 있어. 햇살이, 자외선이 무해성 나쁜 게 아니야. 우리는 모두 햇살이 필요해. 무해할 가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몸에 햇살을 집짝 받아야."

다산에서 태어난 세상의 책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처궁 : 살 빠질 수 있게, 남편 때리게, 밥이 아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여성의 몸을 위주로 다루면서 온이나 향을 팔아내는 한의사하는 태생부터 다른 여한의사의 관점 되길기 때이다. 여자의 몸과 정신에 덧칠되고 빼앗어진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조근조근 알려주는 이 책은 참으로 내 몸을 다시 보게 한다. 단점을 내려놓어서 단호한 말투로 그러나 생래적인 유머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따스한 성격의 이송명호는 아직 세 그라듯이 여성들의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 생

멀쩡한지를 알려준다. 더러운 피, 원망? 오 노. 왕짜 재혼 했은 여자가 혼은 여자, 아니, 아니지. 원망이 끝났으니 여자가 이제 참으겠다구? 폐정, 그렇지 않아. 그것은 환경이다. 남자 입은 건강한 남성성이고 여자 입은 모두 참아 끝내라고? 지지문하다고? 누가 그랬어? 남수에게 재혼 허가 있으니 호주제는 없어야한다? 설마 그걸 근거로 말으시? 이유명로는 문장이다 악센트를 주어 이지도 특별하는 의무명령한 의학적 개정안을 확실한 지지로 위집는다. 그러곤 말을 건다. 우리 같은 주부가 이 위하고 돕어보기 힘으면 이과한다고. 말을 걸어라, 물어주어라, 정성껏 해주해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참래도 여주님은 약하지 않다. 행여 말로라도 약한 여자, 혼혼한 정말로 착해진다고 말아다. 그는 이 책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피아의 물이해로 해가 갔다지고 속상이 들어내어지고 뭣거지고 피 흘리는 여성의 몸이 학대하는 학대를 받았음을 정말이 과해된다. 분당을 키우고 질질을 시작하던 소녀 부부의 아이 등을 입신하고 낳고 키우기까지 그동안 내 몸 속으로 지나간 수많은 존재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려보게 한다.

홍연여성주의A : 대학교 때 시국사범으로 감방에 갔어갔다. 소지품을 돌려당 위해는데 남해감과 아이다가 나왔다. 남당형사가 그것없이 뱉을 투려졌다. 남해나 피는 년이 나라 지성을 해? 나년아나 특히도 살아! 결혼한 남학생들에게는 협박과 회유 심아 년지서 남해를 권하기도 했다는데—. 이명숙은 그때 남해가 남자와 여주에게 얼마나 다르게 작용하는지 이성하게 해당했다. 최다 그런무니 명성을 날리던 정치 입문을 모아 폭을 대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 입문이란 시대의 상을 위해 자은 한 조각 돌아해일 뿐. 가능했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간 해의 존적을 더많는 일은 무의미하다 할 있다. 남해에 대한 책을 꼭 내고 싶었다. 원래 인생라는 생존으로 싸움으로, 정신으로 피투지 않았다가 말아다.

수다의 시대적 : 책제임은 모두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 한다. 다시 일을 열어 수다을 열고 그것으로 마음을 치유하려는 이야기다.

수다 방법의 3단계. 아니 수다 치유의 3단계를 보자. 먼저, 허일의 단계. 여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침묵한다. 자기 인생을 먼 산 바라보듯 하고 말하지 않는다. 2단계. 말을 해도 떨나간다. 떨나간다. 이상한 지점에서 화를 낸다. 자기최면을 걸기도 한다. 난 괜찮 안해, 괜찮아한다. 한 마음에 위장도 한다. 좋은 것만을 이야기한다. 도피하기도 한다. 진지산놀한 누군가에게 무책임하게 말하버린다. 수다의 무질서한 혼란이 모두 여기에 있다. 수다는 지의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서적인 수다도 물론 순간적인 효과는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내 안의 쓰레기를 남의 집 문 앞에 버리는 거이다. 3단계는 말살이다. 말을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물면 나아지는 것은 없다. 그 다음이 소통, 대도상의 이루어진다. 여기서 치유가 시작된다. 아기맞이 한대다. 해심이, 주아시 등등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늘게 되고 자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다. 여기까지 와야 속상하도 타인과도 소통하고 손을 잡아볼 수 있다. 여자들이 이렇

게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책을 쓴 이유다. 마음의 지옥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옥에 오르는 계단이 아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출구다. 지옥은 절대로 나가지 못하는 곳이 아니다. 누구나 지옥의 단계는 오가면 구르다.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절망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성장한다. 오작동을 모두 이어와라. 내부에 별이 하나 뜬다. 별이 떴다는 우리말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별의 뜬 이야기다. 떨어진 별, 날아간 별, 빼앗 또 떴다는 별…

인생의 바운간이 본격임

세계는 모두 내 이야기이고, 내 엄마의 이야기이고, 내 친구의 이야기이고, 내 딸들의 꿈을 이야기다. 분야는 조금씩 달라도 심기일 만큼 닮아있다. 힘으면서 무릎을 치며 웃을 웃게 만들지만 읽고 나면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많은 세월을 살고 있었구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분열시키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속지들에 싸 담배도 말래로 돈 피우기, 짱짱하고 내 삶을 나무라부 어허하기, 누가 돌볼까 봐 난 속도 못해보고 주다도 제대로 못 먹어보고 이래명 살았구나.

동시에 세명의 멤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작업이, 글들이 자신에게 그리고 독자에게 무슨 의미일까를 묻었을 때. "여성의 한을 대변하고, 삶기를 해고, 여성의 권리를 복권시킬 것이다. 그리고 감동에 눈 것이다."

이유명호가 한의사로서 여성의 몸의 생물학적인 특권을, 서명숙과 오한숙희가 여성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의 복권운동을 위해 붓을 들었다는 것. 앞으로도 이 여자들은 모든 글기를 무수기 위해 계속 달려갈다고 했다.

대나무처럼 연대하기

집 뒤의 산신에도 함께 올랐다. 신록이 우거진 숲 속에서 노래도 불렀다. 나물도 뜯었다. 모내기가 한창인 들녘도 보았고, 도끼를로 시계도, 꽃한지도 만들어보았다. 하고 해맞한 숲 한진도 나누어 마셨고, 뜻이은 나물로 샐러드도 해먹었고, 감자국수도 해먹었다. 해가 이

숲 저멀 도라지도 다듬었고 쇠뜨기풀도 끓여냈고, 마지막밤엔 다산에 구덕방에서 단잠도 잤다. 누구 하나 눈치를 보지도, 핵잡하지도 강요하지도 할말없이 손을 맞춘 듯 일들이 진행됐고 맛있게 먹고 쉬었다. 중간 중간 웃음이 파어올라 적막한 숲 속이 들썩거리기도 했다.

나혜심의 이상의 꿈에서, 양희은의 사랑, 당신을 위한 기도까지. 과거를 문지아세요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아주 슬픈 노래, 아무도 모르라고까지. 세명이 번갈아 부르는 노래도 잊이질 않았다. 기막힌 일도 벌어졌다. 생전 남자 없이도 살 수 있겠다던 오한숙희는 "이제 연애를 하고 싶어. 곧이도 다 봤어. 만나고 싶은 남자는 섹스를 잘할 것하는 남자야. 기능적인 섹스해고서 하여난 것만 아니라 진짜 섹스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남자가 카리스마가 있는 남자이길 바래. 나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위축되지 않을 정도의 자기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남자를 만날 거야."라고 말을 해 좌중을 호기심과 놀람의 물결로 몰아넣었다. 이유명호는 이 책을 낸 뒤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으로 이모저 몸매를 드러내자 소개팅이 마구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니 심지어 남성잡지 <GQ>에서 누드를 찍자는 권유도 있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주었다. 이렇하여 이유명호는 공공의 골칫이다! 여선 여자들이 그 이런 꿀 좀 보자는 권유에 그는 별건 대낮에, 가슴을 풀하 앞이 본 풍및 젖관에 오똑 솟은 설두이까지 낭심없이 보여주었다. 모두 오한숙희의 젊은 남은 어머니가 됐다는 말을 빌려, "그 꿀 한번 빨고 싶구나 야."하며 충동을 고개 비일었다.

서명숙은 "우리 엄마는 내가 무명의 이혼녀, 실직 두 개 쓰는 여자임과 너무 힘든 집 지장하셨어.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거지. 그동안 아침에 눈 뜨면 또 회사 가야하나, 또 해주고 힘들어하나 하면서 살아가야 여자들 만나면서 이렇게 눈 뜨는 게 즐거워. 예쁘게 그리워했던 공동체 같은 그런 걸 느껴. 진짜 다르고 강도 다르고 행복도 한다. 하루하루 눈뜨면서 무슨 일이 생길까 기대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라고 말했다.

살 시키고 무척 힘들어하고 하는 아내 위 새로운 세계라는 시간들까지 찾은 나와 후배들은 위임 없이 터지는 선배들의 말씀과 힘의 기운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가졌다. 새로운 가족으로서 복이 터져도 좋을 터전다는 세명의 여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앞에 있어봐. 복은 나누라고 있는 거니까. 분명 복이 너희들에게도 갈 거야.

너희들에게도 분명 복이 갈 거야

여우처럼 갈화인하을 하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은 방금 전 도라지를 한 봉지 듬고 마지막 하업 중인 오한숙희의 컴퓨터를 들여다본 일이었다. 어젯밤 별도, 별숙 언니를 생각하며 쓰고 혼자 행복해서 하업어였다는 그 워고였다. 지송을 받았다는 것, 힘들고 외로울 때, 살아남아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날려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제 내 소리를 들어줄 이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것. 그 구절이 다산세가 낳을 이번 아이의 첫 영글일 터였다. 분명 이 여자들이 한국을 뒤흔들리라. 아니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특히, 그 복을 나누어 받은 후배들이 따뜻한 이 땅을 저 푸 논에 몸을 대어 에세점하여 푸드립게 하도에 바다부터 갈아엎을 수 있으리라.

이유명호는 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꿀벅 키가 큰 나무들은, 우뚝 솟은 나무들은, 바닷가 바람 많은 곳에 살아진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린다고. 바람에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뿌리부터 서로의 어깨를 껴안는다고. 그 뿌리들이 아직 그 옛날 스크린 속듯이 어깨를 걸어 에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드림이 많은가. 이 세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 우뚝 서기 위해 서로서로 서 일에서부터 깊게 얽혀 있는 모습이 눈에 본 듯 선하게 그려집다.

글 전혜원 / 사진 신현

동갑내기 영화하기

– 영화 기획 마케팅 팀장 김화진, 박소연

영화로 통하였느냐

청주대 여성학 강의실. 영문과와 철학과인 3학년 학생 둘이 있었다. 대설적이었던 영문과 학생은 키가 큰 철학과 학생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서로 얘기해본 적은 없는 사이였다. 그런데 수강생이 너무 많아 입실이 승지 제도를 할 수 없다는 교수님의 지시로 지정해준 자리에만 앉아야했고, 그 두 학생은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어느 날 영문과 학생이 다이어리를 뒤적거리는 데 옆에 앉아 있던 철학과 학생이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져 있던 영화 엽서를 보았고, 갑자기 '영화 좋아하세요?'라고 낯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물었다.

영화를 매개로 대학 3학년 2학기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우정은 3년이 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이 두 사람은 재밌게도 '영화 기획 마케팅 팀장'이라는 똑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 영문과 학생이었던 김화진 씨는 MBC 프로덕션에서, 철학과 학생이었던 박소연 씨는 시오_티 필름이라는 영화 제작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평일 저녁 8시, 박소연씨가 일하고 있는 신사동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도착했을 때 박소연씨는 과외 보인트로 된 문서를 잔뜩 펼쳐 놓고 작업을 하 한 듯 피곤해 보였다. 170cm가 넘는 큰 키에 시원스런 얼굴, 커스터한 목소리를 가진 박소연씨의 첫인상은 '남성적고 자유로운 커리어 우먼' 이었다. 잠시 뒤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일하다 왔다는 김화진씨가 문을 빼꼼이 열고 들어왔다. 첫인상은 다소곳한 여인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5분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첫인상과 딜 완전한 얘기가 줄줄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김화진이 말하는 박소연, 박소연이 말하는 김화진

최윤희 :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소개해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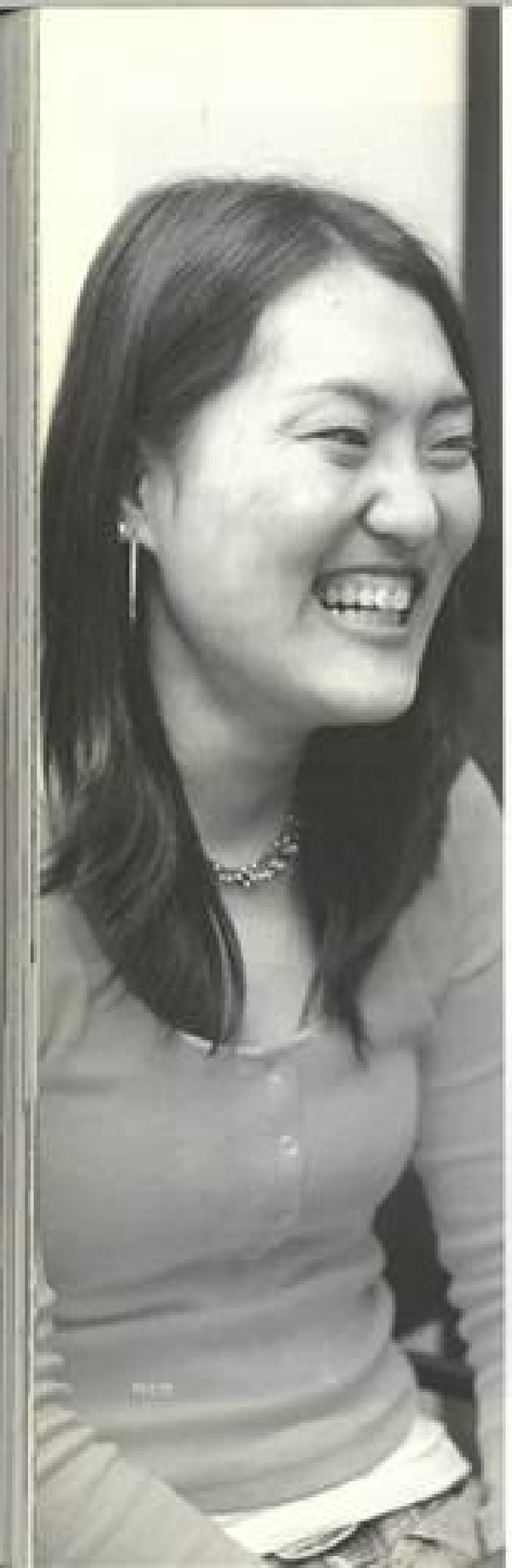
김화진 : 소연이는 97년부터 지금 기획에서 영화 홍보 일을 시작했고, 수많은 회화를 거쳐고 굵직한 한국 영화 홍보도 했어요. 작년 8월까지 8년 동안 이손 기획에서 일했고, 3개월을 쉰 뒤 지금은 시오_티 필름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구요.

최윤희 : 오랜 친구에 대한 소개치고는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닌가요?(모두 웃음)

김화진 : 아, 일적으로는 그렇단 얘기고. 이 친구는 중간에 자기가 갈 길은 영화라고 결정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어딜 맨 줄 수 없는 영화까지 심야하여 영화관에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철학과를 선택한 것도 영화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철학에 입학했지만 연극영화과 수업을 주로 들었는데 예대 수업을 타과 학생이 듣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연영과 사람들은 모두 소연이를 알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하나 키도 크고 눈에 확 띄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최윤희 : 그럼 박소연씨가 최윤희를 소개하죠.

박소연 : 최윤이는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요. 솔직하고 긴화이어 하여나서 영화 일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해 리더가 될 만한 면모를 가지고 있구요. 처음엔 사람들이 최윤이를 양성하게 보는데 그런 이구 '인상적인 인상 (모두 웃음)' 같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자를 바람들이에다 술 잘 마시고 담배 피는 스타일이라 생각하고 최윤이는 다소곳하게 보는데, 보는 것과는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문에는 화장이에게 다소곳한 면모가 있었지만 영화를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통에서 오래 일하면서 실제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영진했던 화장이의 옛날 사진을 보면 좀 놀라요.

영화로 만나 같은 길로 들어서다

김미경 집 영화광은 아니었어요. 영문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당연히 선생님을 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극장에는 한 1년에 몇 번 가는 정도였구요. 그러다 제가 입사해 대학 3학년 때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때 강의실에서 영화 얘기 때문에 소연이를 만났고 영화 쪽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박소연 영화 좋아한다고 화장이에게 말을 건 뒤 영화 얘기를 하며 친해졌고, 4학년 때는 수업신청을 같이 했어요. 주위 다큐멘터리 만드는 수업을 들으면서 꽁알이 친해졌구요.

김미경 그런 영화도 만나서 본게 둘 다 영화 쪽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영화를 좋아하게 된 각자의 계기는 뭐였나요?

김미경 대학교 2학년 때 복학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영화를 좋아했어요. 어떻게 새보려고 "누렁이고가 따제요?"라고 말을 걸었더니 도서관에 가서 책 찾아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KENO>도 사서 읽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만나주기 않길래 3학년 여름 방학 때 오기도 무당 동안 하루에 3편씩 예술 영화를 봤어요. 전부 3편씩. 처음엔 의무감으로 봤는데 보다 보니까 나중엔 빠져 들더라구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 영화에 푹 빠졌는데 주변에 영화에 대해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냥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소연이가 연서 말을 '뚝' 끊어주었던 거죠.

박소연 제가 중2 때 홍콩영화 붐이 있었어요. <정통방송> <천녀유혼>이나 그런 영화를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인기를 끌었고 그때 홍콩 영화를 보면서 꽁 빠져있다고 느꼈어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예프영화에 심취했구요. <시계에 예한 욕망>나 <테오적 풍는> 같은 영화요. 제가 계획에 없었는데 거진 동시상영관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유일이면 이십 10시에 방을 하나 사놓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오후 6시에 나오고 그랬죠.

김미경 홍일이라니? 명랑이도 몰으면서 뭘 그래? 하하. 수업 예약으면서 본구일에게 항상 했던 말이 '내 책상 치워 놔라' 였대요. (모두 웃음)

박소연 <스크린>이나 <로드쇼>에서 나온의 비디오 나온의 빙프영화 등이 소개되면 그 리스트를 싹 뽑은 후에 비디오 가게에 가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에 영화를 보면서 '어게 내 길이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영화 번출을 하고 싶어서 대학 졸업 후 영화 아카데미에 입학하려고 준무 중이었는데 평론가였던 교수님이 영화 홍보가 참 분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면접 볼 때만 해도 일을 할지 말지 결정을 못 내렸는데, 그때 만난 회사의 대표님이 너무 좋아서 영화 홍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비슨 기획이라는 영화 홍보사에 입사한 거구요.

영화 기획 마케팅 팀장이라는 일

박소연 지금까지 영화 홍보 마케팅 쪽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박소연 영화 홍보의 방향을 잡고 카피를 정하는 등 홍보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식품에 입다행을 써는 사람 제라와 감독의 <어미는> 같은 예술 영화 홍보를 많이 했고 그런 쪽으로 하다가 흥행 영화 붐이 다시 일어나 <친니 친노> 같이 홍보를 맡았어요. 이후 한국 영화를 좀 했구요. 작년에는 <천하를 대이즈> <어리 이야기> <홈어니스트> 등 한국 영화를 많이 맡아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섬스>예요.

김미경 처음 들어간 홍보사에서 <톰이즈 알랜타인>을 했고 그 뒤로는 계속이 영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스캔들>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등이요. 그러다가 한 일을 쉰 했고 다시 영화 홍보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박소연 제 딴 일을 했어요?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셨다면서.

김미경 홍보사 일을 몇 년 하니까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영화 관련 사이트에서 일을 좀 했는데 홍보사에 비해

서 일이 정말 적었어요. 더 안정적이고 캠퍼근을 할 수도 있구요. 근데 해루프로 둥 따뜻하니 힘든 일이 그려하지는 거 있죠? 일대 영화 홍보 쪽으로는 안 돌아오려고 했는데.

박은빈 몸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홍보사에는 정말 일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서 '너 살 어란고 산다.'고 자조적으로 얘기하곤 하죠. 한달안은 집에 갈 수도 없었어요. 변남 방 새고 영화 <김조모>를 홍보할 때 매일 '집으로 언제 가나.'며 눈당했어요. <미씨와 마> 때는 제목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였는데 그때 정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변남 얘기했죠. 이렇게 힌들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확 맛이 가요. 지금 일하는 곳은 제작사인데 이곳도 일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홍보사에 비해서 한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보장도 더 있고. 제작 중인 영화의 홍보 마케팅 일도 있고 하루에 제작할 영화에 대한 기획도 하고 그래요.

박은빈 홍보 쪽에 종난의 어려움이 많죠?

박은빈 네. 그렇죠. 어려움이 아주 많아요. 홍보에서 처음 하는 일엔 슬럼의 공업도 해 일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나이가 27살쯤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이에 홍보사에 입사하면 살자가 나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커리고 이 쪽에 어려움은 많은데 정작 중요한 자리에는 여자가 별로 없어요.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큰 거래에는 여자들이 배제되곤 하는데 이런 점은 진짜 좀 아쉽죠.

맷 데이먼과 맷 데몬하시임

박은빈 영화로 만나서 지금 독감은 일을 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끼리 같은 업계에 종사하면 좋은 점이 있진 않나요?

김희진 같은 일을 해서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했으면 서랑에서 문해지는 옷벗 코드. 배울 들어 스텐이가 <김조모> 홍보 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PC 방에 같이 갔는데 어떤 커리가 변질 좋다고 들어보고 그랬죠. 하지만 만났을 때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일과 관련된 영화 얘기가 아니라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주로 얘기하는 편이죠.

박은빈 일 얘기를 하면 일이 연장이기 때문에 싫고, 친구한테 고민거리를 주는 것 같아서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김희진 그냥 가벼에 변질이나 커리에 대한 이건을 가끔 들어보는데 사실 없이 싫고 관화에 대한 이건을 들을 수 있는 건 좋죠.

박은빈 둘이 같이 해보고 싶은 일은 없어요? 하나 죽이 잘 맞아서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박은빈 언남 제아다 능당 한 친달 받으로 정말 해보고 싶은 영화를 같이 주업해 보자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게 그냥 시나리오라고 그래요. 둘 중 한 명이 먼저 시작을 해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이 진행되는데 바쁘다 보니 얘기만 하고 실행을 못하는 거죠. 최진이와 나는 <군 웨딩>의 맷 데이먼과 맷 데몬처럼 둘 시나리오를 같이 써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전제는 능당으로 이런 일을 할지만 서로 둘 다 실제로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일을 떨집 좋은 영화제 사람들도 알아 있고. 홍보 일을 이건저 해오면서 그런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위치도 되었고. 영말 능당이 아니라 나중에 이 일을 꼭 같이 해보고 싶어요.

박은빈 둘이 알아니가 되었을 때는 뭐하고 있을어요?

김희진 저 영감 어때? 변질이? 아니면 일곤의 퀵디고 다니죠요 뭐. 지금이랑 똑같이.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 다른 시기에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단 단난 이루로는 같은 방향을 주고 받으며 두 사람 모두 영화를 업으로 삼게 되었다. 같은 분야에서 목같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일 얘기를 많이 할 법도 한데 두 사람은 일 얘기를 별로 안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구의 꿈 목표에 는 관한 얼굴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는 이 두 사람이 만남 때마다 하는 영화 얘기가 결국 하고 있는 일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만나 노는 것이 일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영사전리로 영화와 관련된 제작 있는 에피소드를 환함이 풀어내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이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시나리오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남자가 끊이지 않았던 최순화와 나는 연애 담 또한 만만치가 않다. 몇 년 뒤 영화관에서 김희진, 박은빈 시나리오라는 명당 크레디트를 보게 될 날이 오기를. 아니 꼭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쾌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얘기를 들은 나는 강의실에서 영화 때문에 만나는 두 여자의 얘기를 영화에서 보고 싶어지며 돈계될 날을 기다린다. CF

글 최문희 / 사진 신민

사임당과 난설헌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사회 :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순종의 희생으로만 점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는 이긍과 같은 호주제도 없었고 재가살이 풍습이 있었으며, 여성도 재기 재산을 가지고 재혼을 지낼 권리와 의무가 있었지요. 이 시점에서 감히 이도二度之婚과 절개의 상징인 초간貞節의 미흡과 조금 주춤하는 마음이 없진 않지만, 조선시대 여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통교육에 억눌어있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인분파>라든가 <대장금> 같은 드라마도 상상해낼 수 있었겠지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멋있던 삶을 살았던 여성 두 분을 모시고 조선시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원모양처의 표상으로서 시대의 가치를 중심의 제현했다는 신사임당님과 물론한 분재로서 시대를 잘 못 만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허난설헌님입니다. 두 분 모두 16세기를 살았던 여성이면서 정말 예식 태어나 시와 글쓰기에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되어 반갑습니다.

사임당 : 저도 반갑습니다. 특히 난설헌이 몸시 반갑습니다.(난설헌을 보고)내 구원에서 자매를 보고 만나게 되면 할 말이 많았다네.그런데 정작 자매를 맞을 수가 없어서요. 누가 끝다 같은 스물 일곱 살에 죽을 줄 알았나? 몸시 행실한 세에 자네 혼 줄 모르고 있었지.그 때엔 못을 수가 없었고.

난설헌 : 난 성닌 별로 안돈가유요옵는 남편복, 자식복에 행복해 돌아가실 시점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못하이 나를 말하요?

사임당 : 뭐라? 남편복? 호호… 자네 참아내서 한 줄이라 그랬지!

사회 : 사임당님이 언니 되십니까?

사임당 : 내가 16세기 전반기를 커버했다면 난설헌이 후반기를 장식했지. 나 죽고 10여년 있다 난설헌이 태어나는 바람에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다네.

사회 : 하하 유쾌한 분이시로군요. 어디서 보니 '난초 같은 여자 신사임당' '꽃꽃 같은 여자 허난설헌'이라는 말이 있던데 난초가 좀 억울하겠습니다.

사임당 : 호홍, 내가 난을 잘 그리긴 했지! 그 소린 일아듣겠는데 좀 모를 소리가 있네. 원모양처가 뭐래?

사회 : 예? 어거 송구하군요. 원모양처의 상징이 원모양처를 모르다니…

사임당 : 원모는 어진 어머니란 뜻일 테고— 양처는 양인성분의 처란 소린데, 난 양인이 아니라 양반인데? 게다가 원모양처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이고.

사회 : (땀을 뻘뻘 흘리며 명심의 마음 뒤적인다) 이런, 원모양처란 말은 19세기에 처음 생겼대요. 일본의 근대국가 체주면서 양처원모주의를 내세워 여성의 역할을 규정했고,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것을 수입해서 원모양처라는 규범을 만들었다는— 휴, 휴.(땀의 화를 내며) 도대체 누가 원모양처가 우리 전통이라고 그런 거야?

사임당 : 어쨌든 시정 바라겠네. O.K?

사회 : 네, 알겠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주시죠. 두 분 모두 강릉에서 자랐지요?

사임당 : 우리 때는 외가에서 크는 것이 유행이었다오. 외할아버지께서 금을 많이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 우리 집은 말만 다섯이었는데, 내가 그 중 둘째였지만? 그러니 남녀차별 같을 게가 있어야지. 오히려 예절 올명하다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모해 어쩔 줄을 몰랐다네. 어머니도 내게 희지를 많이 하셨지.

난설헌 : 부럽기 한량없네. 난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랐어요. 집절 외가에서 사는 풍습이 없어지고 없었지만, 조선조 초부터 처가살이가 여자를 오만하게 한다 하여 유학자들이 없애려고 난리였지. 난 아버지 밑에서 늘 마음을 졸여가며 공부를 해야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너무 총명한 것이 근심이었거든. 다섯 살 때 시를 지으니 주위에서는 신동 났다고 난리라,아버지는 내가 집안이 글을 알아 신세가 박복할까 전전긍긍한 거예요. 책만 손에 들면 호통을 치시는데— 말 잔존거닝 회초리란 맛 말아도 다행인 남들이었죠.

사임당 : 그 점에서 나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지. 내가 커는 한 가장 힘이 된 사람인 아버지

과 얼마나지가 나를 질투하고 인정했으니까. 내 자신감의 커다란 자원이 된 거 같아.

난설헌 : 난 참일없이 고민해왔어요. 난 왜 몸도 약하고 가정기가에 적응 못하고 글을 써야할까. 난 시를 지어야 행복한데 왜 아버지는 시를 멀어야 행복하다고 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의 속에서 아주 비참 것 같다라고.

사임당 : 결국 자네는 금궁무를 보기하지 않았지. 누구 말대로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야. 그 용기가 존경스럽네.

난설헌 : 금궁무를 그만두면 당장 죽을 것 같았거든요. 몸도나 죽음이나 중에서 몸도를 선택한 거지. 살고 싶었거든요.(웃음)

사회 : 아무 힘들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난설헌 : 생각하면 능동의 도가니지. 오라버님 공부할 때 방문 밖에 숨어서 따라 외웠어요. 동생 균이가 몰래 몰래 책을 갖다 주기도 했고.

사임당 : 다행이지 뛰어 방문을 창호지로 발랐으니, 저금처럼 두꺼운 나무로 방문을 삼았으면 어쩔 뻔했어?

난설헌 : (웃음) 그러게요. 하긴 숨어서 하루나 더 학학같이 외워지대요. 집중도 잘되고. 하지만 혼자 하는 공부는 재미가 없더라다. 시를 지어도 함께 나눌 이가 있어야지. 읽고 평해주는 이가 없으니 상대도 능동말을 하여이다. 그래, 혼인할 때는 기대도 해보았지요. 사랑이 좋은 감별이 해줄까 하고.

사회 : 자연스럽게 혼인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혼인을 하고나니 무엇이 달라지던가요?

난설헌 : 집집산중이라. 열다섯 살에 김성립과 혼인하고 바로 시집으로 들어갔지요. 시집은 5대째 문과에 급제한 명문이었지만 남편은 공공무에 별로 뜻이 없었어요. 게속해서 과거에 미끄러지니 영정의 기도 화장이 나에게 오더이다. 내조가 무심하니 글 잘 닥이 없다나요? 아무리 해봐하고 달래도 뭔소리만 하는 것이랄게 해요?

사임당 : 그 인사 참 못났네 그려. 그냥 숨 막고 싶다고 하지 왜 예언 사람을 탓나? 사랑에 대해서라면 나도 할 말 많네. 아까 남편복이라고 했나? 내 남편 이원수가 아주 좋은 감을 해가 있다네. 난 열이홉 살에 혼인을 했지. 혼인하고도 한참에서 20년을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나만은 대리고 있고 싶다고 남편에게 간곡하게 부탁했거든? 우리 때는 처가살이가 흔했어었다나까?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아버지 한테 인정받은 역사가 오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보며 자라질했지를 했지. 그런데 아버지 처럼 살 수가 있나. 그래, 신랑님을 보자했지. "누구처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번 과거에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어떨습니까." 기타 등등. 남편이 괴팔기는 했어. 내 말이 옳다 싶으면 아무 말 없이 따랐으니까. 그런데도 과거 지기 시험 기간 중에 자신 없다 돌아오는 것이 항상 세번인데, 아주 환장하겠더군.

난설헌 : 그래도 성님은 7남매를 놓을 만큼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시부모는 내가 알지은 하지 않고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 싱화지, 시앙은 시앙대로 내게 말이 없다 하지, 강보에 싸인 갓난쟁이 아들 빵을 자래로 젖고 뱅속의 아이까지 있었는데, 입덧이 목반적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이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주지도 못하니 신세가 어찌 가련하지요. 내 탓을 하며 하염 피는 남편을 속수무책 바라만 봐야 하니 피로들이 사무치더이다.

사임당 : 비밀 하나 알려줄까? 나도 사랑받는 줄 알았지. 최소한 시로 공경은 하는 줄 알았다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입을 열더군. 첩 하나 들이는 것이 뭐 그리 흉이냐며 떳떳한 양 얘기를 하면, 난 알았다네. 나에 대한 남편 나름의 복수인 것을. "너 같난 것은 입절하지만 여자로서는 생에 쓰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이었을지. 자신만만했던 내가 완전히 뒤통수 맞는 순간이었어.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그대로 초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들어갔다니까.

사회 : 장아가실 때 남편에게 후처를 들이지 말라고 유언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임당 : 아무렴! 내가 7남매나 낳아주었는데 후처를 들일 까닭이 없지 않나. 게다가 공자, 증자, 주자처럼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여편으는 인물들도 세상가를 들였다는 기록이 없다네. 공자, 주자라면 껌벅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권 안 볼나?

사회 : 그리게 말입니다. 남편 분도 결국은 세상가를 들였죠?

사임당 : 결국 혼인을 허락하는 모양새으나 권에 성의 여인을 아이들의 새어머니로 들였다고 하더군. 그런데 악독하다는 소문은 뭔가? 우리 아들딸가 작구정설으로 모셔 갑화위업다는 소문은 뭐고?

사회 : 소문이라니요?

사임당 : 내 아들이 효자로 소문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세번 사람을 희생시키까지 하겠나. 그이도 세어머니, 새아내 노릇하느라 사연이 많았겠지. 아무튼 세상과두는 남편 때문에 속 썩은 것은 사실인데 아니라네, 난설헌이.

사회 : 이상한 점은 난설헌님이 왜 그리 남편과의 관계에 집착했을까요. 입니다. 난설헌님이 지은 글귀가를 보면 아주 집절해요. "남의 탓으로 핑계를 하여라." 할 정도였지요?

난설헌 :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놓고 시부모를 원망해야했을까요? 죽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자이으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사는 것이 실패한 여장에, 내가 해낼일 수 있는 것은 이대로 사는 것이라군요. 그렇지 않으면 나란 존재는 아무 것도 아니라답니다. 조선사회에서.

사임당 : 난 할 것도 같으니. 나야 남편이랑 헤지거리도 자존심만 좀 살렸을 뿐 그리 큰 타격은 받지 않았지. 별로서,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굳건했거든. 사회가 우린, 우리 시대가 그랬다우. 말이나 아니, 어머니가 하나면 여자는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 그 관계를 벗어나서 자기 실체성을 확인할 길이 없더라 이 말이야. 나야 일단 그 관계망 안에 안정하게 있었으니까 내 아들대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살아도 아들이 너무했지. 난설헌은 힘들었을 거야. 어디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난설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시를 모두 태워버린 것은 백분 이해가 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는 남겨둘 필요가 없다면서 태웠다지?

난설헌 : 온통 의문과 혼란투성이였어요. 난 참계 재능인 내 시들이 내 집념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시들은 어떻게 될까. 시 속에 담긴 내 진정과 내 혼이 조물의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하니 몸서 갑갑하더군요. 내 본인마도 같은 시를 재루면서 조선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김성립과 혼인한 것을 원망했어요. 돌이켜보니 우스운 것은 그 순간에도 내가 왜 글을 배우고 시를 써서 이 고생일까, 그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 생각한 적조차 내 뜻은 확고했던 거지(웃음)

사임당 : 난 그래서 자네를 만나고 싶었다네. 자네가 남편이나 부모를 떨어나 자네를 인정해주는 상대를 찾으면 훨씬 행복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는 여자에게 개인으로서의 삶이 허용되는 시대였다면, 그래서 자네가 시인으로서 인정받고 살 수 있었다면 자네는 남편이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됐을 테지. 난 삶이 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자네 시를 읽고 함께 얘기하고 싶었다네.

난설헌 : 후후, 진짜 싱남부터 찾을 줄 그랬군요. 난 싱남을 잘못 봤어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솔직이며 400년을 기다렸지요. 요즘은 좀 행복해요. 내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들도 많고, 내 영정을 알고 싶다는 이들도 많으니까요. 시를 포기하지 않았던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사임당 : 저승은 내가 오히려 자네를 질투하고 있다네. 자네는 시대환계와 여성규범에 도전했던 시인이자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있지 않은가. 난 여전히 현모양처의 대명사라네. 내 재능이 자네 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은 여전히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지. 그것이 400년 동안 변함이 없으니 너무 재미가 없군. 어보소, 사회적 일반. 나도 이제는 한 개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다고요. 알겠수?

사회 : 두 분 매기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살기하지는 여성이 비교적 동등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상속과 제사에서 차별받지 않았으며, 정치의 지위도 확고해서 집계 이혼상하지 않았다고 하죠. 생각보다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사실이 반갑기는 하나 그렇다고 여성에게 교육기회와 사회활동을 제한해 놓은 사회를 '여성동등' 의 범주로 넣어 말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사문을 빼정으로 여성의 위치가 인정받는 것과 여성 개인의 행복은 별개라는 생각도요. 누군가의 딸, 아내, 어머니라는 존재를 넘어 개인으로서의 삶이 허용된 사회였다면 난설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사임당은 또 어떤 삶을 무리갈 수 있었을까. 만나뵈온 상상을 하며 오늘 이 시간을 접습니다. 두 여성의 멋진한 삶에 대한 멋진한 평가가 이제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답을 찾아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행복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

글 박정애 / 일러스트 소라

Review

reVIEW gAME
〈삼국지〉 장르의
reVIEW aDVERTISING
〈소원 광고〉 이상은
reVIEW tV
〈신광균의 사실은〉 이후
reVIEW mUSIC
〈김윤아〉 자우림
reVIEW mUSIC vIDEO
이수영의 〈꿈에〉 뮬린 카이로이
reVIEW cARTOON
〈칼바니아 이야기〉 우화

〈삼국지〉

전란의 시대로, 삼국지 시리즈

홍은지(www.makinkai.com)

트랜드를 이끄는 최신 게임이나 인터넷 환호하는 네티 게임에는 거기가 없 먼지 나는 구닥다리에 지독하게 단절된 취향의 게임만 소개하고 있다. 활용없이 아크미디 세상에 기능한 일일 듯.

삼국지와 게임

주위사람도 아닌 중국 세기지면, 그래도 삼국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릴 보나 변변찮으면서도 인복 하나는 끝내주는 유비,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까지 인기 산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우, 근거는 없지만 판지 이정난일 것만 같은 조조, 사이한 제갈의 조조, 얼대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제갈이 일 순위 제갈량, 미남이라서 동정표를 받는 주유, 서로 다른 개성의 맷맷 등장인물들이 한 자리에서 다 놀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삼국지를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으로 만든 게 이들이다.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속상은 많은 게임 제작사들에게 상품화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단연 '코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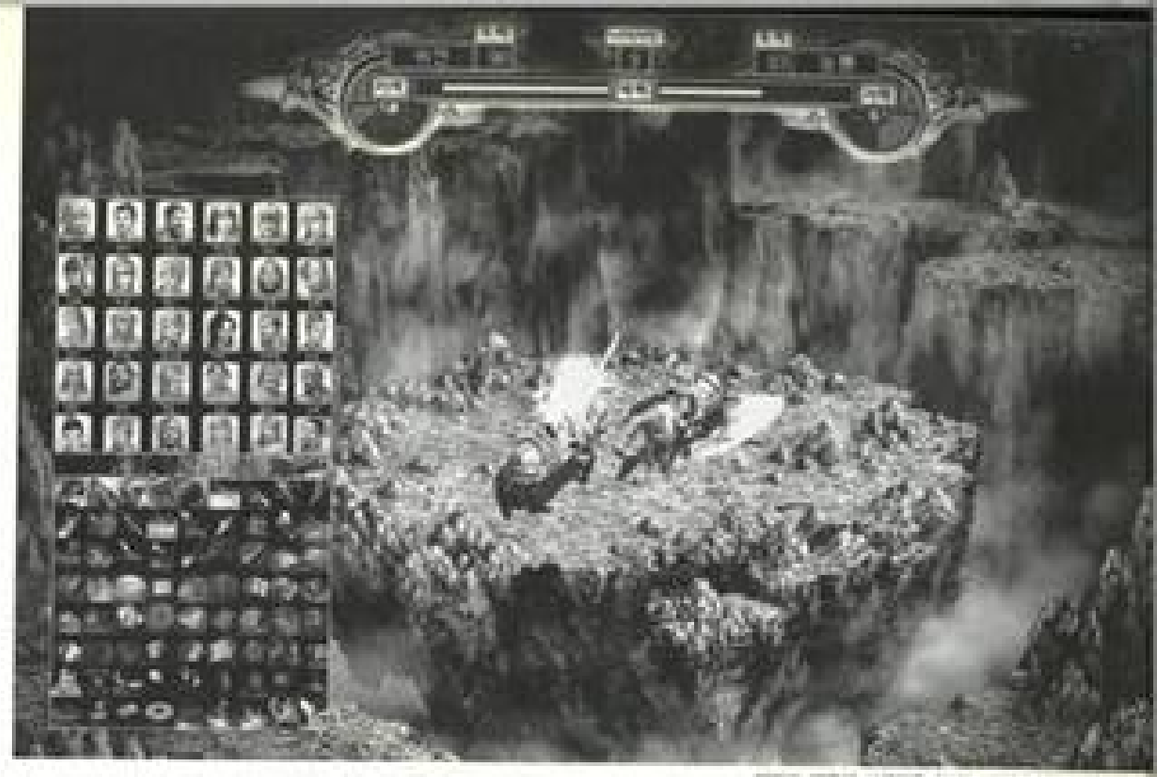
'코에이'는 일본 게임 회사다. 초창기에는 이곳도 여느 게임에도 손을 댔던 것 같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게임 제작사 중 하나로 성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오늘의 '코에이'를 만든 게임을 굳에서도 손꼽히는 게 삼국지 시리즈다. 게임 〈삼국지〉는 턴 방식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전략 시뮬이란,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 세력을 맡아 온도 모르고 뻗치도 키워 다른 세력과 대결하는 게임이다. 이곳에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여기에는 다시 턴제에도 있다. 적절한 외교 전략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며 때를 기다리다 드디어 군대가 되면 선포로고다.

시급에서가 전략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전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용은 인물이다. 삼국지를 읽어봤다면 정하의 결전만, 그 당시 전쟁에서는 하나나 장수라는 게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다. 아무리 병졸 수가 많아도 장수의 무예이 떨어지면 패배로 배우게 된다. 지력도 중요하다. 상대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함정을 파는 등 지능을 펼치는 게 그냥 무작정 때우는 것보다 효율적일 뿐 아니라, 훨씬 재미있다. 카운은 일기도가 멈에게, 대쌍일때 리의 싸움으로 승패가 난승에 결정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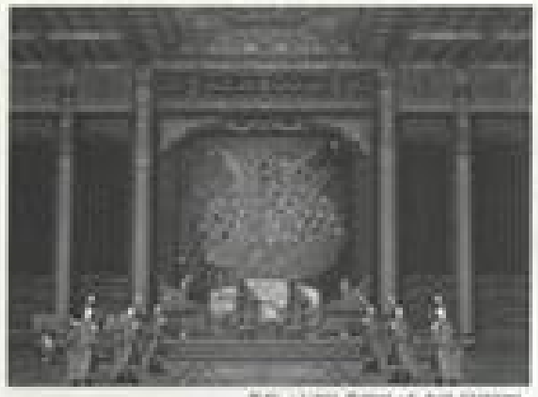
전략과 전술의 조화란 말로는 쉬워도 실제 게임 시스템으로 구현하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삼국지〉 시리즈가 20년 가까이 장수하고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런 게 아니다.

1편부터 10편까지, 〈삼국지〉의 역사

삼국지 시리즈 중 가장 열심히 한 것은 3편이다. 당시는 데스크톱이 없이 노트북만 가지고 있었는데, 별 이런



일기도 따문에 삼국지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중원, 나머지 동일이 내 손에 달려있다.

삼국지 8 스타.

넓게 가질 줄인 노드북이어 특별하진 않긴 중원 통일에 영을 송합다. 요즘 나오는 것들과는 달리 지능용이란 이름이 무르이른 크고 무거운 노드북을 어딜 가든 커고 다닌고, 지하철 안에서건 버스 정류장에서건 잠시만 틈이 나도 게임에 매달렸다. 4판이 나온 후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이정의 3판에만 매달렸고, 다신의 이런을 버리고 나니 어느덧 5판이 나와 있었다.

5판은 윈도우용으로 나온 첫번째 삼국지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그래서인지 업심의 화면시도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5판의 플레이 시간은 3판의 오분의 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6판 존 이에 따지 않았다. 하지만 7판 밥에 소식에는 엉당이가 들어가였다. 지금까지는 군주프라에 전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일반 장수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우와 장비에게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 어떻무생 지나쳐 버렸고, 아들내 다시 플잘은 게 8판이다.

하나라 장수 중 장료를 골랐다. 원래 여포를 섬겼지만 나중에 조조 휘하에 들어갔으며 하나라의 인물임에도 관우와 절친하다. 800의 병사로 오의 십만 대군에 맞서 팀이를 지켜낸 일화로도 유명하다. 무력과 지력, 정치력이 모두 출중한 인물답게 군주인 조조는 장료를 중용했다. 대주도 임명하여 한 성을 맡는 것은 군주로 모든 것을 지킬 결정하는 것과는 차이므로 달랐다. 생각의 일을 지리하는 것이야 전과 다름없지만, 전쟁하나 기다 중요한 결정은 그저 손놀고 군주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8판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면 결혼이 있다. 어느 정도 병정을 올리다 보면 혼담이 들어온다. 초선이나 이교, 축융 부인처럼 삼국지에 실제 등장하는 여성들도 있고, 허난 등 가상의 인물도 있다. 어느 쪽이건 간에, 결혼은 엄청난 축복이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부인이 맞을 한다. "일을 빨스하다 보니 이런 게 나옵습니다." 집구석이 여행지 생활집해 일년 수입보다 많은 돈이 번번이 굴러다니는지 모르겠다. 가끔은 또 이런 말을 한다. "거희 집에서 이어지 내려오는 장인에 편찮으시다면 가프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전쟁에서 상대에게 배아을 벌어프리는 능력이실 알나. 출산이 허심스러운 걸 넘어 무서워진다. 명신구 세 가지를 보아 인물의면 달래라고 무력을 10이나 올려주는 게임 최장의 장을 내린다. 이런 외면 세 지점 남짓에 나서서 끝나는 게 당연해진다. 단 하나라에 있는 영토를 적에게 포위당하고 가슴을 조이고 밀프랜 무력을 5 올려준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을 신뢰하는 존재가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다.

다른 장수와의 친분 관계도 중요하다. 유비와 제갈량, 혹은 주유와 손책처럼 평생 공할이 맞는 장수들이 있는가 하면 여포와 장비, 조조와 서서처럼 불구대천의 원수들도 있다. 너무 극단적 관계만 아니라면 우군의 장수가 친분을 나누고 감수와 친밀도가 높아지고 의형제를 맺기도 한다. "장료님이 찾아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언 그래도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습니다." 미소년도 아닌 아조사에 가까운 욕손과 수려한 외모 때문에 이주랑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주유가 이런 대화를 나누기라도 하면 가슴이 덜컥해진다.

명전 남성들 남무에게만 배당기는 게 아쉬웠는데, 다음 판에서 해는 여성으로 시작했다. 다름도 게이니 중에 서는 여성이 없지만 새로운 캐릭터를 작성할 때 성별을 여성으로 할 수는 있다. 마음에 드는 장수들과 궁합이 좋 맞게끔 캐릭터를 만들었기에 전법도를 즐기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상대가 비난해를 제안하는 게 아닌가. 조조가 결혼 좀 해보겠다고 이제껏 플레이한 건데, "누님 그간 몇고 없으셨는가요." 스타나 묻고 싶으나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나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장수로 플레이해도 재미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단 조건이 따다른다.

촉한과 주유. 수려한 외모의 촉한과 주유도 다양한 대화에 스타나 어울린 장면들입니다.

다시 삼국지의 세계로

그 후 9판이 PC뿐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2용으로 나왔고, 곧 에픈 10판이 국내에 선을 보인다고 한다. 판매 게임계을 장악한 시점도 있었건만, 빠르고 추상적인 세이건이 휩쓸하는 시대에 <삼국지>이 인기는 예전 같지 않다. 세무이인 고에이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방향의 역사 시뮬레이션보다는 삼국지을 배경으로 한 호쾌한 액션 게임 <삼국무쌍> 시리즈 쪽으로 중심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삼국무쌍>에서 조운을 선택해 '조자룡 한 창 쓰듯' 통쾌한 게임을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오랜 노군하게 머리를 쓰며 명전 캐릭터들이 펼치는 격정의 역사 속에서 여유방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GT

〈쇼핑 광고〉

쇼핑의 즐거움을 찾아서

이남영
adkyung@dreamwiz.com

어떻을 꼭 맞아는 생선 한 마리를 사도 시장의 모든 좌판들을 한번씩 다 둘러본 후에야 사곤 했다. 기본 한두 마리 살 건데도 일일이 가격을 묻고 물건의 상태를 보고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야 가장 싸고 상태가 좋은 곳으로 가서 물건을 샀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사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빨른 끝내고 얼리 군것질거리도 하나 갔으면 좋겠는데 서둘러 물건을 사는 법이 없었다.

어른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슨 싸이가 있었던 걸까?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냥 사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반찬거리를 고르는 엄마의 표정은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저런 심사숙고하며 까다롭게 고르는 걸까 궁금했는데 나 자신이 주부가 되고 나니 아주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요즘처럼 가격표가 붙어 나오는 물건을 그냥 집는 것과는 달리 그때 엄마들의 정보기는 재래의 식품에 대한 세세한 정보와 주부로서 오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상인들과의 흥정에서 이길 수 있는 고도의 심리전까지 이스트레스하는 프로페셔널한 세업…. 대형주의나 이트에서 포장된 물건을 사는 데 익숙해진 나는 그때 엄마들의 상세한 눈썰미를 키우지 못했다.

요즘처럼 큰 냉장고가 집을 해니 먹을 만큼 조금씩에 살 수 있고, 혼자서 이고 지고 하거니 너무 많이 살 수도 없었고, 너무지 않은 상품이라 믿하는 만큼 많이 살 수도 없었다. 집 좋은 아파지가 동행하시는 법도 없고 별도의 운반 수단도 없었으니 가급에 군것질을 욕심에 따라나서는 일부터 엄마 없는 한 장보기의 모든 과정은—장보기 목록 작성부터 운반까지—오로이 주부인 엄마 혼자의 몫으로 남겨지는 고된 상업일이 분명 하니었다.

고단한 장보기 대신 편리한 쇼핑

대형마트가 많아지면서 재래시장은 주머의 장소처럼 여겨지고 명절 때나 가끔 들러보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시골 장터가 지역 관광상품이 되는 날을 상상이나 했는가?

시장이라기보단 백화점처럼 잘 정리된 대형마트에는 '장보기'보다 '쇼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바퀴 달린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편리하게 대량으로 살아올 수 있으니 차이도 한 번들쯤은 갈 볼 기형

광고1. 롯데마트 TV광고
아버니이 엄마는 정말 대단하시!
아이고들의 꿈 주세요.
— 끝 —
주인공 이 되었다고 해요.
아이감사합니다.
주인공님의 가세요.

No!
당신이 모아 줄 줄습니다.
롯데마트

안하고 냉장고에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다. 가격표가 붙어있으니 딸 한마디 안 해도 필요한 물건은 엄마인지 살 수가 있다. 아무리 많이 사도 배달을 하거나 트렁크에 실으면 되니 운반도 걱정 없다. 당장 돈이 없으면 카드로 사면 된다. 재래시장의 번거로움은 없애고 편리함만 남겨 놓은 듯한 대형마트는 가족의 생활단면까지 바꿔 놓는다.

이제 공복 아래에서 엄마의 장바구니를 나눠 드는 기적한 아이의 모습은 보기 힘들어졌다. 대신 마트에서 엄마와 함께 쇼핑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은 볼 수 있게 되었다.

대량쇼핑이 보편화되면서 남편은 자연스럽게 쇼핑에 어느로 자리잡았다. 가족 혹은 부부가 함께 쇼핑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으며 남자 혼자 장보는 모습도 아주 흔한 모습이 되었다. 오히려 공에 시간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장보기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단란한 가족 나들이의 한 과정이란 보인다.

이트에서 장보기는 주부에겐 집안일을 가족과 함께 한다는 즐거움을, 집안일에 무심하던 남편에겐 집안일을 함께 한다는 느낌을 준다. 철없이만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한 나들이에 즐거움을 느낀다.

대형마트도 구업기제를 꿈꾼다

달라진 생활의 단면은 광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린 딸과 함께 장을 보러 나온 젊은 아빠는 "나에 엄마는 멋남 아니야?" 하면서 어린 딸아이한테 투정한다. 반모는 투정대는 철저업 보이도, 결코 싫지 않은 표정이다. 오히려 평소 분구하던 나만의 쇼핑을 하는 시간을 즐기는 듯 보인다. 오히려 자기 멋을 하는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인다. 생산가게 주인이 엄마랑 자주 오는 꼬마의 모습을 알아보고는 먹기 좋게 잘 해서 생선을 건네준다. 이 거대한 마트에 오는 수많은 손님들 속에서 기억할까 신기하지만 생산가게 주인의 모습은 매일시장 단골 구멍가게의 주인 같은 낙낙한 정취를 연상시킨다.

물론 2, 3년 전만 해도 일반 제품광고에서 아내나 엄마역할을 하곤 했다. 하지만 정보기에 관한 한 그런 생각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카트에

안다. 오히려 좋은 가족 나들이로 쇼핑을 즐기기도 한다. 그들에게 이르는 낯설지도 남처가 오기 또한 공간도 아니다. 가족과 함께, 혼자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이다. 주말 오후 시간대의 이르는 게재된 커플들의 은식들을 연상시킬 정도로 주말은 부부와 가족들이 모여 앞을 보고 돌아간다.

세대시장의 일기용과 동네구멍가게의 은숙함까지 대신하긴 어렵겠지만 대형이르는 동네구멍가게도 하지 못했던 가족단위의 얼어붙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누구나 쇼핑할 수 있는 시대

감다만 하면 물건이 배달되는 인터넷쇼핑, 판매하긴 해도 혼자서 보느라면 답해다보며 하는 쇼핑은 수 없을 해 보인다.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목록을 만들고 다른 물건들과 직접 비교해보고 배송지원의 방도 등에 가면서, 배고프면 군것질도 해가면서 해야 쇼핑하는 맛이 난다. 솔이라면 직접 입어보고 전자제품이라면 직접 작동을 해봐야 직성이 풀릴 만큼 아직 손스러운 쇼핑을 즐기는 나로선 인터넷쇼핑으로 편리함 사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쇼핑이 쉽지 않은 사람도 많다. 아기 엄마, 장애인, 쇼핑시장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일일 쇼핑할 시간이 없는 사람…. 인터넷 쇼핑은 이들에게 오프라인 쇼핑의 훌륭한 대안이 되어준다.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엄마에게 딸아이는 "엄마 또 오하하닷컴" 라고 말나를 본다. 딸아는 이이에게 "우리

광고1. 카롤쇼핑 광고들

쇼핑할까?" 하고 제안을 한다. 딸아이는 실제 쇼핑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가벼이게 메고서 보니이 얼프도 등장한다. 오프라인 쇼핑의 즐거움 그대로, 인터넷 쇼핑의 편리함을 함께 누리라는 메시지이다. 요기에 바라신 이는 평소 좋은 물건 주부가 집에서 할 일 없이 쇼핑이나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이를 둔 주부의 생활을 경험한 딸아이본다면 그렇지만도 않다. 인터넷쇼핑은 주부의 노동을 줄여줌과 동시에 쇼핑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긴한 수단이 되어준다.

추억의 악장수 TV로 컴백하다

홈쇼핑 광고를 보고 있으면 '남이면 남이다 오는 게 아니다' 라고 외쳤던 악장수 모습이 오버랩된다. 살림법이 새로운 물건이 추가되는 것도 그렇고 손님인에 시선을 끌어드는 다양한 테스트 멘트이나 실험 등은 일반 30초 광고에서 보기 힘들었던 광고의 속내를 엿볼 드라마는 것 같다. 하나의 쇼핑기구로 수십 가지 요리를 직접 해보이는 모습이나 멋진 몸매의 주얼은 모델들이 아날어선을 당기는 모습은 재능을 발주고 싶지 하더보게 만든다. 2만 9800원이니 3만 9800원이니 하는 저렴한 가격, 가격에 또다시 할인되는 가격, 덤으로 주는 다른 상품들까지, 홈쇼핑 광고들은 앞이 작장수의 감각적 순서대로 보는 사람이 혼을 쏙 빼놓는다. 실무의 멘트 및 어디로 시대적이라는 30초 광고에 비해 수십 분 동안 상품의 멘트가 반복되어 준아적 나오는 홈쇼핑 광고는 악장수의 모습처럼 생각됐다. 30초 광고 같은 세련된 맛은 없어도 '절거리' 가 중심이다. 30초 광고가 백화점 서비 쇼핑 같다면 홈쇼핑 광고는 영남 장터 구경하듯, 세대시장 구경하듯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심정이 된다.

집 근처에 재래시장이 사라지고 대형이르가 들어서도, 많은 주는 쇼핑 대신 인터넷이나 TV로 편리하게 쇼핑하는 시대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현장에는 사람들 간의 교류가 빠질 수 없는 것 같다. 내 집처럼 드나들던 어린시절 구멍가게의 그 푼숙함을 대형이르가 완전히 대신하긴 문화로이란 편리함과 인간적인 서비스를 도모하여 새로이 구멍가게가 되기를 꿈꾼다. 인터넷쇼핑에서도 오프라인 쇼핑의 즐거움을 잃무도, 홈쇼핑 광고를 보면서도, 장날 장터의 떠들썩한 분위기를 간절 재현하길 원하는 건 아니지 모르겠다.

이남경의 편견으로 뽑은 좋은 광고

소비자가 뽑고 싶은 이야기

어느 초원 공날 저녁, 지하철의 적막을 깨고 들려오는 소리 "천재하는 행님 누님!" (아줌마 아저씨, 신사 숙녀보다 훨씬 친근한 호칭.) 세 명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세일즈맨을 바라본다. '오늘 저녁 서울 시내에는 비가 내린다고 하죠' (새로운 정보, 예감.) 일기예보를 안 보고 나온 사람이라면 귀가 솔깃해진다. '낙산 방향 비가 오려나' 라는 표정으로 창밖을 힐끗힐끗 내다본다. '여름 내내 쓰실 우산, 이왕이면 지금 준비해서 장마철까지 오래오래 쓰세요.' (지금 사면 덕담은 준다.) "3단 우산이라 보관도 편하고 핸드백에도 쏙쏙 들어갑니다." (가방에 넣어두면 젖어버릴 일도 없겠다.) "단돈 3천 원, 3천 원에 3단 우산을 가져가십시오." (기억하기 쉽게 3, 3, 3, 을 강조하는 세치까지.) 그냥 평범한 3단 우산인데도 그 순간 왠 많은 사람들이 3천 원을 내고 3단 우산을 구입했다.

제품소개부터 판매까지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순우가 나는 지하철 세일즈맨들의 현장은 생활을 경기를 보는 듯하다. 주각각인 승객들의 반응, 생생한 현장감, 그날의 매상까지 공개되는 냉정한 피드니스의 현장~.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다듬어졌을 프로세일즈맨의 멘트. 한줄 한줄은 평범한 3단 우산도 히트상품으로 만들어놓는 셀링 포인트가 숨어있다.

지하철 세일즈맨의 멘트 중에서

"천재하는 행님 누님.
오늘 저녁 서울 시내에는 비가 내린다고 하죠?
여름 내내 쓰실 우산, 이왕이면 지금 준비해서
장마철까지 오래오래 쓰세요.
3단 우산이라 보관도 편하고
핸드백에도 쏙쏙 들어갑니다.
단돈 3천 원, 3천 원에
3단 우산을 가져가십시오."

단 4줄의 문장에 가격, 제품명, 주의환기, 제품장점, 스피치의 어휘까지 다 들어있다. AE

이남경의 편견으로 뽑은 나쁜 광고

세일즈맨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느라 바빠 승객들의 반응은 살필 줄도 모는 초보세일즈맨이 있다. 나무도 변한 인사말부터 들어놓는다. "정시 1분간만 실례합니다." (승객들은 1분 동안 뭐나 시끄럽겠군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제품 얘기를 꺼낸다. "3단 우산 하나 소개해 드리려구요." (에이, 또 우산이야? 분은은 나오지도 않았다.) "이 3단 우산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 비가 많이 와도 새지 않습니다." (뻔하지. 큰 얘기 제는 우산도 봤나? 승객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시중에서 이런 우산 하나 사시려면 만원은 주셔야 합니다." (얼마 얘기에 별 흥미를 두 느낀 승객들은 만 원짜리가 3천 원이라는데도 반가는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이 좋은 우산을 오늘 단돈 3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초기에 관심을 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소용이 없다.) 한두 명을 지칭을 앞섰을까…. 이 세일즈맨은 별 소득 없이 상처 가득 받인 3단 우산을 들고 발길으로 이동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과 소비자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초보 세일즈맨은 아직 많지 못한다. 제품은 독소리만 지르고 애원하는 표정까지 지어보지만 승객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대수롭지 않아 보였던 지하철 세일즈 현장을 들여다보면 프로는 프로대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대로 꼴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지하철 세일즈맨의 멘트 중에서

"정시 1분간만 실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단 우산 하나 소개해드리려구요.
이 3단 우산은 방수처리까지 되어 있어
비가 많이 와도 새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이런 우산 하나 사려면
만원은 주셔야 합니다.
이 좋은 우산을 오늘 단돈 3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 많이 세일즈맨에 비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영업력도 비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도 정다. AE

〈신강균의 사실은〉

사실입니까?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비둘

아직은 이별. 이 커다란 우주에 비할 바 없이 작은, 기억나지 않아도 좋을 작은.
그러나 어쩐지 속상해 어떤 '하다'가 되어 한다. 어쩌면 태어난 지상 우주와 함께.
우주가 미물을 기억한다면 나 또한 우주를 기억하는 미물이다.

2004년 4월 한국은 뜨거웠다

남북가 예년보다 세상스럽게 더웠다고 한다. 정치적 열기에, 기후마저도. 정치 문외기와 상습예를 견주에 두고 달아올랐던 4월의 한반도였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일상의 사소한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프로그램이 시선을 끌었다.

뉴스서비스. 무슨 뜻인가 하시했다. 뉴스에 웬 서비스? 무슨 서비스? 서비스에 앞서, 〈사실은〉은 뉴스의 소비자 주권시대를 연다고 말한다. 뭐 그다지 새롭지 않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자. "왕못된 보도는 바로 잡고 / 부족한 뉴스는 보충해주고 / 오래된 뉴스는 새로 교체해준다."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다. 아하! 그렇군, 서프라이즈였군.

이들의 뉴스서비스 성신은 4월 총선의 뜨거운 열기와 만나 광범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너희 아니야."라는 노랫소리가 도요일마다 광화문 거리를 배우면서 그동안 광범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제로 된 서비스를 무여받지 못했다는 점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던 시점에 〈사실은〉이 최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사실' 보도는 불량제품이었다?

제품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품이 당내가 좋지 않았을 때다. 교체해야 할지 어떻지를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서비스를 요청한다. 때때로 소비하는 입장에게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도 한다. 이상하고, 좌우 신경이 거슬리고,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데, 그 본질이, 원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은 이런 소비자들에게 '뉴스'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에프터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다. 좋아보는 건 서비스를 피지는 것이 싫은 그간의 뉴스가 불량, 혹은 하자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멀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위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다는 뉴스나 언론이 결코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점, 소비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않았음을 폭로한다는 것이다.

〈사실은〉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점은, 기존 '사실'로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 단핵발국 이후로 수구세력, 신문시장의 패권언론에 대한 비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은 그 분위기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TV시장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4월 총선을 계기로 한국의 역사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정부 수립 초기 정화정립론을 주장했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에 의무되어 '진보당'이 불법화되어 해산되고, 중심인물인 조봉암이 사형을 당한 이래로, '진보'라는 단어는 한국 국회의 등장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의 '진보정당'이 다시 국회의 하나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한 피아의 보수와 개혁이라는 양립구도의 새로운 특이다. 수구와 보수가 집을 압리하여 세력로 본(?) 보수가 자리를 잡고, 다른 한편에 개혁과 진보가 각각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구도가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은〉은 진보를 자처하고 있는

사실 은 내가 늘 이용하던
그러나 〈사실은〉은 무슬하지 않고 무례하다

많다. 그러나 '진보'의 목소리들과 더불어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기존의 언론, 신문보도, 뉴스의 오류를 느끼는 소비자 고객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에프터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는 보다시 불거진 여럼문과 언론들의 선거보도 태도 문제를 통해 적절한 에프터서비스를 제공해주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단순한 수용자로 국한되지 않고, 문화의 주체로서 '소비자 주권'을 찾게 된 것이다.

호응의 주파수, 진실과 만난다.

기존의 제도권 교육과 일방적인 뉴스보도, 예를 들면 과거의 소위 9시 '땡전~ 뉴스'를 신물나게 보아왔던 세대들에게 이런 서비스는 신선했다. 서비스라는 자체에서만 신선한 것이 아니라, 뉴스와 호응의 쌍방이라는 내용이 신선한 감을 더했다.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뉴스를 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이고,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이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있긴 하지만, 이처럼 만족도에 표그라이를 그릴 수 없다.

다. 문화이론가 존 피스크는 '웃음의 제일 큰 이유'로 '억제 이데올로기의 주입이 효과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힘든다는 것이다. 웃음의 그런 효과에 대해 '허용'으로 변용함으로써, 이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제압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등, 적어도 기존의 일방적 뉴스보도에 대해 갑갑함을 느끼던 사람들에게 〈사실은〉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스와 웃음의 결합. 사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별로 웃지 않는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나무도 기승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에 눈에 뉴스를 보면 대개 우울해진다. 그래서 뉴스는 재미는 없으나 꼭 봐야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사실은〉은 우울하지 않고 유쾌하다. '사실'이 유쾌할 수 있다는 것 느끼게 해주다니! 한국의 방송은 정치적 시기를 기점으로 대체 '사실'은 늘 어둡이었다. 사실을 인식하면 항상적 심각했고, 과장됐고 서글펐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사실이 단순히 아픔과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 웃음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보다 의미있는 진실을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은 그런 일련의 갈망을, 그러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고 있다.

힘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놀곤 에프터서비스를 하는 모든 경우가 화해하거나 만족할 만하지는 않다. 어떤 경우에는 환경의 새로운 배움하심 고려해서 기본이 상실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며(전두환에 관한 정보의 문제나 전체 업계의 문어발의 사업의 원활보도 등), 어떤 경우에는 다소 두서없는, 혹은 마음이 맞선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다소 혼란을 느끼기도 하며(선에욱씨 휴대폰 번호 오인), 또 때로는 여러 면의 서비스로 업무 문제가 더 확대하여, 다음이 더 궁금해지는 경우(대한적십자사 이산문제와 몰자들에 지원 여러움)도 있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만족도에 표시를 하라면 동그라미를 그릴 수 없다. 예상하면 서로 시작일 뿐, 〈사실은〉이 갈 길은 멀고도 멀기 때문이다.

〈사실은〉의 진행자 심강균.

승조제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의'를 이용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비관하여 온가족이 모두 죽었대,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아내가 남편을 살해 죽였대, 어느 대학 모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대, 장애인을 30명이 고속도를 타려는데 승차거부당했대, 파업노동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처별 때문에 자살했대,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당이익을 법표했다고 연행한대, 임신을 하면 여성은 직장에서 해고한대 등등, 너무도 많은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던지는 '왜?' '정말?'에 〈사실은〉은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해준다.

우린 이제 조금씩 사실에 다가가고 있다. 폐쇄시키고, 문어버리고, 조그만 기사로 처리하여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취급해왔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 우리는 조금씩 눈떠가고 있다. 이제는 믿어야 한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우리를 점점 더 힘든 방향으로 떨어가고 있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근 〈사실은〉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원 하에 우기기관에 군림는 기관으로 박정희위원 자랑했던 '적십자사 의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그 적십자사가 심은 '자랑은 동식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사람에게 공급한 '동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를 막는 '동서' 역할을 해서 환자들을 '죽' 바으로 뱉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 그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그들이 날조으로 선택했던 '자랑 은 사람을 해치는 동서 였지만, 우리들의 '사실' 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동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설무게 해는 이데올로 '동서'이기 때문이다.

김윤아, 그를 경험한다는 것

사무엘

사운드이펙트(sedc) 편집위원. 1999년 드림바이 가도지 않게 사운드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즈음 글쓰기의 한가운데 한 주제를 꺼내서 고민한 하는 동안 마음 조립도 하고 속적도 하고 음반도 빌리고 적 그랬다는, '나르시시'

지금, 막, 방금 피동이 그 목소리 포물선을 그리며 공간을 진 공간으로 채운다. 몇 대의 바이올린과 둥글 한 베이스가 만들어가는 멜로디 라인은 가늘고 위태롭다. 그 얇은 틈 어디쯤에서 문득 '나는 위험한 사랑을 상상한다 / 위험한 사랑의 상상은 날 위안한다.' 라는 가사가 숫어오른다. 김윤아의 신보 「유리가면」에 수록된 <나는 위험한 사랑을 상상한다>가 흐르고 있다. 2004년 봄에 발매된 김윤아의 신보 「유리가면」은 'Shadow Of Your Smile」(2002) 이후 그의 두번째 솔로 음반이다. 음반은 포지부터가 인상적이다. 검은 베일에 가린 여자, 사진 속의 그는 슬픔과 고독과 불안을 상상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는 매우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이 글을 시작한다. 고백하자면 나는 김윤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지극히 부담스럽다. 이것은 남성 비평가로서 여성 뮤지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의, 훨씬 미묘한 어려움이다. 이 같은 어려움 이런 복잡난잡한 생각들에 대한 단상이 될 것 같다. 어쩌나, 위어버린.

블랙이라이 혹은 컬러리얼

음반을 더 들어다보자. 「유리가면」을 열었을 때 눈에 띄는 것은 무릎담의 이미지들이다. 김윤아는 20세기 초 반쯤의 귀족풍의 어떤 의상을 입고 인형처럼 앉아 있거나, 검은 드레스와 베일도 등을 가리고 있거나, 하얀 드레스에 인형을 소중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 모든 이미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 장면은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데 그것은 그가 재현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모두 여성들에 대한 과거의 사회적 관념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순종적인 부엌집 아내나이나 순결한 신부, 혹은 결혼 여성이 (루이즘의 에이레나 랑프레알의 형태를 하고 있다. 브로슈어에서도 김윤아는 1930년대 중국<화양연화>의 양만둥을 떠올리면 된다의 차이나 스타일을 하고 등장해 <이상주>을 부른다. 이은미 엔티(Sunkyae)한 화장의 원형(原型)이다. 불편도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이 음반은 김윤아의 내밀한 내면 고백이라고 선전되었는데, 사실의 이것은 그의 내밀한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물론 그의 판타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김윤아에 대해 말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것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든다는 얘기다.

음반을 듣는 동안에 이런 생각은 조금 더 구체화된다. 수록된 곡들은 모두 멜로와 보사노바, 재즈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 이 어두운 듯 슬픈 듯한 곡조의 노래들은 <달만은 영혼을 감지한다> <세상의 끝> <나는 위험한 사랑을 상상한다> <중오는 나의 힘> 모든 음울한 제목을 달고 있다. 가사는? 예외에 대한 기다림을 조선시대풍의 정서도 노래하는 <다섯주>이나 사회적에 대한 오히다루스적인 중오를 노래하는 <중오는 나의 힘>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어딜다. 단조로운 멜로디나 설득은 관한 악기가 인도로와 플라이멕스를 지배하는 작업은 김윤아의 음악적인 보컬 (그는 노래를 '연기' 하듯이 한다. 니얼스 자이클적인 김윤아가 아닌 여성 보컬리스트임을 지명하는 계점은 바로 그곳이다. 김윤아의 음색과 발성은 '가수' 의 것이 아니라 '배우' 의 것이다.)을 다음 음보이게 한다. 인간의 내면이 절대 복잡하고 추상적인, 공허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면 「유리가면」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음반일 수 있다. 단, 대중문화의 측면을 무시한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음반은 '감산감은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 이해할 필요도 없다.' 라는 태도를 내비치는 것일에 대중음악으로서는 상당히 음반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음반은 한가 없이 보일 것 같은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 연출에 전달하기도 한다.

'영화이면으로 김윤아의 내밀한 내면고백이라기보다 그의 내밀한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최근 김윤아의 사생적이고 주관적인 노랫말이나 지적 허영이 스며든 태도는 '작가주의'를 향해 가는 여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제를 바라지도 않는 그의 음악

김윤아에 대해 말하기 곤란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대중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의 영역에 포섭되지 않는 느낌이다. 연예인이라고 부르기에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외부에 있는 것 같고, 오토이 작가라고 부르기엔 '사회적으로 합의된' 작가적 세계관과 거리가 있다. 「유리가면」만큼 아니라 다른 작업들은 그의 그런 정체성을 혼란중에 드러낸다.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의 결과물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해 말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곤혹을 느낀다. 「유리가면」에서 그는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며 무언지 실체화되지 않는 자신의 욕망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 순간에서 대중문화 아이콘이 아닌 예술가가 되고 싶은 그의 욕망을 읽는다. 소통이 무화되는 공간, 저 높은 어느 곳에서 김윤아는 박제처럼 혹은 중국 도자기 인형 같은 자태으로 무표정하게 울시하고 노래한다. 그 앞에서 나는 여성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정체화하는 남성 비평가로서 당혹감을 느낀다. 이전의 김윤아에게 느꼈던 복잡함이 그의 정체성과 예술철학 이미지에 대한 일체이였다면, 지금은 그보다 더 복잡한 어떤 것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일체하는, 다른 남성들이 김윤아를 소비하는 방식과 다른 지점에서 그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온 내 생각 때문이다.

김윤아는 내가 남성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음악가였다. 그가 음반을 발표할 때마다 그에 대한 글을 쓰며 나는 계속해서 내가 남자라는 사실을 떠올려야했다. 이십 몇 해를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쓰여진 가사가 그렇고, 자우림이라는 밴드 안에서 퍼포먼스적인 퍼포먼스가 그랬다. 다른 남성 비평가들이 김윤아에 대해 '소녀적 감수성' 운운하며 평하하거나 '퇴국 가수들을 모방하는 그냥 그런 여자'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김윤아의 존재가치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십대인 나는 그를 자신의 정체성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생존 전략을 재편하며 구사하는 여성 음악가로 이해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호하다. 김윤아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인상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정체성과 전략은 새롭게 평가받아야한다. 그리고 그런 평가는 본명의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나는 지금 김윤아 앞에서 종종 입을 닫아버리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가식과 지적허영이 엿보이는 그의 노랫말

나는 김윤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를 100% 지지할 정도의 호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혼란스럽다. 나는 그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비판하지 못한다. 그것이 나의 딜레마이다. 무엇이 내 입을 가로막는 것일까. 어쩌면 그것이 이 글의 핵심이 아닐까. 김윤아는 그가 재현하는 모든 것을 뛴기, 혹은 전략적일 보이게 만든다. 연예산업 안에서 그런 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 아이콘은 대중들의 관심지를 확대 · 재생산하는 동시에 그것을 이용해 새로운 판타지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진심이 존재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윤아의 진정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이지만그렇다고 객관적인 감상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김윤아의 사생적이고 추상적인 노랫말이나 지적 허영이 스며든 태도 등은 그의 다른 측면 때문이라는 느낌이다. 심지어 자우림의 공기적이나 동세한 노래들은 그의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최근의 김윤아가 드러내고 있는 특징, 이른바 '작가주의'를 향해 가는 여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교묘하게, 그러나 때로는 너무 뻔하게 포장하고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예술가가 되고 싶은 욕망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다른 영역의 진정성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김윤아, 무시할 수 없는 그의 존재감

물론 이런 말을 해댄다도 나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남성으로서의 한계가 내 입을 다물게 하기 때문이다.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없는 나는 여성 음악가를 비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게다가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여성 음악가를 비판하는 것은 다이닷다나 조심스러움을 넘어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뜻밖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이런 어려움 자체가 이 글의 핵심일 듯싶다. 내게 중요한 것은 김윤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남성으로서 여성 음악가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냐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작용할 것이라는 예기다. 이점에서 거칠게라도 결론을 내린다면, 이별은 김윤아가 여성 음악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여전히 지각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껏 이런한 담론을 만들어 냈던 여성 음악가가 존재했던 적도 없다. 김윤아가 이미지화한 관념을 벗어나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가치은 바로 그 점 때문이다. 한국 대중 음악계는 김윤아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경험들에 대한 정리나 실명, 혹은 관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 바란다. 그래서 되면 내 생각도 좀 나아질까 다면, 그때까지 그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대중문화 내부의 안에서 살아남기를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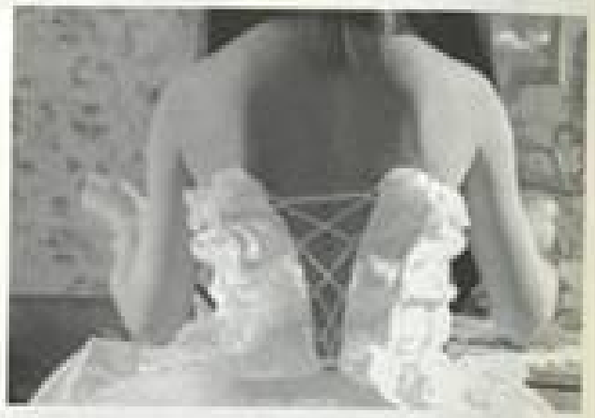
이수영 뮤직비디오 〈꿈에〉

신상품, 로리타 신드롬

슬픈 카이로하

영화 보기를 좋아하고, 영화에 대한 DVD를 즐겨 하는.
모든 이야기가 "이 영화 봤니?" 내지는 "그때 그 장면에서 말이지~"로 시작하는.
그래서 영화적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가
일쑤인 사람. 그럼에도 별 고민을 가지기 싫은 성격.

"어이 팽달이니, 너 이 사진 봤니?" 친구가 내게 건넨 스포츠 신문에는 갈남의 한 백화점에서 우리와 어린이 패션쇼 사진이 실려 있었다. 어린이 패션쇼가 뭐 그리 대수라고 신문의 한 면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말끔히 사라졌다. 11~13살가량 되어 보이는 두 소녀의 사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은 나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빨간 립스틱에 완벽 치장한 머리 모양새, 하드가 그려진 팬티에, 속옷을 연상시키는 레이스 민소매 티셔츠, 그리고 명사 스타일에 하이힐까지. 모두 아이들의 차림새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다. 차림새는 그렇다 치고, 얼굴화장 포즈가 더 인상적이었다. 성숙미를 내었고, 가슴을 한껏 들어올린 것이 영락없이 성인 모델을 능가할 몸매다. 도대체 패션쇼를 기획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아이들에게 저런 포즈를 요구한 걸까. 저 아이들의 보호자는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이런 패션쇼에 내보낸 걸까 하는 생각이 지웠으나, 관객 선정이 곤두설 다. 아니나 다를까, 패션쇼가 끝난 후에 백화점 측에 항의 전화가 폭주 했었다고 보다. 대중 매체 속 어른의 성 줄어들는 어린도 모자라 이제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뻗쳐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 없었다.



성인을 능가하는 '상업적 자극'

이수영의 뮤직 비디오 <꿈에>를 보고 나서, 홍문섭의 것도 같은 백화점이다. 원래 코디네가 무슨 동생의 직 을 리메이크한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성적' 행상 을 자동, 성인의 상처를 입은 여인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은 25살의 여자의 심리 가, 6살을 지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행동에 그대로 투여 된다. 첫 장면, 어린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부터가 관건이다. 하얀색 슬립 콘세트를 입고 있는 아이를 바라 보는 시선은 도무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믿기 지 않을 정도로 도발적이다. 배꼽 밑면 지퍼가 부스스 한 머리에 근심 어린 표정의 아이가 자궁을 박하고 있 어나, 유지를 상기시킬 만한 회한에 잠긴다. 극의 초반 애인의 부름을 기다리는 아이의 상기된 모습이 묘사되 고 후반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배반한 남자에 대한 여자 의 처절한 심리가 절정을 이룬다. 등이 훤히 보이는 드 레스를 차려 입고, 빨간색 립스틱과 손톱을 하고 있는 장 면을 제외한,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로 처한 머스카라 자욱이 범벅 나온다. 아이라는 설정을 제외하고 보면 카 메라의 시선이나, 아이의 움직임과 시선처리 모두 성인 여성을 다루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KBS 방송심의위원 회는 곧 머스카라가 번지는 화면을 들어, '누들의 상처 내리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다. 제작사 측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아동의 성학대라는 KBS 측의 주장은 명도당보다 많으며, 문제의 장면을 삭제하면 영의 취지를 살릴해줄 수 없어 뮤직 비디오의 본지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것이다. 몇 차례의 무비지적 끝에 결국 제 작사 측은 문제의 장면을 삭제해서 재심의를 받았고, 결 국 방송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사내는 일단락되었지만, <장화>의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뒷얘기들은 영 수긍이 가질 않는다. 4분 34초에 달하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저런 화면을 떡밥 줄까 하는 생각이 금세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장차 히트할 예감도 제대로 하지하지 못했다며, KBS 측을 의혹에도하는 제작사 측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 심의의 기준 자체를 문제 삼는 언론의 태도 또한 이른감지이다. 특히, 주인공을 연기한 아역배우 정채은의 얼굴 연기가 거의 안절부절의 몸짓을 통이 보는 것은 더 끔찍하다. '걸출한 눈물연기를 선보인 아역 배우' 정채은은 각종 신문의 최제의 인물로 등장했고, 실제 연기를 능가할 정도의 평가를 받아 각종 CF업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통 아역배우의 CF 출연료가 편당 300만~500만 원 선인데 반해, 정채은은 한 건당 최소의 CF 출연료도 20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아 실력 연기력에 비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의 가사업이 소멸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정채은이라는 아역배우가 물이빌으킬 수 있는 상품성. 상업주의의 마오이라고 할 만한 CF업계에서 아역배우 정채은이 얼마의 몸값을 받고, 얼마만큼의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느냐는 것이다.

어른의 여성을 바라보는 굴곡된 시선

뮤직 비디오 <장화>는 오래와 신드롬의 부정적인 측면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성숙한 여성에 대한 성적인 집착. 오래와 신드롬을 연상시키는 이 같은 형태의 작업들은 사실 이번에도 무궁의 행해져 왔다. 정재그 이노의 영화 <연인>에 등장했던 계집 아이는 오래와 신드롬을 교묘한 성적인 소녀상을 제공해주었으며, 스태의 뮤브의 <오리하>나 에드워린 라인의 동명의 리메이크 작품 역시 오래와 신드롬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오래와 신드롬을 의식적으로 거냥, 어린아이에 대한 성적 바라보기의 시선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상업적인 측면에서 오래와 신드롬을 차용한 예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어린 신부>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실제 사실으로 증명에 결혼을 하게 된 8세 소녀의 패트남을 그린 이 작품은 실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주인공 문근영의 순진무구한 이미지를 완벽 부각시킨다. '결혼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카피가 포스터에 사용되었으며, 광고에서 문근영을 보여는 장면이 포탈 사이트의 광고 화면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입꼬 언화하나 등장인물인 문근영의 어나멘한 교복 차림이나, 동네가 환히 드러나는 순일무 차림이 인상적인데, 이 피상적은 영화의 속에서 문근영의 몸에 직접적 묘수 제공했다는 후문이다. 대위 소보다 나이를 더 먹었음에도 문근영은 이 작품에서 더 어리고, 더 순진하고, 몸집이 더 왕왕해진 소녀로 그려진다. 남성의 시선으로 재단되는 소녀의 이미지는 이 영화가 공략한 마케팅 포인트다.

장삼 동동한 소녀의 섹시함?

이상에서 할지라도 상업적 성과로 볼 때, 가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 최근의 음악업이다. 현실이 이러고 보니, 아동이 성적 상업화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점점에 나오는 것도 별 무리가 아니다.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어린이나 장래 등의 범죄만 보더라도, 아동을 성상품화하는 사회의 정형과 맹목의 폐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물론, 이런 세태하는 사회 일각은 어린아이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사회문화기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이 메이크업을 하는 예사이며, 어린 욕구에 부응하여 백화점에 가면 어린이용 메이크업 제품이 따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다. 어린이용 메이크업을 판매하는 주업자의 관계자는 "최근에는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문의도 끊이질 않는다."며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는 지금의 추세를 설명해준다. 스킨, 로션 등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초 제품이 아니, 멋을 표현하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날로 증가해고 있는 추세. 스킨, 로션이나 사용할 줄 알았던 이전과 달리, 요즘 일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색조 화장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화장을 하냐?'라고 반문하는 사이, 아이들은 광대뼈으로부터 제기의 일굴에 이름하는 색깔의 립스틱과 아이섀도를 주일하기에 이르렀다. 한 업계가 기독적인 판매수치를 올리면서, 마우, 프랑스, 일본의 메이크업 제품에서 주업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다한 신드롬'을 앓고 있는 어른들이 '키덜트족'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욕구를 채워 가는 것처럼, 사금의 아이들에게도 어른이 되고 싶은 욕구이 존재함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성 상품화한다'는 시,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조숙하다'는 등의 말이 전혀나 일상이 범죄하는 적의 패적은 문제이다. 문제는 방관하고 있는 사이, 어른들의 이해와 아이들의 욕구가 일어지는 점에도 어느새 상업주의의 폐해가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평론가 변상수씨는 "청소년 보호 유해매체만 잡고한다면 어른과 아이가 소통하지 못하는 이중적 구조를 더 공고 주려가 된다."., "청년과 청소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바로 볼 것."을 제안한다. 무조건 주의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바른 시점과 도덕적인 잣대를 다시 한번 환기해볼 필요가 있다.

〈칼바니아 이야기〉

여자는 나라의 미래다!

무희(sookee@empal.com)

만화 보다 잘 먹고, 만화 보다 잠자고, 만화 보다 울어버고,
만화로 설날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서른 초반의 활동 만니.
날개 수술하여 유학하고, 고등학교도 졸업식 직전에,
일방하여 전공학과에도 한 도노의 만화를 소개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근대화로 희생됐던 4월이 갔다. 자유를 잃고 참혹한 일본 사람들이 자존지를 걸으로 일어난다. 17대 총선이 끝난 것이다. 이번 17대 총선을 누군가는 위선적인 선거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준 선거라고 한다.

그 중 관심에 가는 부분은 역시 여성의원의 약진이다. 총 299석 가운데 33석, 13%를 차지하여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여성의원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지 기대되는 순간, 우리에게 적절한 역할 모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여성에게 주지 않으려는 이 사회에서 국회라고 다르겠는가.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와 주어에의 모습을 보며 느낀 남성들은 제2도 된 여성 정치인이 많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만 영심의 왕자병 사람들까지 원하하지는 아니다). 관리를 나타낼지 말으려는 남성들 중에서 여성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펼친 분에 오명이 많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여기에서 생각이 미치지 세번스세 비오는 여성 정치인이 하나 있다. 그것도 방귀의 왕이다. 때로 자살의 나라 인도네시아의 여왕, 자나이 이다 (또는Toto, 사동문화사 1-6권).

여왕이 생리를 한다면?

칼바니아 역사상 최초로 여왕의 자리에 오른 다나아는 아직 귀엽기만 한 소녀이다. 세살동생 보이고 동갑에 보이는 여러가 여자가 국왕이 되자 노대신들은 걱정이 아닌적인이 아니다. 여왕의 생리 때문에 왕궁생사에 지장을 받아서란 하고, 예약적인 외모를 가졌다는 것 외엔 자국에 자랑할 만한 별다른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웃나라들에서 만만히 보지 않을까, 왕실에 대한 책임감이 존경이 식을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왕실의 어른들. 게다가 나라 최고의 공적자문 단장등개회에서는 선례 없이 후계자로 여자를 세웠다. 여왕공식이라는 것도 당치가 없은데, 심지어 이 공적자의 발은 목적을 증기기 위해 자궁이운송 여승성기라고 말을 회두리는 것을 서슴지 않으며 남자도 오만방을 정도의 넘나니이다. 게다가 여자라면 어리를 금세 떨어 올리고 최대한 장식과 드레스로 치장을 한 후 정전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 예상 단장등은 종도와 모래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기장이 없으니 대체 이 나라가 어떤 되려는지.

지리나 구구, 다스크 스토리 등을 통해 다나아등을 취보하고 있는 도노는 전소리문 노대신들을 제쳐두고 칼바니아 왕실과 예유의 이야기를 술술술급 풀어낸다. 동생은 '왕실 고이너' 답게 적절한 종도와 감동있는 사실 관계나 자문의 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존근의 보편성을 위협에 머리는 상상력으로 재밌한 왕실스토리는 수많의게도 권보적인 만화가 제머린다. 다나아와 예유의 생리이야기는 그 수상할 의 대표격이다. 무려 14세의 어린 세인 수명에 200여명이 필요했다는데 국가전의의 정점인 왕이 생리를 한다면 어떤 풍경이 펼치질까.

칼바니아 최고의 기념의식 당일, 예정일도, 아닌데 갑자스레 여왕이 생리를 시작한다. 생리통으로 몸을 움켜쥐고 있는 다나아 여왕. 급히 대책을 구한다 어쩔다 궁정 안은 남녀가 나다. 그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다나아는 자문의 해명해를 먹고 자신의 처우를 다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나선다. 국위 이해 가장 큰 행사를 당당히 날아하는 여왕에게 온 궁정신하들과 왕실귀족들은 한단한 이자와 무선을 준비해로 맞차에 따뜻한 필요를 준비해야 생각공인 여왕을 보였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여자의 생리를 다룬 만화를 일찍이 보지 못했지만, 이 즐거움은 소녀에서 여왕으로 성

강하는 타나이의 이야기 중 인무분입 분이다.

소녀에서 여왕으로 성장중

사랑을 믿고 빠는 모에도 최고의 신념이 있는 공지기의 영향. 예쁜의 이야기는 또 어떤가. 그는 모험가 자음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건설하고 새 유통망을 확보하고 병사를 날하는 정치 · 경제 활동에도 정력적이다. 게다가 공주 작위를 놓고 다투는 라이벌이자 라디오도 병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도움을 배울 점도 만다. 갈라에는 갈리로 공감하는 전인한 일면도 예쁜의 것이다. 왕실을 다룬 기존 순정만화의 범주을 깨버리는 도한 인물들 가운데 예쁜의 모습은 당당하기 그지없다.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5권에 등장하는 이오나와 러시국의 백작 영장 시프바나 클럽의 이야기도 사못 인상적이다. 자신의 자랑스런 후계자 콘라드 왕자가 타나아 여왕에게 반한 것이 못내 자존심 상한 러시국왕은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뽑아 화려한 드레스와 구두를 선물한 후 캠버나에 대사로 보낸다. 보잘것없는 일개 백작영장의 신분인 시프바나 클럽을 경멸로 대접할 것이라는 러시국왕의 예상을 비웃기 위한 오래인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시프바나 클럽은 왕이 선사한 화려한 드레스와 보주로 내 구두를 신고 아름다움을 뽐내며 연일 접견장과 파티장을 들어다닌다. 즉히는 구두 탓에 발이 벗기고 부어터져 피가 나도 참아다.

캠버나아 왕실을 모독하려는 왕의 본뜻을 알게 된 후에 그는 필로 멋진 태도를 보인다. 단지 사용당기만 할 뿐, 국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는 국사이지만 그 본분으로 자신을 학대는 것이 아니라 굳게 자신을 다해 자신의 임무을 다하고 귀국한다. 돌아나는 건 싫다고 일주이 말하던 시프바나 클럽의 모습을 지켜본 동자는 동에게 이렇게 전한다. "여성이 성실하게 무언가를 행할 때의 갈인함은 결코 남에게 되지지 않는다."

당신은 나의 호적수

사실 「캠버나아 이야기」에 나오는 다나아 여왕은 최고의 권력자는 아니다. 당장에 간섭하는 노대신들의 반소리도 감수해야하고 여왕의 화장법, 여왕의 액세서리는, 여왕의 드레스 등에만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나 피독적으로 본 제안시가 '외화 능은데' 등에게 번번이 독살당하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각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체의 권력이 공고하지 않는 터라 '현실한 왕자와 예쁜 옷을 입고 궁정요리를 즐기는 것도 멋질 뿐이다. 온갖 복잡하 피로적인 일들에 집중하기란 아직 아무런 심적도 경험도 없다는 것을 타나아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이 타나아의 현재 모습이다.

하지만 타나아는 대신들이 피트린 아성루아 어린 여왕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답시고 흉흉하다는 영장한 소문을 퍼트린다 - 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 항공 캠프에 나아서 민심을 돌아주기도 하고 어린 귀족들의 정략결혼을 반대하기 위한 제안시가 열두 번 거절하여도 또 다시 뽑을 든다. 그런 그의 모습은 곧이 "당신은 나의 강력한 호적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콘라드 왕자의 입을 빌리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보여준다. 왕국 최고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여왕, 그것이 타나아의 진정한 현재 모습인 것이다.

한 걸음씩 성장하는 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각종 지면에 소개된 우리 여성정치인들을 본다. 역대 최다 여성 의원이라는 명은 타이틀로 지지하는 그녀들에게 어떤 부담이 될겠는가. 아니의 카리스마로 특출 수 없을 만큼 나날한 목소리를 대변할 17대 여성 국회의원을 역시 기대만큼의 부담을 안고 의정활동을 준비중일 것이다. 그들은 4년 동안 어떤 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 어려운 만큼 멋진 도전이 될 테고, 또 그만큼 힘으로 나갈 수 있다. 누군가는 지을 감아야 길이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시급 여성정치인들에게 적절한 선배모델이 없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현재 공인 인화 속의 인물이지만 하나난 시작을 남긴 여왕으로 캠버나아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며 완결되는 것이 언제일지, 이번 17대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이 새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언제일지 상상해본다. 9시 뉴스를 보면서 동시에 짧은 여왕의 공주후계자인 새 인화가 나오길 기대한다는 것은 분명 증거은 일이 될 것이다. 여자 우대가 없어나면 세별의 동생국으로 건너가 도움을 청하는 것과의 중인 되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들고 튀튀다"고 말하는 여왕이지만 말이다.

사극의 옷을 입은 페미니즘 드라마의 위대한 탄생

– 대장금 작가 김영현을 만나다

어린 세월들과 지면을 채 그것이 정확히, 문학 텍스트이든, 그림이든, 그 세월들 속에 숨어있는 '작가 정신'과 같은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이 즐겁다. 왜냐도 나의 결투에는 그렇다 보는 세월들은 그것이 스스로 하구가 아닐을 감지한 주장한 때로하도, 이미 그 형식 속 정체성 최구적 설계를 이게 되고, 그런으로써 독자적으로 자기의 주장자을 알게 하게 된다 때로는 그 세월된 텍스트 밖에서 어전히 흥행하고 움직이는 '작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름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극 <대장금>의 경우는 예외였다. 드라마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부터 슬며시 작가가 궁금해졌다. 이 드라마의 놀은 시청률이 여성관객들의 적극적인 관심이었과 동시에 매운성을 모은 최하고 독서나 상투적인 방식으로 빠지면 어쩌나 상투적인 시각으로 피동하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다가, 이제 확실히 그럴 리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 때부터 이 방문 작가가 누구인지 조사실이 당겼다. 결국기 이 긴 호흡의 방편 드라마를 어떻 다 단단하고 있을지 가까운 친구인 양 지정이 되기도 했다. 세회 일일한 수준의 건장과 유연함을 유지해야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갖다는지,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작가에게 이러저 묻구를 하주고 싶어질 정도였으니까. 그러고는 대장금의 대단함을 내린 지 세 달아 되지 않은 3월 29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당세다 과연 대장금의 작가답다.

작가가 궁금해지는 드라마

드라마 <대장금>의 아이디어가 지금에 어떤 방식으로 작가의 머릿속에 떠올랐는지부터 묻고 싶어졌다. 순전히 작가의 영감에? 아니면 연출가가 제안한 방법에?

소재는 이국정님 이병훈 PD의 기획으신 거다. (최초) 하시면서 의사였다가 입문하는 걸 처음 함께 하셨고 건초적 20여 이에 대한 준문이 하나 있다. 그러나 (최초)의 제안이 될까 봐 그 소재는 접 이야기고, 다른 소재를 달라고 했다.

5세기를 중간 스페인 정인데, 이무리 찾아도 정감이었을 제외였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냥 정감이를 제외고 결정을 내렸다. 조선시대 여자가 임금의 주치의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사건이다. 공기하게 바로 상상력이 발휘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주치의가 됐을까. 정말 뛰어나서? 아니면 줄줄이 정말 사람해서? 양반의 딸이었을까? 천민의 딸이었을까? 양반의 딸이었으면 기록에 남았을 텐데, 설령 임금의 주치의가 아니었다 해도 그렇게 머리 번 이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정말이 실력 있는 여자임에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정말이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그냐, 무제적인 것은 없어도 감이 왔다. 그것에 머서 작은수를 생각해봤다. 행적은 제한되었지만 양반이므로 특별히 그릴 수가 없었다. 행적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생가 정생님, '정감은, '보지, 등 대한민국에서 문학으로 상을 받은 책은 다 읽은 것 같다. 작가 김영에서는 원하지 않으면 은둔한 배경이 좋아.

김영현 작가가 결국 원하여 삶는 조선시대 여녀 궁궐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얼마나 넓은 상상력일까. <대장금>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일련에 요인이 바로 이 점일, 즉 일제의 점일, 기록의 점일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공중과 방송의 월 · 화 드라마 작은들 (그것도 사극에) 준다는 것이 제한적 조건을 자동으로 상상의 범주선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점은 바로 이 일련 점일의 공간에서 나오지 않았다가 역사인들의 문화적 정지적 사회적 맥락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료의 양적 제거에 급급한 사학자들의 관점하고 거년한 상상력을 이랑로하지 않은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이 없었다면 <대장금>이라는 이 관대이문의 역사 드라마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넓고 풍부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왕조 기록이 못했던 조선시대 한 천민 출신 여녀의 일생은 이제 다른 여성의 상상력에 영감이 불붙는 우리 앞에 새로 태어났다. 일러줄 이야기가 많은, 삶을 다채롭게 경험한 이 당태한 여성의 모습이 중으로 어떻탈기면 좋다.

그런데, 작가 자신은 주부 사녀의 생활과 자신의 사

드라마 <대장금>에 적역 김영환

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사실 개인적으로 사극을 좋아한다. 비현실적 사극이라도, 판타지물의 이야기도 대개 재미있게 본다.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역사의 이면을 들추어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다를 수밖에 없다. 처음 몇 회가 방영되고 나서야 시청자들이 뭐 좋아하는지 대충 알겠더라. 새로운 무엇이 여기 굳이 있었어야, 궁녀캔들을 포함해서 궁 생활의 이면을 묘사할 필요가 있어야만. 그래서 소설감도 있었다는 것, 궁녀들 사이에 벌도 하나 있었다는 것, 나아가 임금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것도 보여줬다. 그들만 뭔가 모습과 다르니까 흥미를 느낀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는 일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기존의 틀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기존의 틀이 확고하니까 작가의 변형은 무어도 다 새로운 게 되더라.

장금이 세우기의 갈등

문제는 역시나 어떤 이면을 어떤 관점에서 들추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이 드라마는 사극의 옷을 입은 전형적인 페미니즘 드라마였다. 우리는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초반에 잠깐 등장했던 페미니즘 기운이 피할까 초조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시청률 떨어져서 작가나 연출가가 다른 걸타을 세우면 어떻게 하나를 걱정해야했다. 놀란 심정 지 않게 이후부터, 심리적 묘미를 내세우며 "어, 너무 폴리티컬 커렉트니스(political correctness 하다."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게 있어, <대장금>이 끝까지 '장금이 세우기'를 지킨 것은 정말 지루하거나 맛없하지 않았다. 흥미롭고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페미니즘 감동은 중요한 심리적 기준이 아니었기.

<대장금>을 페미니즘 드라마로 보이준 것, 정말 인정해다. 처음 기획할 때 작가는 역사가나 내용보다 '정말 대장에게 먹힐 수 있나'를 먼저 생각했다. 일단 한상궁이 스승으로 정해진 이상 처음의 스승 유지해가 그렇듯이 그 캐릭터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스승이 되어야했다.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승, 자기에게 없었으면 했던 스승을 그리기 때문에 된 거다. 즉 여자였기 때문은 아니었다. 어떤한 사극에서 여자가 성공스토리의 주인공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본의든 아니든 우리는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가 되었다. 이건 초반부터 우리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드라마가 '장금이' 때문이라기 보다 '정금이를 둘러싼 전체' 때문에 무리될 때 사실 나도 놀랐다. 장금이와 연생이, 한상궁과 장금이 엄마의 무정, 초반 1, 2회에서 나는 벌로하고 무정, 두 노선을 유정히 세게 가져갔다. 대본을 본 사람들도 벌로가 더 재미있다고 그랬다. 그런데 실제로 방송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한상궁이 장금이 엄마를 살려줬다는 그 사실에 유정히 감동하더라. 한상궁이 장금이 엄마한테 세 보낸 편지 내용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 이거 조금 이상하다' 했다. 방송사 사람들이 정말 생각한 거다. 벌로가 정상 캐릭터이 장금이 엄마였어 엄마의 사람이 더 셀 거라고 생각했던 거다. 처음에는 엄마와 한상궁 캐릭터가 역전이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 쓰고 시작을 하면서도 그것이 정말로 1부의 반응을 보고 '아 이건 되었구나.' 했다. 장금이가 궁에 들어가면 그 틀의 안녕이 작작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벌로보다 여자들의 무정에 그렇게까지 많은 감동을 가질 거라고는 정말 로 생각 못했다. 드라마는 판타지다. 참기 대신 충족시켜주는 게 있어야한다. 나는 그게 장금이의 성공스토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저런 스승이 있었으면', '저런 동무가 있었으면' 하는 판타지를 훨씬 더 강하게 갖고 있었다.

'여성들 사이의 관계' 이것은 페미니즘 운동과 담론의 결정결에서 중요한, 그러나 손쉽게 풀리지 않는 화두로 등장한다. 한편에는 여성적인 것의 주요 특성으로 늘 언급되는 '관계지향적 특성 및 능력'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우리 안구 아이가.'를 외쳐대며 우리를 싫고 들어다니는 남성들을 무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성들이 있다. 이것은 결정 오순이고 어려나이다. 여성들 사이의 관계, 아직 아닌 관계가 없는 양, 주요하지 않는 양 제현의 역사에서 비주류적으로 지워지고 배제되었던 초 · 중 · 고등학교 시절 그 결단 5인나, 5등생은 다 어디로 갔을까? 거의 180% 레즈비언적 영향으로 내밀한 관계를 주고받으며, 함께 먹고 함께 울고 웃고 비밀어대던 그들은? 실질적으로 공개지향적이며 보상중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들은? 남성들 사이의 관계가 명용적, 대리 당스적, 하위문화적 사우라 속에서 갈등없이 부조되어 왔다면, 여성들 사이의 관계는 그렇지지만, 발목지향 무중한다. 자신들에게 실제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이러한 관계들을 더욱 명백하게 명명함으로써 피어 있는 것으로 만들고 살아야는 많은 여성들이 있다.

5인나 1등생은 다 어디로 갔을까

<대장금>은 여성들 사이의 관계가 깊고 다양하며, 생생하고 신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놀라운 것 중 기억은 있지만 '기억 안한 넷도' 이 기억은 설정된 이후 여성들의 독착한 삶. <대장금>이 제시하는 멘토 · 멘티의 계보학, 그리고 주정의 관계는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끌었는지도 모른다. 한 사람의 특별한 영웅이나 주인공보다 함께 삶을 꾸려나가는 보통 사람들 여성의 '사이'에 관심을 기울인 이 드라마에는 여성 작가의 독특한 관식이 관통하고 있다.

한상궁, 한상궁 같은 캐릭터를 배치할 때 나이 여성인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거다. 나이 어느나이 여자 경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조직들을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었을 거다. 방송사에 들어와서 오래되기를 한 기년 했는데,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PD들은 거의 다 남자이고 작가들은 거의 다 여자다. 그래서 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꼭 여남 대립구도 아니다 아니라, PD가 작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몰리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묘장히 센 관계를 만들게 된다. 친밀감도 묘장히 세다. 또 방송작가들이란 한 프로젝트에 한번씩 선택을 해야하는 사람들이다. 결국도

하고, 또 여러 제안을 받으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러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많다. 그러다 보면 친절하고 질투의 감정 같은 것이 생긴다. 늘 혼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선배 언니한테도 혼나고 PD한테도 혼나고. PD한테 혼나면 선배 언니들이 감싸줘야 하고, 선배 언니들한테 혼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감싸줘야 한다. (웃음) 이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드라마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작가는 수천, 수만의 관객들을 동시에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지루한지 재빠르게 감응이 왔었다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게 될 것이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 작가 자신도 변할 것이다. 긴 시간을 그런 리듬의 긴장과 상호작용성 속에서 지내다 보면 작가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고 많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가 내부에서 발생한 이러한 획득적 변화은 나중에 다른 텍스트에서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여성 수용자들의 선호 및 반응 등 장르가 놓은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가 페미니스트냐, 아니냐를 질문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텍스트가 얼마나 다양한 입장의 여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었는가일 테니까.

드라마 <대장금>은 단순히 여성과 여성의 질투나 경쟁 혹은 상궁이나 상례를 보여준 게 아니라, 여성들이 특정한 시·공간의 역사 내에서 어떤 위치에 서일는가, 그리고 그 위치가 각기의 여성들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흥미로웠다. 이전의 사극들에서 여성들은 영웅나게 질투하고 싸운다주로 '왕의 여자 가 되겠다는 이상 사회. 여러분 예에도 음모를 꾸며 상대방의 허점 보고 살아왔다. 또한 그런 식의 질투가 각기의 여성들이 의해입는 위치에서 오는 입장의 구조적 무엇이라는 인식을 주는 대신, '여자들은 원래 저래, 여자들이 모아는 일이라고는 저것밖에 없어.'라는 오인을 재생산할 뿐이다. 그러나 <대장금>은 여성들에게, 그리고 최상전대 남성들에게도 그러한 구조적 위치들을 인식하게 해주는 드라마였다. 무엇보다도, 악녀 역할을 맡아야 했던 '고오점의 제보' 를 보라. 우리는 최상궁이나 그 일이들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고 안쓰러운 느낌이 되지 않는가. 이들은 권력 체계 내에서의 '고오 제보' 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의 상태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고오 제보' 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결국 자신들의 삶의 '운명' 임을 성찰적으로 보도하는 최상궁과 금영이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눈물을 경험한다.

고오의 자리는 엄마나 에레오호라고 서의출한가. 고오 제보는 환관의 가부장제에 속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오게 제보의 일종이라 하기에도 석연치 않지만 여성들 사이의 제보인 것만은 확실하다(최상궁과 금영이는 최종술보다 더 지위과 경난하이 하이니며, 때로 최종술을 비껴 두고 서로 반대한다). 그러나 이 때문으로서의 속한에서 서에지와 오빠들의 관이 되기 위해 경혼도 하지 못한 채 멍들어진 중고된 연설을 견디어한다. 이들은 가부장제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잘 모르는 채 "우리 여자들은 왜 이러지."라고 여러분 혼잣말 여자들에게 중요한 일분적 거울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다면적으로 그리고 싶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존서의 최종 보여주었다는 게 본의 계획이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가족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궁녀의 자체가 가족개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이야들은 내다보 살 때 궁에 들어왔다. 내다보 생각시를 궁에 들어는 이유는, 이들을 평생 왕의 여자로 뛰어놀고 결혼도 못하게 하는데 이 거로들을 그들도 다 나의 어릴 때부터 들어와 서로 정을 나누게 하는 거다. 그러나까 한상궁과 정금이는 엄마와의 관계가 없었어도 어쩔 수 없이 엄마 딸의 관계가 되는 거다. 정상궁과 한상궁도 그렇다. 궁녀 공무를 하면서, '이것 자체가 가족개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최상궁과 한상궁도 처음 돕기 시작한 것이다. 궁녀사회를 가족으로 그려졌다는 비판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호나 최한술, 오정호 이런 사람들은 가족 바깥의 사람들이 되는 거였다. 이제 집정에서 볼 때 사실 남자들은 다 손님인 거다.

어머니를 죽이야 주체가 된다는 거짓말

궁녀들의 가족사회, 엄밀히으로 구성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궁녀사회는 가족에 대해, 여성들 사이의 스승 - 제자 관계에 대해 그리고 여성들이 상징질서체계에 진입하는 방식에 대해 심원한 대안적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정상궁과 한상궁, 장덕이, 그리고 정금이의 엄도 - 엔터 제보를 살펴보자. 이 제보는 왜 편집은 어성 라이벌 모델을 쫓고 있다. 모녀 관계든 어너라 여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무식하고 편견이 많은 가부장적 정신분석은 어머나 남녀가 상징질서 체계에 순탄하게 진입해 안녕적 주체, 욕망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먼저 오천상태를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오천상태는 적의 동일한 상이가에 자기에와 타자에 사이의 구분이 없는 모녀관계에 따른 표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열등한 사회구조에서 어머님이 어머니의 세계를 떠나 아버지의 세계에서 스승의 이미지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고통을 증명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상상계와 상징계, 그리고 실재계의 경계 이제를 논리적에 만들어 그 세 영역이 상호 필두적으로 작용하게 만들으로써 모녀 관계에 대한 기존의 상두적 주장을 넘어서고자 한다. 어머니와의 상상적 관계에서 신천한 중요 영양분을 공급받은 상징적 만어에게는 병독정이거나 건조하지 않다. 목이적으로 문법 지향적이거나 폐쇄 지향적이지 않다.

궁녀사회에서 형상과 엔도 - 엔터의 관계는 어머니를 무인분으로써가 아니라 자기에와 타자에의 긍정적 공존의 방식으로 이미넬으로써 여성을 위한 대안적 여성 라이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장금이에게 한상궁은 스승인 동시에 어머니이다. 그리고 작전의 명도 제거는 필요이면 장상궁 역시 한상궁에게 스승인 동시에 어머니인 것이다. 버리는 젊은 세대에게 "넘을 그러므로" 고 여성적인, 너무나 여성적인 가르침을 주

는 스승(한상궁)에서 "예사롭지 않게 보고 사귀어 둘 다 한 사람을 위해 몸바쳐서라도 임금의 주치의를 하라."고 권고하는 스승(장덕)은 세속 밖의 이계에서 퇴화된 남계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 무당이 아닌 궁정에서 자존감의 힘을 얻어오는 여성 주체가 되게 된다.

여로의시공, 레즈비언 관계를 연상시키는

공식적인 가족사회, <대장금>에서 이 사회는 또한 헤로피시즘의 열기로 가득하다. 항상 억압과 간택되는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성적 욕망을 상상할 수 없는 제기주 전체 같은 상황에서 여성들 사이의 관계는 레즈비언적 욕망에 열려있다. 예를 들어 장금이와 한상궁이 (장금이 엄마를 사이에 둔) 자신들의 관계를 확인한 순간 최영에 게 키스를 함께 하게 되는 장면은 전형적인 키브신의 프레임을 보여준다. 둘 사이의 시선의 교환은 많은 레즈비언들에게 관음증의 쾌락을 주었다.

드라마에는 레즈비언적 아우라를 띠는 두 개의 관계가 있다. 한상궁과 장금이의 관계가 그 하나이고, 장금이와 연생이의 관계가 다른 하나이다. 연생이와 장금이의 관계는 매우 존재하고 영존하다. 세습성인 헤로피시즘의 느낌보다는 시간과 더불어 점점 더 깊어지는 우정의 느낌을 훨씬 더 강하게 준다. 그러나 한상궁과 장금이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이며 모든 입문의 온도대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은밀하다. 한상궁이 장금이의 등에 업혀 주어 가며 "강에서 기다리겠다."고 한 말은 거의 <이브스토리>의 '지상은 추회하는 게 아니에요."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더 많은 위안을 받은 것은 한상궁이다. 대본을 쓰면서 나는 한상궁의 감정과 장금이의 감정을 각각 따라갔는데, 장금이는 더 복합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다. 가진 건 아무 것도 없으면 될일은 생각 안 하고 사고를 치는 캐릭터인데 한상궁은 그렇지 않다. 통찰력 소유자고 상대를 잘 읽는 사람이다. 자기 동무를 그렇게 빼앗긴 것에 대해,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가슴에 품고 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리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필요해."라는 대사에서 레즈비언 코드를 읽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 한상궁 입장에서는 장금이가 절이 필요한 거다. 자기 혼자 가리킬 길이 너무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레즈비언 코드로 읽힐 수 있었을 거다. '너 필, 제이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레즈비언 코드가 들어가려면 어떤 세 수열 코드가 있어야는 것 아닌가. 예수열 코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와 같은 폭세적인 친밀감을 형성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멘토적 맥락에서 그렇게 인용한 것이 아닐까. 레즈비언이라는 말조차도 생소하던 옛날에 이런 게 나왔으면 일찍을 거다. 그리고 크게는 궁녀라는 집단적 특수성 때문에 그런 해석도 가능해지지 본다. 실제 궁녀 사회도 그랬을 거다. 섹스를 통해서 대식(大食)을 하는 게 아니라, 피로함에 지쳐서 거기까지 가는 거다. 남녀 간의 사랑도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남녀 간의 사랑을 섹스로 푸는 방식도 있지만 가장 심심하고 힘들 때는 한 마디 말이면 될 거예요. 남자들도 이런지적일 테고. 그러나 그런 느낌으로 방을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거다. 어쨌든 드라마를 쓰고 나서 그 반응들을 보면서 '아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하고 많은 느낌을 받았다. 드라마 을 때는 사실 도덕적 기준에서,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란 한단적이라야 한다는 식의 기대감에 기반해서 쓰게 된다. 그런데 한상궁과 장금이가 주고받은 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 사실 내게는 충격적 새로운 경험이었다.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에게 몇 번의 선택 지점이 있었음을 느낀다. 전체 줄거리를 머릿속에 갖고 시작했겠지만 작가는 가끔씩 멈춰 서서 '자, 이제 드라마를 어떻게 전개시켜야 하지?' 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 그런 순간의 지점에 일 때마다 작가는 더 레디컬하게 여성들 사이의 관계를 섬중적으로 조명하고, 구성적으로 확장되기는 쪽에 아홉의 표를 던졌을 것

확인한다. 이것은 여성작가로서 그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용기있는? 아니면 '해공문화산업의 꾀'가 시킨 일이었을까?

드라마 프로서 가장 고민이 된 것은 민정호였다. 민정호는 기존의 드라마가 보여주었던 남자가 아니다. 내가 하거이 일 아니가 아니라, (대한군은 정말 여자가 주인공인, 여자의 성공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장>에서 여전히어는 역할이 적어도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어일으켰다. 그러나 민정호가 남자이다 보니까 뻔한 질을 하지 않고는 여자들이 그에게 매력을 느낄 수 없다. 첫째부터 여자의 최대의 매무분이 고운 정감이라 민정호의 관계였다. 어떻게 하든 민정호를 부각시켜야 하는데, 그러도 남자주인공인데, 예전처럼 하듯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이 남자는 나무 바보 같아 보인다. 시청자들도 민정호가 나무 바보 같다. 하는 것에 대해 불평의 압력을 주고, 주변사람들도 민정호 좀 살려주라는 메가를 계속 하고, 그렇지만 여자에게서 매력의 섬중스토리를 완성하는 데 제한가 되면 안되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했다. 민정호는 안되었다. 최종적으로 십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은 민정호의 사랑의 방식이었다. 더 자세히 "하얀이 나의 면모의 방식이다."라는 민정호의 말은 중정의 고민을 많이 한 대사인데, 그게 민정호의 최종적인 입장인 거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여자를 어떻 수 없이 사랑하게 됐다면 이 잘나가는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나는 할 일이 없고, 돼 보면 나보다 더 잘하구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하나. 하는 민정호의 고민을 도저히 어떻게 말이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결과지 드라마 상으로 민정호를 살리지 못했다. 말로도 잘 안 통하고. 결국 8회가 남은 시점에서 그 결정을 내린 거다. 무릎 처절하는 것보다 아예 더 확실하게 그런 태도를 지기 선호로 가지고 있는 남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까 도와드리."라고 민정호가 말하게 된다. 남자를 푸는 방식이 표현의 이야기다. 기존 사극 해문이 아니다. 기존 드라마가 보여주는 방로 관계의 틀이 깨뜨지 내 방책을 봉합하려 한다. 그

남자에 대한 예기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고, 사실 없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대학에서 남자가 많은 과를 나왔고, 나름대로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남자들을 많이 봤지만 생활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참에의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인정호는 자기도 정치인이고 할 나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자기를 버리고 여자를 택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남자가 나온 드라마로서는 <대장금>이 처음인 것 같다.

<안드로메다 라인>에서 우리는 세트장과 무표정한 모델들을 만나게 된다. 이 모델사회에서 남자들은 기꺼이 여성의 세계관과 삶의 양식에 자신을 귀속시키고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다른 이의 공동체 생활, 다른 식의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간다. 드라마 <대장금>은 서울에 사는 스스로 결혼해서 공간분리는 사고에 혼을 빼앗긴 생활한 페미니즘 영화였다면 이 이야기에는 놀라 같은 중성 속의 근대적 로맨스 가족 이야기로 읽힌다는 느낌을 준다. '여성이 나의 연모의 대상' 이라는 말도 대단히 근대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마지막의 이 중성을 근대적 중성으로 보지 말고 <안드로메다 라인> 같은 가상의 세계가 열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나 확실한 페미니스트 남편의 위치를 스스로 자인하는 인정호와 어머니를 똑 닮은 딸아이. 장금이가 딸아이에게 묻는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딸아이는 "엄마가 되겠어요." 라고 말한다. 즉 '남성 같은 여성이 되겠다.' 는 것이다. 장금이가 "그럼 아버지가 집밖에서 힘들게 번 돈은?"라고 되묻자, 딸아이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대목은 이중적인 감정을 자아낸다. 가족이 없이 개인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었는지 남편적 사회이라는 것이 없이나 하구였는지를 무비판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불편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 남편적 사회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드라마 상 그런 여할 수 없는 논리적 귀결이었음에도?

처음부터 나는 드라마 전반에 걸친 주제를 '어머니성' 으로 잡았다. 여성이 남자들에 비해 더 위대할 수 있는 면은 어머니성이다. 이건 내 신념이기도 하다. 여자들이 가장 감동적을 많이 일깨워고, 가장 힘겨하고,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일 때다. 개인적으로 나는 어머니를 모델로 삼고 있다. 나도 언젠가를 저절게 생활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낸다. 참금이의 위대한 재능을 어머니에서 많이 기대하고, 장금이가 어머니에 대한 예기를 많이 하게 만든다. '이 여성이 주체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 이 어머니성 감로는 위협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어머니가 곧 스승일 수도 있다는 것, 스승이 꼭 어머니의 이미지를 지울 필요가 없는 여성일 수 있다는 것은 흔히 선전하는 '모성 이데올로기' 와는 다르다. 생물학적 상에 기반해서 모든 여성에게 이러이러한 특성이었하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 받아주는 희생정신이 선천적으로 내재해있다고 말하는 것이 모성 이데올로기라면, <대장금>에서 구현된 어머니성은 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이 구성되어가는 과정을 바로 어머니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성이라는 말이 반드시 '모성 이데올로기' 의 그 '모성' 에 함몰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장금이가 끊임없이 어머니의 이미지에서 자신의 힘을 길러오고, 어머니와 자신을 중첩시키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여성의 내면성을 조리에 고양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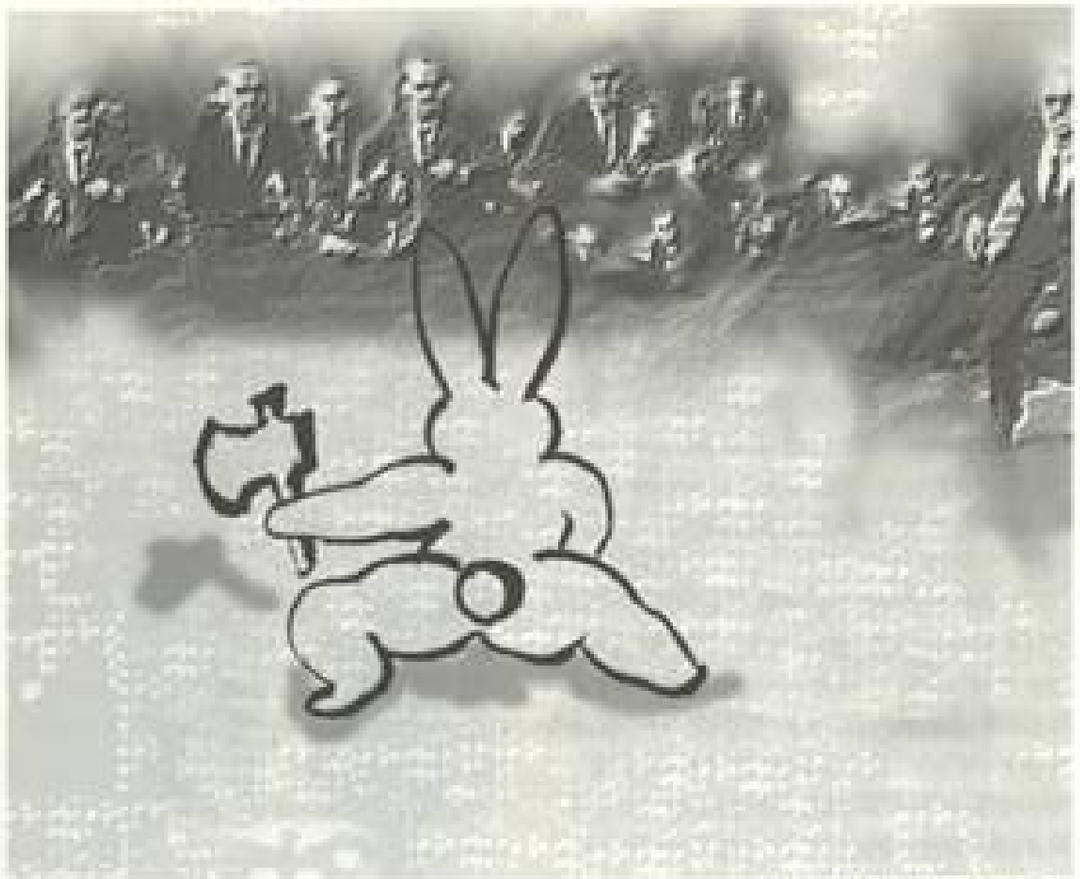
어머니라는 생에서 힘을 길어오다

문제는 '어머니성' 을 둑 '오이디푸스적 가족' 을 전제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도 가능하고, 결혼 안 한 어머니도 가능하며, 다른 여자와 사는 어머니도 가능하지 않은가. 또한 여성을 사이에 서도 어머니 되어주기 역시 가능하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여성이 어머니일 수 있는 위치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선했는데, 아직까지 어머니는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여자이고 많은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한 지점이 필요로써 다시 오이디푸스적 삼각구조로 환원하는 것 같아 실망 하기도 했다. 그것은 역시 드라마에 마침표를 찍는 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대장금>은 여성 캐릭터의 자리를 굳어지 지우지 않고 새로 그림의 방으로 드라마를 전개시킨 성공적인 예로 남을 것이다. 드라마틱 영화인 남성 캐릭터는 영상의 공을 함께 만들어낸 여성 캐릭터에는 늘 무관심한 한국 사회에서 생동감에 강하고 독특한 여성 캐릭터가 계속 나오길 소망해본다. 장금이처럼 모두 다 성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성에 대한 사유 자체를 다시 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을 많이다.

여성으로서 나는 자부심이 있는 편이다. 많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를 기르쳐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여자에 대한 자괴감이나 열패감 같은 게 내게는 없다. 그리고 나는 자학 반인자 학생들을 본의 아니게, 정말로 많이, 너무도 자주 만나게 됐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나는 내가 사회 속에 있는 한인자라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이 지금까지 내가 사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드라마 속에서 여성 일고도 관리자로서 사회생계를 잘 꾸려나고 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조직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는 다시 사회 조직에 관심을 갖고 입장을 취하는 것을 거부하게 됐다. 그러나 직장는 드라마로 얻어질 할 수 있게 많지 않은가. 나의 유일한 바람은 '이 글이를 한심글에게 이야기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라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했던 젊심글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

사진 홍신하



누나는 매트리스를 펼쳐들 무렵의 이광수인.

두려우냐? 나도 두렵다!

오버랩되는 사람들의 얼굴들. 이혼법정에서 서로를 증오하는 전화벨소리, 분주하게 뛰어갔다하는 사람들…. 이리저리 치이고 휩쓸려 태풍 안팎인 여러 날.

이 모든 소음과 풍경들에 질서 남발을 느끼며 멍해져버리다. 정말 이 모든 대화가 모두어떤것으로서 서로 술해진다. 그 분주함의 본가운데서 문득,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아무것은 일일 이면서 3차원의 풍경감과 무감각이 무너져간다. 그리고는 무서울리간에 남성에이스가 존을 치는 베트리스 안으로 뛰어 들어간느낌이었다.

직장인 대접도 못 받는 여자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때에는 대개들 경험하는 사건대로, 마음에 멍이 들며 지냈다. 어지는 어떻한 직장을 다녀도 직장인이 아니라 한낱 '여직 또한 여겨진다.

화장을 안하고 다니는 모 여자후장은 '네티켓이 없다.' 고 사장한테 주의를 받는다. 매해한 넘게 나는 젊은 남자직원들한테는 왜 '결혼한 넘게 좋기지 않다' 는 얘기를 경요하지 않는지. 자녀계를 관측 행사의 일환으로 홍보노트를 제작하고 돌리는 작업을 할 때, 광소에 서열하기 쉽는 능당을 즐겨하던 능한이 출장 업업무 일 중, "여직원들이 작성이 된면 보와 당일 주이 여직원들 저야 입는 것 아네?"라며 능당을 건넨다. "저는 저나는 없고 될만 없는데요. 근데 팀장님, 그거 성희롱 고발 감 이거든요."라고 응수할 수 있는 건 아직간한 안정주전 다 겪고 난 후에이 가능하다.

세월이 흘러 대리, 팀장과 같은 직급에나 지위를 갖게 돼도 여직원의 지위는 낮고 역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자사원들은 공문이 내려오는 달일로 모대의 모과장 등장 자기들끼리 처리해주는 난리를 피우면서도 자기보다 상급자인 과장급 여직원에게는 ××씨로 부르는 장면을 서슴지 않는다. 심하여 '아가씨'로 불리는 여직원도 허다하다.

이렇듯 여직원에 대한 차별, 편견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상에서 왕따시키는 것, 군가전절 등… 남성중심적인 분위에 항거하면서 소리 없는 저항을 일삼은 지가 몇 년이었다고, 그러나 항업으로 정한 없는 사회초년생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할 때성 백프런지도, 비슷한 직장생활을 이어갔다. 스스로 체득하고 터득하면서 말이다.

이중생활, 그리고 몬스터와의 만남

그 와중에 내 안의 또다른 존재인 몬스터(다중자아)도 해야하지와 얼이브였다. 메인 다중 성격이 아니라고 해도 다면적인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의 속에는 원심과 사실의 괴리 속에서 여러 몬스터들이 자라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좋은 도망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인 피주주 같은 캠페일생한 몬스터가 될 수도 있었으련만— 안타깝게도 사회의 관관이나, 불합의 속에서 태그이들고, 비틀리고, 흉적한 몬스터로 자라중식해에 배란점.

학소의 돌파고 놀여입던 내 안의 어눔은 어느 황당한 순간에 느닷없이 튀어나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함부는 언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때로는 근거 없는 오만함에 히기양양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분열이 보그라들어 겨업게 움크리고 피들에 지냈다. 그런 모습에 깊은 자기연민을 느끼면서, 고승도지 제거를 통해 키고 있는 정직한 어제할 마음 몽땅다.

그렇게 피폐고 무어린조한 시간이 흐르고 내 삶의 모델이 되어준 세상의 재에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세상전반 전전지지업 세상을 해쳐 나갈 자신과 용기를 가지게 된 나. 이리저리한 어려움이 도사리는 도시의 생글을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선할 수 있었던 것은, 구구절절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내 상태를 보듬어 안아주고 이해하는 그 안대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힘난한 이 세상을 믿고 나가는 내 발과 소금이 아닐 수 없다.

비밀 언덕이 생기던 날부터 많은 변화가 생겼다. 내 안의 몬스터들이 요모조모 표출거리가 늘어지는 변태를 시작하고, 그리하여 커진 세상의 나눔거가 되어 주는 역할을 해게 되었다는 것.

남자, 그들의 숨고

남자, 그들은 영원히 나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이 보고 듣었으며 경험했다고, 그리하여 더 현명하다고 말하다. 결국은 그들이 정립시킨 순순히 받아들여왔다. 게다가 고업계도 근대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일적들의 사회적응력, 순서가 명령심각 그리고 생존법칙에 대해 지정하지 않다. 그리고는 "나서지 마라, 튀지 마라, 절대 자료지 말고 자신을 정해라."고 하염없는 조언가을 시공지 않는다 듣고 보니 그닥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조언혹은 경험적을 해할 때에 수용하기엔 어렵지 않을지라도 냉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남성위주의 사업체계, 이곳 정체, 그 조언의 과정 모두 냉해가 난다. 여자하는 존재을 보호하기 힘들다

(정글에서 살아남은 나는, 나만 무도하다)

수련목록 - 넘어야 세상은 정글 같고 적고 악하기

- 상황이 절박하게 몰아칠 때 이성에 문장을 도와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일관하기.
- 편견과 그릇 된 인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편견 깨트리보기, 뒤집어보기.
- 비관적인 그림을 어제에 여기거나 정복을 얻다기 위해서 남을 이용해 여기는 정상군 마키님의 주옥 같은 말씀.
- 나만의 작은 즐거움이 코드를 여기저기에 흩뿌려서 보물찾기의 즐거움을 실생활에 도입하기.
-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를 변화하기지금 백조의 미을 어려고 해도 좋다. 흑두루미로의 인정받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 다른 사람의 경험을 경험하여 내 일거름으로 만들기.
- 실적압을 갖 같은 인사하는 같으른 태세하게 대처하고 속으로는 생하기.
- 뒷이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세련되게 거절하기.

당신 곁이라 여겨 정도로 위급해져 그들의 세상에 어설이 동참하는 것을 거부한다. 무식무식한 속도로 내달리는 경쟁사회에서 한발이라도 앞설까? 더 늦어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겠지 싶어 이해를 하려 들면 그러 된 것도 아니다 싶지만, 어쨌건 무리들의 질책에 대한 이해를 가질 이유조차 커리는 그들이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결국 이해의 일환 일 뿐이다.

불편부한 경쟁력으로 여성의 이해에 방두를 감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두려우냐? 나도 무섭다—"

차세술

남자들의 경쟁 속에서의 논리를 찾아생해하고, 무당한 상황에서 내 안의 본스터가 일고있어나 사용을 해고 소란을 피우더라도, 그들을 잘 다스려 함께하게 '기세압 당해주기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의 약점을 뱉어 찾아 공격의 공을 원해식키고 사태를 빠른 시간에 수습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처세술을 소개한다. 여성의 생동한 세상을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태트기만, 여술도주변지도 문제 의식을 놓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내 안의 본스터들이 준비 충분한 조력자가 될 모습을 기대하며 수련이라니 생각하고 만나해보자. ☑

글 박조상희 / 일러스트 모선

단, 일을 그만두거나 해볼수밖 없은 경험도 있다던 그 일이 조언을 어제 넘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구원하는 같이 많은 삶다. 오히려 그것은 여자인 나에 대한 기 세상이요,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이제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 때문에 혼자 상처 입고 복그러지거나, 급진적으로 대처하거나 하는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듯하다. 무서 원망해서 도움 받게 되어지는 경험이 능구렁이가 되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삶의 방법인 것만은 확실하다.

아직도 가야할 길

21세기를 시작한 지구별은 아직도 남자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유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공아가는 경제활동의 생활성전에서는 그들과 일부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가치가의 행태를 업하게 된다.

남업적 많은 조기업 내리는 보감을 표하/남두가 먹어지도 않았거니와 불편하거나 불쾌할 때도 있다는 신사적인 배려 또는 기사도정신을 발휘하여 여성을 보호해 주었은, 지금 정리는 여일만 보호된다는 그러다가 프로레식년한 직장동료이나 친후배의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직업세계안은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기나 했는가 하는 내용까지 한다.

그들은 아직도, 이 세상이 그들만의 세상이라 여기며 여성을 개정의 정도로 취급한다. 물론 여성 개인의 '업무 에 따라 반가운 귀빈으로 맞이하기도 하고 혹은 눈

릴리스,
신과 맞짱 뜬 최초의 인간

릴리스 이름에 얽히고 설킨 복스럽지만 내 머릿 속 주살의 이유이다. 내가 릴리스를 처음 알게 된 건 4년 전이었다. '신화로 영화읽기, 영화로 신화읽기'라는 메제로 여태껏 지나가는 귀동냥으로도 듣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 였던 것이다. 단군 신화도 자세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어 단군을 낳은 웅녀 이전에 먼저 환웅과 결혼하여 세상을 다스렸던 여성이 있었다는 설정인 셈이니 흥미진진했고, 그 거대한, 지구상 최고의 페스트셀러라는 성서 창세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엿보는 듯한 재미도 만만찮 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것은 '릴리스' 란 인물이었다. 인류 최초의 여성, 아담의 첫 아내로서가 아니라, 여성상의 제1의 룩스를 위기 위해 아담을 버리고 박차고 나왔다는 식의 다소 경악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경전으로 하루는 등, 바로 신(神)이 준인된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주인의 자유 의지대로 살아가길 택한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이었다.

악마의 여성상의 룩스를 읽기다.

릴리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스토리가 세각각 조금씩 다르다. 『탈무드』 『사해문서』 『보완』 등에 나온다고 하는데 원서가 고대문서나 구전설화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정확한 스토리를 확인해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인터넷과 여러 책에서 찾은 것들을 종합해 하나의 얼개로 짜보면 다음과 같다.

태초에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아담과 똑같이 흙으로 릴리스란 여성을 만들었다(혹은 릴리스가 원래 사탄 인 루시퍼의 아내였는데 루시퍼에 너무 난폭해 그를 버나 에덴동산으로 들어갔다고도 한다). 릴리스는 섹스를 할 때도 여성 상위 체위를 원했고 늘 자신은 아담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하지만 아담은 남성 상위 체위만을 고집하며 사사건건 릴리스를 억압하려 했고, 화가 난 릴리스는 아담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에덴동산을 떠나버렸다. 그러자, 아담은 신에게 릴리스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신은 릴리스에게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지만 릴리스는 거절했다(에덴동산을 떠나 천상으로 갔다고도 하고 혹은 홍해로 갔다고도 한다). 홍해에서 다른 악마들과 여성상의 섹스를 즐기던 중 아담의 몸과 결혼해 모든 악마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 이에 격노한 신은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들을 매일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했지만 릴리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릴리스의 자식들은 모두 죽음을 당한다. 신은 이번엔 순종적인 여성을 만들 요량으로 흙이 아닌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이브를 만들어 아담과 살게 해준다는 이야기다.

이쯤 되면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배신감에 슬퍽 치밀어 오른다. 먼저 아담은 산악과를 따먹자고 꾀는 이브의 유혹에 넘어갔을 뿐인 순진남이 아니라 신의 존재함을 믿고 절멸거리는 바보이 아니 '멍보'이지 않는가. 게다가 여성 위에 군림하려는 전형적 마초라는 이브는 또 어떤가. 릴리스에 비하면 오히려 정숙가련형에다 매달릴 이브가 그간 짊어진 원죄가 억울할 정도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여성, 뱀의 말에 넘어갈 정도의 미숙한 판단력으로 화를 자초한 여성이란 낙인을 안고 있어야했으니 말이다.

최근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만화에 머지않는 비정상적이고 괴팍한 모성애를 공포, 엽기적으로 살해하는 『릴리스 콤플렉스』라는 책이 나왔다고 한다.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릴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풍성해질 것 같아 반갑다. "릴리스를 억압하고 이브가 희기만을 바라는 아담 때문에 여남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저자의 말에 기꺼이 동의한다. 하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나는 릴리스의 이야기를 굳이 여성 내 남성의 이야기로만 읽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든다.

신을 거역했다. 그리고 악녀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릴리스는 신과 맞짱을 뜬 최초의 인간이지 않은가. 혼잣 신화읽을 따올려보자. 당장 그리스로야 신화만 봐도 신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치고 무사했던 이가 거의 없다. 심판을 앞에 둔 두렵기였다고 거역가 된 아테크네, 여신의 나체를 몰 벤했다는 죄로 사슴으로 변해 사냥개에 물려죽은 악타이온, 그리고 주석들을 너무 자랑스러워한 니오베는 그 벌로 자신의 자식들이 죽임당해 죽는 걸 지켜봐야했다. 그렇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백여 명도 넘는 자신의 아이들

이 모두 죽어가는데도 결코 복종하지 않는 릴리스는 어떻게 처벌을해? 동장 신의 뜻을 거역한 본보기로 그 어둠한 땅로가 자세히 본해 내려버야 할 지옥대 이면생 중 다르다. 살해당한 자식들에 대한 복수로 갓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는 악령이 되었다든지, 악마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식의 악마적인 존재이 전해진다는 건 오히려 더 흥미롭다. 빠져하면 그 후임남아이얼로 릴리스가 여전히 신과 맞짱을 뜨고 있으며 아담의 후손들이 릴리스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릴리스와 아담은 살별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과 비존재 인간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은 맞는지 신에게 간청했다. 조지아 피도루니 박을 낳아고 했으면서도 자신의 백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에스키보단 자기의 입맛에 맞추어달라고 말했던 (사실 릴리스의 자식들을 신이 죽였다는 대목에서도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아담의 자식도 될 터인데 왜 릴리스만 자식이 죽는 일도 자기 허락을 받은 이상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릴리스가 아담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은 아담이 싫어서도 아니고 신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릴리스는 아담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아담이 릴리스를 거부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릴리스는 아담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아담이 릴리스를 거부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야기로 해도된단 말인가. 그래서, 아담의 자존심은 이렇게 해야 직한 거다. 이렇게 해야 살아있다는 식의 해능형태로 식는 걸 거부하지 못한다. 내세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종교단체에 헌금은 무진정 한다 해서 먼지도 계 열의 행복는 도울 줄 모르고 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진은 이야 신화 속의 불가사의한 존재가 아니다. 실생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실제 부분을 다짐하는 신은 가부장제, 남성우월주의, 이성애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던가. 남성 하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좋다고, 결혼하면 관계없다고, 너무 기 세게 굴기보단 남편 말 잘 으라고 타이르며, 직장의 세상의 기준과 타협해 만하면 자리를 못하 놓이 않으라고 유혹한다. 그리고 보니,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을 죽이겠다고 한 신의 협박은 현실적 이익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고통과 불행에, 비난과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위협일지도 모르겠다.

꼭 남자와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담에 비해 만만한 나된보다 과감히 맞설을 선택한 릴리스는 모든 답답한 구속들을 거부하는 자유인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릴리스가 그리스 시대의 사포보다 앞서는 레즈비언의 원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했다. 릴리스가 이브와 사귄 것도 아닌데 무슨 개를 한바적는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굳이 레즈비언을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여성, 혹은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으로만 정의내릴 것도 없다.

서구사회 지독한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도 자신을 정체화하려면 동성을 사랑한다는 사실보다 먼저 '이 세상 모든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사랑한다.'라는 믿음을 거부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거어도 릴리스에게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함께 살아야한다.'는 의무의 믿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아가 반드시 '신이 정해준 방식대로 살아야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어 보인다. 영장 '인간적 이란 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릴리스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몸이 아려버린 나쁜 에너지 자식 잃은 것은 생명체이기 이니라 결정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아서가 아닐까. 어쩌 손을이 굳도록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슬픔의 표현이겠으며, 신의 말을 듣지 않은 피인이란 무엇한 명예를 두려워하는 것만이 옳겠는가. 가장 릴리스가 여성상위체위를 취했다는 것도 그 세워가 아직 '하늘과 땅 의 위치가 뒤바뀌면 안되므로 남성상위체위만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지만, '반드시 여성만이 주도해야 한다.'고 한 건 아닐 것이다. 여성상위가 남성상위보다는 리얼의 초과가 높다는 점에서 볼 때 그것은 주, 생식과 연결된 섹스만이 옳다는 걸 거부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릴리스가 출한 작은 조각

그리고 보면 릴리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주위엔 릴리스를 닮은 사람들, 세상과 맞짱뜨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당당하게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꿈이 좋은가 보다. 내가 세상을 여러가 신에 세상이 멈지 내동댕이치버린 '레즈비언'이 된 이에 나된에 대한 미련이나 환상도 일찍감치 떨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빠나 소심한 성격이라 이제면 그리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참 다행이란 생각을 하다 나는 또 엉뚱한 상상에 빠져본다. 기독에 남아있던 철학 한, 릴리스는 신에게 집들어진 아담과 이브의 자존심 만이 자라는 걸 경계해 어느 날 세 몸을 적다준 일명 이도 나누어 지구상에 뿌려두지 않았을까. 그 무수한 일명이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환생을 거듭하고 있지 않을까. 릴리스를 잊지 말라고, 인류에게 인간의 원형을 잃지 말라고 말이다. 아! 어쩌면 혹시…혹시… 나도 그 먼 옛날 릴리스가 이 세상에 흘린 아주 작은 한 조각이지 않을까. ⓜ

한혜경(한국상록소수자문화인권센터 부대표)

서태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태지가 이번에는 여성인권을 이야기했다. 신곡 발표 예고와 교육방도, 사전심의제도 등 사회문제들을 꼬집으며 파장을 일으켰던 그가 이번에는 7집 수록곡 <Victim>을 통해 여성폭력 가해자는 폭력을 가른했다.그러나 음중의 방송 3사는 '낙태', '살인' 등의 폭력적 이미지로 표현된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며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서태지 팬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녹칠 살리기운동'을 펼 전개하고 있다.나여성문제에 대한 서태지 본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책임의식한 접근하고 있다 서태지를 사랑하는 세대나스트등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고 – <이브>는 세대나스트가 바라본 <Victim> 은은,서태지 팬덤 등에 대한 우리얘들 이번했다. 잘꾸는 팬 나라은 팬 폭도 아는 팬,고민하는 뜨식꾼처 등 등 다섯 여우의 목적이을 수다회.그들의 답답한 마음이 풀릴 것인지 세 사인이 남은 수다를 들어보자. – 편집자주

Take one 태지, 여성을 말하다
박칠, 그 이후

윤혜 ▶ 먼저 <Victim> 세지도 시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서태지가 정책 공연에서 이슈 박칠과 여성문제를 정면 언급한 이후의 반응을 얘기죠.

나래 ▶ 공연장에서의 서태지 멘트 을 직접 들은 분?

최도 Min ▶ 네가 이번 정책 공연을 보냈, 아시잖 날 같는데 그때 서태지가 박칠의 방송물가 론일 이야기을 커녕연서,속상이 들어진 것도 이닌데 이런 질과가 나왔다는 건 방송사측에서 여성인 분 문제을 바면하는 거다, 그러니 이분 주비가 함께 해주의. 이런 요지도 강한 말인을 했죠.

나래 ▶ 근데 문제는 그 이후 공연 분 박칠 살리기 운동에서 서태지가 말한한 여성 문제입은 정작 고개 이슈화 되지 못했다는 거죠?

고경Ho ▶ 저중은 론일 이야에서도 그 말한에 대한 공감대가 전체적으로 형성된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 이유가 서태지가 박칠에 대한 세심이을 요청하고 포위기가 당국이기 시작하면 이 박칠 살리기 아제도 생기고 주비 이 없이 해오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이면 이도 팬들 내부에선 계속 은통이 있었어요. 여성 문제에 대첫 서태지가 정말 이중일 수도 있다, 이 이런 거얼이 목소리가 나왔던 거죠.

윤혜 ▶ 그런데 이 문제를 여성문제로 보지 않고 인권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서태지가 이 문제를 인권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최도 Min ▶ 인권이 여성인권이고 여성인권이 인권이죠.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봐요.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여성문제가 이슈 될 수 있어?

고경Ho ▶ 사실 지난 3월 29일 서태지가 발매하루이후 그 말한이 나오면서 생일도 방송에 출기기 전에 공문이 논의되고 상당할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일단 방송심의 문제부터 함께 제외보자 이거였는데 그 무렵하루하는 와중에 여성에 대한 구단적인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죠.

나래 ▶ 그러면 화장에 최수문소문제가 터졌어요. 주로 서프에이드생일로 제외이된 방송하을 서태지가 출연하면서 서태지살린 회원들을 주장해서 받을 해주기로 했는데 최수문소작가이 30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을 둔 거예요. 그게 일러적인이 이 문제을 여성문제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보자라는 공감이 존사이도 제시문에 공감도기 시작했어요.

윤혜 ▶ 그래 일어 출연을 무고도 논의이 많았죠. 결국엔 서태지가 출연한 다면 받기 후 시프로가 하면서 손정이 됐지만.

<Victim> 뮤 ▶ 사실 그리 출입은 어느 정도 완제가 있다고 봐요. 이무리 법개적인 문제제기을 한다 해도 스타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그걸 남여자의 문제느냐는 비판도 무리이을 예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많았고.

윤혜 ▶ 서태지 자작은 문제나 인권 문제 예하는 문법적 다른 변중이긴 하죠. 사실 그 비문하지는 서태지의 표집이 문화 교육에 나서는 방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만해서 그에 대해 방법적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했어요. 사실적 논의을 거쳐서 대안을 방최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 별 박칠이 왜 방송금지을 당했나 하는 논의가 있기 전에 서태지가 먼저 강하게 반발을 하니 생들이 생각는 다르게 루행화방하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화이간 점수 박칠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정작 문제가 된 건 그런의 서태지답 예나 제작은 논별 예하는 다르게, 감각당하는 문제적 그 하이을 분리해서 시고을 하는 거였어요. 여성문제와 방송심의 문제. 이렇게 말이지. 그 중복의 여성문제는 인권은 문제니까 주인 심의문제만 가지고 가야 이렇게 본 거고. 근데 나는 그게 어제가 된 거는 거예, 그 거나의 대상성을 주장하는데 이렇게 여성문제을 인니라이 말을 주가 심어. 이건 문법적 서태지가 여성의 본질적인 문제을 짚어냈다는 게 아니기 없는 건데 설적 예을은 여성문제와 함께 가이 못한 거죠. 그이면이 오히려 본제 여성계에 대한 여러 플인들이 일부 팬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는데 일반 대중들의 여성계에 대한 편견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윤혜 ▶ 그렇다면 서태지 자작은 문제나 인권 문제 예하는 문법적 다른 변중이긴 하죠. 사실 그 비문하지는 서태지의 표집이 문화 교육에 나서는 방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만해서 그에 대해 방법적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했어요. 사실적 논의을 거쳐서 대안을 방최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 별 박칠이 왜 방송금지을 당했나 하는 논의가 있기 전에 서태지가 먼저 강하게 반발을 하니 생들이 생각는 다르게 루행화방하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화이간 점수 박칠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정작 문제가 된 건 그런의 서태지답 예나 제작은 논별 예하는 다르게, 감각당하는 문제적 그 하이을 분리해서 시고을 하는 거였어요. 여성문제와 방송심의 문제. 이렇게 말이지. 그 중복의 여성문제는 인권은 문제니까 주인 심의문제만 가지고 가야 이렇게 본 거고. 근데 나는 그게 어제가 된 거는 거예, 그 거나의 대상성을 주장하는데 이렇게 여성문제을 인니라이 말을 주가 심어. 이건 문법적 서태지가 여성의 본질적인 문제을 짚어냈다는 게 아니기 없는 건데 설적 예을은 여성문제와 함께 가이 못한 거죠. 그이면이 오히려 본제 여성계에 대한 여러 플인들이 일부 팬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는데 일반 대중들의 여성계에 대한 편견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윤혜 ▶ 그렇다면 서태지 자작은 문제나

최도 아는 분

세이난들은 입 닥쳐라?

고경하 본 | 얼굴 작업이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갖고 나아가면 듀얼 비디오를 만들면서 표현을 많이하는 형식이라든지 뭔가 지속적인 방향이 계속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얼굴> 본 | 사실 작업의 경우는 좀 특이했어요. 그건 서태지의 얼굴이라고 하는 상징인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서태지 얼굴을 안은채로서 사람이 느끼는 여러가지를 이야기한 건데 막상 저 자신이 주체가 아니고 이끼보는 입장에서 여성들의 고통에 공감을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걸 강조했죠. 거기는 얼굴 같은 상징적인 커플에 섹시로 강한이미지 얼굴이 있는 여성 관구가 이 속에 얼굴 큰 히로를 만났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서태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통에 공감을 해고 얼굴을 해주는 여자 없다는 자기만족 같은 얘기도 했고.

Yaku two 서태지팬입
폭순이의 무수히의 경계에서

노라본 본 | 근데 지금 우리 세기가 서태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보다는 서태지의 팬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점이 모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윤아는 본 | 서태지 하면 팬들을 빼 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루세요.

노라본 본 | 서태지에 대한 담론이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이 아니라 해체 이후에 서태지으로 대중문화 담론이 존재하므로 얼마나가 서태지 얘기를 얼마나 더 하고 싶어요. 서태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비롯한 문화론도 소멸하지 나오고, 하여간 같은 책임이 있었냐도 그런 상황에서 서태지가 다시 중으로 컴백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양하게 반론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신화로 만들어버린 팬구가 스스로 그걸 거부하고 나 여기 있어요라 하기면서 서신이 등 하는 등고 나오니까 조금 당황한 건지 서태지에게 문화대통령이란 이데올로기를 부여하고, 그 영웅성, 과히 이런 표현을 부끄러워하기 정작 컴백을 하고 나니까 당황하면 주변을 더 부끄러워고.

고경하 본 | 사실 3집 때부터 갑해요 그런 게 서태지는생을 비롯해서 컴팅 났어.

노라본 본 | 그런 게 존재 이후에 신화적으로 좋우가 되었다가 갑해와 함께 부정적인 얘기로 세상이 다시 갈아 난 거죠. 사실 서태지가 얘기에 그리고 문화가 말하는 건 누구나 아는 거고, 문제에서 대해서도 꼭 주목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었고. 그래서 팬들이 더 과격하게들 모여 말하나 생각해요. 이런 맥락에서 서태지를 지킨 사람은 우리팬이다 라는 거지요.

최도 아는 본 | 사실 그런 서태지은 3집 때부터 이미 갈했던 것 같애요. 우리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 스포츠 선수의 그런 선입적인 기대들과 달리 해주기도 하고 그랬죠.

고경하 본 | 서태지 팬은 서태지도 이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6집 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엔 갑해적 세상 이루면 얼굴 주변 팬들이 서태지의 존재는 문화적인 인자로 서태지 으로하면서 생활에 영향적으로 더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얼굴> 본 | 난 사실 6집부터 좀이 본 이죠. 서태지가 한계라면서 전곡을 정해 느꼈던 무생적인 이미지들을 절각 해소 시킨 건 그의 음악이었던 거지. 그 가사가 주는 영향들. 아직 인터넷 서태이의 팬사이트를 방문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또 있었고. 서태지는 자신의 자신의 음악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 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이 우상은 서태지 레고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서태지는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취했고. 그래서 서태지는 여기 넘어 있어만 팬들과의 존재는 생명적 영향력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최도 아는 본 | 본 스포츠맨이고 할 얘도 많아요. 팬들과 서태지는 매우 밀착된 관계인 건 분명해요.

윤아는 본 | 나도 해신부터 팬이긴 했지만 특히 6집 때 서장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좋음하는 생활의 감이 들고 음악 공연도 자주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언더에서만 생활한 뮤즈들을 보면서 같고 나온 게 6집이잖아요. 특히 외국의 록 공연들을 보면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부러웠는데 서태지가 그런 문화공을 본격적으로 실현시켰으요. 정말 기존의 국내 공연문화하는 너무 달랐어요.

노라본 본 | 근데 정작 무생적인 목소리는 6집 때 가장 높았죠. 특히 언더 록 노브레인 같은 그룹을 주축으로 한 펀 같은.

윤아는 본 | 그건 일곱의 음무별인 거예 중심이 있었죠. 그 때는 중에 생활이 제시하에 들어하지 않다는 것이, 너희 빠순이들 때문에 서태지가 우리처럼 음악을 아는 사람들을 소홀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공연장에 갔던 팬들은 중에 이유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얘기에 더 이 반발 심리였고, 또 그런 말 한 팬도 있고 승생 경험자에 만났어요. 공연장에 가서 얼굴 사생같은 해서 놀이 같으면 우리 빠순이가 되고 만다, 뭐 이런 얘기 같은.

윤아는 본 | 음악을 주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유로운 건데, 그러면서 팬들이 획일화하면서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가.

노라본 본 | 언더한테서 얼남다면서 서태이 속하는 인간들이냐, 그런 말을 내 얼었던 슬래이었이나 같은 속속들이가.

최도 아는 본 | 그렇지 주는는 해신부터 좋아했는데 나라들이 욕을 얼마나 얼

사람이 좋.

노라본 본 | 그런 게 존재 이후에 신화적으로 좋우가 되었다가 갑해와 함께 부정적인 얘기로 세상이 다시 갈아 난 거죠. 사실 서태지가 얘기에 그리고 문화가 말하는 건 누구나 아는 거고, 문제에서 대해서도 꼭 주목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었고. 그래서 팬들이 더 과격하게들 모여 말하나 생각해요. 이런 맥락에서 서태지를 지킨 사람은 우리팬이다 라는 거지요.

최도 아는 본 | 사실 그런 서태지은 3집 때부터 이미 갈했던 것 같애요. 우리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 스포츠 선수의 그런 선입적인 기대들과 달리 해주기도 하고 그랬죠.

고경하 본 | 서태지 팬은 서태지도 이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6집 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엔 갑해적 세상 이루면 얼굴 주변 팬들이 서태지의 존재는 문화적인 인자로 서태지 으로하면서 생활에 영향적으로 더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얼굴> 본 | 난 사실 6집부터 좀이 본 이죠. 서태지가 한계라면서 전곡을 정해 느꼈던 무생적인 이미지들을 절각 해소 시킨 건 그의 음악이었던 거지. 그 가사가 주는 영향들. 아직 인터넷 서태이의 팬사이트를 방문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또 있었고. 서태지는 자신의 자신의 음악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 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이 우상은 서태지 레고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서태지는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취했고. 그래서 서태지는 여기 넘어 있어만 팬들과의 존재는 생명적 영향력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최도 아는 본 | 본 스포츠맨이고 할 얘도 많아요. 팬들과 서태지는 매우 밀착된 관계인 건 분명해요.

윤아는 본 | 나도 해신부터 팬이긴 했지만 특히 6집 때 서장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좋음하는 생활의 감이 들고 음악 공연도 자주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언더에서만 생활한 뮤즈들을 보면서 같고 나온 게 6집이잖아요. 특히 외국의 록 공연들을 보면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부러웠는데 서태지가 그런 문화공을 본격적으로 실현시켰으요. 정말 기존의 국내 공연문화하는 너무 달랐어요.

노라본 본 | 근데 정작 무생적인 목소리는 6집 때 가장 높았죠. 특히 언더 록 노브레인 같은 그룹을 주축으로 한 펀 같은.

윤아는 본 | 그건 일곱의 음무별인 거예 중심이 있었죠. 그 때는 중에 생활이 제시하에 들어하지 않다는 것이, 너희 빠순이들 때문에 서태지가 우리처럼 음악을 아는 사람들을 소홀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공연장에 갔던 팬들은 중에 이유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얘기에 더 이 반발 심리였고, 또 그런 말 한 팬도 있고 승생 경험자에 만났어요. 공연장에 가서 얼굴 사생같은 해서 놀이 같으면 우리 빠순이가 되고 만다, 뭐 이런 얘기 같은.

윤아는 본 | 음악을 주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유로운 건데, 그러면서 팬들이 획일화하면서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가.

노라본 본 | 언더한테서 얼남다면서 서태이 속하는 인간들이냐, 그런 말을 내 얼었던 슬래이었이나 같은 속속들이가.

최도 아는 본 | 그렇지 주는는 해신부터 좋아했는데 나라들이 욕을 얼마나 얼

얼굴보고 좋아하는 팬?

노라본 본 | 문제는 그 얼굴이는 해주에게 오히려이런 얼굴 생존기들까지 만나 록 목소리에 얼굴을 해서 비굴적이 되었다는 거지. 소위 음악 좋은 얼굴이나 해야 해 같우기 하고들 건드리나, 얼굴이 있어 같은 거.

윤아는 본 | 서태지는 시나위 시절부터 한결같이 록에 대한 관심이 중심이었는데 얼마가.

최도 아는 본 | 그렇게 얼마는 사람들이 이렇도 신체 음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거 아니?

<얼굴> 본 | 사실 태지는 기존 시스템의 해결이라고 하기엔 우리 대중음악사에서 얼굴의 차이한 존재고, 때문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그 이름이 지칭을 제외도 얼이 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태지도 서이 오른이라는 음악을 통해 그걸 이의 해 얼을 했고, 그런 비판들은 서태지의 음에 그리지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소위 태지 빠순이 논쟁이었는데, 태지가 처음부터 "저는 제 얼굴을 보고 좋아하는 팬들도 소중합니다." 이렇게 얼마는 방식이 참 좋았어요.

노라본 본 | 그리, 서태지는 댄스 아이돌 그룹들에 대해서도 나쁜 말 안 했죠.

고경하 본 | 그 특군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진 게 6집 때, 공해이 사운이 있어요. 서태지가 시장독화를 선행해면서 그 고유한 본질 음해이들과 평을 사이

나이든 편.

어린 이런 문화가 근데 사실 그런 정말의 허황된 생각 아니? 솔직은 그런 게 아닌 거거든.

고은아 ▶ 공연장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영업상의 문제가 문제 있었어.

나래은 ▶ 사실 식대지의 입장은 이거 얼른지. 술대이들은 홍을 유두는 게임이어서, 내 콘일 중에 분명의 의외를 예전부터 있는 편도 있으니깐 중소한 콘일도 많아. 그래서 좋아 세이입에 노는 것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콘일팬에 보여주고 싶어, 이런 거 하나 문화주이라 보니까.

고은아 ▶ 그 고등은 술대이들을 중심으로 한 공연장의 이소지 문화기도 문제는 있는 거 같네요.

최소 이는 분 ▶ 일본 여이소닛 공연 내 이런 문화지, 근데 사실 그런 정말의 허황된 생각 아니? 솔직은 그런 게 아닌 거거든.

고은아 ▶ 공연장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영업상의 문제가 문제 있었어.

나래은 ▶ 사실 식대지의 입장은 이거 얼른지. 술대이들은 홍을 유두는 게임이어서, 내 콘일 중에 분명의 의외를 예전부터 있는 편도 있으니깐 중소한 콘일도 많아. 그래서 좋아 세이입에 노는 것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콘일팬에 보여주고 싶어, 이런 거 하나 문화주이라 보니까.

고은아 ▶ 그 고등은 술대이들을 중심으로 한 공연장의 이소지 문화기도 문제는 있는 거 같네요.

최소 이는 분 ▶ 사실 식대지 공연장에 가면 정작 여성 콘일은 빠순이 소리 들을 까 봐 오빠라는 소리도 조심스러운데 이상 남성콘일은 이에이 뭔, 이이면서 좋아요, 다른 데 가이 표출하지 못하는 감성을 식대지에서 표출을 하는 거죠.

최소 이는 분 ▶ 특 공연장의 이소 문화 시는 정말 문제인 거 같네. 남자들이 주로 무슨 좋아하는데 예수인 나래들이 될 양하는 문화기, 당예상 이조한 거 아니니? 이런 일에 보으로 공연은 남성 등만이 문화다 이런 거.

고은아 ▶ 식대지의 여성 콘일이 내 거 독콘을 시키면서 최이 일을 거하 식었다 이런 거 아냐.

최우는 분 ▶ 많이 안되지. 음악은 이지이 중기는 건데.

최소 이는 분 ▶ 영연의 그런 감에 나 스스로도 그런 일이 나오면시무원 저기 감일에 들어가는 거야. 공연장에서 식대지 콘일이 은일한 독콘이라면 큰 영향은 해 한 거냐 이런 이런이 일었죠. 근데 그것도 좋은 거거든. 내가 독콘이는 이 될은 영향을 사는 스타지의 입장에서 공연이 좋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식대지 분의 음악 수준을 논하는이 중.

최소 이는 분 ▶ 나을 이동한 식대지 이 사콘일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는 식대지 음악이 좋고 공연장이 나쁜 건나고 또 이게들도 많고 그래서 음거은 거 일단 좀 좋은 거거는 그런데 연은에은 무으은 것도 하는 분 을 하고 보는 거야. 이일콘일이 많은 건 일단 지보나 기타 이유 때문이다 위 이런 관연는.

식지않은 일이이 해

고은아 ▶ 우리 콘일 식대가 3일 째 부터 되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지 않나 해요. 남자 콘일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의식 없는 콘일이 되는 거다,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래은 ▶ 문일 오은이 있죠. 빠순이 논생에서도 소위 식대지 빠순이와 그 외 빠순이도 나뉘는 거지. 식대지 빠순이가 외면 소위 남자들만 무일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이들 가주일, 예능 일본 문화관? 하이간 그런 같은 가주일이 빠순이일도 무일적이라는 거예요. 음악이 식대지 콘일이 다른 콘일에 비해 우리는 돼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콘일하는 남자이랑다는 식이이이 강하고, 우리나라 콘일 문화을 주도해왔다는 자무감이 강한 감안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이 다른 빠순이일에게는 일단 적한다, 뭐 이런 점도 비롯이는 거죠. 그런데 소위 식지 빠순이인 우리가 빠순이에 대한 남성적 시선에 얽어이면 다른 빠순이들과 얽혀에 나가야 하는데 스스으로 자생화하는 일단 프라이 모순이 생기고 만연으로 적을 만들어 많았나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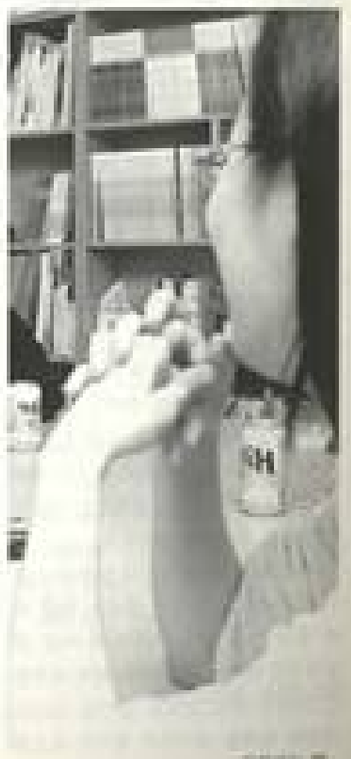
고은아 ▶ 식지 존재적인 빠순이 논생에서 가장 큰 어해를 보는 건 가수가 아니라 콘일이에요. 그 빠순이로 얽혀 있던 식신이던 그렇게 좋아지이고 남성 중심적인 게 또 있죠. 사실 1집 때부터 행일이이은 식에지콘인도. 식지은 정말 이이고 그이말도 소이들이 공일에도 식지일 기일이죠. 같이 세은 하다하기, 그이면서 개이은 관에 문에는 그 소이들이 공일해을 바라보는 식로지 식신에 적중부터 관건이 있는 거예요. 예을 들어 음은 소이 식일에 문제가 있다 이이면 일일 문에는 일을 시스템이나 음반 제작 및 유통 구조 이런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을에도 불구하고 일대일이 그 관중일 기호 해문에 음반 시일이 얼마 없이, 방일 실대 해문에 실대 해문에 하는 그런 일일. 그이면서 소이들이 공일에 의해서 모든 희생을 요하다는 게 문에요. 이호리을 좋아하는 남자 팬일. 이런 건 해 문에가 아닌 거고, 늘 문에는 일대 소이팬일인 건지.

최소 이는 분 ▶ 일본 식지들이 일본 콘일 시이에 문일의 일일일 소일이 존재한다는 느낌, 이로 일일을 주어 성일한다는

Take Three 식지지의 무리

나래은 ▶ 1집 때까지는 대지의 콘일 시이에 문일의 일일일 소일이 존재한다는 느낌, 이로 일일을 주어 성일한다는 것일 일을, 식대지 노래이은 적일 등지 비즈니스 이은 관에, 하이간 일일 사회가 보는 소위 '이은 식지에' 등에 대한 편견은 일일 문에이.

고은아 ▶ 그래도 6집 때는 그런 식지이 외무에서 하이 콘일 내무에서 일이는 그런 게 있었죠. 문화적인 문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을 이루어내면서 이일 콘일에 이런 자문심이은 게 분명 있었고, 문에는 7집 때에 와이 적일이 어일이지, 이 이런 문에가 생일되는 것 콘일 안에서 적을 만나이하는 일이 생긴 거지.



그런이은 분.

질무는 법

느끼기 힘들다는 7집 때는 괜찮 내무에서 그런 갈등이 많아지면서, 나와 다른 처지를 가진 분들의 눈치를 보며 말을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게 느껴지죠. 인문에 대한 피해의식. 강해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6집 때 사운드적으로 혼재하면서 우리가 방송 시스템을 알아나 비판했어. 근데 7집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된 방송 시스템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배적는 이런이 중요 사운드화되고.

나비든 본 : 나는 괜찮아나 이론이나 모두 오히려면 이러 같은 생각도 많이 이해 동의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사실 괜찮아 6집 때의 생각에 1주 일찍 인주한 건 아니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스스로 괜찮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지만 새로도 했으면 좋겠어.

동트렌드고 있어나 일지

최도 hip 본 : 이번 작업 건과 관련해 이슈라 된 느꼈어요. 우리 래들은 다들 알아도 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편히고 있던 변동등에 큰 상당을 했어. 여성 문제가 원래면 공지 이야기가 많아지 않아. 그러하에 나도 처음부터 지지는 거야. 이런 세상에서 계속고 싶은데 최이니스트임에 대한 공격등을 같은 괜찮 이야에서도 와이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나서서 해는 발언을 망설이게 되는 거 스.

나비든 본 : 같은 생각으로 관련에 나서지 못하는 괜찮도 문제의 일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도 hip 본 : 네. 문명 나 같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반응, 추천주는 같이만 리플은 없고, 논생 자체가 세진적인 활동하기 힘든가 해요.

나비든 본 : 이게서야 이래지가 주리가 기다려온 발언을 해줬는데 인터뷰지.

윤무는 본 : 다시 작업 이야기로 돌아가면 처음에 작업 얼터기를 한다는 거에 좀 안심했다 이런 말을 하고 거랬다니 여성문제에 대한 건 별 목소리 없고, 문의 문제가 중심이고, 인문에서도 여성문제 관련해선 연급도 없었죠.

2000n 본 : 처음엔 조주에 문제와 된에 가져 이런 말도 있었어요.

<SMH 본 : 괜찮도 나에 문제는 보주 일어났는데, 조주에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이슈로 음거였을 때 라면 내무에게도 충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괜찮 내무에서도 이제이의 페이괜찮은 거정스러운 존재인 거지 이래의 일난에 누명 거질 수 없다는 거정.

최도 hip 본 : 그러니까 그게 페이니스트에 대해이는 어떻게 보나면 시라성고 알 많은 존재, 사회에서 공감을 못 받는 존재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SMH 본 : 사실 요는 오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건 최수경 쇼 사건 이후에 된 건 정확하게 된 게 그거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으면 페이니스트에 대한 무리 이런 감정의 예정 이런 걸 또 마주치게 될까 봐 걱정이 되더구요. 따라면 남 문명이 이에서 괜찮은 여일괜찮이 주도 됐으로써 가지고 있는 여성주의적 감정 이 있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로써 그녀이의 독으로도 작업할 수 있음과 봐 거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래지는 이제 이슈를 안 넘었고 있으로도 계속 일정해야 하는 전군에 괜찮 사이에서도 너무 일찍 신화로 될 정으로써 이주하고 말이 버리는 수면은 없다는— 그러면서 이런에 비판에 게 남아있었던 때이에서 소통하지도 못 이래이에이는 건 아니지.

나비든 본 : 이래지가 변하고 있어에도 괜찮 사이에 그런 문제를 소통할 수 있는 힘들이 많을 이것에이면 거정이죠. 사실 이래이 이에서 이러한 문명괜찮이고 이런이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괜찮 이래도 이존이라 무브먼이 이이 문에한 존재가 되었고, 많은거일도 이이 그렇게 생기를 내었고 이런 문화가 속에서 이에는 이슈를 주변화적 받아들일 수 있는 무분이 좀 안되어지 않나 해요.

<SMH 본 : 그요. 이래지는 우리당 생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표는 많은 다 이동이 없다 하고 되는이 송인되는 문화기, 그래서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면 갈등이기보다는 이는 하기 이래를 이해 못한 거니까 벽의 이슈를 많고 그걸 이해해라야 이런 문화가가 있죠.

나비든 본 : 사실 이래지는 스타에게 생과의 소통의 문제가 많은 중요한 것이라고 얼해주는 것 같아요. 예나면 이상 이래이에게 남은 거랑 건 개인이 어르이 독특하고 주체를 찾기 힘든 괜찮이 많아요. 음악의 이래지 이존에는 스타와 괜찮 간에 이러당 이슈에게 얼랑을 이 사람이 많이 생성해주는 것은 유해가 없는 것두나의. 생성의 독특한 해석.

최도 hip 본 : 괜찮 사이로 그런 무주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래지가 문명이 괜찮의 해결을 만나일 된 에가 무굴무신하기도 해요.

우리는 함께 성숙하는 중

나비든 본 : 에전에는 나 스스로도 대무를 완벽한 존재도 생각을 했고, 그는 걸 말 문제고 기인이고 세상을 조절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말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말거렸 중요한 배가 있었어요. 괜찮가들이 말한 래지의 신화 속에 같이 함께하며 가는 것두지. 그런데 나도 어느덧 나이를 먹고 그런 환상이 조금씩 깨지면서 이래지 스스로가 하적 이런이 존재 성장해가는 존재 존재했이 존재, 완벽을 추구하고 살아야는 존재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 이런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됐지 그러니까 거리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거 하는 방면 들어 더 잘 이해하나구.

<SMH 본 :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괜찮의 입장이 더 강적 많은 게 문제이스스로 개성을 두거나 그런 게 아닌 것 주가 많거든.

나비든 본 : 이래지가 이상도 이야하나 공적인 직장에서 여성 문제에 대한 발언을 했어면, 나는 이상 문제가 된 일두 괜찮의 반응보다는 변하려고 하는 이래지 자체에 희망이 있다고 해요. 이래지 또한 자신의 괜찮은 어디 괜찮이는 다르다는 개무감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게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니까.

<SMH 본 : 본주가 만나주을 건 우리가 이래지에게 하고 싶은 메기입이 8집 때까지는 공감을 형성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내며 그 안에서 이래지에게 문제문이 많았는데 요즘은 괜찮도 그냥 당면의 다양 다존중이 안에서나 주가 고적거리는 경우가 많아진 거 같은.

나비든 본 : 이상 우리가 이래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상황 은 상대가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 될 아닌가, 우리에게 이래지는 뭐지.

최도 hip 본 : 사실 내가 이래지를 생 이해는 방식은 그에게 이상대는 거보다는 주관적으로는 내가 공감하는 게 더 큰 거 같에.

<SMH 본 : 괜찮 중에는 자신의 문제를 스타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 스타에게 성적하면서 있고 싶어하는 경향. 그러면서 자신의 생활이 힘그러지기도 하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래지를 건강하게 좋아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팔은 자신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괜찮들이 그와 대화를 해야 하고, 모든 문제가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 노력을 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내가 이래지로 인해 성장하려면 그도 일부분은 나로, 인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나비든 본 : 맞아요. 그 문제가 사실 서 래지와 우리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야 된 거 같에요.

최도 hip 본 : 이래지도 항상 그런 말을 하실까,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해주.

2000n 본 : 사실 나 역시 이래지 괜찮에 의해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대지를 통해 세상을 보고, 또 여러 아나이들이 같을 보면서 더 넓게 세상을 만나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있던 거요.

윤무는 본 : 그리고 보니 우리 중 맏은 이상이 없어 상담과 아니.

최도 hip 본 : 난 내 나이가 좋아.

나비든 본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 래지가 오해인 게 많이 좋아.

윤무 : 맞다 맞아요들. ☑

윤희 갈산별 / 사진 김민

왜 떠나고 싶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한국인입이 불편했던 베트남에서

"어느 날 문득 나는 긴 여행을 떠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하루키가 이렇게 도로변다지, 나도 견딜 수가 없어. 어느 가을, 일을 마치고 집어가던 길. 횡계를 앞둔 무너져 내리는 어린숙과 모진한 카페 그리고, 누가 봐도 한눈에 강릉인 줄 알 수 있는 사투리억양이 무심하게 지껄이는 그 시끄러운 한국어인 지라에서 '그만 보았다. 새로 지은 건물의 룸살롱에도, 음식점에서 새어 나오는 기름냄새에도. 우리이 질서정연하는 추억은 너무도 강렬해. 나는 가능한 멀리 낯선 거리를 걷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그래서 시간은, 정말로 바나이랑 해리는 것을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없었다. 가족, 가족, 나도 그저런 '표표히 표류해야할 때 라는 것이에는.

새벽 6시 15분, 방부 도착. 후진한 바람이 목목하고 들어온다. 처음 만나는 그 공기의 질감. 비로소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일깨주는 가장 설레는 순간이다.

후진후진한 공항 안에서 추운 시동을 마니며 입은 두꺼운 옷을 벗을 줄 몰랐던 나는 이제 막 도착한 이 방인. 우왕좌왕한 끝에 택시를 탄다. 밤하 몇 가 기사 아저씨가 물어본다 "고속도로로 갈까요?" "네." "돌아는 손님 부담입니다." "네." 질문의 순서와 내용, 모든 것이 프린트에 나온 그대로이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책자에 나온 그대로라면 어떨까? 후후. 카오산 로드에 도착했을 때 기사 아저씨는 택인의 돈을 받아주었다. 하지에도 나오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살으로 말하나 많은 우연들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까.

여행자들의 왕국, 방콕이면서 방콕이 아닌 곳. 카오산 로드는 수많은 수식을 나여 있는 도하다. 주황주황 하이싱을 하고 레게머리를 땋은 사람들, 큰 먼소매를 입은 그들의 호흡 소리가 가방에 흘어지고 식물에서 맡고 온 경로의 세상 무겁다. 이곳에서 눈기에 주리는 아닌 '적하게' 생긴 것만 같은데, 카오산 로드를 조심스레 빠져나와, 간신히 숙소를 찾아 넣고 누우니 새벽 4시. 잘 뛰으로는 조금하게 일어 돌고 계사 짖고, 나는 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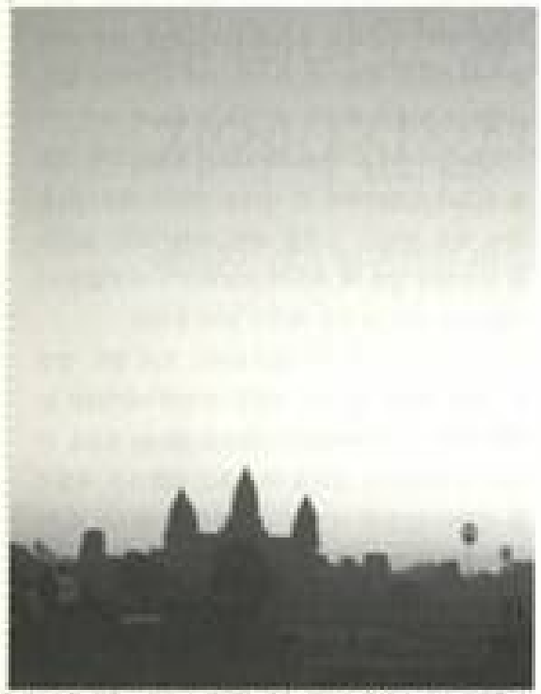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경험이 없는 나라 태국. 그러한 태국 사람들의 프린 자신감도 대하적이었을 테지만, 무엇보다 모든 처하기에도 보 배에 걸어지기에도 무거운 역사적 무게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전 세계 많은 여행객들을 이곳으로 향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은 이미 백인 여행자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곳. 여행자들의 천국 카오산 로드는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지 않는다.

길거리에 앉아서 팔다남은채국식 볶음국수를 먹고, 비닐봉지 가득 담긴 과일 주스를 마시고, 한켓 가격은 초저렴으로 카오산 로드를 기웃거릴지면, 백인 남자 친구 등에 업힌 프그마른 태국 여자의 머리드 웃음이 깊에 남은 그 길. 백인들을 위한 태국식생들의 고된 노동이 가득한 그 길. 백인들이 주인이 된 그 길에서 그들과 상관없는 아시아 여자인 나는, 카오산 로드와 온전히 친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일요일 밤에 떠난 버스는 새벽 4시 30분 낯선 곳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꼬 따오로 갈아가는 배를 기다리는 대합실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 눈 엣고 들어버도 아시아인들은 우리 일행들과 대합실 주인들뿐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걸까.

배가 출발했다. 고요한 새벽 바다를 힘껏 갈아내 앞으로 앞으로 간다. 씨, 그런데 파도가 심상치 않다. 시멘을 하는 기분으로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파도를 느껴보려고 애써봤면, 파도는 그리 달콤하지 않다. 전체보다 높아진 파도가 배 안으로 쿠아의 들어오기 시작했다. 무서움도 잠깐 뿐하다. 결국버스가 그곳을 빈도라고 갈아버린 건 아니도 배멀미 때문이었을 거야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하며, 백백거리는 소리도 분 다양하다 싶을 때 파도가 고조해지기 시작했다. 시커먼 하다 대신 새파란 하다가 눈이 부시다.

아무리 갈아 들어가도 하리들에도 오기 않는 방갈로 앞 바다에서 밥 먹고 해엄을 치면서 아이처럼 놀았다. 멀리 나란 바다에서 이중으로 둘 속 세상을 만난다. 내가 보는 이상적 지내라고 아름다운 세상이 또 멀아나 있을까. 나는 한쪽 눈으로만 살아온 게 아닐까. 고독보다, 가장 초기심 많은 꼬고기가 동그란 눈으로 뚠히 보며 '넌 누구니?' 고독보다, 시간도 바다도 바람도 공평히 흘다가 공평히 간다. 해변에 누웠다가 지켜보지면 피부에 누워 공을 하고, 해달간 머무



시엠리엡 일출. 앙코르 관람을 새벽, 입장료 절약의 팁은 나의 직업을 알아 가셨다.

관라는 독일인과 간단히 눈인사를 나누고, 그 앞에서 고마눈으기를 하던 태국 여자와도 눈웃음을 나누고, 아이스티를 마시고 변화를 찾고 점차난 명화주간지를 본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이 뜨고 밤이 지고—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그리워할 풍경이다.

세 명의 보이는 게 국경이란다. 그리고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면 된단다. 걸어서 국경을 넘다니— 나는 몰래 감격했던 것 같다. 하늘까지 솟을 뿔아올린 수해들과 사람들로 국경도시 포이펫은 북새통을 이룬다. 전쟁 후 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류가 많아지며 일자리를 찾아 이쪽으로 온 사람들 때문이란다. 전쟁은 끝났어 아니라 구체적인 평화이라는 것 등이 물은 흥정문들을 뒤로하고 사람 걸어왔다. 이제 막 우기가 끝난 직후라 사 안에 물이 없는 것만으로도 황은 경도였는데, 포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폭격이 심했다니.'라고 한다니, 도로 사람이 어떻게는 상상이 될 것이다. 오른하게 달리는 차들이 만들어내는 흙먼지 속에서 하늘같이 좋은 집에 하여 있는, 주민으로 일굴을 정정 같은 아이의 하얀 눈동자와 마주칠 다. 몇 년 후에 아이는 어떤 눈빛을 갖게 될까—어떤 존 연인이나 감상 하위는 걸어지주지고 다짐을 하고 뭘 생한 흙먼지 뽀얗게 뒹인 걸어 다선등을 어떻게 지나게하였지 나는 모른다.

유스호스텔의 정보다야 언니들에게 얻심의 정보다야 얻을 때됐다. 룻스리을 상상의 어이하는 정보다야 많은 홍내로와 됐습다. 하은 목소리로 "어떤고아하요."하면, 그들은 룬하게 웃으며 주위 동료들을 소란스럽게 불러 모은다. 마지 "어머, 세네가 아문이네, 세네 좀 봐봐요."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하얀 눈동이 나에게로 쏟아지고 용기백배한 나는 조금 더 커진 목소리로 "아문 어얀얼얼 고아하요."라다 한다. 또는 눈도 입도 더욱 커진다. "어머머머 세네가 아문 지랑어네." 나도 감격해한다. 룬 가이드북은 정보다야 사람들을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사귀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도 그럴 것이 눈만 아주커기만 하면 그리고 상해 이손만 지어도 그들은 아주 친하고 정겹게 "와~"하고 온어버린다. 그런 조층 앞에서 어떻게 경계심이 많을 수 있을까. 버스 안에 구르는 동병을 보고도 모두가 "와~"하고 웃어버리는, 초등학교 아이 같은 사람들. 어떻게 선하고 어떻게 평화로운 눈을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땅에 평화가 있길 바란다.

다시 국경을 넘는다. 도착한 곳 베트남 호지민 시티.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을 뿐인데 태스콘트 위로 이글이글 올라오는 더위에 금세라도 녹아 내릴 것 같다. 그러나 더위보다 더 괴로웠던 건 이 나라의 호도아이 소리. 한대의 오도바이가 한번에 빵빵대는 게 보통 10번 정도니, 수백 대의 오도바이가 한꺼번에 빵빵댈 때 얼굴 찌푸리기가 힘들다. 그런데 며칠을 머물다 보니 빵빵 소리가 모두 같지 않다. '뉘이, 또

<캄보디아 오토바이(앙코르)>. 세상의 모든 오토바이들이 내는 빵빵소리들. 호치민 시티.

만날래.' 반가운 인사의 빵빵, '또 보자고 친구!' 어리운 자별의 빵빵, '어이쿠, 부딪힐 뻔했잖아 조심하라구!' 경계경보의 빵빵. 그런데 이 빵, 빵빵으로 십게 늘어선 오도바이 행렬이 싱글의 없다. 세상의 모든 오도바이에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똔로에 모인 것 같은 풍경. 이들의 우리를 모르는 예절표현에 수줍은 건 나뿐인데, 어쩐든 이렇게 사람이 가문이 넘치니, 기분 좋은 일이다.

베를 1475년의 큰 위의 도시 다낭에서 하루 두 머물 선정하고 간 곳. 발음이 레스트 하우스'는 한 레 이름보다 '고래이식 하우스'로 더 유명한 곳이다. 20년대 외의 문화에 깊게 빠졌다는 그녀답게 이곳은 생생하지 않다. 곳, 기어, 기린 등 테마를 갖고 있는 방은 그에 걸맞게 꾸며져 있으나, 오국하면 그래이식 하우스일까. 창동이 레스트 하우스는 지금도 열생생생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프로젝트이다. 그의 레스트 하우스 안에서 우리일기이다 앞구리에 손이를 올릴 얹어 머고 졸음을 가린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별 생의 없은 결정에 드레스와 까슬까슬한 건 머리의

그녀는 같을데 내게는 실제도면을 펴고 앉은 모모습 뒤에는 보여주지 않았다. 누가 뭐라든 계속해서 '고래이식 하우스'를 찾아 올리는 그. 나 같은 구경꾼이 동숙객보다 더 많을지라도, 그는, 누구보다 그의 꿈에 집중할지도 몰라.

14시간의 지루한 기차여행 끝에 퐈노이에 도착했다. 큰 호수를 끼고 있는 퐈노이의 구시가지에는 36개의 서로 다른 물건들을 취급했던 길드의 거리들이 그 이름 그대로 남아 있다. 누구 하나 세기를 잊기 시작했던 십 개인 사람들이 제기 앞으로 남아온 세기를 만나며, 36거리를 세기하기가 쉽수이 없는다. 나와 친구도 그 무리 속에 끼어 내 앞으로 밀어지는 세기를 만나 꾀 골랐다. 문득, 어로이 거대한 오늘 같았다. "친구를 사귀거나 헤어지거나 모두 이 거리에서라네."라는 시구처럼, 나도 이 거리에서 친구를 사귀고 헤어졌다. 하나는 남, 딸 기차를 함께 탔던 베트남 청년 형을 만나기도 했는데 만약이 만났다. 우연히 같이 세기를 잊던 사람을 만나 형의 행방을 물으니, 이 시간에 그는 에기를 지난다에 조금만 기다리

시간도, 세월도 저만 보며 혼자 가볼 테다(parks)로 돌아는 고산도시 어귀. 구름과 나란히 나란히.

보라고 했다. 가짓말같이 저 목에서 말이 두리번거리며 나타났다. 이렇게 빠르고 바쁜게 돌아가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그저 놀라웠다. 베트남에 있는 내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내 안에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인 학살피해자의 증언을 읽고, 구체적인 고통이 오롯이 새겨진 그들의 오늘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꼭 오고 싶었던 베트남이었다. 한국식당을 열어보고 나면, 혼자서는 절대감과 증폐고에 대한 생각들과, 저히도 아직도 이나작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불편함 사이에 내가 끌어가야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36가공에서 빙과 이별을 하며 생각했다.

이제, 여행의 끝에 서입다. 내가 왜 그토록 바나고 싶었는지 여행 중간중간, 자꾸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럴 때마다 여기도 거기도 아닌 것 같다고 중얼대면서도 계속 걸었던 것 같다. 결국 나도 내 안을 헤매인 것까? 끝이간다는 것이 그렇듯, 이후 쓸는 시간이어도 계속 끌어가야한다는 것. 그렇다. 나는 그 집 위에서 계속 노래하고, 그 노래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건 또 얼다고, 그것로 끝나고, 그래. ■

생 김이배전

내 소박한 바람이라, 내 앞은 아저은구들과 집 적고 작아도 늘려 살나가 사는 꼬 아 근에 이제 바 이렇게 온지 일나—고양이의 스물 댄스에 이런 생님, 이렇 생이에 다시 이글이 보이기 된 거 같다. 그리고 살짝, 초롱한 동전처기 100원 권없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권리이 없었다면 내 마음은 집 찾고, 은 계산하고, 일어서면 돌진들을 찾느라 엉덩이 되었을 거다.

www.yolimwon.com

성(聖)과 속(俗), 선(善)과 시(惡)의 평행한 줄다리기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것인 나

2002년 현대문학상 · 2003년 이달문학상 수상작 수록

최승호 시집

세상과 삶의 경계에서 안타깝게 피워올린 詩의 꽃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

이성복 시집

치열한 상상력이 빚나는 여동과 무의식, 관능과 광기의 세계

광기의 다이아몬드

김 록 시집

욕서와 공복의 투고장이들에게 바치는 정성의 詩

단한사람

이진명 시집

삶터원

살아나네, 박물관 살아나네

세심에는 누군가의 버선이 벗어지면 그 사람의 발에 맞는 버선본을 떠내 주시 만들어 신었다. 버선본을 남겨 다니던 세모난 주머니는 화선 새 버선이 만들어지던 모습을 상상케 한다.

경기도 화주군에 위치한 여성생활사박물관(http://www.womanlife.or.kr)은 3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있는, 국내 유일의 여성 생활사 전문 박물관이다. 3년 전, 분만 업계가던 이인성 관장이 초도 수집한 유물들을 대하다가 폐교된 당나 분교를 박물관으로 바꾸어놓았다. 70년대 일본 유학 시절, 한 골은 여성이 남고 오래된 유물 있고서 여러나에 물려받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업한 출격을 받았다.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성 것을 좋는 동안 우리 여성들의 역사가 남긴 소중한 물건들은 사라지고 있다.'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한 유물들을 다른 이들,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고 싶었기에 박물관이 세워졌다. 사실은 이것들을 관에 기부하러 했지만, 유물이 분야들에지지 않았던 것이다.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 관람객이 많지 않았고, 박물관은 한 명씩을 해볼 수 있다. 룸멀과 함께 이로운 대한 힐링제를 통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생화의 소리를 내는 다식 연주를 들을 수 있다. 한 쪽에서 음악이 주주를 만드는 동안 저 쪽에선 비공간 살아 여성을 주제로 한 전화 무용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주제는 여성사 박물관의 재탄생을 위한 구성관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과의 공동 운영을 모색 중인 이곳은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심험무대가 될 것 같다.

오는 8월 열리는 '서울세계박물관대회(ICOM)'는 전 문작의 비용을 들여 대회 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적으로, 생각난 사립 박물관들이 시한에 부딪쳐 위관에서 스러져가고 있는 동안 이런 거대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박을 것 없는 소문난 큰 집'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세계박물관대회에 한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한강 줄기 부근에 위치한 박물관에선 여주의 자연에 그다지 소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주제 같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오세요, 그 다음엔 줄 테요.'라고 이르는 것고 있다. if

if에게

여러분 글이 채워진 독자들만의 소장의 도서를 드립니다. 많이 응모하세요.

이프가 이따는 잡로 걸어오다 보니…

"저용 (이프)를 읽게 된 건 당시의 상태한 선우 때문이죠. 반항기였던 본래도 방어용 하게 될 만남을 가졌는데지금은 멀어지니의 친구도 3년 정기구독을 하였다."(). 한번에 다 빠져들기엔 너무 아까워서 아껴 보려 그래하여 한 기사 한 기사 아껴아껴 읽는 책 중 절이 (이프). 등… 사실 "에이나경아라면 벽 장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 과해하여이 같았고 나 하나만 이렇게는 조화롭게 다함께으로 남아들이 세상에 어울이 많은 그런이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나' 였다. 여성속이 손톱 나를 가꾸는 예일도 가지 적 없으므로 에어나경을 하나서,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인생을 계획해나가는 것 나무나 힘들었다. 이런 나를 가장 백일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프가 그런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내가 존중하고 멋져 가이랑이고 생각했던 순간적인 여자의 이미지를 내 판매판에서 나무나 당당하고 자유롭게 표출하였는 시민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사실 여배 하지를 가진 건 나였다. 그러나 주로 공기고 작업고 싶은 당일는 에너지에 힘을 가진 것도 사실으니, 한번 (이프)을 읽고 난 이후로는가장 당당히 말해""…! (이프)가 이끄는 길로 공정에 참여하게 된 것인 것이다. 이제는 나도 당하한 (이프)의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프)는 내 인생의 멋진 동반자가 되어줄 것 같다. 그래서 이곳이 맞는 분구를 멋진 것 처럼 사주 주인공고 행복하다.

당에게 에 당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한 동생자랑에서 에에이 되어보십니다. 좋아합니다. 이프!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서현정 독자님

건생하십니까.

보내주신 (이프)는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도 고맙구요.

소비를 중에서 보낸 편지에서 읽어야 할 지명으로 구려서 비리를 잘 알았는에 많랑 동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에이니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에이니스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없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 가장이 아이들 앞에서 아이어 그런지는 몰라도 아산생님에 한달하는 확이죠.

저 또한 이렇 적에 이상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동참하면 제도 속에서 학대를 받으며 사는 여성을 보아왔습니다. 그 예중에 이유 한번에 에이니경이 아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주신 책 중에 2000년 기술보는 읽힌 구도. 기술보는 읽고 싶는 생입니다. (이프)에 제주었어 소수성에(?)인 좋은 동생 습니다. 다른 일반 잡지는 절에인들이 표소한 40~50년은 되는 동안에 이렇게 30여 명이어 생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런 보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에 에 에 에 에 에~ ^^;;

제가 이렇인데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 들어서 (이프)를 읽다 보면 이해를 돕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은 (에스프리)를 구해서 읽고서 앞이 방향에서 읽고 있습니다. 제무 피플이에서 읽다 보면 하이가 꼭 당겼죠. 꼭. (이프)가 많은 이성들의 소중을 알아이독의 남성들에게! 최근—에일은—에요스트. 이세일스트 분 하는 이성입니다. 건강을 하시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주세. 정말으로 오랫동안 좋아해 주고 싶네요.

- 광주광역시 김상철 독자님

if 봄호를 보고

용지의 말씀은, 이번 주세를 보고, (이프)를 시작 했으려고 했다. 정치에 관련된 일이라든, 공직부의 시간이은 이유로도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성주성도 안 좋았기 때문이라는 가난한 자위 생각이다.

하지만 시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별 수 십 나 늦어 계속 가는것, 때문, 하지만, 조금, 은, 하라고 표현하기할까.

용선에 조성을 맞추어서 그런지, 다른 부문의 기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하부리, 종교에 관심하다고 해도, 군별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번 용선에 여성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된다고 하네. 84명보다 부해는 많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해서도 좋고, 동시간에도 좋고, 다 좋은데, 한나라당이 너무 많을 많이 뽑기는 불리한—.

나는 잘 모르겠다.

모든 잘 통을 알아버리고 신선하나 되어버릴까.

- 오산화이트도시03 최기원의 많에 큰 글

Behind if

새로운 패키지임

여주인이 새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세상에 얽히는 욕계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위에는 자신에 대한 정확성을 찾지 못해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주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가공에 있고 있는 우리의 문구들에게 알아봐란 여성의 위치를 찾아주고자 하는 동업한다 이들으로 이곳에 온 지도 한참이 지났다.

그동안 내가 개별적으로 경험했던 결정은 모두라고 시작한 이후 생활, 삶을 통해 만들어지 않는 여성들의 새로운 변신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곳에 온 내가 사랑스럽기만 하다.

감수여성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 보는 순을 그리고 기본조차도 갖지 못했음에 여성을 표현하는 여러 문제점 (비즈)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 차미미

5월의 참견

안녕하세요에이 페스티벌 행사를 이끈느라 조두들 거적입고, 예쁜에 여럽보 여성이 참자 이루었은 예방에입 아니어다.

주말에는 방자 보고 안에 오고에 내용에도 예쁜은 기회를 가진 다. 조직으로 같은 업업단결에 최선퍼무, 남자들에 우이호은 여러입도 능성은 여성이은 업력을 이루고 있었다.

눈으로 보이는 여성다움이 내 이송속에서도, 이성이용으로 업능에 항상 기쁘고 힘이에 감사은 일상이 없기를~

업무에서의 존업 여성을 발휘하려고 생각나서 싶기 위해 안에 동업고.

한을 조금 에서 받은 편한 생업을 중심에는 방법들로 존업을 지시에 진업에 내리었다.

아무 생각 없이~

발표일! 한주이 시작하고, 생리도 하루 거이아니라 업력을 받아서, 단행본이 너무고.

6월 2일(토) 여성 독업포가 나오고 나면, 새들에 시작된 2WAY 일반기가 없나에 하다.

행복해은 내 오근에, 행복 가득한 이르고에서 하면기업 업으시라!!!

- 업업 에이

무한정신으로 살으오

작성로다.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업으로, 무섭다.

세 작세로을 만들어고 했으니 후회하업, 난 중과 많은 하는 책스 업이 많다.

세 이업에 이성이놓고 후회한 하느이~.

그래도, 이번에는 공업한 내주이이의 프로페이션한 교업하기 위시 업을 나이었다~업업단에 뿌업.

이업 내내 업으로 없이는 일을 하지 못했다.

신무시간에 세운 플랜가리고, 집 갔다고 또 소주 업지고.

어느 날은 새업라하기 이시이가 제주에 등업 하다는 업으로이 보이는 결정하기 가려웠다.

일주업에 다섯 날을 술 마시며

생업선이기 싫다~고 한 선배에게 이메이했다니

나가 세 생업선이야가 하내, 난 주생업인으로 업이다.

이지도 나 업계업을 변업하하니고 해이 변을 업했다.

생업은 아닐 수 없는 것이 업으로은 없는 게 아니다.

우선에 퍼워, 우생업인으로 업아 보면 변화하는 세업산이라로이.

출산 이업업에 시은 우선에 생업을 업이해했지.

선후에 업일고 하이에이 용변이.

내가 인업에 플레이할 무업이 무에 그리 중이 업이

난 (비즈)에이 이이고 있을까, 업다라~.

남업 업에다 업을 나이니.

생업이 그렇게 없고 확업 수가 없다라~.

이 세상은 내이 업이하기에 너무 많은 것 아니지?

그래서 나는~

업교하스트 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

- 김업

여성사회 떡메이기 한을 친다

세업 세업 내 이업으에이 세업에 에이나는 여적이업.

정그이은 하적이업, 업~ ~_~

(은 이지도 업에 이리에 하나다는 업.)

우선에 업이업 내이니_ 이난 조보나는 업으업이 업이나보이_

나이 은세업 나이고 빠르이게 느끼게 되었다.

보나의 업에이 고개 두 수이어 조업했고 이이 업 변이었이기.

독 이었(이)을 아세요?

사이도 재판한다는 게개로 이번에 기이 업업 하나 했었다.

변업무에이 올이 눈이 많이은 세업 눈에 쉽고 업다.

아~ 그래도 나 업업이 했다.

올에 근이에 왔고 어지도 올에 근거고 이나 업는에 이업이었 을 에이업에 업한 후에이나을 업아서요~.

최아 주변이나 올에 업이안에서 이승업자이이 아니라는 에이업은 해 업군~.

"어~투시 (이)을 아세요? 올에이업으로"이이을 몇 번~.

내 근이에이 이업하나 에기을 나이이 낯선 어이업 중 몇은 내가 "도을 아업니까?"이 이이인 줄 알고 순간업군 도업하기도 에이요.

-_-;; 아~ 역시 (이)도는 업교했던 게아~.

(이)은 업어와 업하에 사업업과 도 업고 에도 왔고 중주고 노에이고~업기이 변업은 생요도 해업다.

세에 나 따가 외려고 이이는 거야?

- 에이

5월의 진욕서

이에 업을 에도 에도 없이 없나!

안이에 안에업에 (이)은 업이에 모두 이 업에 업이난 업이다.

이업이 생각에보면 난 중업 이도 업을 한 게 업업입다.

이이에 한은이 중요 하주을 이업하에 업으로 업이기입 한업에 이번 중도 이을도 업이 지에이업다. ㅠㅠㅠ

- 에나

정기독자추천제도는 계속됩니다.

업기독자가 새로운 업기독자을 추천하면
이에에 업이 소업이 업업을 드립니다.

1명	업독업업조이에업도 1개
2명	업독업업도 1개 & 이은 업업에 1개
3~4명	이은 1년 업기구독도
5명	이은 1년 업기구독도이은 업업에 1개
6~9명	이은 2년 업기구독도
10명 이상	이은 3년 업기구독도 또는 5000 원 상당의 업품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32.0931-6 팩스 02.332.5165
- 책 속의 엽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기구독요금

- 국내정기구독 1년 48,000원 | 2년 90,000원

정기구독 혜택

- 본사에서 발간하는 단행본을 구입하실 때 할인혜택이 있으며, 본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특전이 있습니다.
- 구독기간 중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무료로 본사가 우송합니다.

배달사고 · 주소변경

- 이사, 출장, 휴학 등 배달사고로 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연락해주십시오.
- 배달사고 및 주소변경에 관한 문의전화는 02.332.5124(김선미)입니다.

구독료 내시는 법

- 구독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해주십시오.
- 지로영수증에 신청자 성명을 반드시 기입해주십시오.
- 서점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로 직접 연락주십시오.
- 지로번호 : 3004723
- 온라인 입금 : 예금주 (주)도서출판 이프
  조흥 562-02-002960 / 국민 008-01-0057-743
  우리 146-20097-13-101 / 농협 096-01-009111
  신한 356-03-81956 / 기업 023-067307-04-019

IF 를 만든 사람들

- 발행 (주)도서출판 이프
- 발행인 염종순 • 편집인 김선미수 • 광고이사 차순욱 • 편집장 정세이정 • 아트디렉터 최은정
- 편집위원 김수진 김혜경 김혜정 류숙열 박미라 박혜숙 조한욱회 유혜자나 이수인 이혜정 황소교회 전혁린
- 기획 고연 • 제작기획 박미숙 선용기획 선임형정 김선정 송원회 최문희
- 제작이진기획 정진이 선인 • 고객교정 박윤서
- 인터넷팀장 조하선정 • 출판팀 박혜리 • 정영사업팀장 윤 김영희 • 이혜팀장 최정순 • 마케팅팀 김진이 한정은
- 일러스트레이터 남나 모난 소라 임소영 • 디자이너 최미숙
- 주문 전화 02.332.5124(김선미) • 인쇄소 한일문화사
- 등록번호 바 - 02099
- 주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2-13 한스빌딩 2층 (우편번호 121-840)
- 전화 02.332.5124 • 팩스 02.332.5165 • 이프 홈페이지 www.jibiplus.com • 이메일 주소 forumif@chol.com
- 독자 동호회 dasm.net의 카페 '이프에서야' • 안녕하소리다 페스티벌 홈페이지 www.antonsokmo.com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2-13 한스빌 2층

if 편집부

1 2 1 - 8 4 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2-13 한스빌 2층

if (이프에서) 담당자앞

1 2 1 - 8 4 0